검은 옷 부인의 향수

Le Parfum de la dame en noir

가스통 르루 (Gaston Leroux) (1868–1927)

1908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3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가스통 르루 (Gaston Leroux), "Le Parfum de la dame en noir" (L'Illustration 1908)

저자

가스통 르루 (Gaston Leroux) (1868–1927)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 Parfum de la dame en noir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하되 추리의 긴장과 단서를 정확히 보존했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와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결혼식은 1895년 4월 6일, 파리 생니콜라 뒤 샤르도네 교당에서 극히 가까운 이들만 모인 가운데 지극히 사적으로 치러졌다. 내가 이전 책에 기록했던 일들로부터 두 해가 조금 넘게 흘렀다. 그 일들은 너무도 파장을 일으켰기에, 이처럼 짧은 시간으로는 그 유명한 '노란 방의 미스터리'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수 없었다고 단언해도 무모하지 않다.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모든 이의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만약 결혼식이 비공개로 치러지지 않았다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목격하려는 군중이 작은 교회당을 가득 메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의식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 학교 지구에서 떨어진 이 교구였기에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초대를 받은 이는 다르자크 씨와 스탕제르송 교수 몇몇의 입이 무거운 친구들뿐이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나는 일찍 교회에 도착해, 당연히 조제프 룰타비유를 찾아보았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약간의 실망을 느꼈지만, 그가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를 기다리며 나는 앙드레 헤스와 앙리 로베르 근처로 다가갔다. 그들은 생샤를르 작은 예배당의 고요함과 경건함 속에서, 곧 있을 결혼식이 다시금 떠올리게 해준 베르사유 재판의 흥미로운 일들을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았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반쯤 들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세상에! 샤르도네의 생니콜라 성당은 참으로 비참한 곳이다. 노후하고 균열이 갔으며, 금이 가고, 지저분하다. 그 지저분함은 세월의 무게

를 담은 장엄한 때가 아니라, 이 성당이 끼어 있는 생빅토르와 베르나르뎅 지구 특유의 추하고 먼지 많은 더러움이다. 바깥은 어둡고, 안은 더욱 음울하다.

하늘은 이 성스러운 곳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멀리 있는 듯하다. 창문의 수세기 된 때를 뚫고 신도들에게 도달하기까지 애를 먹으며, 아까운 빛만 내려보낸다.

르낭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샤르도네의 생니콜라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라. 예수님의 전기를 쓴 저자가 왜 죽고 싶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옆의 뒤팡루프 신부가 운영하던 소신학교에 갇혀 살았으며, 이곳에 와서 기도하러 나올 때만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 장례와 모든 위령 의식에 적합하게 고안된 듯한 분위기 속에서, 로베르 다르자크와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결혼식이 치러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큰 슬픔을 느꼈고, 비관적인 예감을 품게 되었다.

내 옆에서 앙리 로베르와 앙드레 헤스가 여전히 수군거렸다. 앙리 로베르는 헤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베르사유 재판에서 다행스러운 결말이 났음에도, 앙리 로베르는 로베르 다르자크와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운명을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고. 그가 비로소 안도감을 느낀 것은, 그들 가혹한 적인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죽었다는 공식 확인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독자들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소르본나의 교수인 다르자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지 몇 달 뒤, 도르도뉴호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도르도뉴호는 르아브르에서 뉴욕을 오가는 대서양 항로에 취역한 여객선이었다.

안개가 낀 밤, 뉴펀들랜드 앞바다의 모래톱 근처에서였다. 도르도뉴호는 세 개의 돛을 단 세 마스트 선에 충돌했다. 그 선체의 선수가 도르도뉴호의 기계실로 파고들었던 것이다. 충돌선인 세 마스트 선은 표류해 사라졌지만, 여객선은 단 열 분 만에 수직으로 가라앉았다.

다행히도 선상 갑판에 객실이 있던 승객 약 서른 명만이 구명보트에 뛰어탈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이튿날 세인트존으로 돌아오는 어선에 구조되었다. 그 뒤 며칠 동안 대서양은 수백 구의 시신을 밀어냈고, 그 중에서 라르상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망자의 의복 속에 꼼꼼히 바느질해 숨겨져 있던 문서들은, 이번에는 라르상이 살아있었음을 입증했다. 마틸드 스탕제르송은 드디어 그 기괴한 남편에게서 해방되었다. 그 남편은 그녀가 미국 법률의 관대함을 틈타, 너무도 쉽게 믿었던 젊은 시절의 경솔한 순간에 비밀리에 스스로 맺어진 상대였다.

그 끔찍한 강도는 진명이 발마이어였다. 그는 사법 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장 루셀'이라는 가명으로 마틸드와 결혼했다. 이제 그는 그녀와, 오랫동안 침묵하며 그녀를 영웅적으로 사랑해 온 남자의 사이에 범죄자로서 가로놓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노란 방의 미스터리』에서 이 중대한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서술했다. 이는 중죄 재판소 기록상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였다. 만약 열여덟 살의 작은 기자 조제프 룰타비유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는 유명 안전국 요원 프레데리크 라르상의 정체가 바로 발마이어 자신임을 밝혀낸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 비참한 자의 우연한, 그리고 우리가 천운이라 부를 만한 죽음은, 수많은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는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빠른 회복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녀의 정신은 글랑디에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공포들로 인해 크게 흔들렸던 바였다.

"보십시오, 친애하는 친구여." 앙리 로베르가 말했다. 앙드레 헤스의 눈은 불안하게 교회 안을 두리번거렸다. "보십시오, 인생에서는 확실히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스탕제르송 씨의 불행조차도요."

"하지만 당신은 왜 계속 뒤를 돌아보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 누군가를 기다리시나요?"

"네." 앙드레 헤스가 대답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앙리-로베르 씨는 성역 같은 이곳 분위기 때문에 웃음을 참으며 웃었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헤스 씨의 생각에 거의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에게 닥칠 끔찍한 사건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 내가 이후 알게 된 모든 것을 의식에서 배제해 본다면——물론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나는 정직하게 노력할 것이다. 진실이 우리에게 하나씩 드러나는 대로만 그것을 드러내 보이겠다——그때의 내 마음을 잘 기억한다. 라르상을 생각할 때 나를 사로잡았던 그 묘한 동요를 말이다.

"자, 생클레르!" 앙리-로베르 씨가 내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말했다. "보시잖소, 헤스 씨가 장난하시는 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때 나는 앙드레 헤스처럼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발마이어라는 이름을 쓰던 시절, 라르상이 죽었다는 소문이 수없이 들렸으니, 라르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자, 룰타비유가 왔군." 앙리 로베르가 말했다. "당신보다 훨씬 마음이 놓여 있을 거야."

"오, 오! 얼굴이 많이 창백하네." 앙드레 헤스가 지적했다.

젊은 기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다소 어딘가 다른 데 신경 쓴 듯한 표정으로 우리와 악수를 나눴다.

"안녕, 생클레르. 안녕, 여러분. 늦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곧장 자리를 피해 한구석으로 가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도대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얼굴이 정말로 많이 창백해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기도했다.

나는 룰타비유가 신앙심이 깊은 줄은 몰랐다. 그의 열렬한 기도는 나를 놀라게 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기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슬픔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슬픔일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결혼식이 성사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는 행복해야 하지 않았을까? 로베르 다르자크와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행복은 그의 손끝에서 피어난 것이 아니던가.

아니, 어쩌면 이 젊은이가 흘리는 눈물은 행복의 눈물인지도 모른다. 그는 일어서서 기둥 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마틸드 스탕제르송이 아버지의 팔을 끼고 교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그들을 뒤따르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제 모습을 잃어버린 듯했다. 글랑디에의 비극이 이 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스쳐 지나갔던가!

하지만 놀랍게도 마틸드 스탕제르송은 더 아름다워 보였다. 확실히, 그녀는 더 이상 저 웅장한 존재, 살아있는 대리석, 고대의 신, 혹은 공식적인 행사마다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참석해야 했던 제3공화국의 축제장에서 감탄과 경외의 속삭임을 자아냈던 그 차갑고 이교도적인 미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운명은 그녀가 어릴 적 저지른 실수를 너무 늦게 속죄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일시적인 절망과 광기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것은 돌덩어리 같은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 가면 뒤에는 가장 섬세하고 가장 다정한 영혼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알 수 없던 영혼이, 그날 그녀의 얼굴 순백의 타원형 윤곽에서, 행복한 슬픔으로 가득 찬 눈에서,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읽히는 상아처럼 매끄러운 이마에서 가장 달콤하고 매혹적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에 관해서는, 부끄럽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녀의 드레스 색깔조차 말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있다. 그녀가 우리 가운데 자신이 찾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녀의 시선이 갑자기 이상한 표정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완전히 평정을 되찾고,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드디어 룰타비유가 기둥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서였다.

그녀는 룰타비유에게 미소 지었고, 이어 우리 모두에게도 미소 지었다.

"저 여자는 또다시 미친 눈매를 하고 있군!"

나는 그 끔찍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급히 고개를 돌렸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그의 자비로 소르본느의 실험실 보조자로 임명해 준 변변찮은 작자였다. 브리뇰이라고 불렀다. 신랑의 먼 사촌쯤 되는 사이였다.

다르자크 씨의 가족은 남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 외의 친척을 알지 못했다. 다르자크 씨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고, 형제자매도 없었다. 그는 고향과의 모든 관계를 끊은 듯 보였다. 그곳에서 그가 가져온 것은 오직 성공에 대한 간절한 갈망, 남다른 작업 능력, 견고한 지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애정과 헌신에 대한 욕구뿐이었다. 그 욕구는 스탕제르송 교수와 그의 딸 곁에서 만족할 기회를 간절히 찾아냈다.

또한 고향인 프로방스에서 그는 부드러운 사투리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소르본느의 학생들을 미소 짓게 했지만, 곧 그들은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젊은 스승의 강의가 지닌 필연적인 건조함을 조금은 누그러뜨려 주는, 청량하고도 절제된 음악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유명했다.

이른 봄날, 지금으로부터 약 일 년 전의 일이었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그들에게 브리뇰을 소개했다. 브리뇰은 엑스에서 물리 실험 조교로 일하다가, 어떤 징계 위반으로 갑자기 쫓겨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제때에 다르자크 씨와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파리로 기차를 타고 달려가,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약혼자였던 다르자크의 마음을 부드럽게 설득했다. 다르자크는 그를 불쌍히 여겨, 브리뇰을 자신의 연구 작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로베르 다르자크의 건강은 전혀 건전하지 못했다. 글랑디에에서와 법정에서 겪었던 거대한 충격이 그의 건강을 크게 해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틸드의 완치는 이제 확실해졌고, 곧 있을 그들의 결혼이 다르자크 교수의 정신 상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그 정신적 안정이 다시 그의 신체 건강에도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반대의 사실을 목격했다. 다르자크 씨가 브리뇰을 보조로 들인 그날부터, 다르자크 씨의 쇠약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다르자크 씨 말로는 브리뇰의 협력이 자신에게 귀중한 위안이 되리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우리는 또한 브리뇰이 운이 없음을 깨달았다. 위험해 보이지 않는 실험 과정에서 연이어 불운한 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고는 겔서 관이 갑자기 터진 것이었다. 파편이 다르자크 씨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다친 것은 브리뇰이었다. 그는 손에 아직도 몇몇 흉터를 지니고 있었다.

두 번째 사고는 더 심각할 뻔했다. 작은 등유 램프가 어이없이 폭발한 것이었다. 그때 다르자크 씨는 바로 그 램프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불꽃이 그의 얼굴을 태울 뻔했다. 다행히 그는 화상을 입지 않았지

만, 불꽃이 그의 눈썹을 태웠다. 그 결과 그는 잠시 동안 시력 장애를 겪었다. 그래서 그는 환한 햇빛을 제대로 견디기 어렵게 되었다.

글랑디에의 미스터리 이후, 나는 어느 때보다도 민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들조차도 나는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마지막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 다르자크 씨를 소르본느에서 데려오기 위해 그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친구를 직접 약국으로 데려갔고, 이어 의사에게로 향했다. 우리를 따라오고 싶어 하는 브리뇰에게, 나는 단호하게 제자리를 지키라고 일렀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길을 가는 내내 다르자크 씨는 물었다. "왜 저 불쌍한 브리뇰을 그렇게 몰아세웠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저 녀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평소에도 그렇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그랬죠. 사고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르자크 씨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나는 마땅한 변명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의사가 다르자크 씨에게 "당신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소. 다행히도 그렇게 가볍게 넘어간 것은 기적에 가깝소"라고 말하자, 그의 웃음은 금세 그쳤다.

브리뇰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분명히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후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 지나치게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르자크 씨의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겨울이 시작되자 다르자크 씨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간청했고, 우리 모두는 그에게 휴가를 내고 남부로 가서 쉬어가라고 권했다. 의사들은 생-레모를 권했다. 그는 그곳으로 떠났고, 여드레 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곳에 도착한 후부터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아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그가 편지에서 말했다. "파리를 떠날 때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이 편지는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내 생각을 룰타비유에게 털어놓았다. 룰타비유는 나와 함께 의아해했다. 다르자크 씨가 브리뇰 곁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나빴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나았는지 말이다.

이 인상은 나에게 특히나 강렬했다. 만약 브리뇰이 자리를 비운다면, 나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그가 파리를 떠났다면 그를 따라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스탕제르송 부부는 그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었다.

다르자크 씨의 안부 묻는다는 구실로, 그는 항상 스탕제르송 집안에 숨어 있었다. 그는 한 번 스탕제르송을 만날 수 있었지만, 나는 다르자

크 씨의 약혼녀에게 물리학 조교의 모습을 극도로 나쁘게 묘사했다. 그 결과 나는 그녀가 그를 영원히 질색하게 만들었고,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다르자크 씨는 생레모에서 사 달을 머물렀다. 그리고 거의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다만 그의 눈은 여전히 약해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가장 각별히 조심해야만 했다.

룰타비유와 나는 브리뇰을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곧 결혼식이 치러질 것이라는 소식과, 다르자크 씨가 아내를 데리고 파리, 그리고 브리뇰로부터 멀리 떨어진 긴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만족했다.

생레모에서 돌아온 다르자크 씨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 그 불쌍한 브리뇰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소? 그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소?"

"아니요, 전혀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나를 조롱하듯, 몇 가지 프로방스식 농담을 던졌다. 그는 사건이 허락하는 기분이 좋을 때면 이런 농담을 즐겨 했고, 남부 지방에서의 생활이 그의 억양에 원래의 아름다운 색채를 되찾아 준 이후로, 그 농담들은 그의 입에서 한층 새롭고 풍부한 맛을 띠게 되었다.

그는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행복을 진정으로 이해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 귀환과 결혼 사이, 우리가 그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

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행복을 실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은, 그가 완전히 변모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던 그 교회 문턱뿐이었다.

그는 이해하기 쉬운 자부심에 차, 살짝 굽었던 등을 쭉 펴고 섰다. 행복이 그를 더 키 크고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신이 나셨겠군, 사장님은!" 브리뇰이 비웃듯 말했다.

나는 그를 싫어하며 그 사람으로부터 물러섰다. 그리고 가엾은 스탕제르송 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서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는 듯, 종내 내내 팔짱을 낀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의식이 돌아오게 하려면 의식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그의 어깨를 두드려 깨워야 했다.

우리가 제의실로 들어섰을 때, 앙드레 헤스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군! 내가 숨을 쉬는구나…"

"왜 숨을 쉬지 못하셨습니까, 친구여?" 앙리-로베르 씨가 물었다.

그러자 앙드레 헤스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은 자의 도착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어쩌겠습니까!" 그는 조롱하는 동료에게 대답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정말로 죽었다는 생각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제의실에 모여 있었다. 열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였다. 증인들은 등록부에 서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혼부부에게 친절한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 제의실은 교회당보다 훨씬 어두웠다. 만약 이 공간이 작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때쯤 룰타비유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둠 탓으로 돌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여기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마틸드가 이미 두 번이나 그를 찾았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나에게 그를 찾아오라고 부탁했고, 나는 그 말대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데려오지 못한 채 혼자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하군요," 다르자크 씨가 말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곳을 다 찾아보셨나요? 어딘가 구석에 숨어서 생각에 잠겨 있을 겁니다."

"저는 온갖 곳을 뒤지고 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르자크 씨는 내 말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교회 주변을 일일이 둘러보기로 했다. 그 덕분에 그는 나보다 행운을 거두었다. 교회 현관 아래서 양철 컵을 들고 앉아 있던 한 거지가 그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방금 몇 분 전, 룰타비유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가 교회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멀리 떠났소."

이 소식을 아내에게 전했을 때, 마틸드 스탕제르송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근심에 잠긴 듯했다. 그녀는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생클레르 씨,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두 시간 뒤 리옹 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우리 작은 친구를 찾아서 데려와 주시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나를 믿으세요." 내가 말했다.

나는 곧장 룰타비유를 쫓아 나섰다. 하지만 나는 빈손으로 리옹 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집도, 신문사도, 그리고 직업상 그 시간대에 자주 들르던 바로 카페에서도 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동료들 중에도 그를 만날 만한 곳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역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의 내 처지는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다르자크 씨는 깊은 실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행객들의 짐을 챙기는 일로 바빴다. 멘톤의 란스 가로 가던 스탕제르송 교수는 신혼부부를 디종까지 배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는 쿨로와 몽세니 고개를 경유해 계속 여행을 이어갔다.

다르자크 씨는 이 좋지 않은 소식을 그의 아내에게 알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룰타비유가 기차 출발 전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여 그 임무를 수행했다.

이 말을 처음 듣자마자 마틸드는 조용히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요!… 다 끝났어요!… 그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객차에 올라탔다.

그때였다. 견디기 힘든 브리뇰이 신혼부인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자, 다시 한 번 안드레 헤스 경에게 입버릇처럼 내뱉었다.

"보세요! 보세요! … 제가 말했어요, 그녀가 여전히 미친 눈빛을 하고 있다고요! … 아, 로베르가 잘못했군요. … 기다렸어야 했는데!"

안드레 헤스 경은 브리뇰의 그 말에 단호하게 막아섰다. 그야말로 마땅한 대접이었다.

나는 지금도 브리뇰이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 순간, 그가 내게 준 혐오감도 생생하다.

그때까지 나는 이미 브리뇰이 악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질투심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친척인 로베르가 자신에게 하찮은 자리에 앉혀준 은혜를 결코 용서하지 못했다.

브리뇰의 생김새는 늘 어둡고 비참해 보였다. 얼굴빛은 누렇게 질렸고, 얼굴형은 길고 처져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모든 것이 길었다.

키가 크고, 팔이 길며, 다리가 길고, 머리도 길었다.

하지만 그 긴 몸매에도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발과 손이었다. 그의 팔다리는 오히려 작고, 거의 우아할 정도였다.

젊은 변호사 안드레 헤스 경의 날카로운 지적에 브리뇰은 즉각적인 원한을 품었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기차역을 떠났다.

적어도 나는 그가 기차역을 떠나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후로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차 출발까지 아직 3분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룰타비유의 도착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승강장을 내려다보며, 늦은 여행객들의 급한 군중 속에서 우리 젊은 친구의 친근한 얼굴이 나타나기를 바랐다.

그가 평소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밀치며 지나갔고, 자신의 지나가는 자리에 따라오는 항의와 비명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문들이 닫히고 있었다. 문들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직원들의 짧은 안내가 이어졌다. "차로 들어가십시오, 선생님들! 차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몇 번의 달음박질. 출발을 명령하는 날카로운 휘슬 소리. 그리고 기관차의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룰타비유는 없었다. 우리는 너무 슬펐고, 너무 놀랐다. 우리는 승강장 그대로 서서 생클레르 씨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에게 좋은 여행을 기원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다.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은 승강장을 길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기차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할 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출발하기 전에 그녀의 어린 친구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 너머로 내게 봉투를 건넸다.

"그를 위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얼굴에 순식간에 엄습한 공포로 가득 차며, 그리고 내가 브리뇰의 불길한 추측을 떠올리게 할 만큼 기이한 어조로 덧붙였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아니, 영영 작별입니다!"

역에서 혼자 돌아오는 길이었다. 문득 나를 덮친 이상한 우울함이 놀라웠다. 정확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은 분명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베르사유 재판 이후, 그 격변적인 전개에 내가 깊게 관여했던 일로 인해, 나는 스탕제르송 교수와 그의 딸 마틸드, 그리고 로베르 다르자크와 완전히 우정이 깊어졌다. 모든 사람이 만족해 보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나는 특별히 행복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어째서일까. 젊은 기자 조제프 룰타비유가 갑자기 모습을 감춘 것이 이런 무력감의 한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스탕제르송 가와 다르자크 씨는 룰타비유를 구원자처럼 대했다.

특히 마틸드가 정신적 혼란으로 몇 달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요양원에서 나온 이후부터였다. 명망 높은 교수의 딸은, 자신과 사랑하는 모든 이가 필연적으로 파멸했을 그 비극에서 룰타비유가 어떤 기

적 같은 역할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이성을 다해, 룰타비유가 기적의 작은 영웅으로 등장했던 재판의 속기록을 읽은 이후부터였다.

그때부터 마틸드는 내 친구를 거의 모성적인 관심으로 감싸 안았다. 그가 관심 있어 하는 모든 것에 그녀는 관심을 보였고, 그의 고백을 이끌어내려 했다. 그녀는 룰타비유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어쩌면 그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우리가 모두 알지 못했던, 그리고 그 젊은이가 야생의 자존심처럼 계속 침묵해 온 그의 기원에 대해, 은밀하지만 끈질긴 호기심을 보였다.

가엾은 여인이 보여주는 다정한 우정에 깊이 감동받았음에도, 룰타비유는 여전히 극도로 신중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감동적인 예의를 갖추려 했는데, 이는 내가 알던 그 충동적이고, 활달하며, 호불호가 뚜렷했던 소년과는 사뭇 달랐다.

나는 그 점을 여러 번 지적해 보았지만, 그는 항상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하는 사람, 운명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누구를 위해든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헌신적인 감정을 과시하곤 했다.

그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을 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는 내 앞에서 스탕제르송 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며 기뻐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글랑디에 저택을 버리고, 마

른 강변의 쉐네비에르에 작은 별장을 임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한 휴가에 대한 기대에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드러냈지만, 정작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곤 했다.

그때면 나는 그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그는 생미셸 대로와 뮈슬뢰프랭스 거리 모퉁이에 있는 작은 방에 남아 있었다.

나는 룰타비유가 스탕제르송 부인에게 끼치는 그 모든 괴로움 때문에 그에게 화가 나 있었다.

어느 일요일, 스탕제르송 부인은 내 친구의 태도에 격분했다. 그녀는 나와 함께 그의 은신처인 라탱 지구로 그를 찾아갈 결심을 했다.

우리가 그의 집 문턱에 닿았을 때, 나는 그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룰타비유가 힘차게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책상 앞에 앉아 일하던 룰타비유는 우리를 보고 일어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너무도 창백해져서, 그가 쓰러질 것 같았다.

"세상에!" 마틸드 스탕제르송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그녀가 그가 기대고 있던 책상에 닿기도 전에, 그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모두 가리기 위해 마로퀸 가죽 천을 덮어씌웠다.

물론 마틸드는 그 움직임을 보았다. 그녀는 놀라 멈춰 섰다.

"저희가 방해가 된 건가요?" 그녀는 부드러운 책망조의 어조로 물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일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걸작이에요. 다섯 막으로 된 연극인데, 결말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가 미소 지었다. 곧이어 그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고, 자신의 고독을 깨뜨러 와준 우리에게 감사하며 수없이 재미있는 농담을 쏟아냈다. 그는 강하게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우리는 세 명 모두 라틴 지구에 있는 '프와요' 식당으로 향했다. 정말로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룰타비유는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디저트 시간에 우리 곁에 합류하도록 했다. 그 시절 다르자크 씨는 아직 건강이 나쁘지 않았고, 놀라운 인물 브르니요르는 아직 파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신나게 즐거워했다. 고요한 룩상부르 공원의 그 여름 밤은 너무도 아름답고 온화했다.

출발하기 전, 룰타비유는 스탕제르송 경에게 가끔 보였던 기이한 태도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본래 성격이 매우 까다롭다고 자백했다.

마틸드가 그를 포옹했고, 로베르 다르자크도 그를 안았다.

그 광경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내가 그를 문까지 모셔가는 동안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별하는 순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내 손을 쥐었다.

참으로 묘한 소년이었다!

아, 내가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시절 나는 그를 때때로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했음을 후회한다.

그때 나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머릿속을 맴도는 불길한 예감들이 나를 공격했지만, 나는 애써 그것들을 떨쳐내려 했다. 나는 리옹 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난 이 년 동안 룰타비유가 보여준 수없이 많은 기묘한 행동과 변덕,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만큼의 고집을 되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마주한 일을 미리 예측하게 하거나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룰타비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생미셸 대로에 있는 그의 호텔로 향했다. 만약 거기도 그가 없는 곳이라면, 적어도 다르자크 씨의 편지는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호텔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짐을 들고 있는 내 하인을 그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청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룰타비유 씨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사실 그는, 내가 당연히 내 집만 빼고 사방을 찾아 헤매는 동안, 내 집으로 향했다. 리볼리 거리 내 집에서였다. 하인을 시켜 내 방으로 안내받았다. 하인이 가방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그 가방에 필요한 모든

옷을 채웠다. 정직한 남자가 나흘이나 닷새간 여행할 때 필요한 옷들이다. 그는 하인에게 가방을 들고 불미슈(생미셸 대로)에 있는 그의 호텔까지 가라고 명령했다. 한 시간 뒤였다.

나는 친구의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밤가방에 세면도구와 속옷, 잠옷을 차분히 쌓고 있었다. 그가 이 일을 끝낼 때까지, 나는 룰타비유에게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서도 강박적이었다. 그의 자원은 적었지만, 그는 매우 단정하게 살고자 했다. 그는 보헤미안적인 것과 가까이든 멀리든 관련된 모든 것을 혐오했다.

그가 마침내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부활절 휴가를 가자." 내가 자유롭고, 그의 신문 '레포크'가 그에게 사흘의 휴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닷가"에서 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두세 주 동안 우리를 겨울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끔찍한 봄날에, 대서양이나 만슈를 바라보자는 그의 제안이 너무 어리석어 보였다.

그는 나의 침묵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내 가방을, 다른 손으로 그의 가방을 들고, 나를 계단으로 밀어냈다. 그는 곧 우리를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차에 태웠다.

삼십 분 후, 우리는 북부 철도 1등석 객실에 있었다. 열차는 아미앵을 거쳐 트레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크레유 역에 들어설 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왜 저에게 주신 편지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르자크 부인이 떠날 때 자신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해 큰 아쉬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편지로 전할 것임을 이미 꿰뚫어본 눈치였다. 그 정도 추리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쓴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 무반응이 오히려 내 화를 더 돋웠다.

마침내 나는 그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편지를 받아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코끝으로 은은한 향기를 맡았다.

나는 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러자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표정을 굳혔다. 그 거친 표정 뒤로는 압도적인 감정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마를 창문에 기대고, 밖의 풍경을 깊이 연구하듯 응시하며 자신의 마음을 가누려 했다.

"그래, 그건 읽지 않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여기서는 안 읽어요!… 하지만 저기 가서요!…"

우리는 밤중, 정확히는 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트레포르에 도착했다. 끝없이 길게 느껴진 여섯 시간의 여행 끝에, 그리고 온통 비바람이 몰아치는 끔찍한 날씨에 말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를 얼어붙게 했고, 텅 빈 부두를 쓸어갔다. 우리는 한 명의 세관 직원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는 코트와 후드를 뒤집어쓰고 강가의 교각 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물론 차 한 대도 없었다. 가스등 몇 개가 유리창 안에서 떨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빛은 우리 발밑에 고인 큰 물웅덩이에 비쳐, 우리는 그 속에서 물웅덩이를 헤치며 걸었다. 동시에 우리는 돌풍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먼 곳에서 트레포르 여자의 나무 신발이 울퉁불퉁한 돌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앞항의 깊은 검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것은, 심연에서 올라오는 짠 냉기가 위험을 알려주었고,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젖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룰타비유 뒤에서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는 그 장소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바닷물에 얼굴을 맞으며 비틀거리며, 겨울철에 해변에 문을 여는 유일한 호텔 정문에 도착했다.

룰타비유는 곧바로 저녁 식사와 난롯불을 청했다. 우리는 배가 고팠고, 몸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에이, 도대체 어쨌다는 거요? 우리 여기서 무얼 찾으러 왔다는 거지? 우리 몸을 위협하는 류머티즘과 폐렴 말고는 말이오.”

당시 룰타비유는 기침을 하고 있었으며, 몸을 데울 수가 없었다.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검은 옷 부인의 향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문장은 나를 너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는 바다 바람이 여전히 울부짖었다. 해변으로 거대한 하소연을 밀어내다가는, 갑자기 작은 골목길로 들이닥쳤다. 마치 복도처럼 말이죠.

옆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곳은 내 친구의 방이었다. 나는 일어나 그의 문을 밀어 열었다.

추위도, 바람도 아랑곳없이 그는 창문을 열어두었다. 나는 그가 명확하게 그림자에게 키스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밤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문을 닫고 조용히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겁에 질린 룰타비유가 나를 깨웠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고, 그는 나에게 한 통의 전보를 건넸다. 그 전보

는 부르크로부터 왔으며, 룰타비유가 직접 지시한 대로 파리에서 다시 보내진 것이었다. 전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체 없이 당장 오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방 여행을 포기하고, 스탕제르송 씨를 멘톤의 란스 가, 로셰 루즈에서 만나러 갑니다. 이 전보 내용은 우리 둘 사이에서만 비밀로 해 주십시오. 누구도 놀라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에게서는 어떤 명분으로든 휴가를 받아 오십시오. 무엇이든 좋으니 오십시오! 멘톤의 우체국 사후 수령으로 전보 치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한 당신, 다르자크."

"세상에!"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당연하지!"

"당신은 그 죽음, 결코 믿지 못했군요?" 룰타비유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비록 다르자크 씨의 전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지닌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그토록 격렬한 반응을 설명할 수 없었다.

"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죽은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했으니까요. 도르도뉴호 참사가 있었을 때, 그는 몇몇 서류를 희생시키는 것도 불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괜찮습니까, 친구? 너무 쇠약해 보입니다. 아픈 건 아닙니까?"

룰타비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털어놓았다. 그는 결혼 예식이 끝난 뒤가 되어서야 비로소 라르상의 죽음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아직 살아있다면, 마틸드 스탕제르송을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넘기는 그 행위를 허용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라르상은 그저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결혼을 저지할 수 있었다. 비록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그는 자수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마틸드가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로서 얼마나 종교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전 남편과 이혼했더라도 살아있는 남편이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할 의사가 결코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에게 프랑스 법률상 첫 번째 결혼이 무효였다고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한 사제가 그녀를 비참한 남자의 아내로 만들어 버렸고, 그 결합은 영원히 끊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룰타비유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덧붙였다.

"슬프군요, 친구여. 기억나시죠? 라르상에게 '사제관은 그 매력을 잃지 않았고, 정원도 빛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나는 룰타비유의 손을 내 손으로 감쌌다. 그는 열이 나고 있었다.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결혼식 이후, 결혼식 몇 시간 뒤에나 나타났다고요!" 그가 외쳤다. "제게나 당신에게나, 생클레르 씨, 다르자크 씨의 전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만약 다른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라면 말이죠."

"분명하죠!… 하지만 다르자크 씨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오, 다르자크 씨가 두려움을 아는 아이는 아니야… 하지만 희망을 가져야 해, 희망을, 그렇지 않습니까, 생클레르 씨? 그가 잘못 생각했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니,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너무 끔찍할 테니까! 너무 끔찍해요… 내 친구! 내 친구!… 오, 생클레르 씨, 그건 너무도 끔찍할 거예요!…"

나는 글랑디에의 최악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순간들조차도, 룰타비유가 이렇게나 초조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 일어섰다… 그는 방 안을 거닐며, 이유 없이 물건을 옮기곤 하더니, 나를 돌아보며 반복해서 말했다.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런 상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어쩌면 환각의 산물일 수도 있는 전보 하나 때문에 그렇게 휘청거릴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할 때라고.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특히 그의 기질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니요! 정말로, 생클레르… 용납할 수 없다니!"

"하지만, 어쨌든 내 친구… 당신이 무서워지네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곧 알게 될 거야… 상황이 끔찍해. 왜 그는 죽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렇게 확신하게 만드나요? 결국 그가 죽지 않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보십시오, 생클레르… 쉿!…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생클레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그가 살아 있다면, 저는 죽은 것이 더 나을 거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군! 미쳤어! 하지만 그가 살아 있다면, 오히려 당신이 살아 있어야 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야!"

"오, 오! 정말이군요! 방금 하신 말씀, 생클레르!… 아주 정확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친구!… 제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라고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룰타비유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으로 나는 그의 그 웃음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를 꼭 안으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지, 왜 저렇게 비웃듯 웃는 것인지 나에게 말해 달라고 간청했다.

"친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 말해라, 룰타비유! 말해, 말해! 속을 털어놓아라! 내게 네 비밀을 말해라! 네가 숨 막혀 죽는다면, 말해야 해! 내 마음을 너에게 열어두겠어…"

룰타비유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내 눈을 깊숙이, 내 마음속 깊이까지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알려주마, 생클레르. 나도 모르는 바가 없으니 너도 나만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나만큼 놀라게 될 거다, 내 친구여. 네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가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라 생각한 나는, 그가 철도 시간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시에 출발합니다." 그가 말했다. "겨울에는 유(Eu) 시에서 파리로 가는 직행 열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도착하는 건 일곱 시쯤 될 겁니다. 하지만 짐을 싸고 리옹 역에서 마르세유와 멘톤행 아홉 시 열차를 타는 데는 충분히 시간이 남습니다."

그는 내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트레포르로 데려갔을 때처럼, 이번에도 멘톤으로 나를 끌고 가려 했다. 그는 지금의 내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그에게 거절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더구나 나는 그를 평소와 전혀 다른 상태, 즉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었다. 설령 그가 나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를 떠나지 않았을 것

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한창 휴정기에 접어들었고, 파레(법원)의 내 업무는 나로 하여금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럼 우리는 유 시로 가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네, 저기서 기차를 타자. 트레포에서 유까지 차를 타고 가려면 고작 반 시간밖에 안 걸려."

"우리는 이 땅에 그리 오래 머물지 못했군요."

"바라는 대로라면요… 제가 찾아오기 위해 왔던 그 목적을 이루기엔, 아쉽게도…."

나는 검은 옷 부인의 향기를 떠올리며 입을 다물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나를 부두로 데려갔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었고, 우리는 등대 뒤로 피해야 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이 서 있다가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여기가 바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돌 벤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품에 꼭 안았죠. 저는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아홉 살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그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떠났고, 저는 그 이후로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그날은 저녁이었어요. 부드러운 여름 저녁, 시상식 날 저녁이었죠. 음, 그녀는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녀가 저녁에 올 줄 알았어요. 별이 가득하고 너무도 맑은 밤이었어요. 잠시 동안 그녀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베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는 떠났어요. 저는 그 이후로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당신은 어땠나요, 친구여?"

"네,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나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부가 저를 찾으러 왔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트레포트에 기숙학교가 있나?"

"아니요. 하지만 유(Eu)에는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바로 유에 있었죠."

그가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폭풍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반 시간 뒤, 우리는 유에 도착했다. 마로니에 거리 끝자락에서 우리의 마차는 차갑고 텅 빈 광장의 단단한 포장돌 위를 요란하게 굴러갔다. 마부도 제멋대로 채찍을 휘두르며 자신의 도착을 알렸고, 그 가죽 채찍이 내는 찢어질 듯한 소리는 죽은 듯한 작은 마을 전체를 울려 퍼뜨렸다.

곧 지붕 너머로 시계가 울렸다. 룰타비유가 말하길, 그것은 학교 시계였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광장에 멈춰 있던 마차와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부도 어느 주막으로 사라진 뒤였다.

우리는 한쪽을 따라 늘어선 고딕 양식의 높은 교회당 그림자 속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그늘이 우리를 감쌌다. 룰타비유는 성채를 한눈에 훑었다. 분홍빛 벽돌로 지어진 그 건축물은 루이 13세 양식의 넓은 지붕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초췌한 외관은 마치 유배된 왕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그는 멜랑콜리한 눈빛으로 시청 건물을 바라보았다. 더러운 깃발이 우리 쪽으로 날카롭게 내밀고 있었다. 주변은 고요한 집들, 프랑스인 장교들이 모인 파리 카페, 이발소, 서점이었다.

그곳이 바로 검은 옷 부인이 사준 첫 신간책을 샀던 곳일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서점 문턱에 누워 있던 낡은 털색의 개가, 얼어붙은 발 위에 나른한 주둥이를 내밀었다.

"샴이군!" 룰타비유가 말했다. "아, 확실히 기억나! 샴이야! 내 친절한 샴이지!"

그가 개를 불렀다.

"샴! 샴!"

개가 몸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를 향해 있었고,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개는 몇 걸음 애써 걸어와 우리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고는 다시 문턱으로 돌아가, 무관심하게 누워버렸다.

"아!" 룰타비유가 탄식했다. "그가 맞아… 하지만 나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군."

그는 나를 잡아끌며 급경사를 내려가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길은 날카로운 자갈로 포장되어 발이 아팠다. 그는 내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 여전히 열기가 느껴졌다.

우리는 곧 작은 성당 앞에 멈춰 섰다. 예수회 양식의 이 작은 건물은 우리를 향해 반원형의 석조 장식이 달린 현관을 내밀고 있었다. 이는 거꾸로 된 '콘솔' 같은 형태로, 17세기 영광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룰타비유가 낮은 작은 문을 밀어 열자, 그는 나를 안으로 들였다. 안은 조화로운 천장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빈 무덤 돌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두 개의 아름다운 대리석상이 있었다. 바로 클레브의 카트린과 '흉터공' 기즈 공작(Guise le Balafré)의 상이었다.

"기숙학교의 예배당입니다." 젊은이가 속삭였다.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재빨리 그 길을 지나쳤다. 왼쪽에서 룰타비유가 천천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칸막이 문을 밀었다. 그 문은 작은 차양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자, 가자." 그가 낮게 말했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경비원은 나를 보지 못했을 거야. 분명히 그는 나를 알아봤을 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맨머리에 열쇠 묶음을 든 한 남자가 차양 앞을 지나갔다. 룰타비유는 그림자로 몸을 숨겼다.

"시몽 영감이군! 어쩐지 많이 늙으셨네. 머리카락도 다 빠졌어. 조심해! 이제 곧 아이들이 있는 교실을 청소하실 시간이야. 지금 모두 수업 중이니까. 오, 이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겠어! 시몽 부인님은 현관 로지(loge)에 계실 테지만, 설마 돌아가시진 않았겠지? 어쨌든 그쪽에서는 우리를 볼 수 없어…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또 시몽 영감이 돌아오는군!"

룰타비유는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려 했던 걸까? 대체 왜?

결국 나는 그 아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셈이었다. 내가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으니까. 함께 있는 시간마다 그는 늘 나를 놀라게 했다.

시몽 신부가 우리를 내버려 둘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룰타비유와 나는 들키지 않고 차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작은 안마당 구석, 관목 뒤로 숨어 섰다. 그곳에서 우리는 벽돌로 된 난간 너머로 몸을 내밀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우리가 숨어 있는 곳보다 훨씬 낮은 곳에 광활한 운동장과 학교 건물이 펼쳐졌다. 우리는 그 높은 곳에서 여유 있게 그 광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룰타비유는 내 팔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떨어질까 봐 두려운 듯했다.

"세상에나!" 그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이 모든 것이 뒤집혔군! 내가 '칼을 되찾았던' 낡은 자습실이 헐렸고, '돈을 숨겼던' 지붕 덮인 운동장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 하지만 예배당의 벽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 보세요, 생클레르. 몸을 굽혀 보십시오. 예배당 지하로 이어지는 이 문은 작은 교실의 문입니다. 어릴 적, 내가 얼마나 많이 이 문을 드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결코 그 어느 때보다 기쁘게 그곳을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가장 신나게 노는 시간조차도, 시몽 영감이 나를 데리러 와 '검은 옷 부인'이 기다리는 접견실로 데려갈 때만은 달랐습니다. 세상에나, 접견실은 건드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는 듯이 시선을 던지며, 고개를 내밀었다.

"아니요! 아니요!… 보세요, 바로 거기에 접견실이 있군요!… 천장 아치 옆에요… 오른쪽으로 첫 번째 문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녀가 자주 오던 곳이 바로 거기예요… 우리가 곧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시몽 영감이 내려오면 바로요…"

그는 이빨을 딱딱 부딪쳤다.

"미친 거야, 나.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아… 뭐라고 할 수 없지, 내 의지로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니?… 그녀가 기다리던 면회실을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 나는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만 살았어. 그녀가 떠난 뒤에는, 내가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때마다 내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지. 내가 병이 나면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일러 줄 때만 그 침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다음 면회까지 나는 그녀의 기억과 향기만 안고 지냈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선명하게 본 적은 없었고, 그녀가 내게 안겨 줄 때 그녀의 향기에 취해 기절할 뻔하기도 했어. 그래서 나는 그녀의 이미지보다는 그녀의 냄새로 더 많이 살았어. 그녀가 방문한 후의 날들 동안, 나는 쉬는 시간마다 면회실로 도망쳤고, 오늘처럼 그 방이 비어 있을 때는, 나는 그녀가 숨 쉬었던 공기를 경건하게 들이마셨고, 그녀가 잠시 머물렀던 그 공기를 가득 채워 넣곤 했어. 그리고는 향기로운 마음으로 나갔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미묘하며, 확실히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달콤한 향기였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말한 그 날까지, 다시는 그런 향기를 만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생클레르… 기억나지? 에lysée에서의 연회 날…”

“그날, 내 친구, 당신은 마틸드 스탕제르송을 만났군요.”

“맞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만약 그 순간 내가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이, 미국에서의 첫 결혼 때 아이를 하나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아들인데, 살아있다면 룰타비유와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아마도 친구가 그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그곳에서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쯤이면, 나는 마침내 그의 감정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슬픔을, 그리고 과거에 검은 옷 부인이 자주 들르던 이 학교에서 ‘마틸드 스탕제르송’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그가 겪었던 기이한 동요를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을 깨뜨려도 되겠다고 용기를 냈다.

“그리고 당신은 검은 옷 부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결코 알지 못했나요?”

“아! 나는 검은 옷 부인이 다시 돌아왔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떠난 건 저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도망친 겁니다.”

"왜요? 그녀를 찾기 위해서였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녀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만, 그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생클레르 씨!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돌아왔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을 더 이상 찾지 못해 그녀는 절망했을 겁니다."

룰타비유는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고 고개를 저었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일입니까? 아, 나는 얼마나 불행한가! 쉿, 친구여! 쉿! 시몽 영감이 갑니다. 드디어! 서둘러요. 접견실로 갑시다."

우리는 세 걸음 만에 그 방에 들어섰다. 평범하고 꽤 넓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하얀 가난한 커튼이 걸려 있을 뿐, 창틀은 맨몸으로 드러나 있었다. 벽을 따라 줄지어 놓인 짚 의자 여섯 개, 벽난로 위에 걸린 거울, 그리고 시계가 전부였다. 방 안은 꽤 어두웠다.

방에 들어서자 룰타비유는 경건함과 존경의 제스처로 모자를 벗었다. 보통 신성한 장소에 들어설 때나 보이는 그런 태도였다. 그는 매우 붉어졌고, 작은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매우 당황한 듯 여행용 모자를 손가락 사이로 굴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성당에서 나에게 말했을 때보다 더, 더 낮았다.

오, 생클레르! 저기, 접견실이다… 손 좀 잡아 봐. 내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 얼굴이 다 붉어졌지, 그렇지? 내가 이 방에 들어와서 곧 그녀를 만날 줄 알면, 나는 늘 이렇게 붉어졌어.

물론, 나는 뛰어왔어. 숨이 차고 말았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렇지? 오, 내 심장이여. 어릴 적부터 이렇게 뛰던 심장이여!

내가 여기… 저기, 저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 섰어. 부끄러워서 그랬지. 하지만 어둑한 구석에서 그녀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팔을 내밀었고, 나는 곧장 그 품으로 뛰어들었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안자마자 흐느껴 울었어.

그건 정말 좋았어. 그건 바로 내 어머니였으니까, 생클레르!

오, 그녀가 직접 내게 말한 건 아니야. 오히려 그녀는 내게 내 어머니가 죽었다고, 그리고 자신이 내 어머니의 친구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녀가 나로 하여금 그녀를 '마마'라고 부르라고도 했고, 내가 그녀를 안자마자 그녀가 울기도 했으니, 나는 그녀가 바로 내 어머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

보라, 그녀는 항상 그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었어. 해가 지고, 아직 등불을 켜기 전의 접견실로 그녀가 찾아왔지.

도착하면 그녀는 이 창문턱 위에 하얀 뭉치 같은 것을 내려놓았어. 분홍색 끈으로 동여맨 것이었지. 그것은 브리오슈였어. 나는 브리오슈를 정말 좋아해, 생클레르!…

룰타비유는 더 이상 참지를 못했다.

그는 벽난로에 팔꿈치를 괴고서는 울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이 울었다.

잠시 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매우 피곤한 듯 자리에 앉았다. 나는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가 나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가슴에서 내가 건네준 편지를 꺼내 들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순간, 그의 손이 툭 떨어졌다. 비명 같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방금 전까지 붉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너무도 창백해서,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손짓이 다가오지 말라고 막았다. 그러자 그는 눈을 감았다.

그가 잠들어 있는 줄 알 수도 있었다. 나는 병실처럼 발끝으로 살며시, 아주 천천히 물러났다. 그리고 작은 안마당을 바라보는 창가에 기대었다. 그 안마당에는 커다란 밤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는 그 밤나무를 응시하며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알 수 없다. 오히려 그 순간, 만약 집안 누군가가 접견실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조차 알 수 없다.

나는 모호하게도 내 친구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운명에 대해 생각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일지도 모르고, 또 아닐지도 모르는 그 여인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룰타비유는 너무도 어렸다. 그는 어머니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상상력 속에서 어머니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룰타비유! 우리가 그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가? 조제프 조제핀. 분명 그는 이 곳에서 첫 공부를 할 때 그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다. 레포크의 편집장이 말했듯이, "그건 이름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는 왜 이곳에 왔을까? 향기의 흔적을 쫓으러? 추억을 되살리러? 아니면 환상을 좇으러?

그가 내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일어서 있었다. 얼굴은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 바로 방금 큰 승리를 거둔 이들처럼, 갑자기 마음이 안정된 표정이었다.

"생클레르, 이제 떠납시다. 갑시다, 친구여! 갑시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도착한 외로운 거리에서, 나는 그를 멈춰 세우고 초조한 마음으로 물었다.

"자, 친구여…… 당신은 검은 옷 부인의 향기를 다시 찾았습니까?"

물론 그는 내 질문 속에, 그의 어린 시절 장소를 찾은 이 방문이 그의 영혼에 조금의 평화를 되찾아주기를 바라는, 뜨거운 소망이 가득 담겨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네," 그가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네, 생클레르…… 나는 그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이 쓴 편지를 내게 보여 주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내 양손을 꼭 쥐었다. 눈과 눈을 맞대며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큰 비밀을 하나 알려 주겠습니다, 생클레르. 제 인생의 비밀이자, 언젠가는 제 죽음의 비밀이 될지도 모를 비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비밀은 당신과 저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마틸드 스탕제르송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당신과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죽은 아이였죠."

나는 그 충격적인 고백에 경악하여 뒤로 물러섰다. 어지러웠다.

룰타비유, 마틸드 스탕제르송의 아들!

그런데 곧이어 더 격렬한 충격이 나를 덮쳤다.

아, 그렇군! 그렇군!

룰타비유는 라르상의 아들이었다!

아! 이제야 나는 룰타비유의 모든 주저함을 이해했다. 오늘 아침, 진실을 미리 꿰뚫던 내 친구가 '왜 그는 죽지 않았을까? 만약 그가 살아 있다면, 나는 죽은 것이 나을 텐데!'라고 말했던 이유도 이해했다.

룰타비유는 분명히 내 눈빛에서 그 말을 읽어냈을 것이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맞아요, 생클레르.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꺼냈다.

"조용히!"

파리에 도착한 우리는 헤어졌다가 기차역에서 다시 만났다. 그곳에서 룰타비유는 발랑스에서 방금 도착한 새로운 전보를 내밀었다. 발신자는 스탕제르송 교수였다. 전보 내용은 이랬다.

"다르자크 씨가 당신에게 며칠간의 휴가가 있다고 말했소. 당신이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모두 매우 기쁠 것이오. 아서 란스 씨 댁, 즉 로셰루주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란스 씨는 당신을 그의 부인에게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뻐할 것이오. 제 딸도 당신

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녀도 저와 함께 간곡히 청하고 있소. 우정을 담아."

마침내 우리가 기차에 오르는 순간, 룰타비유가 묵던 호텔의 관리인이 플랫폼으로 뛰어 나왔다. 그는 우리에게 세 번째 전보를 안겨 주었다. 이번 전보는 멘톤에서 온 것이었다. 보낸 이는 마틸드였다. 전보 내용에는 오직 두 단어만 적혀 있었다.

「도와줘!」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룰타비유가 나에게 그 기이하고 모험적인 유년 시절을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그가 지금 이 순간 다르자크 씨가 그들을 갈라놓은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이유도 안다.

이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친구에게 아무 조언도 건넬 수 없다. 불쌍한 아이여! 그가 '구해 주시오!'라는 전보를 받고서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그는 전보를 입에 대고서는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러곤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한다면, 내가 우리의 원수를 갚겠어!"

그 냉혹하고 야성적인 에너지라니! 때때로 너무 거친 제스처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열정을 드러내곤 하지만, 대체로 그는 차분하다. 지금도 그는 차분하다. 끔찍할 정도로 차분하게.

면회실의 고요 속에서, 그는 어떤 결심을 내렸을까? 그는 검은 옷 부인이 앉던 구석에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있었다.

우리가 리옹으로 달리는 동안, 룰타비유는 온몸에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침상 위에 드러누워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에우의 기숙학교를 탈출했는지,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려주기로 한다.

룰타비유는 도둑처럼 학교를 도망쳤다! 다른 비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도둑질로 누명을 쓴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그는 아홉 살 때의 일이었다. 이미 지성이 매우 일찍 발달했고, 가장 기묘하고도 난해한 문제 해결에 타고난 소질을 보였다. 그의 논리적 힘은 놀라울 정도였다. 단순함과 추론의 일관성 때문에 거의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수학 선생님을 철학적인 작업 방식으로 놀라게 했다.

그는 곱셈표를 결코 외우지 못했고, 손가락으로 셈을 했다. 보통 그는 친구들에게 연산을 맡겼다. 마치 하찮은 일을 하인에게 맡기듯 말이다. 하지만 그전에 그는 친구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아직 고전 대수학의 원리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사용을 위해 개인적인 대수학을 발명했다. 그것은 기묘한 기호들로 구성되었는데, 쐐기문자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수학적인 추론의 모든 단계를 표기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공식을 도출해냈다.

수학 선생님은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파스칼에 비유했다. 파스칼은 기하학에서 유클리드의 첫 번째 명제들을 혼자서 찾아냈던 인물이었다.

룰타비유는 이 놀라운 추리 능력을 일상생활에도 적용했다. 그것은 물질적, 도덕적 양면에서였다. 예를 들어, 그가 아는 열 명의 인물 중 한 명의 익명의 아이가 장난이나 스캔들, 고발, 보고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는 제공된 도덕적 데이터나 자신의 관찰을 통해 그 익명의 아이를 거의 필연적으로 찾아냈다.

도덕적 영역에서 그랬듯, 물질적 영역에서도 숨겨지거나 잃어버린, 혹은 훔친 물건을 찾는 것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쉬웠다. 특히 그는 여기서 놀라운 발명력을 발휘했다. 마치 자연이 놀라운 균형을 유지하며, 도둑질의 악한 수호신인 아버지를 창조한 뒤, 도둑맞은 자들의 선한 수호신인 아들을 낳게 하려는 듯했다.

이 기묘한 재능은 처음에는 몇 차례 재미있는 상황 속에서 훔친 물건들을 찾아내며 학교 직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명성을 얻게 해주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된다.

그는 감시 교감에게서 도둑맞은 작은 금액의 현금을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찾아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발견이 오직 그의 지성과 통찰력 때문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가설은 모든 이에게 명백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불운한 시간과 장소의 우연한 일치 덕분에, 그는 결국 도둑으로 낙인찍히고 만다.

그의 잘못을 자백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찬 에너지로 자신을 방어했고, 그 결과 가혹한 징계를 받게 된다. 교장은 조사를 실시했고, 아이들의 전형적인 비겁함 때문에 조제프 조제핀은 동급생들에게 배신당했다.

몇몇 아이들은 최근 들어 책이나 학용품이 도둑맞았다고 불평하며, 이미 억눌린 그를 향해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그에게 부모가 없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작은 세상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범죄처럼 비난받았다.

그들이 그를 말할 때, 그들은 그저 '도둑'이라고 불렀다. 그는 싸웠지만, 그가 그리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죽고 싶었다.

가장 착한 사람이었던 교장은, 불행히도 그가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할 악한 본성의 작은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그 행동의 모든 혐오스러움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를 교화하려 했다. 교장은 그에게 만약 도둑질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를 학교에 두지 않을 것이며, 그날 바로 그를 위해 관심을 가져준 다르벨 부인—그녀가 준 이름—에게 편지를 써 그녀가 그를 데리러 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가 구금되어 있던 작은 방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다음 날, 그들은 그곳에서 그를 찾지 못했다. 그는 도망친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가장 어린 시절부터 그를 맡아준 교장은 항상 그에게 좋았으며, 그가 자신의 유죄를 믿기 때문에만 그렇게 대했던 것이라고. 따라서 검은 옷 부인도 그가 도둑질을 했다고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검은 옷 부인에게 도둑으로 오해받는 것, 그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는 밤에 정원의 담장을 넘어 뛰어넘으며 도망쳤다. 그는 곧바로 운하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으로 검은 옷 부인을 떠올리며, 흐느끼며 그 안으로 몸을 던졌다.

다행히도, 그 절망 속에서 가엾은 아이는 자신이 수영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내가 룰타비유의 어린 시절 이 일을 이렇게 길게 적어 둔 이유는, 그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의 모든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자신이 라르상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타비유는 그 슬픈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검은 옷 부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라르상과 혈연적, 법적 유대감을 맺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비록 그 믿음은 안타깝게도 너무도 타당한 상상력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이제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야 하는가. 무한한 비애가 그를 짓누르고 있다.

어머니는 그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범죄적 본성이 아들에게도 되살아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쩌면 말이다. 죽음보다 더 잔인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기뻐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죽은 줄로 여겨졌다. 그가 도망친 흔적은 운하까지 이어졌고, 그의 베레모는 운하에서 건져졌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목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라를 떠날 것을 굳게 결심한 후, 사람들이 운하 안팎 사방으로 찾고 있던 이 소년은, 그 지방 전체를 아무 방해 없이 가로지를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그는 '빼앗긴 편지'를 읽지 않았다. 그의 천재성이 그를 도왔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논리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부모를 떠나 모험을 하려던 아이들의 이야기, 즉 작은 악동과 나쁜 녀석들이 낮에는 들판과 숲에 숨어 있고 밤에는 걷다가 곧 경찰에게 잡히거나 가난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우리 작은 룰타비유는 밤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고, 낮에는 아무에게도 숨지 않고 걸었다. 다만, 옷을 말린 후(운이 좋게도 좋은 계절이 시작되어 추위를 견딜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것을 찢었다. 그는 그 조각들을 걸레로 만들어 입었고, 공개적으로 거지를 했다. 그는 더럽고 헐벗은 채로 손을 내밀며, 만약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부모가 때릴 것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헤미안 아이로 여겼고, 그런 보헤미안의 마차는 늘 근처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곧 딸기 시즌이 왔다. 그는 딸기를 따서 작은 잎사귀 바구니에 담아 팔았다.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만약 검은 옷 부인이 그를 도둑으로 여길지도 모

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 시기를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겼을 것이라고. 그의 재치와 자연스러운 용기는 이 모험 전체를 통해 그를 도왔다. 이 모험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마르세유로!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지리책에서 본 남프랑스의 풍경화를 보며 늘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그는 그 마법 같은 땅을 평생 모른 채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방랑자처럼 살아가며 우연히 한 작은 로마니 카라반을 알게 되었다. 그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 생마리드라메르로 향하고 있었다. 크라우 지방에서 그들의 왕을 선출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룰타비유는 그들에게 몇 가지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신분을 묻는 습관이 없었기에, 룰타비유에 대해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들은 이 아이가 학대를 받은 끝에 어딘가 떠돌이 곡예단의 가설 천막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자신들과 함께 두었다.

이렇게 그는 남프랑스에 도착했다.

아를 근처에서 그는 그들과 헤어졌고, 마침내 마르세유에 도착했다. 그곳은 천당과 같았다. 영원한 여름과 항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항구는 도시의 작은 불량배들에게 고마운 보루였다. 룰타비유에게 항구는 보물과도 같았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필요량이 크지 않았기에 마음껏 그곳에서 도움을 받았다.

예를 들어, 그는 '오렌지 사냥꾼'이 되었다.

그가 그 수익성 좋은 직업을 수행하고 있던 어느 아침, 그는 부두에서 파리 기자 가스통 르루를 알게 되었다. 이 만남은 이후 룰타비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마탱』지의 편집자가 이 기념비적인 만남을 기록한 기사를 여기에 실어 소개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구름 낀 하늘을 뚫고 내리쬐던 태양의 빛이, 노란 금빛 옷을 입은 노트르담드라가드 성당의 외벽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부두 쪽으로 내려갔다. 큰 돌판들은 아직 젖어 있었고, 우리 발걸음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었다.

북방의 숲에서 건너온 목재들 주변에는 선원들과 하역부들, 그리고 짐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래를 돌리고 로프를 당기고 있었다. 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생장 타워와 생니콜라 요새 사이로 슬그머니 스며들어, 구불거리는 구시항의 물결 위에 거친 애무를 펼쳤다.

작은 배들은 옆구리를 맞대고, 엉덩이를 비비며, 라틴 돛이 감기는 팔을 서로 내밀었다. 그리고 박자에 맞춰 춤을 추었다.

그 옆에서는 먼 파도에 지친, 며칠 밤낮이나 알려지지 않은 바다에서 흔들린 끝에 지친 거대한 선체들이 무겁게 쉬고 있었다. 찢어진 천 조각처럼 하늘을 향해 고정된 큰 돛대를 늘어뜨린 채였다.

내 시선은 돛대와 마스트들이 만들어낸 공기 속의 숲을 통과해, 이 해안 땅에 기지를 차린 고대 포카이아의 아이들, 즉 이오니아의 물길에서 온 사람들이 이천오백 년 전에 이곳에 정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탑까지 미쳤다.

그리고 내 주의는 다시 부두의 돌판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나는 작은 오렌지 사냥꾼을 보게 되었다.

그는 서 있었다. 발목까지 내려온 재킷 조각들을 걸친 채, 머리카락은 금발이고 눈은 까맣게 빛났다. 그리고 그는 아마 아홉 살쯤 되었을 것이다.

어깨에 끈을 걸친 채 옆구리에는 천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왼손을 허리에 대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세 배는 되어 보이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지팡이 끝에는 작은 코르크 마개가 달려 있었다.

그 아이는 미동도 없이 사색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왜 거기에 서 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그는 오렌지 사냥꾼이라고.

그는 오렌지 사냥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지, 항구에 떠도는 망나니들처럼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잊어버렸다. 나는 그에게 다시 말을 건넸지만, 이번에는 그가 묵묵히 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물결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카스텔라마레에서 온 피데스 호의 가느다란 선체와 제노바에서 온 세대박이 스쿠너의 선수 사장(船首斜檣) 사이에 서 있었다. 멀리서는 아침에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도착한 두 척의 타르타나 선이 배를 불리며 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배가 오렌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곳곳에서 오렌지가 빠져나와 물 위에 떠다녔기 때문이다.

가벼운 파도가 그 오렌지들을 작은 물결을 타며 우리 쪽으로 밀어왔다. 오렌지 사냥꾼은 작은 보트에 뛰어올랐다. 그는 뱃머리로 달려가 코르크로 장식된 막대기를 손에 쥔 채 기다렸다. 그리고는 사냥을 시작했다.

막대기의 코르크가 오렌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끌어올렸다. 그것들은 모두 그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다. 다섯 번째 오렌지를 건져올린 그는 다시 선창으로 뛰어올라 황금빛 사과 같은 오렌지를 갈랐다. 그리고는 작은 주둥이를 반쯤 열린 껍질 안으로 파고들며 오렌지를 삼켰다.

"맛있게 드세요!" 내가 말했다.

"선생님, 그는 대답했다. 붉은 주스가 얼굴과 옷에 튀어 있었다. '저는 과일만 좋아합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하지만 오렌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나는 석탄으로 일해요."

그가 작은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더니, 거대한 석탄 한 덩이를 꺼냈다.

오렌지 주스가 그의 헐렁한 재킷에 흘러내렸다. 그 옷에는 주머니가 있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말도 못 할 정도로 더러운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에 묻은 주스를 닦았다. 그런 다음 자랑스러운 듯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 내가 물었다.

"가난합니다."

"그래, 하지만 무슨 일을 하냐고?"

오렌지 사냥꾼은 어깨를 으쓱였다.

"무슨 일도 하지 않아요. 가난하니까요!"

그의 가계에 대해 내가 던진 질문들은 그에게 별로 기분이 좋게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부두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고,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요트 보관장'에 다다랐다. 이곳은 작은 요트와 정갈하게 광을 낸 자단나무 보트, 그리고 치장 하나 허술하지 않은 작은 선박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작은 바다 한구석이었다.

내 꼬마는 그런 배들을 식견 있는 눈으로 살피며, 그렇게 살펴보는 일을 무척 즐거워했다.

그때 아름다운 작은 보트가 하나 다가왔다. 돛대는 하나뿐이었지만, 하얀 돛은 완전히 펼쳐져 있었다. 순백의 삼각형 돛은 바람에 풍성하게 부풀어 오르고, 찬란한 햇살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정말 멋진 린넨이군!" 내 꼬마가 말했다.

그때 그는 웅덩이를 밟고 말았다. 그의 재킷은 확실히 그에게 그 무엇보다 더 큰 고민거리였기에, 재킷은 온통 튀겨진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정말 큰일 났다! 그는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는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닦고, 또 닦았다. 그러고는 간청하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선생님! 저는 뒤에 더러워지지 않았나요?"

나는 내 명예를 걸고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러자 그는 안심한 듯 다시 한 번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 오래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집들이 늘어선 보도 위에는 다채로운 헝겊 빨래를 창문에 내걸어 둔 집들이 있었다. 그 집들 앞에는 조개 판매상들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조개와 녹슨 칼, 식초 병이 진열되어 있었다.

우리가 노점상들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조개는 신선해 보였고, 유혹적이었다. 나는 오렌지 판매자에게 말했다.

"네가 과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너에게 조개 열두 마리를 대접할 수 있을 텐데."

그의 검은 눈동자가 욕망으로 빛났다. 우리는 둘이서 조개를 먹기 시작했다. 노점상이 조개를 까 주었고, 우리는 맛을 음미했다. 그녀가 식초를 가져오려 했지만, 내 동료가 거친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더니, 마침내 승리의 미소와 함께 레몬 하나를 꺼냈다. 레몬은 숯조각 옆에 있었기에 까맣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수건을 다시 꺼내 레몬을 닦았다. 그리고는 그 과일을 반으로 잘라 내게 반쪽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조개 자체의 맛을 즐기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점심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부두로 돌아왔다. 오렌지 장수가 나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했다. 그는 재킷의 다른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가 담배를 입에 물고, 마치 어른처럼 하늘 향해 연기를 뿜어내자, 그 아이는 물 위의 돌판 위에 허리를 펴고 섰다. 그의 시선은 꼭대기에 있는 노트르담드라가르드 성당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브뤼셀의 유명한 소년상, 즉 가장 아름다운 장식을 자랑하는 그 소년의 자세를 취했다.

그는 키를 조금도 줄이지 않았다. 그는 매우 자랑스러워 보였고, 마치 자신으로 항구를 가득 채우려는 듯했다.

이틀 후, 조제프 조제피앙은 항구에서 가스통 르루를 다시 만났다. 르루는 손에 신문을 든 채 그에게 다가왔다. 소년은 기사를 읽었고, 기

자는 그에게 백 수 동전 한 닢을 내밀었다. 룰타비유는 주저 없이 돈을 받아들었다. 오히려 그 선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 돈은 받아드립니다. '협력자'로서 말이죠."

룰타비유는 그 백 수 동전으로 멋진 신발 닦이 세트를 장만했다. 그리고 브레가용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2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전통적인 부야베스 해물죽을 먹는 사람들의 신발을 모두 맡았다.

신발 닦는 사이사이에, 그는 상자에 올라앉아 책을 읽었다. 상자에 담긴 소유의식에서 비롯된 야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기초 교육도 충실히 받았다. 다른 이들이 훌륭하게 시작해 놓은 일을 자신이 끝까지 마저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손님들은 그 작은 구두닦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의 상자 위에는 항상 역사나 수학 관련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 선박 소유자가 그를 무척 아끼게 되어, 결국 그의 사무실 견습생 자리를 얻게 되었다.

곧 룰타비유는 '말단 사무원'이라는 직책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열여섯 살, 주머니에 약간의 돈을 쥔 그는 기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파리.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 검은 옷 부인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수감자 접견실의 신비로운 방문자를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녀가 수도에 산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룰타비유는 단호하게 믿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여인을 품을 만한 도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게다가, 접견실로 들어서는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을 잠깐 보았던 동급생들조차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이, 오늘 파리의 아가씨가 왔네!"

룰타비유의 속마음을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려웠다. 아마 본인조차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검은 옷 부인을 '보고' 싶었던 걸까? 신자가 성상을 바라보듯,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던 걸까?

그녀에게 다가가도 될까?

룰타비유의 상상력 속에서 그 위상은 더욱 커져만 간, 끔찍한 절도 사건. 그 일은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았는가? 그는 그 장벽을 넘을 권리가 없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녀를 보고 싶었다. 그 사실만큼은 그는 단단히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에 발을 들이는 대로 곧장 가스통 르루를 찾아갔다.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뚜렷한 직업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것은 열정적으로 일할 줄 아는 그에게 있어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그래

서 그는 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는 거리낌 없이 기자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

가스통 르루는 그 위험한 계획을 막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그제야 그는 지친 듯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야. 할 일이 없다면, '오베르캄프 거리 왼쪽 발'을 찾아보게."

그는 이런 기묘한 말로 조제프 룰타비유를 떠났다. 이 말은 가엾은 룰타비유로 하여금, 이 게으름뱅이 기자가 자신을 장난 삼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신문을 사고는, 『레포크』지가 오베르캄프 거리에서 토막 난 여자의 사라진 신체 부위를 찾아오는 자에게 후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노란 방의 수수께끼』에서 나는 룰타비유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모습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도 동시에 그 특이한 직업, 즉 다른 이들이 논증을 끝낼 때부터 추론을 시작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했는지를 서술했다.

그가 어느 날 하필이면 엘리제궁으로 가게 되어, 그곳에서 '검은 옷 부인'의 향기를 맡게 된 경위는 이미 말했다. 그때 그는 마틸드 스탕제르송을 뒤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덧붙일 말이 있겠는가?

글랑디에 사건, 그리고 특히 미국 여행 이후 그 향기가 룰타비유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에 대해 말이다. 독자들은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의 모든 망설임, 모든 기분 변화. 이제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시내티에서 가져온 정보, 즉 장 루셀의 전처가 낳은 아이에 관한 그 정보는, 그가 바로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만큼은 충분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직감은 교수님의 딸 쪽으로 압도적으로 그를 이끌었다. 때때로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안고, 그녀를 꼭 껴안으며 "너는 내 어머니야! 너는 내 어머니야!"라고 외치는 자신을 억누르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그는 마치 성물 보관실로부터 도망친 것처럼 그곳을 빠져나왔다. 몇 년간 그의 마음을 태워 왔던 그 비밀을, 슬픔에 잠긴 단 한순간의 틈을 타 흘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는 두려웠다. 그녀가 자신을 거부할까 봐. 밀어낼까 봐. 경악하며 자신을 쫓아낼까 봐.

자신, 유에 기숙학교의 작은 도둑! 자신, 루셀-발마이어의 아들! 자신, 라르상의 죄악을 물려받은 자! 만약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고, 그녀 곁에서 살지 못하게 되며, 그녀와 그녀의 귀한 향기, '검은 옷 부인'의 향기를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 끔찍한 상상이 그를 괴롭혔기에, 그녀를 볼 때마다 "너야? 너야, 검은 옷 부인이?"라고 묻고 싶은 첫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그는 얼마나 고군분투했는가!

반면 그녀는 그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다만 글랑디에에서의 그의 행동을 고려한다면… 만약 그녀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그녀는 자신을 죽은 줄로 여겼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그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 그의 순수한 직감과 이성을 모두 무너뜨리는 불운한 운명 때문에… 만약 그녀가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의 무모함으로 인해 그녀에게 유에 기숙학교에서 도망쳤던 일, 그것도 절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 절대로! 아니, 그런 일은 없어야 해! 그녀는 자주 물었다.

"젊은 친구여, 당신은 어디에서 자랐소? 처음 공부는 어디서 했소?"

그가 대답했다.

"보르도에서요!"

그는 진심으로 '베이징에서요!'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참혹한 상황은 오래갈 수 없었다. 만약 그 여자가 '그녀'라면, 그는 그녀의 마음을 녹일 만한 말을 건넬 수 있을 터였다.

그녀의 품에 안기지 못하느니 무엇이든 나았다. 때때로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는 확신이 필요했다. 이성 너머의 확신,

그리고 개가 주인의 냄새를 확실히 맡듯, 검은 옷 부인 앞에 서 있다고 이성을 넘어선 확신을 가져야 했다.

이 비유적 표현이 그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것은 곧 '추적을 되짚어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트르포와 뤼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용감하게도 말하고 싶다. 만약 마틸드의 편지가 그에게 그토록 필요한 확신을 안겨주지 않았다면, 이 원정 결과는 나처럼 '냄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삼자의 눈에는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그 편지는 내가 기차 안에서 룰타비유에게 건넨 것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내 친구에게 그 문서는 너무도 신성했기에, 다른 눈은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평소 그의 야만성과 불신에 대해 하던 다정한 책망이, 이 종이 위에서는 얼마나 깊은 고통의 어조로 변했는지를. 룰타비유는 그것을 오해할 수 없었다.

비록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이 마지막 문장, 즉 어머니로서의 모든 절망이 흐느껴 울던 그 문장에서, 그녀가 그에게 품는 관심이 그가 베푼 서비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가 깊이 사랑했던 한 친구의 아들, 즉 아홉 살 때 '어엿한 사내처럼' 자살한 소년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되었다는 고백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말이다.

"룰타비유는 그 아이와 많이 닮았어요!"

디종…… 마콩…… 리옹……

분명히, 내 머리 위 높은 곳, 그는 아직 깨어 있을 거야. 아주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 손을 불태울 각오가 되어 있어,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게 평온하다니. 대체 무엇이 그에게 그런 평온함을 안겨준 걸까?

나는 지금도 그 모습을 선명히 기억한다. 접견실에서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자!"라고 말했지. 그의 목소리는 그렇게도 차분했고, 그렇게도 평정되어 있었으며, 그렇게도 단호했어.

그는 누구를 향해 떠날 생각이었을까? 그는 어디로 향할 결심을 했을까?

그녀를 향해, 분명히.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었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지. 그녀는 그의 어머니였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할 터였다.

"이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만 남아야 할 비밀입니다. 아이는 당신과 나 외의 모든 이들에게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결심이었다. 갑자기 내린,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한 단호한 의지였다. 불쌍한 그 아이는, 오직 그녀에게 말을 걸 권리를 얻기 위해 바로 그 확신을 찾아 나섰던 것이었다.

그가 진실을 아는 순간, 그는 잊으려 애썼다. 그는 침묵을 자청했다.

작지만 위대한 영혼, 그 영웅적인 마음. 그는 깨달았다. 그의 도움이 필요한 '검은 옷 부인'이,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는 대가로 얻은 구원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싸움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피비린내 나는 충돌은 어느 정도까지 치닫을까? 모든 가능성을 예견해야 했다. 그리고 '검은 옷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룰타비유, 손을 자유롭게 해야 하지 않았는가?

룰타비유는 너무도 평온해서 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몸을 기울여 본다… 그는 눈을 뜨고 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물었다.

"부르그에서 도착해서 다르자크가 서명한 전보와, 발랑스에서 도착해서 스탕제르송이 서명한 다른 전보를 두고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부르그에서는 다르자크 부부가 스탕제르송 선생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선생은 디종에서 그들을 떠났으니까요. 게다가 전보에도 분명히 '우리는 스탕제르송 선생을 따라잡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스탕제르송의 전보는, 마르세유로 직행하던 선생이 다시 다르자크 부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르자크 부부가 마르세유 행 노선에서 스탕제르송 선생을 따라잡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교수는 중간에 멈춰 서 있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말입니다."

"그런 일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역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열 시에 멘톤에 도착할 것이다.'"

"발랑스에서 전보가 발송된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표에서 스탕제르송 선생이 정해진 대로 발랑스를 통과해야 할 시간을 대조해 보십시오. 단, 그가 도중에 멈추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다시 확인했다. 스탕제르송 씨는 자정 44분에 발랑스를 지나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전보에는 '자정 47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즉, 스탕제르송 씨가 평소 여행 경로대로 이동하는 도중 발랑스에서 이 전보를 보낸 셈이었다.

그 시점이라면 스탕제르송 씨는 이미 다르자크 부부와 합류했을 것이다. 시간표를 손에 쥔 채 우리는 이 만남이 가진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다.

스탕제르송 씨는 저녁 6시 27분에 모두 디종에 도착한 다르자크 부부를 디종에서 떠났다. 교수는 디종 역에서 7시 8분에 출발해, 10시 4분에 리옹에 도착하고 자정 47분에 발랑스에 도착하는 열차를 탔다.

반면 다르자크 부부는 7시에 디종을 떠나 모다네로 향했다. 생아무르를 거쳐 그들은 저녁 9시 3분에 부르크에 도착했다. 이 열차는 원래 부르크에서 9시 8분에 다시 출발해야 했다. 다르자크 씨의 전보는 부르크에서 발송되었으며, 발송 시각은 9시 28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다르자크 부부는 부르크에 머물며 기차를 놓친 셈이었다. 물론 열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어쨌든 우리는 스탕제르송 씨가 떠난 뒤, 다르자크 씨가 디종과 부르크 사이에서 전보를 보낸 이유를 찾아야 했다. 더 좁게 말해 루안과 부르크 사이일 가능성이 컸다. 열차는 루안에서 정차하기 때문이다. 만약 비극이 루안(그들이 8시에 도착한 곳) 이전에 발생했다면, 다르자크 씨는 아마도 루안 역에서 전보를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부르크-리옹 간 열차 시간표를 확인했다. 다르자크 씨는 리옹행 9시 29분 열차가 출발하기 딱 1분 전, 부르크 역에서 전보를 부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열차는 리옹에 10시 33분에 도착한다. 반면 스탕제르송 씨를 태운 열차는 10시 34분에 리옹에 도착했다. 보르를 거쳐 잠시 정차한 뒤, 다르자크 부부는 리옹에서 스탕제르송 씨를 만났고, 그들은 스탕제르송 씨보다 정확히 1분 앞서 도착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비극이 그들을 원래 길에서 벗어나게 했을까? 우리는 가장 비관적인 추측들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추측의 밑바탕에는, 불행히도 라르상의 재등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친구들이 누구도 놀라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였다. 다르자크 씨는 자신의 입장에서, 마틸드 부인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한편 스탕제르송 씨는 이 새로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점을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대강의 실마리를 풀고 난 뒤, 룰타비유는 나에게 권했다. 휴식과 여행을 모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국제 침대차 회사가 제공하는 호화로운 시설을 충분히 즐기라고 했다. 그는 본보기로 나섰다. 마치 호텔 객실에서 하듯,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몸단장을 아주 꼼꼼하게 치렀다.

십오 분 뒤, 그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코골이를 믿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비뇽에 도착하자마자 룰타비유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바지와 재킷을 입었다. 그리고 승강장으로 달려가 뜨거운 초콜릿을 한 잔 들이켰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비뇽에서 마르세유까지, 우리의 불안감 속에서 여정은 꽤나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다 드디어 그가 처음 기묘한 삶을 시작했던 그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룰타비유는 아마도 다가오는 '진실을 아는' 시간으로 인해 커져만 가는 공포에 맞서기 위해, 옛날의 몇몇 일화를

꺼내 나를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에게 그 이야기들이 전혀 재미없어 보였지만 말이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툴롱에 도착했다.

이 무슨 여행인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었을 여행이었던가! 원래라면, 그 아름다운 땅을 다시 만날 때마다 나는 새로운 열정을 느끼곤 했다. 눈이 오고, 비가 내리고, 진흙투성이인 파리에서 끔찍하게 떠난 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파란 바다와 마주했던 그 순간은 마치 낙원의 한 구석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면, 나는 영광스러운 P.L.M. 역의 플랫폼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내일 아침, 두 개의 철로 끝에서 나를 기다릴 친구를 떠올렸다. 바로 태양이었다.

툴론을 지나면서 우리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다.

칸에 도착해 보니, 기차역 승강장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다르자크 씨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룰타비유가 디종에서 보낸 전보가 다르자크 씨에게 분명히 닿았기 때문이다. 그 전보에는 멘톤 도착 시간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르자크 씨는 전날 아침 열 시에 다르자크 부인, 스탕제르송 씨와 함께 멘톤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멘톤을 다시 떠나 우리를 맞으러 칸까지 달려온 것이다. 우리는 그의 전보로 미루어, 그가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 짐작했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피로에 절어 있었다. 그를 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다.

"재앙이라도?"

룰타비유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다."

그가 대답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룰타비유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제때에 도착했군."

다르자크 씨는 간단히 말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향해 침묵 속에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는 우리를 우리 칸 안으로 이끌었다. 그는 커튼을 당기는 것을 잊지 않았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 공간에 있게 되고,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마침내 말을 시작했다. 그의 감정은 너무 커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음, 그는 죽지 않았어!"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의심했어," 룰타비유가 가로막았다. "하지만, 당신은 확신해요?"

"나는 그를 보았어. 내가 당신을 보는 것처럼."

"다르자크 부인도 그를 보았나요?"

"안타깝게도, 그녀가 그것을 어떤 환각이었다고 믿게끔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합니다! 불쌍한 여자가 다시 미쳐버리는 건 원치 않아요!… 아, 친구들, 우리 뒤를 쫓는 불운이여!… 그 남자는 왜 우리 주변에 다시 나타난 걸까?… 또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나는 룰타비유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르자크 씨보다 더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실제로 닥친 것이다. 그는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 힘도 없이 늘어져 있었다. 우리 셋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다르자크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들어라! 그 남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해! 반드시 그래! 그를 찾아내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해…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돈을, 우리가 주면 돼… 아니면, 내가 그를 죽여버릴 거야! 간단하지! 그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자네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우리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다.

룰타비유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분명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다르자크 씨에게 진정을 취하고, 파리를 떠난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세세하게 들려줄 것을 권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 준 바에 따르면, 사건은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 부르크에서 일어났다.

다르자크 씨는 침대차의 두 칸을 예약해 놓았다. 이 두 칸은 세면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쪽 칸에는 다르자크 부인의 여행 가방과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고, 다른 한쪽 칸에는 작은 짐들이 놓여 있었다.

파리에서 디종까지의 여정은 다르자크 부부와 스탕제르송 교수 이 세 사람이 마지막 칸을 함께 사용했다. 디종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내렸고, 플랫폼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시간이 충분했다. 그들은 오후 여섯 시 이십칠 분에 도착했지만, 스탕제르송 교수는 일곱 시 여덟 분에 디종을 떠나야 했고, 다르자크 부부는 정확히 일곱 시에 떠났다.

저녁 식사 후, 스탕제르송 교수는 기차역 승강장 위에서 딸과 사위에게 작별 인사를 나눴다. 다르자크 부부는 작은 수하물을 넣은 객차로 올라가 창가에 서서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교수와 대화를 나눴다. 기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만, 스탕제르송 교수는 여전히 승강장 위에 서서 다르자크 부부에게 친절한 손짓을 보내고 있었다.

디종에서 부르크에 이르는 구간 동안, 다르자크 부부는 그들이 타고 있던 객차 옆 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옆 칸에는 다르자크 부인의

여행용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 옆 칸의 출입문은 파리를 떠날 때, 가방이 실린 직후 닫혔다. 하지만 이 문은 외부에서 직원이 자물쇠로 잠그지도 않았고, 내부에서 다르자크 부부가 빗장으로 잠그지도 않았다.

대신 로베르 다르자크가 내부에서 커튼을 창유리에 밀착시켜 당겼다. 덕분에 복도에서는 객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볼 수 없었다. 반면,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던 객차의 커튼은 당겨지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은 룰타비유가 매우 치밀한 질문지를 통해 밝혀냈다. 나는 그 질문지의 세부 사항까지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다. 다만, 다르자크 부부가 부르크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스탕제르송 교수가 디종에 도착하기까지의 여행 조건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그 결과를 제시할 뿐이다.

부르크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퀼로즈 선에서 사고가 발생해, 기차가 부르크 역에서 한 시간 반 동안이나 멈춰 서 있다는 것이었다.

다르자크 부부는 기차에서 내려 잠시 산책을 했다. 그 사이 다르자크 씨는 아내와 나누던 대화 중, 출발 전에 급하게 써야 할 편지를 몇 통이나 잊어버렸음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역의 뷔페 안으로 들어갔다. 다르자크 씨는 편지 쓸 재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마틸드는 남편 곁에 앉았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내가 기차 앞을 조금 산책할게요. 당신이 편지 다 쓰시는 동안 잠시 시간을 보내죠."

"좋소. 내가 다 쓰면 곧장 찾아갈 테니." 다르자크 씨가 대답했다.

"이제 다르자크 씨에게 말을 넘기겠다."

"저는 글을 다 쓰고 일어났습니다. 마틸드를 만나러 가려던 참이었죠. 그때 그녀가 공포에 질려 식음료 판매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제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녀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며, 부드럽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토록 갑작스러운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 없었던 그녀를 앉게 하고, 무엇인가 마시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한 모금의 물도 삼킬 수 없다며 이를 딱딱 부딪쳤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을 이을 수 있게 되자, 문장마다 멈추며 주변을 공포에 찬 눈빛으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듯이 역 앞을 산책하러 나갔지만, 제가 곧 글을 마칠 것이라 생각하여 멀리 나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역 안으로 들어가 다시 플랫폼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음료 판매대 쪽으로 향하던 중, 그녀가 옆 칸에서 와건-리트(Wagons-Lits) 직원들이 침대칸을 준비하는 모습을 밝게 빛나는 기차 창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보석을 넣어둔 야간용 가방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이 신사들을 불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행 중 자연스러운 신중함의 발로였을 뿐이죠.

그녀는 기차로 올라가 복도를 지나, 파리 출발 이후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녀가 예약한 칸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칸 안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고, 그 순간 다른 기차가 역을 지나가며 기관차의 굉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을 빼앗는, 기괴한 사건이었습니다. 칸 안에는 화장실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칸 안쪽으로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은 칸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시선에 비스듬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 작은 문에는 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마틸드는 라르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도움을 부르며 도망쳤습니다. 기차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급박하게 도망치다 보니, 플랫폼 위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녀는 제가 말씀드린 그 상태로 식음료 판매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제 첫 번째 생각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사건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틸드가 다시 미쳐버릴까 봐, 저는 그것을 믿지 않는 척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라르상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죽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저는 그녀에게 말한 것처럼 그것을 믿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거울의 효과와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를 확인하려 했고, 그녀가 환각의 희생자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즉시 그녀와 함께 칸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저도 그 칸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그녀는 그날 밤 여행을 거부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짧은 문장들로 말을 이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무한한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수록, 그녀는 그 실재를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글랑디에 사건 당시 라르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 얼굴을 충분히 알지 못해 비슷한 사람일 뿐이라고 오해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죠.

그녀는 라르상의 얼굴을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얼굴은 두 번의 상황 속에서 그녀에게 나타났고, 백 년을 살아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복도' 사건 때였고, 두 번째는 그녀 방에서 제가 체포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르상이 누구인지 알게 된 그녀에게, 그것은 단지 경찰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년간 그녀를 쫓아온 두려운 남자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와 그녀의 머리를 걸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발메이어를 보았다고! 발메이어가 살아있다고! 거울 속에서 라르상의 얼굴을 한 채로, 완전히 면도한 얼굴로, 드러난 큰 이마를 가진 채로 살아있다고!

그녀는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다른 어떤 이별보다 더 끔찍한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플랫폼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눈 위에 올리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역장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역장도 저처럼 그 불쌍한 여자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시 미쳐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역장에게 제 아내가 칸 안에서 혼자 무서움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칸으로 가서 그녀를 무서워하게 만든 이유를 파악하는 동안, 역장에게 그녀를 지켜봐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들이여, 그때였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역장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안으로 들어와 급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제 얼굴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역장이 저를 매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라르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 아내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꿈꾸지 않았습니다. 라르상은 역 안에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그 문 뒤에."

이렇게 말한 로베르 다르자크는 잠시 침묵했다. 그 개인적인 환상에 대한 기억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힘을 빼앗아 간 듯했다. 그는 이마에 손을 대고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역장실 문 앞에는 가스등이 하나 있었고, 그 가스등 아래에는 라르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그를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비참한 자를 바로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장은 우리를 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마틸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자는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제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실로 돌아와 부르그에서 리옹까지 거리가 먼지, 그리고 리옹으로 가는 다음 열차는 언제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짐에 대한 지시를 내리라고 요청했고, 가능한 한 빨리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제게 청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 새로운 계획에 반대하지 않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라르상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네, 제 눈으로 확실히 보았으니, 우리의 대장정이 불가능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친구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만을 구할 수 있는, 신비롭고도 환상적인 위험 말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말입니다."

다르자크 씨는 룰타비유를 향해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틸드는 제가 즉각적으로 모든 준비를 해준 순종적인 태도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겨우 15분도 걸리지 않은 이 사건 이후, 9시 29분 리옹행 열차를 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뜨거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열차는 아침 10시경 리옹에 도착합니다. 철도 안내표를 확인해 보니, 우리는 리옹에서 스탕제르송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마치 제가 이 행운의 우연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9시 열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플랫폼을 빠르게 지나갈 때, 제가 라르상을 처음 본 그 가스등 아래를 지나자, 저는 그녀가 제 팔에 기댄 채 다시 쓰러질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것을 보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오히려 커졌고, 그녀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이미 승객으로 3분의 2쯤 찬 객차로 들어가자고 제게 간청했습니

다. 짐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저는 그녀를 잠시 떠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 틈을 비켜나 당신이 받은 그 전보를 부치러 전신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전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녀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부활을 믿는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아내의 가방을 열어보니 그녀의 보석은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몇 안 되는 대화는 모두 스탕제르송 씨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알리면 치명적인 슬픔을 안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옹 역 플랫폼에서 우리를 발견한 스탕제르송 씨의 경악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마틸드는 쿠로즈 선에 심각한 철도 사고가 발생해 선로가 막혔기 때문에, 회피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의 친구인 아서 란스와 그의 젊은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를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가족의 충실한 친구인 란스 부부로부터 간곡히 부탁받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왕 이 기회에 독자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두는 게 좋겠다. 물론 다르자크 씨의 이야기 흐름을 잠시 끊는 셈이 되지만 말이다.

전작 『노란 방의 미스터리』에서 언급했듯이, 아서 윌리엄 랜스 씨는 스탕제르송 양에게 오랫동안 희망 없는 사랑을 바쳐왔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사랑을 완전히 단념한 상태다.

결국 그는 젊은 미국인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했다. 이 여성은 저명한 교수의 신비로운 딸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글랑디에의 비극이 일어난 뒤, 스탕제르송 부인은 파리 교외의 요양원에서 회복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 무렵, 어느 맑은 날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윌리엄 아서 란스 씨가 필라델피아 과학 아카데미의 노지질학자 조카와 결혼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마틸드에게 품었던 불행한 사랑과, 그 사랑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아는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사랑은 평소 절제 있고 단정했던 한 남자를 순간적인 광기에 빠뜨려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들은 란스가 절망 끝에 결혼을 선택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뜻밖의 이 결혼이 가져올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에디트 프레스코트 미스가 부자였기에 란스에게 유리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은 묘하게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란스 부부가 어떻게 해서 전년도 가을에 에르퀼 반도의 고대 요새가 있는 로슈루즈(붉은 바위)의 소유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연유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르자크 씨에게 다시 말을 넘겨야 한다. 그는 여전히 기이한 여정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탕제르송에게 이 모든 사정을 설명하자, 우리 친구가 회상했다. "부인도 저도 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것을요. 오히려 우리를 다시 만나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깊은 슬픔에 잠기셨더군요. 마틸드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녀 아버지는 우리가 떠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고, 우리가 그걸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죠.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대화를 아침의 의식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당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여. (다르자크는 룰타비유에게 말을 건넸다.) 그때 저는 스탕제르송에게 이 기회를 이용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우리가 모두 멘톤에 모이게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보내실 수 있는 초대를 받으시면 기쁘실 거라고요. 로슈 루즈에는 빈자리가 충분합니다. 아서 란스 씨와 그의 젊은 부인도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하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마틸드는 눈빛으로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녀가 다정하게 저의 손을 꽉 쥐는 것이, 제 제안이 그녀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발랑스 도착 시, 스탕제르송이 제 권유로 방금 써보낸 전보를 제가 직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보는 당신에게도 분명 도착했을 겁니다.

그날 밤 내내,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옆 칸에서 쉬고 계실 때, 마틸드는 제 가방을 열어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총을 장전해 제 코트 주머니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격받으면,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아, 그 밤이여, 내 친구여. 우리가 보낸 그 밤이여…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침묵했습니다. 잠든 척하며, 빛 속에서도 눈꺼풀을 감았죠. 감히 우리 주위를 어둡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객실 문은 빗장으로 잠갔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심장은 뛰었습니다. 그의 발소리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거울에 그의 얼굴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봐 거울을 가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왔을까요? 우리가 그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쿠로즈 열차로 다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 그녀가 어땠을까요… 아, 저는 그녀를 그곳, 구석에서 조용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불행했습니다. 그녀가 따라다니는 모든 불행,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들 때문이었죠.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건넨 말에 그녀는 절망적인 제스처를 보였고, 침묵하는 것이 더 자선일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녀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증언을 대충 요약한 것이 아니다. 룰타비유와 나는 그 증언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멘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두 사람 모두 그의 말을 가능한 한 충실히 기록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고, 대략의 문장을 정리한 뒤 이를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보여줬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수정을 가할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글이 바로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다.

스탕제르송 씨와 다르자크 부부의 여행 길에는 기록할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

멘톤-가라반 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서 란스 씨를 만났다. 란스 씨는 신혼 부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하지만 다르자크 씨가 그동안 여러 구실로 거절해 왔던 초대를 받아들여, 스탕제르송 씨와 함께 며칠 동안 자택에 머물기로 했다는 말을 듣자, 그는 아주 기뻐하며 아내 역시 큰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룰타비유의 다가올 도착 소식도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아서 란스 씨는 자신이 에디트 프레스코트 미스와 결혼한 이후에도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여전히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했던 태도에 마음고생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산레모를 방문했을 때, 소르본나의 젊은 교수는 허겁지겁 들르는 정도로 에르쿨레 성을 방문했을 뿐, 매우 격식 차린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프랑스에 돌아와 국경 다음 역인 멘톤-가라반 역에 도착했을 때, 스탕제르송 씨로부터 다르자크 씨의 귀국을 미리 알려받은 란스 부부는 재빨리 역으로 달려가 그를 맞았다. 란스 씨는 그를 매우 정중하게 맞이하며, 건강이 더 나아진 듯하다는 말을 건네며 따뜻하게 축하했다.

결국 다르자크 가문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한 것은 아서 란스 씨의 탓이 아니었다.

우리는 라르상이 부르크 역에 다시 나타난 것이, 다르자크 부부의 여행 계획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았다. 라르상의 등장은 그들로 하여금 란스에 대해 가졌던 신중함과 거리두는 마음을 잊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스탕제르송과 함께, 자신들이 호감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충실하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동시에 그들은 룰타비유를 구원자로 불렀다. 이는 진정한 공포였다.

이 공포는 니스 역에 도착해 우리가 아서 란스 씨 본인과 마주했을 때, 특히 로베르 다르자크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커졌다. 하지만 란스가 우리를 쫓아오기 직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작은 사건 하나를 겪었다.

니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플랫폼으로 뛰어내려 역 사무실로 달려가 내 이름으로 온 전보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푸른 종이를 건네받았고, 그것을 열지도 않은 채 룰타비유와 다르자크 씨를 찾아 달려갔다.

"읽어 보시오." 나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룰타비유는 전보를 받아 펼쳐들었다.

« 브리뇰, 4월 6일 이후 파리 떠난 적 없음. 확신. »

룰타비유는 나를 바라보더니 킥킥 웃었다.

"아, 대체 뭐야? 이 정보를 네가 요청했어? 대체 무엇을 의심했다는 거지?"

"디종에서였소." 나는 룰타비유의 태도에 다소 상처받으며 답했다. "당신이 받은 전보들이 예고하는 불행에 브리뇰이 연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 친구에게 그 인물의 동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소. 그가 파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했으니까."

"좋아요,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이제 당신은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창백한 얼굴을 한 브리뇰이 부활한 라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건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악의적으로 외쳤다. 사실 나는 룰타비유가 나를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당신은 아직 브리뇰과 인연이 다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다르자크 씨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착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박했다.

나는 다시 구석으로 몸을 던졌다. 평소에도 내 개인적인 추측은 룰타비유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종종 내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며칠 후,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다. 브리뇰이 라르상의 새로운 변장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비열한 자라는 증거 말이다. 그 일로 인해 룰타비유와 다르자크 씨는 나의 통찰력을 인정하며 나에게 사죄까지 했다.

하지만 아직 그 이야기로 넘어가지는 말자. 내가 이 일을 꺼낸 것은,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라르상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 대부분은 그를 잘 알지 못했다. 발마이어가 그토록 자주, 아니 그토록 천재적으로 변장을 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과 사물을 의심하는 것이 내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곧 나는 깨닫게 된다. 아서 란스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도 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라르상은 이번에는 전술을 바꾼 것이다.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적어도 우리 중 일부에게는, 전례 없는 대담함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했을까? 다르자크 씨나 그의 아내가 그를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그의 그런 과시적인 태도는, 자신들이

이제 그를 영원히 떨쳐냈다고 믿는 부부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복수인가? 결혼식 전에 모습을 드러냈다면 더 큰 복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는 결혼을 방해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파리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파리에서의 그런 과감한 행동이 라르상으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우리 세 명에게 합류한 아서 란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란스는 자연스럽게 우리 객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부르크의 일이나 라르상이 기차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놀랄 만큼 무서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쿠로즈선에서 라르상을 잃어버렸다는 희망을 아직 조금이라도 품고 있었다면, 이제 그 희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란스 역시 라르상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당신을 역까지 바래다 드렸죠." 란스가 다르자크에게 보고했다. "열차가 출발한 뒤, 당신의 부인과 스탕제르송 선생님, 그리고 저는 산책하듯 내려가 망망대해가 내려다보이는 멘톤의 산책용 부두까지 갔습니다."

"스탕제르송 선생님은 다르자크 부인에게 팔을 내어주고 계셨어요. 그가 부인에게 말을 건네는 동안, 저는 스탕제르송 선생님의 오른쪽에 서 있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스탕제르송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게 된 셈이었습니다."

"갑자기 공원의 출구에서 트램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발걸음을 멈췄을 때, 누군가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실례합니다, monsieur(선생님)!'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 보니, 그 사람은 라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심문정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라르상은 차분한 눈으로 우리 세 사람을 모두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터져 나올 뻔한 외침을 어떻게 참았는지, 저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악당, 그 비루한 자의 이름을 불러버릴 뻔했으니까요. '라르상!' 하고 소리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재빨리 스탕제르송 선생님과 그의 딸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저는 그들을 음악대 옆으로 돌려 보냈고, 다시 마차 정거장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위에 서서 정거장 앞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라르상을 마주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스탕제르송 선생님과 그의 딸이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로베르 다르자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요. 저는 잠시 어지러움을 가장했고, 우리는 마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마부에게 말들을 재촉하라고 명했죠. 우리가 막 출발할 때에도, 그 남자는 여전히 보도에 서서 우리를 얼어붙은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를 보지 못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다르자크는 점점 더 초조해하며 다시 물었다.

"오! 확실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룰타비유가 말을 끊었다. "다르자크 님, 라르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내를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큰 착각입니다."

"하지만," 다르자크가 재차 말했다. "우리가 여행을 마친 직후부터, 그녀는 환각에 사로잡혔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가라반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그녀가 거의 평정된 모습으로 보였죠."

"가라반에 도착했을 때요?" 룰타비유가 물었다. "다르자크 씨, 그건 바로 당신의 부인이 저에게 보냈던 전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전보를 다르자크에게 건넸다. 전보에는 오직 두 단어로 된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듣자, 불쌍한 다르자크 씨는 더욱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미쳐버릴 거야!” 그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던 바였다. 기묘하게도, 드디어 멘통-가라반 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스탕제르송 씨와 다르자크 씨를 그곳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아서 란스에게 한 엄격한 약속을 어기고 역을 찾았던 것이다. 그 약속이란, 교수님이 딸과 함께 로셰 루주에 남아 그가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 이유를 생각해 낼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다르자크 씨는 조제프 룰타비유를 맞이하며, 우리의 공포를 그대로 반영한 한 마디를 건넸다. 룰타비유를 본 순간, 마틸드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우리 모두 앞에서 그를 안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을 구해 줄 손에 매달리는 난파자와 같이 룰타비유에게 달라붙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시 미쳐가는 것 같아!”

룰타비유에 관해서는, 나는 그가 때때로 이렇게 창백한 모습을 보았지만, 이렇게 차가운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이었다.

가라반 역에서 내려서면, 그 계절이 무엇이든, 이 마법 같은 땅에 발을 디딘 여행자는 바로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 도착한 줄 알 것이다. 그곳의 금사과를 노려 헤라클레스가 싸웠다는 전설의 땅이다.

하지만 나는 아마도 이 곳의 무수한 레몬나무와 오렌지나무 때문에 만은 그 고리타분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향기로운 공기 속에서 그 나무들은 길가 울타리 너머로 해처럼 빛나는 열매를 늘어뜨리고 있다.

만약 이 곳의 모든 것이 그의 신화적 영광과, 가장 부드러운 해안가를 걷던 그의 전설적인 행각을 상기시키지 않았다면 말이다.

전설에 따르면, 페니키아인들은 그들의 신상을 모시고, 훗날 그리말디 가문이 살게 될 바위의 그늘로 옮기며, 그 바위가 감싸고 있는 작은 항구와 해안선을 따라 있는 산과 곶, 반도 전체에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의 신 이름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페니키아인들은 그 이름을 이미 그곳에서 발견했을 것이라고.

진실로, 헬라(그리스)의 길먼지로부터 지친 신들이 다른 곳으로 놀라운 안식처를 찾아 떠났다면, 따뜻하고 향기로운 그곳이야말로 그들이 찾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이다. 그곳이야말로 바로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백두 용을 물리쳐, 코트다쥐르를 혼자 독차지하려던 괴물을 제거함으로써, 올림포스의 동료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몇 년 전 로슈 루즈(붉은 바위) 바닥에서 발견된 고대 코끼리(엘레파스 안티쿠스)의 뼈들이, 바로 그 백두 용의 뼈가 아니라고는.

우리는 기차역에서 내려, 아무 말 없이 해안가까지 걸어갔다. 눈앞에 갑자기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헤르쿨레스 반도에 우뚝 선 요새의 눈부신 실루엣이었다. 국경 공사로 인해, 불행히도 지난 십 년간 사라져 버린 곳이었다.

해는 서서히 기울며, 구식 사각탑의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을 받은 사각탑이 바다 위에서 갑옷처럼 번쩍였다. 요새는 마치 다시 젊어진 노병처럼, 낫처럼 휘어진 아즈르빛 가라반 만을 지키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갈수록, 그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우리 뒤에 있던 해는 산맥의 능선 쪽으로 기울었고, 서쪽의 곶들은 이미 저녁의 접근을 알리며 보랏빛 스카프를 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요새의 문턱을 넘었을 때, 요새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그림자에 불과했다.

좁은 계단의 첫 몇 단에는 한 가녀리고 매력적인 인물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아서 란스의 아내, 빛나고 눈부신 에디트였다.

물론 램머무어의 약혼녀는 더 하얗지 않았다. 검은 눈매의 젊은 이방인이 그녀를 거친 소로부터 구해냈던 그 날에도 그랬다. 하지만 루시에는 푸른 눈이 있었고, 루시는 금발이었다. 오, 에디트여!

중세풍 배경에서 로맨스적인 모습을 연출하려 할 때, 미묘하고 먼 곳의, 슬프고 우울한 공주 같은 자태를 취하려면 그런 눈매를 가질 필요는 없다, 마이 레이디! 당신의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보다도 더 검다. 그 색은 천사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당신은 천사인가, 에디트? 그 나른함은 정말 자연스러운가? 당신의 얼굴 표현은 거짓이 없는가?

에디트여, 이런 질문들을 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내가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돌계단에 멈춰 선 당신의 하얀 형상이 지닌 섬세한 조화에 매료된 후, 당신의 검은 눈빛이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을 향하는 것을 따라가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에 당신의 친근한 목소리 톤과 게으른 입술 미소와는 기묘하게 대비되는, 날카로운 광채가 있음을 보았다.

이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확실한 매력을 지녔다. 그녀의 온몸에서 풍기는 우아함은 완벽했다. 손짓 하나도 조화롭기 그지없었다.

아서 란스가 자연스럽게 맡은 소개에 그녀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호의적인 태도로 화답했다.

룰타비유와 나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 정중한 시도를 했다. 우리는 허큘레스 성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묵을 수 있음을 제안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입술을 오므리며, 아이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우리 방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단언한 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오, 오세요! 오세요! 성을 모르시죠? 보실 거예요! … 보실 거예요! … 오, 룰타비유 씨, 나중에 다시 '늑대' 탑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유일하게 슬픈 곳이죠! 음산하고! 어둡고 차가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무서운 게 좋아요! … 오, 룰타비유 씨, 저를 무서워하게 해 줄 이야기들을 꼭 들려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우리 앞에서 살며시 지나간다. 배우처럼 걷는 그녀. 이 동양식 정원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탑과 폐허가 된 예배당의 꽃으로 뒤덮인 가느다란 아치 사이에 서 있는 그녀는 유난히도 아름다웠다.

우리가 지나가는 넓은 마당은 사방으로 다육식물과 풀, 나뭇잎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인장과 알로에, 월계수와 들장미, 데이지까지. 마치 영원한 봄이 이 곳, 과거에는 전쟁터의 사람들이 모이던 성의 구내에 터를 잡은 듯했다.

바람의 도움과 인간의 무관심 덕분에 이 마당은 자연스레 정원이 되었다. 그곳은 제멋대로 자란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성주가 최소한의 손질만 했고, 너무 급격하게 질서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모든 푸르름과 향기 뒤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죽은 건축물이 보였다. 화염 양식의 고딕 양식 중 가장 순수한 아치들을 상상해 보라. 그것들은 낡은 로마네스크 양식 예배당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기둥은 덩굴식물과 아이비 제라늄, 버베나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향기로운 껍데기에서 솟구쳐 올라, 하늘의 푸름을 향해 부서진 아치를 휘감았다. 아무것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듯했다.

이제 이 예배당에는 지붕이 없다. 벽도 없다. 남아 있는 것은 저녁 공기에 매달려 있는 기적적인 균형으로 유지되는 돌의 레이스 조각뿐이다.

그리고 우리 왼쪽에는 거대하고 장중한 탑이 서 있다. 12세기에 지어진 이 탑은 현지인들이 에디트 부인의 말에 따르면 '늑대(Louve)'라고 부른다. 세월도, 인간도, 평화도, 전쟁도, 대포의 포화도, 폭풍우도 이 탑을 흔들지 못했다.

그 모습은 1107년 약탈을 위해 들이닥친 사라센인들에게 그대로 드러났다. 그들은 레린 제도를 점령했지만, 헤르쿨레스 성을 뚫지는 못했다. 또한 살라제리와 그의 제노바 해적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해적들이 요새의 모든 것을, 심지어 사각 탑과 옛 성까지 모두 빼앗아 갔을 때, 이 탑은 고립된 채 끝까지 버텼다. 방어군들이 다른 방어 시설과 연결된 성벽을 폭파하고 홀로 저항했던 것이다. 프로방스의 왕자들이 도착하여 이 탑을 구원할 때까지였다.

에디트 부인은 바로 이 탑에 집을 정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사물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을 본다. 예를 들어 아서 란스가 다르자크 씨를 응시하는 모습을 말이다. 반면 다르자크 부인과 룰타비유는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다. 다르자크 씨와 스탕제르송 씨는 아무 의미 없는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설령 무언가를 말하더라도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한 개의 작은 문에 다다랐다.

"이곳을 우리가 '정원사의 탑'이라고 부른답니다." 에디트가 말했다. 여전히 어린애 같은 말투를 짐짓 꾸미며. "이 작은 문을 통해 보면 요새 전체와 성, 그리고 북쪽과 남쪽 면이 모두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그녀는 스카프가 늘어뜨려진 팔을 뻗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돌들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에디트가 참으로 명랑하군." 아서 란스가 속삭였다. "이곳에서는 그녀만큼이나 밝은 이는 없을 거야."

우리는 성문 아래를 지나 새로운 안뜰로 들어섰다. 바로 앞에 오래된 아성(牙城)이 우뚝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정말로 위압적이었다. 아성은 높고 사각형이었다. 그래서 때때로 '사각의 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탑은 성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이름, '모퉁이의 탑'이라고도 불렀다. 이 일련의 방어 시설들 중에서도 이 부분은 가장 기이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벽은 다른 곳보다 훨씬 두껍고 높았다. 중간쯤까지 이어진 벽은 로마 시멘트로 굳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카이사르의 식민지 주민들이 쌓아 올린 돌들이었다.

"저기, 반대쪽 구석에 있는 그 탑 말이에요." 에디트가 말을 이었다. "샤를 용감공 탑이라고 불러요. 성의 방어 시설을 개선해 포병의 공격에 견딜 수 있게 할 때, 공작이 설계도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오, 저는 꽤 박식한 편이에요.

밥 영감이 그 탑을 자신의 서재로 썼거든요. 아쉽긴 해요. 그곳은 멋진 식당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밥 영감에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밥 영감은 제 삼촌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부르라고 했죠. 지금 그는 여기 없어요. 닷새 전 파리로 떠났다가 내일 돌아올 거예요. 붉은 바위에서 발견한 해부학적 표본들을 파리 자연사 박물관의 그것과 비교하러 간 거죠.

아, 여기 지하 감옥이 하나 있네요.”

그녀는 두 번째 안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을 가리켰다. 그녀는 그것을 낭만주의자의 취향에서 ‘오블리에트(잊혀진 우물)’라 불렀다. 우물 위로는 유칼립투스 한 그루가 매끈한 살결과 헐벗은 가지를 드러낸 채, 분수대 옆의 여인처럼 몸을 굽혀 기울어져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안마당으로 들어선 뒤, 나는 요새의 배치 구조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나는 말이다. 룰타비유는 모든 것에 점점 더 무관심해져, 보이는 것도 듣는 것도 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이후 거의 즉시 붉은 바위에서 벌어질 놀라운 사건들에 있어 이 요새 배치는 지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자가 먼저 눈앞에 그릴 수 있도록, 룰타비유가 나중에 직접 그려 넣었던 요새의 전체 평면도를 먼저 제시하겠다.

이 성은 1140년, 모르톨라 가문의 영주들이 세웠다. 그들은 이 반도를 완전히 육지와 단절시키기 위해, 육지와 연결하던 극히 좁은 지협을 잘라내어 인공 섬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해안가에는 반원형의 초보적인 요새인 바르바카나를 쌓아, 인공섬으로 들어가는 도개교와 두 개의 입구 탑을 보호했다.

하지만 그 바르바카나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세월이 흐르며 지협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도개교는 철거되었으며, 해자는 메워졌다.

헤르쿨레스 성의 성벽은 불규칙한 육각형 모양의 반도 형태를 그대로 따라갔다. 성벽은 바위 절벽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고, 바위는 일부 해수면 위로 우뚝 솟아올라 있었다. 파도는 쉬지 않고 그 바위를 파고들었다. 그래서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치지 않을 때만은, 작은 배가 이 자연의 천장 아래에 숨어들어 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지형은 방어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어느 쪽에서든 성벽을 타고 올라오려는 시도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새로는 북쪽 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 문은 아치형 천장으로 연결된 두 탑 A와 A'가 지키고 있었다. 이 탑들은 제노아인들에 의한 최근의 공성전 때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조금씩 수리되었고, 란스 부인의 손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상태로 복원되었다. 그들은 이 공간을 하인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했다.

탑 A의 1층은 문지기의 숙소로 쓰였다. 탑 A의 측면, 아치형 천장 아래에는 작은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이 문을 통해 파수꾼은 모든 출입 상황을 살필 수 있었다.

무겁고 철로 덧댄 참나무 문은 수백 년 동안 두 탑의 안쪽 벽에 접혀 있어 왔지만,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사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성의 입구는 작은 쇠창살문으로만 막혀 있었다. 주인이든 공급상이든 누구나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문이었다. 이 입구가 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문을 지나면 첫 번째 안뜰인 '바일'에 도착했다. 이 안뜰은 성벽과 탑, 혹은 남은 탑 부분들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 성벽은 원래 높이를 거의 유지하지 못했다. 옛 성벽들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순환 도로 같은 형태의 방벽이 생겼다. 이 방벽은 바일 안쪽에서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갈 수 있었다.

방벽 위에는 작은 대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이 뚫린 난간이 여전히 서 있었다. 이 변화는 15세기에 일어났다. 그 시기는 모든 영주가 대포 기술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였다.

B, B', B" 세 탑은 오랫동안 원래의 형태와 높이를 유지했다. 당시에는 뾰족한 지붕만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포를 놓을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을 만들었다. 이후 이 탑들은 방벽 높이까지 철거되어 반달 모양의 요새로 변했다. 이 작업은 17세기에 이루어졌다. 이때 '새 성'이라 불리는 근대식 성이 건설되었는데,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 성'이라고 불렸다. 이는 새 성의 시야를 틔우기 위한 것이었다. 새 성은 C와 C'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이전 성곽의 탑들이 서 있던 평지 위에는 야자수가 심어져 있었다. 하지만 바람과 바닷물에 타서 잘 자라지 못했다.

이 평지도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담장은 성곽 전체를 감싸며 절벽 위로 돌출되어 있었다. 절벽은 다시 지중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몸을 내밀어 내려다보면, 성이 여전히 예전처럼 완전히 폐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성벽의 코르틴이 오래된 탑 높이의 3분의 2에 달했을 때와 다름없었다.

내가 말했듯이, ‘루브’는 그대로 보존되었다. 물론 복원되었지만, 그 첨탑까지도 지중해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기묘하게 낡은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 또한 예배당의 폐허에 대해 언급했다. B와 B’ 사이, 담장에 기대어 있던 옛 부속 건물들은 이제 마구간과 부엌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나는 헤르쿨레스 성의 앞부분 전체를 설명해 두었다. 두 번째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서 란스 부인이 ‘정원사의 탑’이라고 부르던 포타른 H였다. 하지만 그것은 실상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는 B″ 탑과 C 지점에 있던 또 다른 탑(새 성이 지어질 당시에는 이미 완전히 사라져 버린)이 방어하던 두꺼운 정자 같은 구조물에 불과했다.

그때는 B″에서 시작해 I 지점의 ‘샤를 용감공의 탑’까지 이어지는 해자와 성벽이 있었다. 해자와 성벽은 C 지점에서 바일 안 한가운데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모양을 취하며, 그들이 봉쇄했던 첫 번째 안뜰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해자는 여전히 넓고 깊게 남아 있었지만, 성벽은 새 성 전체 길이에 걸쳐 철거되고 성벽 자체로 대체되었다. D 지점의 중앙 문은 이제 폐쇄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해자 위에 놓인 다리를 통해 바일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 가설 다리는 이미 철거되거나 무너져 내린 상태였고, 성의 창문들은 해자 위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여전히 두꺼운

철창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안뜰은 새 성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성벽으로 완전히 방어되었던 시절만큼이나 침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이 두 번째 안마당, 즉 옛 안내서들이 여전히 '샤를 용감공의 안마당'이라 부르던 곳의 바닥은 첫 번째 안마당보다 조금 더 높았다. 그곳의 바위는 더 높은 단을 이루며, 마치 자연 그대로의 받침대처럼 우뚝 섰다. 거대하고 경이로우며 검은 빛을 띤 이 '구성(Old Castle)'은 사각형에 곧은 형태를 띠고, 한 덩어리처럼 단단히 붙어 있었다. 그 위엄 있는 그림자가 맑은 물결 위에 길게 늘어졌다.

구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작은 문 K 하나뿐이었다. 현지 노인들은 이 건물을 '원형 탑'이라 불리는 '샤를 용감공의 탑'과 구분하기 위해, 절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사각탑'이라 불렀다.

첫 번째 안마당을 막았던 것과 비슷한 석벽이, 탑 B″, F, L을 서로 연결하며 두 번째 안마당도 단단히 봉쇄하고 있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둥근 탑은 예전에 중간 높이까지 허물렸다가, 샤를 용감왕이 스위스 전쟁에서 몇 가지 은혜를 입은 한 모르톨라에 의해, 샤를 용감왕 자신의 설계도에 따라 재건되었다. 이 탑의 외경은 15 토퀴(약 29미터)였고, 낮은 포대 한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포대의 바닥은 평원의 윗면보다 1 토퀴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낮은 포대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로였으며, 그 끝은 네 개의 굵은 원기둥 기둥

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팔각형 방으로 이어졌다. 이 방에는 세 개의 거대한 포구멍이 열려 있었는데, 이는 세 대의 대포를 위한 것이었다.

에디트 부인은 이 팔각형 방을 넓은 식당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벽이 매우 두꺼워 내부가 시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바위 틈과 눈부신 바다의 빛이 이 포구멍-총안들을 통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 이 총안들은 사각형으로 넓혀져, 철제 봉으로 단단히 채워진 창문이 되었다.

에디트 부인의 삼촌이 작업을 하고 새로운 수집품을 보관하기 위해 점령했던 이 탑 L에는 놀라운 플랫폼이 있었다. 성주인 부인은 그곳에 비옥한 흙과 식물, 꽃들을 옮겨 심어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공중정원을 만들었다. 야자수 마른 잎으로 덮인 오두막은 그곳에서 훌륭한 피난처 역할을 했다.

나는 에디트 부인의 손길로 즉시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꾸며지며, 복원된 모든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평면도에 회색으로 표시해 두었다.

17세기 양식의 성, 일명 '신성(Château Neuf)'에서는 2층에 잠시 머무는 손님들을 위해 두 개의 방과 작은 접견실만 수리했다. 바로 그곳에서 조제프 룰타비유와 내가 묵을 예정이었다. 로베르 다르자크 부부는 '사각탑(Tour Carrée)'에 살았는데, 이 사각탑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사각탑 1층에는 두 개의 방이 남아 있었다. 그곳은 노인 밥이 묵는 곳이었다. 스탕제르송 씨는 '늑대(Louve)' 건물의 2층에 살았는데, 란스 부부 방 바로 아래였다.

에디트 부인이 우리 방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녀는 우리를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마루판이 박살 나며, 벽이 곰팡이에 젖은 방들로 이끌고 갔다. 하지만 여기저기 남아 있는 목조 패널, 거울 장식, 벗겨진 그림, 찢어진 태피스트리 하나하나는 '모르톨라' 가문의 한 사람이 17세기의 장난기 어린 취향으로 지었다는 '신성(새 성)'의 옛 영광을 증명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의 작은 방들은 그런 찬란한 과거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그곳이 세심하게 청소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방은 깨끗하고 위생적이었다. 카펫은 깔리지 않았고, 벽은 흰색으로 칠해져 광택이 났다. 가구는 현대식으로 간단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방들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앞서 말했듯, 우리 두 방 사이에는 작은 거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넥타이를 매며 룰타비유를 불렀다.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의 방으로 달려갔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떠난 뒤였다.

나는 그의 창가로 나갔다. 내 방과 마찬가지로 이 창문도 용감한 샤를의 안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커다

란 유칼립투스 한 그루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그 시간, 유칼립투스의 강렬한 향기가 내 코끝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도로 난간 너머로 고요한 바다의 광활한 풍경이 펼쳐졌다. 해가 지면서 바다는 다소 어두운 푸른빛을 띠었고, 이탈리아 해안선 너머의 지평선에는 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미 오스페달레티 곶에 그림자가 달라붙고 있었다.

땅 위나 하늘 위나 소음 하나, 떨림 하나 없었다. 나는 이런 고요함과 자연의 정지 상태가 가장 격렬한 폭풍과 번개의 폭발 직전에만 목격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밤은 확실히 평온하게 찾아오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대체 누구인가? 물결 위로 유령처럼 스며드는 저 존재는 어디서 온 것인가?

어부가 두 개의 노를 천천히 저어 나아가게 하는 작은 배의 뱃머리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실루엣을 알아봤다. 바로 라르상이었다. 누가 그를 잘못 볼 수 있겠는가? 누가 스스로를 속이려 들겠는가?

아, 그는 너무도 잘 알려진 얼굴이었다. 만약 그가 오늘 밤 마주친 이들이 그가 맞는지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해도, 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 그토록 위협적인 과시를 벌였으니, "나야!"라고 외쳐대지 않아도 충분했다.

"아, 맞다. 바로 그 녀석이다.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바로 그 위대한 프레드야."

배는 고요히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 같은 인물이 탄 채로, 요새 성을 한 바퀴 돌고 있었다.

배는 지금 사각탑의 창문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가리발디 곶 쪽, 붉은 바위 채석장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남자는 여전히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고개는 탑을 향해 돌려진 채.

그는 악마의 환영 같았다. 그는 밤의 문턱에 서 있었다. 밤은 느리고 교활하게 뒤에서 그를 따라와, 얇은 거즈처럼 그를 감싸 안고는 끌어당겼다.

이제 고개를 숙여 보니, 용감한 샤를의 안마당에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사각탑의 작은 문 옆, 난간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림자 중 하나가 더 컸다. 그 큰 그림자가 다른 그림자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다. 반면 더 작은 그림자는 도망치려 했다. 마치 바다를 향해 몸을 날릴 채비를 한 듯했다.

그때 다르자크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하세요! 그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오늘 밤은 절대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어 룰타비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반드시 해안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제가 해안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마틸드의 목소리가 신음하듯 물었다.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틸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포에 질린 그 목소리였다.

"저 남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룰타비유를 혼자서 우물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때때로 그러하듯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안뜰로 들어가 그곳에서 다르자크 씨를 만났다. 그는 매우 당황한 기색으로 내게 다가왔다. 멀리서 그가 외쳤다.

"어떻게 됐소? 그를 봤소?"

"네, 봤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그를 봤는지 아시오?"

"그녀는 봤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그녀는 룰타비유와 함께 있었거든요! 정말 대담하군요!"

로베르 다르자크는 그 광경을 목격한 후에도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그를 본 순간 미친 듯이 해안가로 달려갔지만, 가리발디 곶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 작은 배는 마법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로베르 다르자크는 내게서도 곧장 떠나 마틸드를 만나러 갔다. 그녀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안달이 난 채로 말이다. 그런데 그는 거의 즉시 다시 돌아왔다. 얼굴은 침울하고 기운이 빠져 있었다. 그의 거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인은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룰타비유는요?" 내가 물었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담장 위에 함께 앉아 라르상이 사라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로베르 다르자크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 있었다. 그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나는 그에게 란스 가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결국 내 질문에 답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차츰차츰, 베르사유 재판 이후 아서 란스가 어떻게 필라델피아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아름다운 저녁에 가족 연회에 참석해 있던 한 로맨티스트적 소녀와 마주쳤는지를 배우게 되

었다. 그녀는 문학적 재치로 그를 즉시 유혹했다. 그런 재치는 그의 아름다운 동포 여성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늘날 '플러피 러플스' 스타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던, 날렵하고 거침없으며 독립적이고 대담한 여성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소 경멸적인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만, 부드럽고 우울했으며, 흥미로운 창백함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월터 스콧의 부드럽고 애절한 여주인공들을 연상시켰다. 실제로 그녀는 월터 스콧을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꼽았다고 한다.

아, 그녀는 분명히, 그리고 달콤하게도, 시대를 뒤로 늦추고 있었다. 어떻게 이 섬세한 여인이, 거대한 위엄을 지닌 마틸드를 사랑했던 아서 란스를 그렇게도 강렬하게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음의 비밀이다.

어쨌든 아서 란스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 자각하고, 그날 밤 끔찍할 정도로 취했다. 그는 아마도 매너가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 것이다. 너무 무례한 말을 내뱉어서, 에디트 양은 갑자기 큰 소리로 그에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 아서 란스는 에디트 양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했으며, 이제 물만 마시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는 이 맹세를 지키게 된다.

아서 란스는 오래전부터 그 숙부, 즉 그 선량한 노인 문더를 알고 있었다. '늙은 밥'이라 불리던, 대학에서 그렇게 부르던 그 노련한 사내

말이다. 그는 탐험가의 모험담으로도, 지질학자의 발견으로도 이름난, 말 그대로 특별한 인물이었다.

그는 양처럼 온순했지만, 팜파스의 호랑이를 사냥하는 데는 그와 비길 자가 없었다. 그는 교수로서의 생애 절반을 리오네그로 남쪽, 파타고니아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제3기 인간, 혹은 적어도 그 골격을 찾았다. 그는 원숭이에 가까운 인류의 조상인 인간원숭이나 피테칸트로푸스를 찾은 것이 아니다. 그는 오늘날 지구에 사는 인간보다 더 강하고 더 강력한, 그야말로 제4기 이전의 지구에 나타난 경이로운 포유류와 동시대인이었던 '인간'을 찾았다.

그는 보통 이러한 원정에서 몇 상자의 돌멩이와 학계가 논쟁할 만한 충분한 양의 정강이뼈와 대퇴골을 안고 돌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토끼 가죽'이라는 풍성한 수집품도 가져왔다. 그가 그렇게 부르던 것이다. 이는 안경을 낀 그 노학자가 부싯돌 도끼나 동굴인의 뚫는 도구보다 훨씬 덜 원시적인 무기는 여전히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필라델피아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다시 자신의 강단에 복귀했다. 그는 책과 노트 위에 몸을 굽혔다. 그는 '지루한 책방쟁이'처럼 강의를 암송하곤 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눈에 자신의 긴 연필 부스러기를 튀겨 넣는 것을 즐기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그 연필을 결코 쓰지 않았지만, 끝없이 연필을 깎았다.

그가 자신의 목표, 즉 그가 겨냥하던 목적을 달성하면, 그의 책상 위에는 흰머리가 섞인 그 좋은 얼굴이 나타났다. 금테 안경 아래, 그의 유쾌한 입술은 조용하면서도 넓은 웃음으로 갈라졌다.

이 모든 디테일은 나중에 아서 란스 본인이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늙은 밥의 제자였지만, 에디스 양을 알게 되었을 무렵에는 여러 해 동안 밥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 내가 여기서 이들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련의 정황에 따라 우리가 곧 로셰루즈(붉은 바위)에서 늙은 밥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디스 양은 아서 란스가 소개되었던 그 유명한 파티에서, 그가 너무도 일관성 없이 행동했던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우울해 보였을까? 아마도 삼촌으로부터 불길한 소식을 방금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삼촌은 이미 사 년째 파타고니아에 머물며 귀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편지에서 삼촌은 자신이 매우 아프며, 죽기 전에 에디스를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조카라면, 비록 가족적인 자리라 해도 이런 상황에서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에디스 양은 삼촌의 여행 중 수많은 불길한 소식을 받아왔고, 삼촌은 먼 곳에서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곤 했다. 따라서 그날 밤 슬픔 때문에 집에 머물렀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에디스 양의 그 우울함을 결코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삼 달 후, 또 다른 편지를 받고 에디스 양은 결심했다. 홀로 아라우카니아 깊은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 삼 달 동안 기억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다. 에디스 양은 아서 란스의 자책감과 그가 이제 물밖에 마시지 않는 그 고집에 감동했다. 또한 그 신사가 음주 습관을 들이게 된 이유가 사랑의 절망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낭만적인 성격은 아서 란스의 계획을 빠르게 도와주었다.

에디스 양이 아라우카니아로 떠날 때, 늙은 밥의 제자인 아서 란스가 조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약혼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이유는, 지질학자의 축복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디스 양과 아서 란스는 산루이스에서 훌륭한 삼촌을 다시 만났다. 삼촌은 기분이 좋았고 건강도 완벽했다.

오랜만에 삼촌을 만난 란스는 대담하게도 삼촌이 젊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가장 현명한 칭찬이다. 조카가 그 매력적인 청년과 약혼했다고 알렸을 때, 삼촌의 기쁨은 두드러졌다. 세 사람은 필라델피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에디스 양은 프랑스를 모른다. 아서 란스는 신혼 여행을 프랑스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설명될 과학적인 기회를 통해 멘톤 근처에 정착하게 되었다. 프랑스가 아니라 국경에서 백 미터 떨어진 이탈리아의 로셰 루즈(붉은 바위) 앞이었다.

종이 울리자 아서 란스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라 루브'로 향했다. 그날 저녁, 하층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 모였다. 늙은 밥만 제외하고는 모두 있었다. 그는 에르클 요새에 없었다.

에디스 부인이 물었다. "누군가 작은 보트를 본 사람 있나요? 성을 한 바퀴 돈 그 보트요. 그 안에는 서 있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남자의 태도가 이상해서 눈이 멈췄거든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에디스 부인이 다시 말했다. "알아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보트를 몰던 선원을 알거든요. 늙은 밥의 큰 친구예요."

"정말요?" 룰타비유가 말했다. "선원을 아신다니, 부인?"

그가 성에 찾아오기도 한다. 생선을 팔러 오는 것이다.

고장 사람들은 그에게 이상한 별명을 붙였다. 그들의 사투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 그대로 전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뜻을 번역해 들었다.

그 뜻은 '바다의 처형인'이다.

꽤나 그럴듯한 이름이 아닌가?

룰타비유는 이 놀라운 별명의 의미를 묻는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 그는 가장 어두운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참으로 기묘한 저녁 식사였다. 기묘한 성이었다. 기묘한 사람들이었다. 에디스 부인의 나른한 미소조차 우리를 깨워 일으키지 못했다. 그곳에는 두 쌍의 신혼부부, 즉 네 명의 연인이 있었다. 그들은 그 자리의 활기가 되어야 했고, 삶의

기쁨을 뽐내야 했다. 그러나 식탁은 그중에서도 가장 비참할 정도로 침울했다. 라르상의 그림자가 손님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심지어 그 존재가 우리 중 한 명에게 그리 가깝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조차도.

게다가 마땅히 말해 두자면, 스탕제르송 교수는 그 잔혹하고도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 악몽 같은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과언이 아님을 확신하며, 글랑디에 사건에서 첫 희생자가 되었으며 가장 불쌍한 이는 바로 스탕제르송 교수였다고 단언한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과학에 대한 신념도, 노동에 대한 사랑도 잃었다. 그리고 그 어떤 파산보다도 끔찍한 파산, 바로 딸에 대한 종교적 신앙을 잃었다.

그는 딸을 얼마나 믿었는가! 딸은 그에게 끊임없는 자부심의 대상이었다. 그는 수많은 해 동안, 순수하고 숭고한 처녀인 딸을 '미지의 세계'를 향한 자신의 연구에 동참시켰다. 그는 딸이 아버지와 과학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에 얼마나 경외감을 느꼈는가!

그가 이러한 희생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던 찰나,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딸이 결혼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발마이어와 결혼했기 때문이었다.

마틸드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한 날, 이미 글랑디에의 신비로움으로 인해 경계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

어놓아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을 밝히려던 날, 마틸드는 아버지의 발 앞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청춘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연을 들려주었다.

스탕제르송 교수는 떨리는 팔로 사랑하는 딸을 꼭 안았다. 용서의 입맞춤을 사랑스러운 딸의 머리에 올렸다. 자신의 죄를 광기 속에서 속죄해 온 딸의 통곡과 자신의 눈물을 섞었다. 그리고 그는 딸에게,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게 된 지금만큼 딸이 소중했던 적은 없었다고 맹세했다.

마틸드는 조금 위로를 받고 떠났다. 하지만 홀로 남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섰다. 홀로 남은 사람, 완전히 혼자 남은 사람, 바로 '홀로 남은 남자'였다. 스탕제르송 교수는 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들도 잃었다.

그는 로베르 다르자크와의 결혼을 무관심하게 지켜보았다. 다르자크는 사실 그에게 가장 아끼던 제자였다.

마틸드는 아버지에게 더 뜨거운 애정으로 다가가며 그를 따뜻하게 데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이미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그 흐릿한 눈동자는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녀가 아닌, 다른 이미지가 있었다. 비록 그 이미지는 과거에는 그녀의 것이었지만 말이다.

그 눈이 다시 그녀, 즉 마틸드 다르자크에게로 돌아올 때, 그는 그녀의 곁에 존경할 만한 성실한 남자의 얼굴이 아닌, 영원히 살아있고 영

원히 추악한 다른 한 사람의 실루엣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첫 번째 남편, 그에게서 딸을 훔쳐간 자의 실루엣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그가 인류에게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던 '물질의 해리'라는 거대한 비밀은, 잠시 동안 그가 끌어냈던 그 무(無) 속으로 다시 사라져 버릴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이나 똑같이 어리석은 말, 즉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Ex nihilo nihil)'를 되풀이하며 갈 뿐이었다.

식사는 우리를 대접하던 공간의 분위기 때문에 더욱 음울해졌다.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고딕 양식의 램프가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철로 만든 오래된 촛대들도 빛을 더하고 있었다. 성곽 같은 벽면에는 동양식 태피스트리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벽면에는 사라센족의 첫 번째 침략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찬장들이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다고베르 양식의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한 명씩 차례로 손님들을 살펴보니, 전반적인 슬픔의 원인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로베르 다르자크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 집 안주인은 신혼부부를 따로 떼어놓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그저 이틀 전의 일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친구 로베르였다. 그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반면 다르자크 부인은 여전

히 대화에 섞여 있었고, 아튀르 란스와 몇 마디 평범한 말을 주고받았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 할까. 내 방 창문 위에서 룰타비유와 마틸드 사이의 장면을 지켜본 뒤, 나는 그녀가 Larsan이 물에서 솟구친다는 그 위협적인 광경을 보고 더 충격을 받고, 거의 망가진 상태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달랐다. 예를 들어 기차역에서 우리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의 공포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그녀는 거의 완전히 평정심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Larsan의 출현이 오히려 안도감을 준 듯했다. 저녁 무렵, 나는 이 생각을 룰타비유에게 털어놓았다. 젊은 기자는 내 의견에 동의하며, 이 겉보기에 이상한 현상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마틸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다시 미쳐버리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뇌가 만들어낸 환각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끔찍한 확신을 얻었고, 이는 그녀에게 조금의 평정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살아 있는 Larsan과 싸워야 하는 것보다, 자신의 뇌 속에만 존재하는 Larsan의 유령을 두려워하는 것을 훨씬 더 싫어했다.

사실, 내가 세수를 마치는 동안 그녀가 사각탑에서 룰타비유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다시 미쳐버리는 것에 대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 룰타비유는 이 만남을 이야기하며, 로베르 다르자크가 한 모든 것의 정반대 행동을 함으로써 그녀를 조금이나마 안정시켰다고 고백했다. 즉, 자신의 눈이 명확하게 Frédéric Larsan을 보았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지 않은 것이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그녀를 두려워하게 할까 봐 이 사실을 숨겼고, 오히려 룰타비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먼저 전보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숨소리는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룰타비유의 손을 잡고 갑자기 그의 손을 입으로 덮으며 키스했다. 마치 어미가 사랑에 미친 듯이 자신의 작은 아이의 손을 키스하듯 했다.

분명히 그녀는 자신의 모성적인 모든 신비로운 힘으로 끌려가는 이 젊은 남자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는 한 마디로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때때로 문 두드리는 광기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동시에 탑의 창문을 통해 Frédéric Larsan이 작은 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놀라움에 그를 바라보며 움직이지도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룰타비유의 목구멍에서 분노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는 그 남자를 쫓아가려 몸을 던졌다.

우리는 마틸드가 어떻게 그를 막았는지, 난간 위까지 그를 붙잡았는지 보았다. 분명히 Larsan의 자연스러운 부활은 끔찍했다. 하지만 오직 그녀의 병든 뇌 속에만 존재하는 Larsan의 끊임없고 초자연적인 부활보다는 덜 끔찍했다.

그녀는 더 이상 Larsan을 여기저기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있는 곳에서 그를 보았다.

마틸드는 신경질적이면서도 다정했고, 때로는 인내심 있게, 또 다른 순간에는 초조해하며, 아튀르 란스에게 답하면서도 다르자크에게 가

장 사랑스럽고 다정한 보살핌을 보였다. 그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직접 그를 돌보았고, 경건하고 진지한 미소를 띠며 그가 빛에 너무 갑자기 노출되어 눈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신경 썼다. 로베르는 그녀에게 감사했고, 내가 부인할 수 없이, 끔찍할 정도로 불행해 보였다.

나는 불가피하게 라르상이 제때에 도착해 다르자크 부인에게 일깨워준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다르자크 부인이 되기 전, 그녀는 하느님 앞에서는 장 루셀-발메이예르-라르상 여사였으며, 대서양 건너편의 일부 법률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 말이다.

라르상이 나타나자마자 아직 기대에 불과했던 행복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완전히 성공한 셈이다.

사실관계에 정통한 역사가라면, 마틸드가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첫날 밤, 드디어 둘만 남은 사각 타워의 아파트에서 이별을 통보한 이유를 단순한 당황 때문만은 아니라고 짚어야 할 것이다. 물론 라르상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에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것도 한몫 했겠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의무감'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진 도리였다. 그 의무감이 그들에게 가장 고결하고 위엄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 마틸드 스탕제르송은 엄격하게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인 스탕제르송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꽤 무관심했지만, 어머니와 특히 신시내티에 사는 노모의 손에서 자랐다. 이후 교수와 함

께 공부한 세월에도 그녀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교수는 딸의 정신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마틸드는 아버지가 두뇌에서 꺼낸 '무(無)의 창조' 이론, 즉 물질의 해체론이 등장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파스퇴르와 뉴턴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비록 모든 것이 무에서 나와 다시 무로 돌아가고, 마치 고대 그리스의 '갈고리 있는 원자'와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영원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의 기원인 그 '무'가 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그녀는 좋은 가톨릭 신자였다. 따라서 그 신은 분명히 그녀의 신이었으며, 이 땅 위에 대리인인 교황을 둔 유일한 신이었다.

만약 마틸드의 종교적 이론이 그녀의 새로운 남편, 즉 신 앞에서의 남편이 아직 이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내린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이 부분을 생략했을 것이다. 라르상의 죽음이 확실시되었을 때, 그녀는 고해 신부의 허락을 받아 과부로서 두 번째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과부가 아니라, 신 앞에서는 중부인이 된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다르자크의 눈앞에, 로마 교황청이 적절히 처리해 줄 더 나은 운명의 가능성을 비춰 주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분쟁을 로마에 제출해야 했다.

요약하자면, 로베르와 마틸드 다르자크 부부는 생니콜라 뒤 샤르도네에서 결혼한 지 사십팔 시간 만에, 사각 타워 깊은 곳에서 별실을 쓰게 되었다.

독자는 이제 로베르의 돌이킬 수 없는 우울함과 마틸드의 위로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단서는 눈치챌 수 있었다. 내 시선은 다르자크 부부와 그 옆자리의 아서-윌리엄 란스 씨에게로 향했고,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관찰 대상으로 가득 차려던 찰나였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이렇게 알렸다. 관리인 베르니에가 룰타비유와 당장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룰타비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과하며 자리에 앉아 있던 우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

"어이쿠! 베르니에 부부가 글랑디에에 있지 않은 건가?" 내가 말했다.

사실 우리는 이 베르니 부부, 즉 남자와 여자가 스탕제르송 씨의 Sainte-Geneviève-des-Bois 저택 문지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노란 방의 미스터리』에서 룰타비유가 어떻게 그들을 석방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이 Chênaie 별장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공모했다는 누명을 썼을 때의 일을 자세히 서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젊

은 기자 룰타비유에 대한 그들의 감사는 지극 컸으며, 룰타비유는 이후 그들의 헌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다.

스탕제르송 씨는 나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영원히 떠난 글랑디에의 모든 하인들이 이미 떠났다고 알려주었다. 란스 부부는 Hercule 요새에 문지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수는 그 충실한 종들을 기꺼이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그들로부터 별다른 불평을 들은 적이 없었지만,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밀렵 사건으로, 그들 입장에선 매우 불길하게 끝날 뻔한 일이었다.

이제 그 부부는 입구 성문 중 하나의 탑에 살며, 그곳을 자신의 집무실로 삼고 있다. 그들은 Hercule 요새의 출입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룰타비유는 집사가 베르니에가 그와 한 마디 하고 싶어 한다고 알렸을 때,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나는 그가 이미 그들, 즉 베르니에 부부가 로셰 루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보다 생각했다.

요약하자면, 나는 놀랍지 않았지만(그렇다고 전혀 의아해하지는 않았지만) 룰타비유가 내가 그를 방 안에 있다고 믿었던 그 짧은 몇 분 동안 진지하게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면 나는 그 시간을 세수를 하거나 다르자크 씨와 쓸데없는 수다를 떨며 보냈다.

룰타비유의 뜻밖의 출발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부재가 라르상의 귀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로베르 다르자크는 불안해했다. 그리고 마틸드가 불쾌할 정도로 심란해하는 모습을 보자, 아서 란스 씨도 적절히 자신의 은밀한 동요를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아서 란스 씨와 그의 부인은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이 겪은 모든 비극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 마틸드와 장 루셀, 즉 라르상의 비밀 결혼 사실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자연스럽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의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프랑스 경무국의 유명한 형사 라르상이 장차 다르자크 부인이 될 여성을 얼마나 집요하게 쫓았는지 말이다. 아서 란스는 글랑디에 사건에 연루되었던 탓에, 그의 부인은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 덕분에 그 사실을 알았다.

라르상의 범죄들은 아서 란스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라르상이 무절제한 열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미국인 골상학자였던 아서 란스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마틸드를 사랑해온 남자였던 만큼, 그가 라르상의 태도에서 격렬하고 희망 없는 사랑 외에 다른 설명을 찾으려 하지 않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에디스 부인에 관해서는, 나는 곧 그녀가 글랑디에 사건의 원인이 남편이 말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녀가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아서 란스가 마틸드에게 느꼈던 것과 비슷한 열정을 가져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나는 그녀가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며 그녀의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무엇이 그리 놀라운 걸까? 오랜 세월 동안 남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사도적이고, 심지어 범죄적인 감정으로 몰아넣다니. 정말 이상하다. 바로 그 여자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경찰관이 살인을 저지르고,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하며, 무고한 사람이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는, 바로 그 여자. 그녀가 나보다 무엇이 더 좋다는 거지? 나는 그저 평범하게 남편에게 시집갔을 뿐이다. 만약 그녀가 그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남편도 얻지 못했을 텐데.'

'그녀는 젊음조차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를 잊고 그녀를 바라본다.'

에디스 부인의 눈에서 나는 이런 독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마틸드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 다정하고 나른한 에디스 부인의 그 검은 눈동자들이여!

나는 방금 독자에게 필요한 인물 소개를 해준 것을 스스로 칭찬한다. 어둠, 특히 헤르쿨레스 요새를 감싸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기이하고 전례 없는 드라마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때,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감정을 독자가 아는 것이 좋다.

나는 아직 늙은 밥과 갈리치 공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차례가 올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이런 중요한 사건

에서 사물과 인물들을 사건이 진행되는 대로 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독자는 우리 중 일부가 경험한 것처럼 불안과 평화, 신비와 명료함, 이해의 부재와 이해 사이를 오갈 것이다. 만약 독자가 내가 깨달은 시점보다 먼저 최종적인 빛을 그 정신 속에서 발견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독자는 우리와 정확히 동일한 수단을 가지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가 룰타비유의 두개골에 어울리는 두뇌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식사를 마친 우리는 젊은 친구를 다시 보지 못한 채 식탁에서 일어섰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우리 마음속은 이미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마틸드가 루브에서 나온 직후, 룰타비유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녀를 요새 입구까지 배웅했다. 다르자크 씨와 에디스 부인이 우리를 따랐다. 스탕제르송 씨는 이미 작별 인사를 한 뒤였다.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온 아서 란스도 우리가 아치형 통로 아래에 도착했을 때 우리 곁에 합류했다.

밤하늘은 맑았고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아치형 통로 아래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둔탁하고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룰타비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독려했다.

"자, 한 번 더 힘을 내!"

그의 말에 이어 다른 목소리들이 합세했다. 마치 항구 입구에서 부두로 배를 끌어당기는 선원들처럼, 숨을 헐떡이며 힘을 쏟는 소리였다.

마침내 커다란 소음이 우리 귀를 채웠다. 마치 종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철문 양쪽 문짝이 처음으로 닫히며 맞닿는 소리였다. 그 문은 백 년 이상 열려 있던 것이었다.

에디스 부인은 마지막 순간의 이 기이한 조치에 놀라며, 지금까지 문 역할을 해오던 쇠창살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서 란스가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는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중얼거렸다.

"정말, 우리가 포위 공격을 당하려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룰타비유는 이미 우리 일행을 안뜰로 이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만약 우연히 시내를 산책하고 싶다면, 오늘 밤은 그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이미 명령이 내려졌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성을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장난기 어린 어조로 덧붙였다.

"자크 영감이 이 명령을 집행하도록 제가 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노신사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자크 영감이 글랑디에에서 알던 인물이며, 스탕제르송 교수의 집사로서 그를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그는 주인의 방과 이어진 작은 방에서 잤다. 하지만 룰타비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제 자크 영감이 A 탑의 관리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베르니어 부부는 어디 있소?" 에디스 부인이 의아한 듯 물었다.

"이미 사각탑에 들어와 있소. 입구 왼쪽 방에 말이오. 사각탑의 관리인이 되어주게 될 거요!" 룰타비유가 답했다.

"사각탑에 관리인이 필요 없다니!" 에디스 부인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당혹감은 끝이 없었다.

"그건 저희도 알지 못하오, 부인." 룰타비유는 해설 없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아서 란스 씨를 따로 불러냈다. 그리고 란스 씨에게 아내에게 라르상의 재등장을 알리라고 눈치를 주었다. 스탕제르송 씨에게는 진실을 더 오래 숨기려 했다면, 에디스 부인의 현명한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터였다. 결국 이제부터는, 헤르쿨레스 요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 대비되어 있어야 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도록 말이다.

그리곤 그는 우리를 데리고 안뜰을 가로질러 건너갔다. 우리는 곧 정원사의 작은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앞서 이 작은 문이 두 번째 안마당 입구를 조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자가 메워져 있었다. 예전에는 여기 도개교가 있었다.

룰타비유는 우리의 큰 놀라움을 자아내며 선언했다. 내일 그는 해자를 파내고 도개교를 복원할 것이라고!

그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성의 사람들이 이 성문을 임시로 막기 시작했다. 더 나은 자재가 들어올 때까지, 나무 판자와 정원사의 창고에서 꺼낸 낡은 가구를 쌓아 만든 임시 문이었다.

성벽이 봉쇄되어 갔다. 이제 룰타비유 혼자만 그 광경을 보고는 크게 웃었다.

에디스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빠르게 상황을 전해 들은 터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기묘할 정도로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그녀의 고대 성을 불패의 요새로 바꾸어 놓은 그 방문객들을 보며 말이다. 그들은 오직 한 명의 남자, 단 한 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에디스 부인은 그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노란 방의 신비'를 겪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사람들, 아서 란스조차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룰타비유가 자신들을 미지의 존재, 신비,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밤마다

헤르쿨레스 요새 주변을 배회하는 알 수 없는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처사였다.

룰타비유는 이 작은 문에 아무도 배치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 초소를 자기 몫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그는 첫째 안뜰과 둘째 안뜰을 모두 감시할 수 있었다. 이곳은 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바깥에서 다르자크 부부에게 접근하려면 세 곳을 차례로 거쳐야 했다. 먼저 자크 영감의 관할 구역 A, 룰타비유의 관할 구역 H, 그리고 사각탑 K 문을 지키는 베르니에 부부였다. 젊은이인 룰타비유는 지명된 감시원들이 잠들지 않도록 결정했다.

우리가 용담공의 안뜰 우물 근처를 지나갈 때, 나는 달빛 아래 우물을 덮고 있던 원형 판자가 움직인 것을 보았다. 또한 우물 가장자리에는 줄에 매달린 양동이도 놓여 있었다. 룰타비유는 나에게 이 오래된 우물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고, 그 물은 완전히 담수였다. 이는 그 물이 바닷물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르자크 씨와 몇 걸음을 더 걸었다. 다르자크 씨는 곧 우리를 떠나 사각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룰타비유의 간청으로 다르자크 씨는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 아서 란스도 마찬가지였다.

에디스 부인에게 몇 마디 사과조의 말을 건넸을 때, 그녀는 정중하게 잠자리에 들라는 요청을 이해했다. 그녀는 다소 나른한 우아함으로 이를 수행했고, 룰타비유에게 아이러니하게 인사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대장님!"

우리가 남자들끼리 남았을 때, 룰타비유는 우리를 포루 뒤쪽으로 이끌었다. 정원사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천장이 낮고 어둠이 짙은 방이었다. 그곳은 숨죽여 관찰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우리는 숨어 있는 채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첫 번째 전쟁 회의를 열었다. 아서 란스, 로베르 다르자크, 룰타비유, 그리고 나. 우리는 등불 하나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모였다.

정확히 무슨 모임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공포에 질린 남자들 네 명이, 오래된 성의 돌벽 뒤에 숨어 앉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용히 의논해도 괜찮습니다.” 룰타비유가 말을 시작했다. “우리를 듣는 이도 없고, 누구에게도 기습당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자크 영감이 지키는 첫 번째 문을 그의 눈치를 채지 못하고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즉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저는 성당 폐허 속에 은신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설치한 최전방 감시초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란스 씨, 그곳에 당신의 정원사 마토니를 배치해 뒀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남자를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나는 룰타비유의 말을 감탄하며 들었다. 에디스 부인이 옳았다. 그는 말 그대로 우리들의 사령관이 되어, 즉시 성채의 방어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항복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와 함께 폭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정말로 용감한 요새의 지휘관이었다!

진정으로 용감해야만 라르상을 상대로 에르쿨레 요새를 방어할 수 있었다. 라르상을 상대로 방어하려면 천 명의 포위군을 막아낼 때보다 더 용감해야 했다. 마치 모르톨라 백작 중 한 명이 그랬듯, 포위를 풀기 위해 대형 포와 구경포, 박격포를 동원하고, 이미 정교한 포화(당대 가장 발달한 포병 중 하나)로 반쯤 무너진 적을 향해 돌격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은 무엇이었는가? 어둠이었다! 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나 있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었다!

적의 위치를 알 수 없었기에 표적을 조준할 수 없었고, 공격해야 할 방향을 모른 채 공세를 취할 수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경계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감시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아서 랜스 씨가 룰타비유에게 자신의 정원사 마토니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자, 우리 젊은이는 이제 이 점에서는 안심해도 된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여유를 가지고 먼저 일반적인 상황 설명부터 시작했다.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여 세 네 모금 빠르게 흡연한 뒤 말했다.

"자, 이제 어찌할까? 라르상이 우리 성벽 아래서 그렇게 무례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듯 했으니, 이제 그 플라톤적인 표현에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그는 정신적인 승리로 만족하고, 진영의 일부에 혼란과 공포, 그리고 낙담을 안긴 뒤 사라질 것인가? 솔직히 말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그는 본질적으로 전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분적인 성공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원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그를 그렇게 대담하고도 차분하게 만드는 이유다! 우리는 누구를 도와달라고 부를 수 있는가?"

"검찰청 말입니다." 아서 란스가 조심스레 말했다. 룰타비유가 아직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숨겨진 까닭이 있을 테니까.

룰타비유는 손님인 란스를 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책망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그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란스의

제안이 얼마나 어색하고 부적절한지, 그 순간 란스는 명확히 깨달았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베르사유에서 라르상을 프랑스의 재판으로부터 구한 것이지, 로슈 루즈에서 이탈리아의 재판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서 랜스 씨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이 이미 전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만큼, 라르상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처지인지 온전히 헤아릴 수 없었다. 만약 라르상의 존재를 폭로한다면, 특히 생니콜라 뒤 샤르네 예식 이후라면, 최악의 스캔들과 가장 두려운 재앙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베르사유 재판의 미스터리한 정황들은 랜스 씨를 충분히 자극했을 것이다. 그는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는 대중이 다시금 '스탕제르송 양의 미스터리'에 관심을 갖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라르상이, 사람들의 명예와 죽음을 좌우하는 그 끔찍한 비밀 중 하나로 우리를 옭아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히 깨달았다. 그 비밀은 세상의 그 어떤 사법 기구에도 속하지 않는 곳, 즉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곳에서 작동했다.

따라서 그는 로베르 다르자크 경에게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경례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었다. 아

서 란스 경이 마틸드를 위해 싸우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전쟁의 이유 따위에는 개의치 않는 고결한 기사처럼 말이다. 적어도 나는 그의 그 제스처를 그렇게 해석했다. 그는 최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연정을 아직 완전히 잊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확신했기 때문이다.

다르자크 경이 말했다.

"이 남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다만 소문 없이 말입니다. 항복을 받아내거나, 평화 협정을 맺거나, 혹은 죽이거나요. 하지만 그가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날 때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르자크 부인의 뜻을 전하며, 스탕제르송 씨가 그 강도범의 또 다른 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르자크 부인의 뜻은 곧 명령입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스탕제르송 씨는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하인들의 처지와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에 대해 논의했다. 다행히 자크 아저씨와 베르니어 부부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반쯤 알고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을 터였다. 마토니는 에디스 부인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도 따를 만큼 충성스러웠다. 나머지 하인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늙은 밥의 하인 월터도 있었지만, 그는 주인을 따라 파리로 갔으며, 주인과 함께 돌아올 예정이었다.

룰타비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각탑 문턱에 서 있는 베르니어와 창문을 통해 눈짓을 나눴다. 그러고는 다시 우리 가운데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라르상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저녁 식사 중, 나는 성채 주변을 정찰해 두었다. 성채의 옛 바르바칸(성문)을 대신할 만한 놀라운 자연적·사회적 방어선을 우리는 북문 너머에 확보하고 있다. 서쪽 방향으로 오십 보쯤 떨어진 곳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세관원 두 곳이 국경 초소로 서 있다. 그들의 엄격한 감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베르니에 영감은 이 훌륭한 사람들과 아주 친분이 두텁다. 나는 그와 함께 세관원들을 찾아가 문답했다. 이탈리아 세관원은 이탈리아어만 구사하지만, 프랑스 세관원은 두 언어는 물론이고 현지 사투리까지 구사한다. 베르니에가 내게 말해 주었던 이름, 미셸이라는 이 프랑스 세관원이 우리의 통역 역할을 맡았다.

그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세관원은 '바다의 처형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툴리오의 작은 배가 에르쿨레 반도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취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노년기의 툴리오는 세관원들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해안가에서 가장 손재주가 뛰어난 밀수꾼이다.

그날 밤, 툴리오의 배에는 세관원들이 본 적 없는 한 인물이 타고 있었다. 배, 툴리오, 그리고 미지의 인물은 가리발디 곶 쪽으로 사라졌

다. 나는 베르니에 영감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지만, 앞서 가리발디 곶을 찾았던 다르자크 씨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라르상이 상륙했을 것이다. 그런 예감이 든다. 어쨌든 툴리오의 배는 가리발디 곶 근처에 정박했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합니까?" 다르자크가 외쳤다.

"무슨 근거로 확신합니까?" 내가 물었다.

"글쎄,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 배가 해안 자갈밭에 또다시 뱃머리 자국을 남겼소. 접안할 때 선창에서 솔방울을 때는 난로가 떨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수거했고 세관이 확인했소. 그 난로는 툴리오가 잔잔한 밤에 문어를 잡을 때 물을 비추는 데 쓰이는 거요."

"라르상이 분명히 내려갔소!" 다르자크가 다시 말했다. "그는 로슈 루즈에 있소!"

"일단 그 배가 로슈 루즈에서 그를 내려놓았다고 치자.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룰타비유가 말했다. "세관원 두 곳의 초소가 로슈 루즈에서 프랑스로 이어지는 좁은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낮이든 밤이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 반드시 눈에 띌 수밖에 없지. 너도 알다시피 로슈 루즈는 막다른 길이고, 그 산책로는 바위 앞, 국경에서 약 300미터 지점에서 끝이 나. 산책로는 바위와 바다 사이에 놓여 있어. 바위는 수직 절벽을 이루며, 높이가 대략 60미터에 달하는 절벽을 형성하고 있어."

"당연하지." 아직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매우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아서 란스가 말했다. "절벽을 오를 수는 없었어."

"그는 동굴 속에 숨었을 겁니다." 다르자크가 말했다. "절벽 안쪽에는 깊은 주머니 같은 공간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저도 그걸 생각했어요!"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래서, 저는 베르니에 아저씨를 돌려보내고 나서, 혼자서 로슈 루즈(붉은 바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건 무모한 행동이었군요." 내가 지적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함 때문이었습니다." 룰타비유가 바로잡았다. "저는 라르상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제3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로슈 루즈로 다시 돌아갔고, 동굴 앞에서는 라르상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그를 불렀다고요?" 아서 란스가 외쳤다.

"네, 어둠이 막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하얀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휴전 사절들이 백기를 흔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가 나를 듣지 못했을까요? 하얀 깃발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그곳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동굴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서 란스가 재촉하듯 물었다.

"그렇습니다." 룰타비유가 그저 대답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그를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서둘러 가자!" 우리는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이제야말로 이 일을 끝내자!"

"저희가 라르상을 잡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아서 란스가 말했다. "우리가 붉은 바위 구석에서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기회였죠."

다르자크와 아서 란스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룰타비유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그는 손짓으로 그들을 진정시키며 다시 앉으라고 권했다.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라르상이 만약 오늘 밤 우리를 붉은 바위 동굴로 유인하려 했다면, 그는 지금 한 것과 조금도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의 우리 눈앞에서 가리발디 곶에 상륙했죠. 그리고 우리 창문 아래를 지나갈 때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보세요, 저는 붉은 바위에 있어요!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세요!'"

"그렇게 외쳤다 한들 지금보다 더 분명하거나 설득력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붉은 바위에 갔었지요." 아서 란스가 응수했다. 그는 룰타비유의 논리에 깊이 감동한 나머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곳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끔찍한 범죄를 꾀하며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를 쫓아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제가 로슈 루즈(붉은 바위)를 혼자 찾아가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가시면, 돌아왔을 때 분명히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돌아왔을 때라니요?" 다르자크가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네, 성으로 돌아왔을 때요." 룰타비유가 설명했다. "우리가 다르자크 부인을 혼자 남겨두고 온 그 성으로요. 그리고 아마도 그분은 더 이상 거기에 없겠죠!"

그는 잠시 침묵이 흐르자 덧붙였다. "아, 이건 그저 가설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설을 넘어선 다른 추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가설은 우리를 짓눌렀다. 분명히 룰타비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파멸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룰타비유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일어섰다.

"결국 밤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문을 봉쇄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이건 임시 조치일 뿐이야. 내일 아침까지 이 성을 절대 방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해. 나는 이미 철문을 닫게 했고, 자크 아저씨가 그 문을 지킬 거야. 마토니는 예배당에 파견해 감시병으로 세웠지. 그리고 여기, 포테른 아래에 방어선을 다시 설치했어. 이곳은 제2 성벽 중 가장 취약한 지점이니까. 나는 직접 이 방어선을 지킬 거야.

베르니에 아저씨는 평방탑의 문을 밤새 지킬 거고, 시력이 매우 좋은 베르니에 아저씨네 아내는 망원경을 추가로 받았으니, 탑의 옥상에서 아침까지 경계를 서게 했어. 생클레르는 원형탑 테라스에 있는 작은 야자수 정자에 머물게 했어. 그 테라스 꼭대기에서 그는, 게다가 나와 함께, 제2 안뜰과 대로, 그리고 방벽 전체를 감시할 거야.

아서 란스 씨와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새벽까지 순찰을 돌게 될 거야. 란스 씨는 서쪽 대로를, 다르자크 씨는 동쪽 대로를 돌게 되지. 이 두 대로는 첫 번째 안뜰을 바다 쪽으로 막고 있는 경계선이야.

오늘 밤의 임무는 꽤 고역일 거야. 아직 우리가 완전히 조직화되지 않았으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주둔군과 하인들을 명단에 올릴 거야. 의심스러운 하인이 있다면 즉시 성에서 쫓아낼 거야.

당신은 이 포테른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무기—총과 권총—를 몰래 가져오게. 경계 임무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명령은 간단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하러 오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는 사격하라. 암호는 필요 없어. 지나가려면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비추기만 하면 돼. 하지만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건 우리들뿐이야.

내일 아침이 되면, 북쪽 문의 내부 입구에 오늘 밤까지 외부 입구를 막고 있던 철책을 설치할 거야. 외부 입구는 이제 철문으로 완전히 막혔어. 낮 시간 동안 공급업자들은 철책 너머의 아치를 통과할 수 없어. 그들은 자크 아저씨가 머물고 있는 작은 탑의 작은 초소에 물건을 내려놓으면 돼.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철문을 닫을 거야. 내일 아침에는 아서 란스 씨에게 목수, 석공, 대목들을 불러오라고 지시할 거야. 이 사람들은 모두 명단에 올리고, 어떤 명목으로도 제2 성벽의 포테른을 넘지 못하게 할 거야. 또한 저녁 7시 이전에 이들을 모두 집계해야 해. 7시는 노동자들이 퇴근해야 하는 최종 시간이니까.

오늘 하루 동안, 노동자들은 내 포테른을 위한 문 제작, 그리고 신성(新城)과 용감한 공작의 탑을 연결하는 벽의 약간의 균열 수리, 그리고

성벽의 북서쪽 모퉁이를 방어하는 구 원형탑 근처(지도에서 B에 해당)의 또 다른 작은 균열 수리를 완료해야 해.

그렇게 되면 나는 안심할 수 있고,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라고 지시한 다르자크 부인도 안전해지겠지. 그러면 나는 출격을 시도하고, 라르상의 진영을 찾아 본격적인 정찰에 나서게 될 거야.

자, 아서 란스 씨, 무기를 가져오게! 당신이 오늘 밤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오게. 나는 베르니에 아저씨에게 내 권총을 빌려줬어. 그는 다르자크 부인의 처소 앞을 거닐며 경계를 서게 될 거야."

글랑디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면, 룰타비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말을 한 자와 그것을 듣고 있던 이들 모두를 미친놈으로 취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불가해한 복도의 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시체가 발견된 밤을 함께 보냈다면, 그는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그는 리볼버에 총알을 장전하고, 허세 부리지 않고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한 시간 후, 우리는 모두 제자리에 서 있었다. 성벽을 따라 거닐며 땅과 하늘, 바다를 면밀히 살폈다. 밤의 가장 미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바다의 숨소리, 그리고 새벽 세 시쯤부터 율동을 타기 시작한 외해의 바람 소리까지.

에디스 부인이 일어났다가 룰타비유가 있는 포테른 아래로 내려왔다. 룰타비유가 나를 불렀다. 그는 포테른과 에디스 부인의 경비를 내게 맡긴 뒤, 순찰을 떠났다.

에디스 부인의 기분이 그토록 좋았다. 잠이 보약이었는지, 그녀는 방금 전 남편에게 위스키 한 잔을 가져다주며 발견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신나게 장난치고 있었다.

"오, 정말 재미있어요!" 그녀는 작은 손을 치며 말했다. "정말 재미있죠! … 그 라르상, 나는 꼭 그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 불경한 말을 듣자 나는 저절로 오한이 돋았다. 분명히 아무것도 의심할 줄 모르고, 무지 속에서 운명을 모욕하는 자그마한 낭만적 영혼들이 있다. 아, 불쌍한 여인이여! 만약 그녀가 조금만 알았다면!

나는 에디스 부인과 함께 두 시간 동안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라르상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실인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이 기회를 살려, 만약 내가 이 표현을 써도 괜찮다면, 독자에게 라르상-발마이어라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싶다. '노란 방의 미스터리'에서 내가 그에게 맡긴 놀라운 역할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검은 옷 부인의 향수'에서 그의 역할은 일부 사람들이 접근 불가능하다고 여길 만큼 높은 곳까지 도달한다. 따라서 나는 독자가 결국 내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건의 평범한 보고자일 뿐이며, 아무것도 지

어내지 않음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만약 내가 이렇게 놀랍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에 상상력의 장식을 더하려는 어리석은 야심을 가진다면, 룰타비유가 반대할 것이다. 그는 나를 총알처럼 곧게 쏘아붙이며 엄하게 꾸짖을 것이다.

너무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이러한 출판의 사실은 너무도 두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소 건조하고 방법론적인 엄격한 서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범죄 소설을 믿을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베르사유의 재판을 권한다. '끔찍한 단어'가 발음되었기 때문이다. 로베르 다르자크 변호를 맡았던 앙리-로베르와 앙드레 에스 변호사는 그곳에서 감탄할 만한 변론을 펼쳤고, 이는 속기되었고, 그들은 분명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명이 라르상-발마이어와 조제프 룰타비유를 대면시키기 훨씬 전부터, 이 우아한 강도는 법조 기자들에게 골치 아픈 일을 안겨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단지 '가제트 데 트리뷴'을 열고, 발마이어가 센주 법원 형사재판소에서 10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은 날,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인물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한 남자에 대해 더 이상 지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자는 이제 그의 '종

류', 즉 그의 작전 방식과 두 번 없는 용기를 알게 되었으므로, 조제프 룰타비유가 발마이어-라르상과 다르자크 씨 사이에서 신중하게 교량을 놓을 때 웃지 않을 것이다.

《피가로》지의 알베르 바타유 씨는 '아름다운 형사 사건과 세속적 사건'을 출판한 바 있으며, 발마이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페이지들을 할애했다.

발마이어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가난의 가혹한 단계를 거친 끝에 사기로 빠진 것이 아니다. 몰레 거리에서 부유한 중개상인 아들로 태어난 그는 다른 운명을 꿈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소명은 타인의 돈을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이들이 광산 학교를 목표로 삼듯 사기를 자신의 직업으로 정했다. 그의 데뷔작은 천재적인 수법이었다.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렵다 — 발마이어가 아버지 회사의 주소로 발송된 등기 편지를 가로챈 후, 훔친 돈을 들고 리옹행 열차를 타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일이다.

"선생님, 저는 은퇴한 군인이며 훈장을 받은 자입니다. 제 아들은 우편국 직원인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동 우편국에서 당신 주소로 된 편지를 훔쳤습니다. 저는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며칠 안으로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아버지의 명예로운 과거를 모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발마이어 부친은 고귀하게도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그는 여전히 첫 할부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10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그가 진정한 범인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알베르 바타유 씨의 보고에 따르면, 발마이어는 타고난 사기꾼의 자질을 두루 갖춘 인물로 보인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다채로운 재주를 지녔고, 순진한 이들을 설득하는 재능도 있었다. 또한 연출과 디테일에 대한 감각, 변장술의 천재성, 그리고 무한한 주의 깊음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이름이 바뀔 때마다 속옷에 알맞은 이니셜을 새길 정도로 꼼꼼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특징짓는 것은 뛰어난 탈출 능력 외에도, 사기꾼으로서의 교묘함과 아이러니, 그리고 법정에 대한 도전 정신이다. 그는 검찰청에 가짜 용의자를 고발하는 것을 짓궂은 쾌감으로 여겼다. 법관이 본성상 잘못된 단서에 오래 머무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사들을 현혹하려는 기쁨은 그의 모든 행동에서 드러난다.

군대 시절, 발마이어는 자신이 속한 중대의 현금을 훔쳤다. 그는 그 죄를 재무장교에게 뒤집어씌웠다.

그는 뒤이어 퓨레 상회에 4만 프랑을 사기치더니, 곧바로 예심판사에게 달려가 퓨레 씨가 스스로 자기 돈을 훔친 것이라고 신고했다.

이 '퓨레 사건'은 사법 연감에 '전화 속임수'라는 이제 고전적인 제목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사기에 과학을 접목한 수법 중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발마이어는 푸아송니에르 거리에 위치한 퓨레 형제 상회(중개상)의 우편물에서 1,600파운드 상당의 어음을 빼돌렸다. 이들은 그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발마이어는 푸아송니에르 거리로 향했다. 그곳은 퓨레 씨의 집이었다. 그는 에드몽 퓨레 씨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그리고 전화로 은행가 코헨 씨에게 물었다.

"어음을 할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코헨 씨는 즉각 승낙했다.

십 분 뒤, 발마이어는 전화를 끊었다. 뒤늦은 취소 명령이나 해명 요구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는 옛 동료를 불러냈다. 리바르라는 자였다. 발마이어는 아프리카 군단 시절 그를 알았다. 두 사람은 모두 군단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전보된 사이였다.

발마이어는 리바르를 시켜 그 돈을 찾게 했다.

발마이어는 가장 큰 몫을 챙겼다. 그리고 바로 검찰청으로 달려갔다. 그는 리바르를 고발했다.

그리고 — 내가 말했듯이 — 도둑맞은 피해자인 에드몽 퓨레 씨 본인까지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예심판사 에스피에르 씨의 서재에서 격렬한 대면 심문이 열렸다.

"자, 퓨레 씨. 잘 들어주시오." 발마이어가 멍하니 선 상인에게 말했다. "당신을 의심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당신은 진실을 법정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일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테니,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경마장 도박장에서 작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4만 프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당신의 회사에서 대금으로 처리하게 했죠. 전화를 건 사람도 당신입니다."

"나? 나라고?" 에드몽 퓨레 씨는 혼비백산하여 더듬거렸다.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되었으니까요."

도둑맞은 가엾은 피해자는 무려 여드레 동안이나 마자스 감옥에 갇혀 있었다. 경찰이 내놓은 보고서도 끔찍할 지경이었다. 그 결과, 당시 검사였던 크뤼피 씨(지금의 상무장관)는 퓨레 씨에게 사법부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리바르는 궐석재판으로 20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

발마이어에 관해 이런 일화라면 스무 가지는 거뜬히 꼽을 수 있다. 사실 그는 비극을 저지르기 직전, 즉 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놀라운 연기였다. 그가 감옥을 탈출한 한 가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죄수가 지루한 내용의 긴 진술서를 작성해 판사 빌레르의 책상 위에 펼쳐 놓는 모습은 경이롭도록 코믹했다. 그는 인쇄물들을 뒤적이며 형식적인 석방 명령문의 양식을 훔쳐보려던 것이다.

마자스 감옥으로 돌아간 그는 '빌레르'라고 서명한 편지를 썼다. 그가 훔쳐 본 형식에 따라, 빌레르 판사는 교도소장에게 죄수 발마이어를 즉시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판사의 인장이 빠져 있었다.

발마이어는 이런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심문 재판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편지를 소매 속에 감추고 무고함을 호소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듯 크게 화를 내는 척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도장을 손에 쥐고 허공을 휘저었다. 그러다 문득, 옆에 서 있던 경찰의 파란 바지에 잉크병을 떨어뜨렸다.

불쌍한 경찰은 판사와 서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그의 불행을 동정했고, 경관은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바지를 닦고 있었다. 발마이어는 그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서 돌아간 틈을 타, 자유 석방 명령서에 거침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분위기를 무마했다.

계책은 성공이었다. 사기꾼은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힌 종이를 가볍게 던지며, 감옥 같은 곳의 경찰들을 향해 나갔다.

"빌레르 씨가 내게 무슨 생각을 하길래 내게 내 서류를 가져오라 한단 말인가? 나를 하인으로 여기나?"

경비대원들은 그 인쇄물을 소중히 주워 들었다. 당직 병장은 그것을 주소지인 마자스 감옥으로 가져가게 했다. 그것은 발마이어라는 자를 즉시 석방하라는 명령서였다. 그날 밤, 발마이어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탈출이었다.

'퓨레 도난 사건'으로 체포된 그는, 첫 번째 탈출 때 다리를 내밀어 경관을 넘어뜨리고 후추를 뿌려 도망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흰색 크라바트를 매고 코메디프랑세즈의 초연에 참석했다.

그는 이미 군법회의로부터 5년 간의 공공노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부대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는 죄목이었다. 그때도 그는 동료들에게 버려진 종이봉투에 자신을 가두게 함으로써, 쉬르슈미디 감옥에서 빠져나올 뻔했다.

하지만 뜻밖의 재점호로 인해, 그처럼 완벽하게 구상된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만약 여기서 발마이어의 놀라운 첫 번째 모험들을 모두 이야기하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마우파 백작, 드루에 데를롱 자작, 모트빌 백작, 본느빌 백작. 그는 차례로 이런 칭호를 달고 다녔다. 우아했고, 노름판의 대범한 호인이었으며, 유행을 선도했다. 그는 비아리츠, 엑스레뱅, 루송 같은 해수욕장과 온천지를 누볐다. 밤새 카지노에서 만 프랑을 잃기도 했다.

그는 항상 아름다운 여성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여자들은 그의 미소를 얻기 위해 경쟁했다. 이 사기꾼은 뛰어난 속임수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혹적인 유혹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군대 시절, 그는 자신의 연대장의 딸을 — 다행히도 플라토닉하게나마 —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이제 그 '유형'을 알겠는가?

바로 이 남자를 조제프 룰타비유가 상대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에디트 부인에게 그 유명한 강도의 인물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깊은 침묵 속에 내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 정적이 점점 나를 압박해 왔다.

그때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놀랍게도 그녀가 잠들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태도는 그녀에 대한 나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마음껏 그녀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결과, 나는 오히려 그녀에게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나중에 그 감정을 마음속에서 떨쳐내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해가 뜨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며 아침을 맞았다.

룰타비유는 자신의 낮 근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아침 여덟 시가 되어서야 내가 잠자리에 들게 허락했다. 그는 이미 불러온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B탑의 균열 수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작업은 매우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저녁이 되자 헤라클레스 요새는 자연 상태에서도, 그리고 종이 위의 도면상에서도 더없이 완벽하게 폐쇄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날 아침, 룰타비유는 큰 석재 위에 앉아 노트에 독자에게 보여드린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밤새 피로가 쌓여 눈을 감지 않으려 애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생클레르, 보십시오! 바보들은 제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요새를 강화한다고 믿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요새를 강화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사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멍을 막는 것도 라르상이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이성이 '도주'할 기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숲속에서는 사색할 수 없습니다. 숲속에서 어떻게 사색을 하겠습니까? 숲속에서는 이성이 사방으로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단히 폐쇄된 성에서는 다릅니다.

친구여, 그것은 잘 잠긴 금고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안에 있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이성이 반드시 그곳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풀이했다. "당신의 이성이 반드시 그곳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만 자러 가십시오, 친구여. 서서 졸고 계시잖습니까."

오전 열한 시쯤, 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베르니에 아줌마의 목소리가 룰타비유의 명령을 전했다. 일어나라는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창가로 달려갔다.

항구는 전례 없이 아름다웠다. 바다는 투명해서, 마치 거울 같은 유리판을 통과하듯 햇빛이 수면 아래로 스며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위와 해초, 그리고 이끼를 비롯해 바다 바닥 전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마치 물이라는 요소가 그들을 더 이상 덮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멘톤 해안선의 조화로운 곡선은 이 맑은 물을 꽃이 가득한 액자 안에 가두어 두었다. 가라반의 빌라들은 하얗고 분홍빛이 도는데, 마치 그 밤을 지나 새로 피어난 꽃처럼 보였다.

헤라클레스 반도는 물 위에 떠 있는 꽃다발 같았다. 그리고 성의 오래된 돌들은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자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하며, 사랑스럽고, 무엇보다도 사랑받을 만해 보였다. 고요한 공기, 나른한 물가, 흐느끼듯 잔잔한 바다, 보랏빛 산맥. 북방의 인간인 내 감각이 익숙하지 않았던 이 모든 풍경은 애무의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바다를 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오! 그는 팔을 휘두르며 마구 내리쳤다. 내가 시인이었다면 울었을 것이다. 그 불쌍한 자는 끔찍한 분노에 사로잡혀 보였다. 그가 이 고요한 파도에 대해 어떤 분노를 느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파도는 분명히 그에게 불만의 심각한 이유를 제공했음에 틀림없었다. 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며 노를 젓는 어린아이가 조종하는 작은 보트 위에 서서, 잠시 흠뻑 젖은 바다를 향해 '엄한 구타'를 가했다. 이는 물가에 멈춰 있던 몇몇 외국인들에게 묵묵한 분노를 자아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처럼, 이들은 항의 없이 그냥 내버려두었다. 무엇이 이 야만적인 남자를 이렇게 격분시켰을까? 아마도 바다의 고요함 때문일 것이다. 이 광기의 자의 모욕으로 잠시 흔들렸던 바다가 다시 고요한 표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때 친근한 룰타비유의 목소리가 내게로 향했다. 정오에 점심을 먹는다고 알렸다. 룰타비유는 석공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다. 그의 옷차림은 모두 그가 지나치게 젖은 벽돌공사 현장 근처를 돌아다녔음을 말해주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자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직 줄을 놀

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을 헤치며 다니던 남자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툴리오가 자신의 직업상 그물 속으로 물고기를 몰아넣으며 놀라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순간, 왜 이 지역에서 툴리오를 '바다의 처형인'이라고 불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룰타비유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날 아침, 그는 툴리오에게 어제 밤 자신의 보트에 태워 헤라클레스 반도의 일주를 시켰던 남자에 대해 질문했다. 툴리오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멘톤에서 태운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 남자는 로셰 루주 곶에서 내려주는 조건으로 5프랑을 주었다.

나는 재빨리 옷을 입었다. 그리고 룰타비유를 따라 나섰다. 그는 아침 식사에 새로운 손님이 올 것이라고 알렸다. 바로 늙은 밥이었다. 우리는 밥이 올 때까지 식탁에 앉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테메레르의 둥근 테라스, 꽃으로 장식된 그 자리에서 밥 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그로트 레스토랑에서 갓 가져온, 뜨겁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름다운 부야베스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레스토랑은 해안선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쏨뱅이와 바위고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작은 '비노 델 파에스'와 함께, 빛과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차려진 이 요리는 룰타비유의 모든 주의 깊은 조치들만큼이나 우리를 안심시켰다.

사실, 진정한 라르상은 창천을 수놓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는 달빛과 별빛의 흐릿한 빛 아래 있을 때보다 덜 무서웠다. 인간이란 참으로 잊

기 쉽고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다. 부끄럽게도 말하지만, 우리는 밤새도록 떨고 성벽 부근에서 무장한 경비를 서던 일을 웃으며 넘길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러웠다. 적어도 나 자신과 아서 란스, 그리고 자연스레 에디트 부인을 위해 말한다면 말이다. 에디트 부인의 낭만적이고 우울한 성격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그때 늙은 밥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등장이 우리를 다시 우울한 생각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남부 프랑스의 봄날, 눈부신 햇살 아래 검은 모자, 검은 외투, 검은 조끼, 검은 바지, 검은 안경, 흰 머리와 분홍빛 볼을 가진 늙은 밥이 거닐고 있는 모습보다 더 희극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 우리는 용담공 샤를의 탑의 그늘에서 크게 웃었다. 그리고 늙은 밥도 우리와 함께 웃었다. 왜냐하면 늙은 밥은 그 자체로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 노학자가 헤라클레스 성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제 그 사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미국 수집품과 연구, 스케치,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박물관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했을까?

사실 아서 란스 경은 이미 고향에서 미래의 골상학자로 주목받고 있었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씨와의 사랑 사건 이후, 그는 갑자기 자신의 학문을 혐오하며 연구에서 멀어졌다. 에디스 미스와 결혼한 후, 그녀의 권유로 그는 갈과 라바테르의 과학을 다시 즐기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현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을, 그들은 지중해 해안을 여행하고 있었다. 이때 아보 씨는 로셰 루즈(붉은 바위)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소문이 크게 일고 있었다. 현지 멘토네 방언에서는 이 곳을 바우세-루세라고도 불렀다.

1874년부터 수년 동안,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은 로셰 루즈의 동굴과 굴에서 발견된 인간 유해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줄리엔, 리비에르, 기라르댕, 들레소 등의 학자들이 현지에 와서 연구했으며, 그 발견은 프랑스 학술원과 교육부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견들은 곧 큰 반향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빙하기 이전에 최초의 인간들이 이 곳에서 살았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제4기 인간 존재의 증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되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가 20만 년에 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20만 년 중 특정 단계에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로셰 루즈에서는 계속된 발굴 작업으로 놀라움이 이어졌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동굴인 '바르마 그랑드'는 여전히 untouched(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곳은 아보 씨의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아보 씨는 근처 바닷가에 있는 '동굴 식당'을 운영하며 이 동굴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보 씨 역시 마침내 자신의 동굴을 발굴하기로 결심했다. 이때 공공의 여론(사건이 과학계를 넘어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은 바르마 그랑드 동굴에서 아보 씨가 놀라운 인간 유골, 특히 철분이 많은

토양 덕분에 잘 보존된 골격들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이 골격들은 제4기 초기의 매머드 시대, 혹은 제3기 말기의 것과 동시대 것이었다!

아서 란스와 그의 부인은 멘톤으로 달려갔다. 남편은 낮 동안 내내 '고고학적 잔해', 즉 과학 용어로 말하는 '20만 년 전의 부엌 쓰레기'들을 뒤지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직접 바르마 그랑드(Barma Grande)의 흙을 파헤치고 조상들의 두개골을 측정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 사이 젊은 부인은 지칠 줄 모르는 즐거움으로 한적한 곳에 기대어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오래된 성채의 중세식 성벽 근처였다. 거대한 성은 작은 반도 위에 우뚝 솟아 있었고, 절벽에서 떨어져 내린 몇몇 돌들로 붉은 바위(Rochers Rouges)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유적지는 제노바 전쟁 시대의 옛 전쟁과 관련된 가장 낭만적인 전설들이 얽혀 있었다. 에디스는 슬픈 표정으로 세계 최고의 경관을 배경 삼아 높은 테라스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옛날의 귀부인들 중 한 명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이 쓴 소설에서 잔혹한 모험을 겪는 그런 귀부인들을 무척 좋아했다.

그 성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이었다. 아서 란스는 그 성을 매입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를 기쁨에 빠뜨렸다. 부인은 석공과 장식을 맡는 장인들을 불러들였고, 단 세 달 만에 이 고대 건물을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이 호수의 여인(Dame du lac)과 램머무어의 약혼녀(Fiancée de Lammermoor)를 기억하며 그리워할 만한, 달콤한 사랑의 둥지로 탈바꿈시켰다.

아서 란스가 바르마 그랑드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해골과, 같은 지층에서 나온 고대 코끼리의 대퇴골을 마주했을 때, 그는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노인 밥에게 전보를 치는 것이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몬테카를로 근처에서, 그가 수년간 파타고니아의 깊은 곳에서 수천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헤맸던 것이 마침내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전보는 도착하지 못했다. 노인 밥은 몇 달 안에 새로운 부부와 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유럽행 배를 타고 떠나버린 뒤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명성이 그에게 바우세-루세 일대의 보물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을 것이다. 며칠 후, 그는 마르세유에 하선해 멘톤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서 란스와 그의 조카와 함께 에르쿨 성에 머물렀다. 그는 곧바로 그곳을 자신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노인 밥의 그 활기찬 웃음은 우리 눈엔 조금 과장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어제 우리의 슬픈 기분이 만든 착각일 것이다. 노인 밥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는 마치 노부인처럼 치장을 좋아하는데, 그 치장은 대상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 그는 단호하게 엄격하면서도 단정하게 차려입는 옷차림을 선택했다. 검은 제복, 검은 조끼, 검은 바지, 하얀 머리, 분홍빛 볼. 그런 다음 그는 그 옷차림이 주는 장엄한 조화를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바로 그 교수의 제복 차림으로 노인 밥은 팜파스의 호랑이를 사냥했고, 지금도 붉은 바위들의 동굴을 파헤치며 고대 코끼리의 마지막 뼈조각을 찾고 있다.

에디스 부인이 그를 소개하자, 그는 정중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곤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그가 삼각형으로 깎아 단정히 다듬은 희끗희끗한 구레나룻 끝에서 끝까지 퍼져 나갔다.

노인 밥은 흥분한 나머지 곧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파리 자연사 박물관 방문에서 확실한 결론을 얻어 온 것이었다. 바르마 그랑드의 골격은 그가 마지막 티에라델푸에고 원정에서 가져온 골격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학술원 전체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그들은 노인 밥이 파리에 가져온 코끼리 골수뼈를 근거로 추리를 펼쳤다. 이 골수뼈는 바르마 그랑드의 주인이 빌려준 것이었는데, 그는 이 뼈가 유명한 골격과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었다고 확언했다.

다시 말해, 이 골수뼈가 제4기 중기(Quaternary period)에 속하는 고대 코끼리(Elephas antiquus)의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아, 노인 밥이 그 '제4기 중기'라는 말을 얼마나 경멸 어린 웃음으로 말했는지 모른다. 제4기 중기의 골수뼈라니, 그것은 그에게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생각이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 좋은 농담을 해준 것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우리 시대, 진정한 학자라 불릴 만한 학자가 제4기 중기의 골격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겠는가?"

그의 골격, 적어도 그가 티에라델푸에고에서 가져온 골격은 그 시기의 시작 부분에 속했다. 따라서 최소한 십만 년은 더 오래된 것이었다.

"십만 년!"

그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 근거는 동굴 곰의 견갑골 때문이었다. 노인 밥은 이 견갑골이 자신의 골격, 즉 티에라델푸에고에서 가져온 고대 골격의 두 팔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열정에 휩싸여 자신의 살아있는 골격과 고대 골격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검은 도포, 검은 조끼, 검은 바지를 입고 하얀 머리와 분홍빛 볼을 지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골격'이라고 불렀다.

"그래, 내 골격은 동굴 곰 시대에서 온 것이군! 하지만 바우세-루세의 골격은! 오호, 내 친구들! 기껏해야 매머드 시대쯤 되겠지… 아니, 아니! 코가 갈라진 코뿔소 시대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발견할 것도 없소, 부인들, 선생님들. 코가 갈라진 코뿔소 시대에는 말이오… 내가 맹세하오, 늙은 밥의 명예를 걸고! 내 골격은 여러분이 프랑스에서 말하는 쉘레기 시대에서 온 것이오… 왜 웃소, 이 멍청이들아!… 반면에 나는 로셰 루주(붉은 바위)의 Elephas antiquus(고대 코끼리)가 무스테르기 시대에서 왔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오! 솔루트레기 시대는 아닐까? 아니면, 아니면! 마들렌기 시대는 아닐까!… 아니! 아니! 이건 너무해! 마들렌기 시대의 고대 코끼리라니, 있을 수 없소! 이 Elephas가 나를 미치게 만들겠소! 이 antiquus가 나를 병들게 할 거요! 아, 나는 기쁨에 죽을 지경이오… 불쌍한 바우세-루세여!"

에디스 부인은 늙은 밥의 기쁨을 잔인하게도 깨뜨렸다. 그녀는 갈리치 공작이 로셰 루즈의 로미오와 줄리엣 동굴을 매입했고, 틀림없이 완전히 센세이션할 만한 발견을 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공작이

밥이 파리로 떠난 바로 다음 날, 에르쿨 성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공작은 팔 아래 작은 상자를 끼고 있었다. 그 상자는 공작이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보십시오, 란스 부인.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오, 진짜 보물이요!" 그녀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공작은 그녀를 자극하며 말했다. 그는 밥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놀라움을 주려 한다고! 결국 갈리치 공작은 그녀에게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에디스 부인이 그 말을 끝내자마자, 늙은 밥의 경쾌한 기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거칠게 상한 얼굴에 극도의 분노가 번졌다.

"거짓말이야!"

그가 외쳤다.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두개골은, 늙은 밥의 것이야! 바로 늙은 밥의 두개골이라고!"

그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마토니! 마토니, 내 가방을 여기로 가져오게 해! 여기로!"

바로 그때, 마토니가 샤를 용감왕의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늙은 밥의 짐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는 교수의 지시에 따라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트렁크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늙은 밥이 열쇠 꾸러미를 꺼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트렁크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와 속옷이 꼼꼼하게 접혀 들어 있었다. 늙은 밥은 그 중에서 모자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모자 상자에서 다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두개골이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한가운데, 우리 커피 잔들 사이에 내려놓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두개골입니다."

늙은 밥이 말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늙은 밥의 두개골이죠!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늙은 밥은 결코 자기 두개골 없이는 외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쓰다듬기 시작했다. 눈은 빛나고, 두꺼운 입술은 또다시 웃음에 벌어져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늙은 밥은 프랑스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발음도 영국식과 스페인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스페인어는 완벽하게 구사했지만 말이다. 그런 그를 상상해 보라. 그 장면을 눈앞에 그려 보고, 귀로 들어라!

룰타비유와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우리는 배를 잡고 비틀거렸다.

더욱이 늙은 밥은 자신의 농담에 스스로 웃다가도, 우리를 왜 그렇게 웃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의 분노는 우리 앞에 더 큰 효과를 거두었다. 다르자크 씨조차 눈물을 닦을 정도였다.

진짜로, 늙은 밥은 웃음을 자아낼 만큼 재미있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두개골을 가진 그였으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십만 년 된 두개골은 보기 무섭지 않다는 것을. 특히, 저 두개골처럼 이가 모두 남아 있다면 더더욱.

그때 갑자기 늙은 밥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그는 오른손으로 두개골을 들어 올리고, 왼손의 검지를 조상의 이마에 대었다.

"두개골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매우 뚜렷한 오각형 모양이 보인다. 이는 두정결의 현저한 발달과 후두골의 비늘 부분의 돌출 때문이야. 얼굴이 매우 넓은 것은 광대뼈의 과도한 발달 때문이지."

그가 잠시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다.

"반면, 바우세-루세 동굴 거주자들의 두개골을 보면, 과연 무엇이 눈에 띄는가?"

그 순간, 늙은 밥이 동굴 거주자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내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웃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늙은 밥은 무서워 보였다. 야생적이고, 가짜 같았다. 마치 늙은 삼류 배우처럼, 철판으로 만든 웃음과 싸구려 지식으로 포장된 존재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니, 가발이 흔들리듯 움직이는 것이었다.

라르상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타올랐다. 그 생각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말을 걸려다가, 한 팔이 내 팔 아래로 슬며시 들어와 나를 끌어당겼다. 룰타비유가 나를 이끌었다.

"무슨 일입니까, 생클레르?"

젊은 남자가 다정하게 물었다.

"내 친구,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또 나를 비웃을 테니까."

그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끌고 서쪽 대로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말했다.

“아니요, 생클레르, 아니요. 저는 당신을 조롱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주변에서 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

요. 방금 전에는 그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는 돌들보다 더 강해요. 모든 것보다 더 강하죠! 저는 밖에서보다 안에서 그를 더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른 이 돌들이, 그를 붙잡아 두는 데에도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생클레르, 저는 그가 여기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룰타비유의 손을 꼭 쥐었다. 이상하게도 나 역시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라르상이 나를 응시하는 눈빛을 느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는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늙은 밥과 함께 찾아온 것 같았다.

나는 불안한 심정으로 룰타비유에게 물었다.

"늙은 밥?"

룰타비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 5분마다 왼손을 오른손으로 쥐어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라르상이야?'라고요. 답을 얻었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라르상이 당신을 속였을 수도 있고, 이미 당신의 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 말과 함께 룰타비유는 나를 서쪽 대로에 혼자 남겨두고 사라졌다.

그곳에서 자크 신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전보를 건넸다. 전보를 읽기 전에, 나는 그의 건강한 모습을 칭찬하며 인사를 건넸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밤을 새웠지만, 드디어 여주인이 행복해진 모습을 보게 된 기쁨이 그를 열 살은 젊어지게 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자신에게 강요된 이상한 밤샘 경계를 서야 했는지, 그리고 룰타비유가 도착한 이후 성에서 이어진 모든 사건의 전말, 그리고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취해진 특별한 경계 조치의 이유를 나에게 물어보려 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다. 끔찍한 라르상이 아직 살아있다면, 사람들이 그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만하다고 말이다.

나는 그에게 지금이야말로 추론할 때가 아니며, 만약 그가 진정한 선한 사람이라면 다른 하인들처럼 군인처럼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해하려 애쓰지도, 더군다나 그 명령을 논쟁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일렀다.

그는 내게 인사하고 고개를 저으며 물러갔다. 그는 분명히 매우 의아해했다. 그가 북쪽 문을 감시하고 있는 이상 라르상을 생각하게 된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그 역시 라르상의 희생자가 될 뻔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그는 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자크 신부가 가져다준 전보를 당장 열어보지 않은 것이, 알고 보니 실수였다. 처음 눈으로 훑었을 때부터 그 내용은 내게 놀라울 정도로 흥미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파리에 있는 내 친구가, 나의 요청에 따라 브르니욜에 관해 이미 정보를 제공해 준 바 있었다. 그 친구는 브르니욜이 어제 밤 남부 지방으로 가려고 파리를 떠났다고 알려왔다. 그는 밤 10시 35분 기차를 탔다.

친구는 브르니욜이 니스행 표를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브르니욜이 니스에 무슨 일로 왔을까?

나는 그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존심에 사로잡혀, 이후로 깊이 후회하게 될 그 순간, 나는 룰타비유에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내가 브르니욜이 파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첫 전보를 보여줬을 때, 룰타비유는 나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브르니욜이 떠났다는 두 번째 전보를 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브르니욜이 그에게 별 중요성이 없다면, 내가 그를 '귀찮게' 할 필요는 없었다. 브르니욜은 나 혼자만 간직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최대한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며, 샤를 용감왕의 광장으로 돌아온 룰타비유를 따라갔다.

그는 철봉으로 우물을 막고 있던 무거운 원형 참나무 판자를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그 판자가 우물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그 길을 통해 성으로 침입하려는 자는 판자를 들어 올릴 수 없으며, 결국 그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내게 설명했다.

땀에 젖은 그의 모습은 맨살이 드러난 팔과 뜯어진 옷깃, 그리고 손에 쥔 무거운 망치가 잘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 일이 비교적 단순한 작업임에도 그가 너무 열심인 것 같아, 눈앞의 일만 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지치게 하고, 마음속의 슬픔을 잊으려 온몸의 피로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반 시간 뒤, 그가 성당 잔해 위에 드러누워 깊은 잠에 빠졌을 때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거친 돌바닥 위에서 그를 덮친 잠자리에서, 그는 한 마디, 단 한 마디의 말을 내뱉었다. 그 말만으로도 그의 심정이 충분히 드러났다.

"엄마!…"

룰타비유는 검은 옷 부인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어릴 적, 유 학교의 접견실에서 뛰어와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녀에게 달려가던 그 시절처럼, 그녀에게 입 맞추는 꿈이었을 것이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그를 그대로 두고 잠들게 둘지, 아니면 그가 잠결에 비밀을 새버릴지 걱정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한 마디로 마음이 가벼워진 그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맑고 단단한 소리, 즉 코골이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룰타비유는 팽이처럼 코를 골고 있었다.

파리에 도착한 후, 룰타비유가 이렇게 진짜로 잠든 것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이용했다. 곧이어 주머니에 전보 한 통을 쥔 나는 니스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얼마 뒤, 나는 <쁘띠 니소아> 지 1면의 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스탕제르송 교수가 가라반에 도착했다. 그는 아르튀르 란스 씨가 소유하게 된 에르크르 요새에서 몇 주를 보낼 예정이다. 란스 씨는 이 요새를 인수했고, 아내는 그와 함께 이 그림 같고 중세적인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풀고 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소식을 접했다. 방금 파리에서 로베르 다르자크 씨와 결혼식을 치른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도, 소르본의 유명하고 젊은 교수와 함께 에르크르 요새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손님들은 북쪽에서 내려왔고, 모든 외국인들이 떠나는 시점이다. 그들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 이 세상에서 지중해 연안(코트 다쥐르)의 봄보다 더 아름다운 봄은 없다!"

니스에서 나는 뷔페 창문 뒤에 숨어, 브리뇰이 탑승했을지 모를 파리에서 오는 열차의 도착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쫓고 있던 브리뇰이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음속이 쿵쾅거렸다. 다르자크 씨에게 알리지 않고 감행한 이 여행은, 도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착각하지 않았다. 브리뇰은 몸을 숨기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둑처럼 재빨리 다른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출구 쪽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그가 밀폐된 택시에 뛰어오르자, 나도 마찬가지로 밀폐된 다른 택시에 몸을 던졌다. 마세나 광장에서 그는 택시를 내려 제테-프로메나드(해변 산책로)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또 다른 택시를 탔다. 나는 여전히 그를 따라갔다.

이런 수법들은 점점 더 수상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브리뇰의 택시는 코르니슈 도로로 들어섰고, 나도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 같은 길을 택했다. 이 도로의 수많은 굴곡과 급커브 덕분에, 나는 그의 시선 없이

그를 지켜볼 수 있었다.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면 운전사에게 거액의 팁을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리외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나는 깜짝 놀랐다. 브리뇰의 택시가 기차역에 멈춰 서고, 브리뇰이 내려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한 뒤 대기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기차를 타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내가 그와 같은 기차에 올랐다면, 이 작은 역의 황량한 승강장에서 그가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어쨌든 나는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만약 그가 나를 알아차린다면, 놀란 체하며 태연히 대처하면 될 일이었다. 그가 이곳에 무슨 일이 있어 들렀는지 확실해질 때까지는 절대 그를 놓치지 않겠다.

하지만 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브리뇰은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이탈리아 국경을 향해 달리는 일반 열차에 올랐다.

요약하자면, 브리뇰의 모든 행보는 에르크르 요새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객차 바로 뒤의 객차에 올라, 역마다 승객들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했다.

브리뇰은 멘톤에서만 멈췄다. 그는 분명히 파리에서 오는 열차와 다른 열차를 이용해, 그리고 역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날 가능성이 적은 시간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외투 깃을 세우고 펠트 모자를 눈까지 깊게 눌러썼다. 그는 승강장을 둘러보며 안도한 듯, 서둘러 출구 쪽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가자 그

는 낡고 지저분한 마차에 몸을 던졌다. 대기실 구석에서 나는 브리뇰을 지켜보았다.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낡고 먼지투성이 마차에 타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나는 직원에게 물어보았고, 그는 그 마차가 소스페르행 마차라고 말했다.

소스페르는 알프스의 마지막 구릉지대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다. 멘톤에서 마차로 두 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철도는 이 마을까지 닿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가장 외지고 알려지지 않은 곳 중 하나이며, 공무원들과… 그곳에 주둔하는 알프스 산악 부대원들에게도 가장 꺼려지는 곳이다. 하지만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은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다. 소스페르를 보려면 수많은 산을 돌아야 하고, 높은 절벽을 따라가야 하며, 카스티용까지 카레 계곡의 좁고 깊은 골짜기를 따라가야 한다. 때로는 유다의 풍경처럼 황량하고, 때로는 푸르거나 꽃이 만발하여 풍요롭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다. 무수히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하늘에서부터 폭포수처럼 흐르며, 맑은 시냇물 위로 은빛 물결을 일군다.

몇 년 전, 나는 영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소스페르를 방문했다. 여덟 마리의 말이 끄는 거대한 마차를 탔다. 그 여행에서 나는 어지러움 같은 느낌을 받았고, 소스페르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자마자 그 감정이 다시 찾아왔다. 브리뇰이 왜 소스페르로 가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야 했다. 마차는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철제 부품과 유리창이 요란하게 울리며 출발했다. 나는 택시 마부를 만나고, 카레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후회됐다. 룰타비유에게 미리 알렸어야 했는데. 브리뇰의 이상한 태도는 그에게 유용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추론'하는 법을 모르고, 그저 브리뇰을 개가 주인을, 형사가 사냥감을 쫓듯 따라갈 뿐이었다.

게다가, 내가 그 추적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했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될 바로 그 순간에, 그 추적은 내게서 빠져나가고 말았다. 막대한 발견을 한 순간이었다. 나는 마차가 어느 정도 앞서 가도록 했다. 이는 필요한 조치였다. 그리고 나는 브리뇰보다 아마도 10분 늦게 카스티용에 도착했다. 카스티용은 멘톤과 소스페르 사이의 도로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마부에게 말 한 마리가 잠시 숨을 고르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산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터널 입구를 바라보았다. 거기에 브리뇰과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있었다!

나는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 섰다. 소리도 지르지 못했고, 손짓도 할 수 없었다. 정말로 나는 이 놀라운 진실에 의해 번개에 맞은 듯 얼어붙었던 것이다.

그때야 정신을 차렸다. 브리뇰을 향한 혐오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나를 향한 자부심도 함께 치밀어 올랐다.

아, 내가 맞았다! 내가 정확히 맞혔던 것이다. 나는 이 사악한 브리뇰이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아챈 유일한 사람이었다. 만약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소르본의 교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와 결별했을 것이다.

브리뇰은 라르상의 조종인물이고, 라르상의 공범이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내가 말했지, 실험실에서의 사고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제 나를 믿어줄까?

그렇다. 나는 브리뇰과 라르상이 카스티용 터널 입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토론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 나는 그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터널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부도 내버려 둔 채, 직접 터널 아래로 내려갔다. 주머니 속에서 권총을 더듬으며 말이다. 나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였다.

아, 내가 이런 일을 룰타비유에게 말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할까?

나, 바로 내가 브리뇰과 라르상을 찾아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완전히 어두운 터널을 가로지른다. 라르상도, 브리뇰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소스페르로 내려가는 도로를 내려다본다. 도로 위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내 왼쪽, 오래된 카스티용 쪽으로, 두 개의 그림자가 급히 움직이는 것이 언뜻 보이는 듯했다. 그들은 사라진다. 나는 달린다. 나는 폐허 한가운데에 도착한다. 나는 멈춘다. 그 두 그림자가 벽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가 말해 주는가?"

이 낡은 카스티용 마을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1887년의 지진으로 마을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성벽 잔해 몇 조각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것들도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불에 타서 까맣게 그을린 집들이 반쯤 무너져 내렸다. 일부 기둥들만 홀로 서 있었다. 이 기둥들은 재앙을 피한 채, 슬픈 듯이 땅을 향해 기울어졌다. 더 이상 지탱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주변은 고요했다. 나는 조심조심 이 폐허를 돌아다녔다. 1887년의 지진으로 바위 사이에 생긴 깊은 균열을 보고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중 한 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우물처럼 보였다. 나는 그 위를 엿보며, 까맣게 그을린 올리브나무 줄기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날갯짓 한 번에 떠밀릴 뻔했다. 나는 얼굴에 불어닥치는 바람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심연에서 화살처럼 날아올랐다.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 곧장 치솟더니, 다시 내 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위협적인 원을 그리며 내 머리 위를 맴돌았다. 그것은 야성적인 울음소리를 지르며, 내가 이 고독과 죽음의 왕국에 찾아와 자신을 방해했다고 탓하는 듯했다. 땅의 불꽃이 그에게 준 이 땅에서였다.

내가 환각에 사로잡혔던 걸까? 나는 다시는 두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길을 걷다가 주워 든 편지 조각이, 소르본에서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쓰던 것과 너무나 닮아 보였다. 그것은 또다시 내 상상력이 나를 장난감 삼은 것인가?

종이 조각 위에는 두 음절이 적혀 있었다. 브리뇰이 쓴 글씨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음절들은 앞부분이 찢겨 나간 단어의 끝자락이었다. 찢어진 자국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것은 '본네(bonnet)'뿐이었다.

두 시간 후, 나는 에르큘 요새로 돌아와 모든 일을 룰타비유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 종이 조각을 지갑에 넣을 뿐, 내 이 탐험의 비밀은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부탁할 뿐이었다.

나는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발견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자 놀랐다. 룰타비유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득 고인 눈물을 내가 보지 못하도록 충분히 빠르게 돌리지는 못했다.

"룰타비유!" 내가 외쳤다.

하지만 그는 다시금 내 입을 막았다.

"조용히! 생클레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열이 난 듯했다. 나는 그의 이 동요가 라르상과 관련된 걱정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나는 그가 자신과 검은 옷 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숨긴다고 탓했지만, 그는 평소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는 다시금 자리를 떴다.

나를 위해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늦은 밤이었다. 늙은 밥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녁 식사는 끔찍할 정도로 침울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극심한

공포를 숨기려 애쓰지도 않았다. 마치 우리 각자가 다가올 재앙에 대해 이미 정보를 얻은 듯했다. 그리고 비극이 이미 우리 머리 위에 무겁게 드리워진 것 같았다.

마담과 미스터 다르자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에디스 부인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열 시가 되자, 나는 해방감에 차 정원사의 쪽문 아래로 보초 임무를 맡으러 나갔다. 내가 작은 회의실에 있을 때, 검은 옷 부인과 룰타비유가 아치형 통로 아래로 지나갔다. 한 개의 등불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마담 다르자크는 놀라울 정도로 고조된 상태였다. 그녀는 룰타비유에게 무언가를 간곡히 간청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일종의 논쟁에서 내가 들은 유일한 단어는 룰타비유가 내뱉은 한 마디였다.

"도둑!"

두 사람은 모두 용감한 자들의 광장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옷 부인은 젊은이를 향해 팔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는 곧장 그녀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동안 광장에 홀로 남았다. 그리고는 유칼립투스 나무 줄기에 기대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자세로 서 있었다. 그러고는 느린 걸음으로 사각탑 안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4월 10일이었다. 사각탑 공격은 11일 밤에서 12일 새벽 사이, 즉 그 밤중에 벌어질 예정이었다.

이 공격은 너무나 신비롭고, 겉보기에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조건에서 일어났다. 독자가 이 사건의 비극적 부조리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11일 하루 동안 우리가 보낸 시간의 몇 가지 특징을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하루 종일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었고, 특히 감시 초병으로 서 있는 시간들은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태양은 맹렬하게 내려쬐었고, 겨울이 지나간 이 나라에서는 짙은 색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법이었다. 백열 상태의 강철 판처럼 타오르는 바다를, 만약 그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았다면 감시하기가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아홉 시가 되자 나는 방을 내려와 포드문 아래, 우리가 '작전 회의실'이라 부르던 방으로 갔다. 룰타비유와 보초를 교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단 한 마디의 질문도 던지기 전에, 다르자크 씨가 나타났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마틸드 스탕제르송과 함께 에르큘 요새를 떠나려 한다고 답했다.

이 말에 우리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젊은 기자였던 룰타비유와 나 모두였다. 내가 먼저 다르자크 씨를 만류했다.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룰타비유는 차갑게 다르자크 씨에게 물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다르자크 씨는 어제 밤 성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제야 다르자크 가문의 상황이 에르클 요새에서 얼마나 어렵게 변했는지 깨달았다. 사건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에디스 부인이 신경쇠약 발작을 일으켰다!"

우리는 즉시 그 이유를 이해했다. 룰타비유와 나 모두 에디스 부인의 질투가 매시간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인 로베르 다르자크가 마틸드 스탕제르송에게 보이는 관심에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 밤, 그녀가 란스 씨와 벌인 마지막 싸움의 소문은 '늑대' 성의 두꺼운 성벽을 뚫고 새어 나왔다. 그리고 평온하게 순찰 임무를 수행하며 돌고 있던 다르자크 씨는 그 끔찍한 분노의 파도를 일부나마 감지하고 말았다.

이 특별한 상황에서 룰타비유는 평소처럼 다르자크 씨에게 이성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다르자크 씨와 다르자크 부인이 에르큘 요새에 머무는 시간이 가능한 한 짧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출국을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들과 라르상 사이에는 또 한 번의 투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라르상은 언제든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이 가장 경계하지 않을 국가와 시기에 말이다.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경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에 나가면,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을 지켜줄 에르큘 요새의 성벽을 잃게 되니까.

물론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룰타비유는 단 여덟 날만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루도 더, 혹은 더 적게는 아니었다.

"여덟 날? 그걸 주시면 저는 세상을 다 드리겠습니다," 콜럼버스가 말했다.

룰타비유는 기꺼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덟 날만 주십시오. 그러면 여덟 날 안에 라르상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다르자크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를 떠났다. 그는 분노한 듯 보였다. 우리가 그를 그런 기색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다르자크 부인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르자크 씨는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제 차례로 자리를 떴다.

잠시 후 에디스 부인이 도착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차림새였다. 단순함 그 자체였지만, 그 단순함이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렸다.

그녀는 곧장 나에게 장난을 걸었다. 조금은 억지스러운 밝음을 드러내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귀엽게 비웃었다.

나는 그녀에게 곧장 반박했다. "당신은 자비가 부족해요. 우리가 얼마나 고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감시 속에 자신을 묶어두는지 당신은 알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수고가 아마도 가장 훌륭한 여성을 구해낼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폭소하며 외쳤다.

"검은 옷 부인! 그녀가 당신들을 모두 마법에 걸었군요!"

"세상에, 그녀가 웃는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다른 때였다면, 물론, 나는 검은 옷 부인을 가볍게 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 화를 내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에디스 부인과 함께 웃었다.

'사실 조금은 사실이야,' 내가 말했다.

‘내 남편은 아직도 그녀에게 미쳐 있어!… 그가 이렇게 낭만적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하지만, 나도,’ 그녀가 아주 재미있게 덧붙였다, ‘나도 낭만적이야…’

그리고 그녀는 이미 나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갈리치 공작과의 대화에서 많은 즐거움을 느꼈어. 그는 분명히 너희 모두보다 더 낭만적이야!’

나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크게 웃으며 반응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상한 여자였다!”

“그렇다면, 저는 그녀에게 자주 언급하면서도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갈리치 공작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점심 식사 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를 초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 몇 가지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갈리치 공작이 러시아의 한 지역인 ‘흑토지(Terre noire)’에서 가장 부유한 보야르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북쪽의 숲과 남쪽의 스텝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모든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무 살에 모스크바에서 가장 넓은 토지 중 하나를 물려받은 후계자였다. 하지만 그는 그 재산을 더욱 불려나갔다. 검소하고 지혜로운 관리로 말이다. 그전까지 사냥과 독서로 시간을 보내던 젊은이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 믿기 어려웠을 정도였다.

그는 검소하고, 인색하며, 시인이라고들 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궁정에서의 높은 지위를 물려받았다. 그는 황제의 시종장이었고, 황제는 아버지의 막대한 공로로 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추측되었다. 게다가 그는 여성처럼 섬세하면서도 터키인처럼 강인했다. 요약하자면, 이 러시아 귀족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음에도 이미 그가 싫었다.

그와 란스 가의 관계는 훌륭한 이웃 사이라고 할 만했다. 그는 두 해 전 가라반에서 '바빌론의 정원'이라 불렸던 아름다운 저택을 샀다. 그 정원에는 매달린 정원과 꽃으로 장식된 테라스, 향기로운 발코니가 있었다. 그는 에디스 부인이 성의 안뜰을 이국적인 정원으로 바꿀 때 몇 가지 도움을 줄 기회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연안에서만 자라던 식물을 몇 가지 선물했다. 그 덕분에 허큘레스 요새의 몇 구석에 식물이 다시 살아났다.

란스 씨는 가끔 공작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러자 공작은 꽃 대신 니네베의 야자수나 세미라미스의 선인장을 선물했다. 그것은 그에게 아무 비용도 들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장미를 자신만 간직하기를 원했다.

에디스 부인은 그가 읊어주는 시 때문에 젊은 보야르를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러시아어로 시를 읊은 뒤 영어로 번역해 주었다. 심지어 그녀만을 위해 영어로 시를 지어주기도 했다. 시, 진정한 시인의 진짜 시, 에디스 부인에게 헌정된 시였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 러시아인에게 영어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에디스 부인을 많이 즐겁게 해주는 문학적인 유희였지만, 아서 란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공작 갈리치가 반쯤만 마음에 든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공작 갈리치의 '시인적인 반쪽'이 아니라 '인색한 반쪽'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시인이 인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공작은 마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트램을 이용했고, 종종 하인 이반과 함께 직접 장을 보았다. 이반은 식량 바구니를 들었다. 젊은 부인은 그녀의 요리사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는데, 공작은 두 소짜리 쏨뱅이 한 마리를 두고 물고기 장수와 다툰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이 극단적인 인색함은 에디스 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아무도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는 란스 부부를 초대하여 자신의 정원을 감상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잘생겼나요?" 에디스 부인이 찬사를 멈추고 나서 내가 물었다.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당신도 곧 보실 거예요……"

왜 그 대답이 유독 내게 불쾌하게 느껴졌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에디스 부인이 떠난 뒤부터, 그리고 내가 맡은 경계 임무가 밤 열한 시 반에 끝날 때까지, 나는 그 말만 계속 떠올렸다.

점심을 알리는 첫 종소리가 막 울렸다. 나는 손을 씻고 간단히 단장을 하고는 '루브' 탑으로 올라갔다. 점심 식사가 여기서 나올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관문에 서서 나는 깜짝 놀랐다. 음악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허큘레스 요새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겠는가? 아니, 노래가 들려왔다. 부드럽고, 그러나 힘 있는 목소리가 은은하게 노래하고 있었다. 이상한 노래였다. 애절하기도 하고, 위협적이기도 한 멜로디였다.

지금 나는 그 노래를 외울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차가운 리투아니아의 국경을 넘었고, 북방의 광활한 제국 안에 들어간 적이 있다면, 아마 그 노래를 잘 알지도 모른다. 그것은 반쯤 벗은 처녀들이 여행자를 물속으로 끌어들이고, 자비 없이 익사시키는 노래다. 시옌키에비츠가 미셸 베레자카에게 불멸의 날에 들려준 윌리스 호수의 노래다. 들어보라.

"밤이 깊어 스비트 호수 근처를 지나갈 때, 호수를 향해 고개를 들고 하늘과 발 아래로 별들이 빛난다면, 두 개의 달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호숫가를 스치며 흔들리는 이 풀을 보라. 그것은 신이 꽃으로 변형시킨 스비트의 아내들과 딸들이다. 그들은 깊은 심연 위에 하얀 부채나비처럼 고개를 흔들며, 서리 내린 은빛 낙엽송 바늘처럼 잎은 푸르다.

그들은 생애 동안 무죄의 상징이었으며, 사후에도 순결한 옷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살며 더러움에 시달리지 않는다. 인간의 손이라면 감히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 차르와 그의 부하들은 그 꽃들을 꺾어 강철 투구와 관자놀이를 장식하려다 한때 그 위력을 몸소 체험한 바 있다.

» 그 꽃들의 힘이 이토록 무서운 탓인지, 바다로 손을 내민 자들은 모두 간질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사실들은 지워졌다. 오직 처벌에 대한 기억만 민중 속에 남았다. 민중은 구전으로 그 기억을 이어왔고, 오늘날 그들을 '차르'라 부르는 꽃이 바로 스비트제에서 자라는 꽃이다.

» 이 말을 남긴 호수의 여인은 천천히 물러났다. 호수는 가장 깊은 곳까지 갈라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결로 머리를 가린 그 아름다운 미지의 여인을 찾아 헤맸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고, 그녀에 대한 소식은 그 이후로 끊겼다. »

그것은 바로 그 노래의 가사였다. 부드럽면서도 남성적인 목소리가 피아노의 슬픈 반주에 맞춰 속삭이던 노래의 가사를 그대로 옮긴 말이었다.

나는 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일어나 내 앞에 섰다. 바로 그 순간, 내 뒤에서 에디스 부인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우리를 소개해 주었다.

그때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갈리치 공작이었다.

공작은 소설에서 흔히 쓰는 표현대로라면 '아름답고 사색에 잠긴 청년'이었다. 그의 곧고 다소 굳은 옆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부드럽고 순진한 그의 눈이 거의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내비치지 않았더라면, 얼굴 전체에 유난히 엄격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그 눈은 길고 검은 속눈썹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검은색은 콜로칠한들 더 검을 수 없을 만큼 진했다. 한 번 그런 속눈썹의 특징을 눈치챈 순간, 우리는 이 얼굴의 모든 기이함의 이유를 단번에 이해했다. 그의 얼굴 피부는 너무도 신선했다. 그것은 정교하게 화장한 여인의 얼굴이나 결핵 환자의 얼굴에서나 볼 수 있는 신선함이었다.

내가 받은 첫인상은 바로 이랬다. 하지만 나는 갈리치 공작에 대해 이미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합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마음이 없었다. 나는 그를 너무 어리다고 느꼈다. 아마도 내가 더 이상 젊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젊은이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너무나 이국적인 시를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디스 부인은 나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내 팔을 잡았는데, 그건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우리는 향기로운 바일의 관목들을 지나 걸어가며, 점심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점심은 말린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오두막 아래, 투르 뒤 테메레르의 토지 평원에서 제공될 예정이었다.

정오가 되자, 우리는 테메레르의 테라스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의 경치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했다. 야자나무 잎들이 우리에게 적절한 그늘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그 그늘 밖에서는 땅과 하늘이 불타오르는 듯했다. 우리의 눈은 그 빛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장에서 처음 언급했던 검은 안경을 모두 착용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 점심식사에는 스탕제르송 씨, 마틸드, 늙은 밥, 다르자크 씨, 아서 란스 씨, 에디스 부인, 룰타비유, 갈리치 공작, 그리고 내가 자리했다.

룰타비유는 등을 바다 쪽으로 향했다. 그는 손님들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자리는 매우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성곽 전체를 두루 살피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할 수 있었다.

하인들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했다. 자크 아저씨는 정문 철문에, 마토니는 정원 쪽 작은 문에, 그리고 베르니에 부부는 사각탑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곳은 다르자크 부부의 아파트 출입구 앞이었다.

식사 시작은 꽤나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우리는 식탁을 둘러싸고 거의 불길할 정도로 조용했다.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 우리 얼굴을 가린 검은 안경 너머로 눈동자도, 생각도 볼 수 없는 채였다.

갈리치 공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공작은 룰타비유에게 아주 친절했다. 그는 기자로서의 명성을 칭찬하려다 말았다. 룰타비유가 그를 살짝 밀치자 공작은 상한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황제의 신하로서, 룰타비유가 곧 러시아로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그는 내 친구의 행보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기자가 반박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며, 그는 본사로부터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공작은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그의 고향 신문이었다. 그는 몇 줄을 번역해 들려주었다. 룰타비유가 곧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할 것이라는 보도였다.

공작이 들려준 바에 따르면, 그곳 정부 고위층에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기묘하고, 겉보기에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파리 경무총감의 조언까지 받아, 경찰청장은 '레포크' 신문의 젊은 기자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작은 그 일을 아주 잘 포장해서 설명했다. 룰타비유는 귀까지 붉어지며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짧은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경찰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파리 경무총감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청장은 둘 다 바보라고 덧붙였다.

공작은 이빨을 드러내며 크게 웃었다. 그는 이빨이 정말 예뻤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소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잔인하고 멍청한 미소였다. 마치 성인의 입에서 나오는 아이의 웃음처럼.

공작은 룰타비유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다. 그 증거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당신처럼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기쁩니다. 요즘 기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진정한 문필가가 다룰 만한 일이 아니니까요."

룰타비유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대화를 끊었다.

에디스 부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다시 화제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해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곳은 바빌론의 정원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덧붙여 말했다.

"우리가 보기엔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멀리서나 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공격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공작이 초대장을 내밀며 답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에디스 부인은 살짝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더니, 갑자기 선언하듯 말했다.

"공작님,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갈리치는 특이할 만큼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네, 저도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작은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자세로 몸을 뻣뻣하게 굳혔다. 그녀는 바빌론의 정원을 어떻게 보았는지 들려주었다.

그녀는 실수라도 한 듯, 뒤에서부터 그 작은 울타리를 밀고 들어갔다. 그 울타리는 정원과 산을 직접 이어주는 통로였다. 그녀는 마법 같은 경치를 하나둘 지나쳤지만, 전혀 놀라지 않았다. 바다 끝자락을 지나면서 본 바빌론의 정원 풍경이 이미 그녀를 준비시켜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정원의 신비로운 비밀을 그렇게도 대담하게 침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 작은 연못가에 다다랐다. 연못은 아주 작았고, 잉크처럼 까맸다. 연못가에는 큰 수련 한 송이와, 턱이 뾰족한 주름투성이의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그녀를 발견한 수련과 할머니는 도망쳤다. 할머니는 너무 가벼워서, 마치 지팡이를 짚듯 수련에 기대어 달렸다. 에디스 부인은 크게 웃었다. 그리고 불렀다.

"부인! 부인!"

하지만 그 작은 노파는 오히려 더 큰 공포에 질렸고, 수련을 든 채 선인장 뒤로 사라졌다. 에디스 부인은 계속 길을 걸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때 갑자기 나뭇잎이 거칠게 스치는 소리와 함께, 사냥꾼에게 놀라 녹색 감옥에서 탈출할 때 야생 새들이 내는 특유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첫 번째 노파보다 더 오그라든, 하지만 덜 날렵한 두 번째 작은 노파였다. 그녀는 진짜 크로아바(갈고리 손잡이)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는 사라졌다—즉, 에디스 부인은 길 모퉁이에서 그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노파가 두 개의 크로아바 지팡이에 기대어 신비로운 정원에서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거대한 유칼립투스 나무 줄기에서 튀어나왔고, 달리는 데 쓸 다리가 네 개나 있어서 그만큼 더 빨리 갔다. 다리가 어찌나 많은지 엉키지 않는 것이 완전히 놀라울 정도였다.

에디스 부인은 여전히 전진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녀는 장미로 장식된 대리석 현관 계단에 다다랐다. 하지만 세 명의 작은 노파들이 가장 높은 계단 위에 세 마리의 까마귀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별장을 지키며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위협적인 부리를 벌렸고, 거기서 전쟁의 함성 같은 까악까악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제 에디스 부인이 도망갈 차례였다.

에디스 부인은 그 일을 아주 달콤하게, 그리고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애교 섞인 어조로 들려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고, 자연스럽지 않은 여자가 자연 그 자체인 여자보다 남자의 마음을 더 깊이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공작은 이 작은 이야기를 들으며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 한 번 없이 말했다.

"그건 내 세 마리의 요정들이야. 내가 갈리치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지. 나는 그들 없이 일할 수도, 살 수도 없어. 그들이 허락할 때만 외출하고, 그들은 내 시적 노고를 잔인할 정도로 집요하게 지켜봐."

공작은 바빌론의 정원 속에 나타난 세 노파의 존재에 대해, 기발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늙은 밥의 하인 월터가 룰타비유에게 전보를 가져다주었다.

룰타비유는 전보를 열어 읽을 허락을 구했다. 그리고는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가급적 빨리 돌아오시오.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취재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보에는 레포크 지 편집장의 서명이 있었다.

"음, 룰타비유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작이 물었다.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검은 옷 부인은 참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지 않겠습니다." 룰타비유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것을 궁정에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젊은이여, 당신의 운명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작이 말했다.

'젊은이'라는 호칭은 룰타비유에게 몹시 불쾌하게 다가왔다. 그는 공작에게 답하려 입술을 벌렸지만,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었다.

공작은 계속했다.

"… 저쪽에서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실험의 장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르상을 밝혀낼 만큼의 힘을 지닌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사이에 굉음처럼 떨어졌다. 우리는 모두 순간적으로 검은 유리를 향해 몸을 숨겼다. 이어진 침묵은 끔찍했다. 우리는 이제 그 침묵을 둘러싸고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라르상!

마흔여덟 시간 동안 우리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던 그 이름, 우리를 점차 익숙해지게 하던 위험을 상징하던 그 이름이, 왜 하필 이 순간 우

리 안에 이렇게 격렬한 충격을 안겨준 걸까? 나로선 이런 극한의 감정을 처음 느껴본 것이다. 마치 최면을 거는 듯한 손짓에 번개를 맞은 듯했다. 정의할 수 없는 불쾌감이 정맥을 타고 흘렀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일어선다면 나를 억누를 힘이 남지 않을 것만 같았다.

우리가 계속 유지하던 침묵은 이 믿기 힘든 최면 상태를 더욱 고조시켰다.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걸까? 늙은 밥의 유쾌함은 어디 간 걸까? 식사 시간에도 들리지 않았던가? 그리고 다른 이들은 어찌되었나? 저 검은 유리 뒤에서 왜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걸까?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 본능적인 동작으로 나는 내가 자연스러운 현상의 포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두 개의 눈이 나를 응시하며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지 못했고, 그 시선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분명 존재했다. 내가 그것을 느꼈다. 바로 '그'의 시선이었다.

그런데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른쪽도, 왼쪽도, 정면도 마찬가지였다. 내 주변에는 이 테이블에 앉아 검은 안경 뒤에 숨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라르상의 눈이 저 검은 안경 중 하나를 통해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 저 검은 유리들! 라르상이 숨어 있던 저 검은 유리들!

그리고는,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마도 그 시선은 더 이상 응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에 답하듯 두

개의 긴 한숨이 터져 나왔다. 룰타비유와 검은 옷 부인도, 같은 순간, 같은 무게를 견뎠던 걸까. 바로 그, 그의 시선이 지닌 무게를.

늙은 밥이 말했다.

"공작님, 저는 당신의 마지막 골수 뼈조각이 제4기 중반의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은 안경들이 모두 흔들리며 움직였다.

룰타비유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나는 재빨리 그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다. 내가 모습을 보이자마자 그는 문을 닫고 말했다.

"어때, 느꼈나?"

나는 숨이 턱까지 막혔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가 여기 있다! 그가 여기 있다! 아니면 우리가 미쳐버린 걸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알고 있소, 룰타비유. 우리가 미쳐버릴 수도 있다는 걸… 라르상에 대한 그 집요한 강박이 결국 우리를 정신병원에 보내게 될 거요, 친구!"

"우리가 이 성에 갇힌 지 이틀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어떤 상태인지 보시오."

룰타비유가 내 말을 끊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느낍니다!… 그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의 존재를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언제?"

"제가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그를 찾으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밖에서 그를 보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비록 당신도 밖에서 그를 보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는 완전히 진정했다. 이마에 주름을 잡더니,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예전의 그 말투로, 다시 말해 '좋은 시절'의 어조로 말을 걸었다. 그 시절에는 아직 그와 검은 옷 부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지 못했던 그의 이성이, 마음의 동요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았다.

"추리해 보자."

그는 곧장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었던,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며 반복하던 논리로 돌아갔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물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라르상이 드러나는 곳에 라르상을 찾지 말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라."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보충 논리를 덧붙였다.

"그가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것은, 정작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 사물의 바깥쪽 면이라니! 생클레르, 당신도 아시겠지만, 때때로 나는 추리를 하기 위해 눈알을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자, 생클레르, 우리 눈알을 뽑아보자. 오 분만, 그저 오 분만 있으면 분명히 보일 거야!"

그는 자리에 앉더니 담배 파이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말했다.

"자, 이제 나는 눈이 없소. 말해보시오, 생클레르. 돌멩이 안에는 무엇이 있소?"

"돌멩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제가 뭘 본다고요?" 내가 되물었다.

"아니, 아니! 당신은 이제 눈이 없소. 아무것도 볼 수 없소! 보지 않고 나열해 보시오! 다 나열해 보라고!"

"일단 당신과 제가 있죠." 내가 마침내 그의 의도를 깨닫고 말했다.

"좋소."

"당신도, 나 또한 라르상은 아니오." 내가 이어서 말했다.

"왜요?"

"왜요? … 어서 말해 주시오! … 왜 그런지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라르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저는 룰타비유니까요. 확신합니다. 하지만 룰타비유 앞에서, 당신은 왜 라르상이 아닌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금방 알아차렸을 테니까요!"

"불쌍한 놈!" 룰타비유가 더 세게 주먹으로 눈을 파고들며 비명을 지른다. "나는 이제 눈이 없어요… 당신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 게임 단속반의 자리가가 트루빌의 은행에서 모파 백작이 앉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는 추리의 힘만으로 지금 카드를 받고 있는 남자가 발마이어라고 단언했을 겁니다."

"만약 하숙집 단속반의 노블레가 어느 날 트로용의 집에서 드루에 데슬롱 자작이라고 알아본 남자와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이 체포하러 왔다가 그를 알아봤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은 그 남자가 발마이어라고 맹세했을 겁니다."

"만약 모트빌 백작을 당신처럼 잘 아는 지루 경위가 어느 오후 롱샹 경마장에서 두 친구와 함께 페이징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모트빌 백작을 보지 않았다면, 그는 발마이어를 체포했을 겁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떨리며 이어진다. "알고 계십니까, 생클레르 씨? 제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제 아버지를 '체포'하려면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절망이 너무도 컸다. 내게 남아 있던 이성의 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룰타비유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요! 아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반복해서 말했다.

"당신도, 스탕제르송 씨도, 다르자크 씨도, 아서 란스도, 늙은 밥도, 갈리치 공작도요. 하지만 그 누구도 라르상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오직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이 돌들 뒤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쪽문 통로 아래에서는 마토니가 보초를 서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다.

"그럼 하인들은요?"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마토니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라르상이 부르그 역에서 다르자크 부인과 다르자크 씨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에르쿨 성채를 떠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정하십시다, 룰타비유."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 당신은 그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검은 안경 뒤에 숨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룰타비유가 발을 구르며 외쳤다.

"입 다물어! 입 다물라고, 생클레르!… 당신 때문에 제 신경이 어머니보다 더 날카로워질 거예요!"

그 말이 분노에 찬 어조로 튀어나왔을 때, 나는 그 말에 놀라움을 느꼈다. 나는 룰타비유에게 검은 옷 부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는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생클레르는 라르상이 아닙니다. 생클레르는 라르상이 부르그에 있는 동안 나와 함께 트레포에 있었으니까요."

"스탕제르송 교수는 라르상이 아닙니다. 라르상이 부르그에 있을 때, 스탕제르송 교수는 디종에서 리옹을 잇는 열차 위에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다르자크 부부는 그보다 1분 먼저 리옹에 도착하여, 그가 자신의 열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만약 그 시점에 부르그에 있기만 하면 라르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라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부르그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먼저 다르자크 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튀르 란스는 스탕제르송 교수와 다르자크 씨가 도착하기 이틀 전까지 자리에 없었

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맞이하려고 막 멘톤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에디트 부인도 제가 적재적소에 던진 질문을 통해, 그 이틀 동안 남편이 업무 때문에 부재해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늙은 밥은 파리 여행을 떠났고요. 마지막으로 갈리치 공작은 동굴에서도, 바빌론 정원 밖에서도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다르자크 씨부터 봅시다."

"룰타비유!" 내가 외쳤다. "그건 신성모독이야!"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가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라르상은 비록 천재라 할지라도, 경찰관이나 기자, 특파원 정도는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단언컨대, 룰타비유조차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는 한 여자를 속여 그 여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으니, 스탕제르송 씨의 건에 대해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약혼자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 여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친구여, 마틸드 스탕제르송은 에르쿨 요새를 그의 팔을 끼고 지나가기 전부터 다르자크 씨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라르상도 알고 있었지!" 룰타비유가 차갑게 덧붙였다.

"그래, 친구. 네 주장도 일리는 있어. 하지만…… 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내가 내 아버지의 재능이 대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나는 조금 더 확실한 근거에 의존하기로 했어. 로베르 다르자크의 인격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지. 나는 결코 그에게서 그 인격을 빼앗으려 한 적이 없으니까."

"만약 로베르 다르자크가 라르상이라면, 라르상은 마틸드 스탕제르송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라르상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마틸드 스탕제르송이 로베르 다르자크를 떠난 것이 아닌가?"

"어이구!" 내가 외쳤다. "그토록 헛된 추론을 늘어놓지 말고, 그냥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눈을 뜨세요, 룰타비유!"

그가 눈을 떴다.

"누구를 보라고?" 그는 비장한 어조로 물었다. "갈리치 공작을?"

"왜 안 되겠어요? 그 '흑토의 왕자'가 리투아니아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도 마음에 들죠?"

"아니요!"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하지만 에디트 부인은 마음에 들어 하죠."

그가 비웃듯 웃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 사실을 눈치챈 듯도 싶었지만, 모른 척했다.

"갈리치 공작은 니힐리스트일 뿐입니다. 제게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했다.

"정말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베르니에의 아내가 우리가 점심때 에디트 부인에게 들었던, 세 노파 중 한 명을 알고 있더군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노파는 카잔에서 황제를 폭살하려다 교수형당한 세 사람 중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불쌍한 이들의 사진을 직접 봤습니다. 나머지 두 노파는 나머지 두 사람의 어머니일 뿐이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룰타비유가 갑자기 끊어 말했다.

나는 감탄을 참지 못하고 제스처를 취했다.

"아, 당신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군요!"

"저쪽도 마찬가지요."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팔짱을 꼈다.

"그리고 늙은 밥은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내 친구, 절대 아니요!" 룰타비유가 거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는 절대 아니에요… 당신도 그가 가발을 쓰고 있다는 걸 보았죠? 음, 아버지께서 가발을 쓰실 때는 그걸 전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가 그렇게 날카롭게 말하자, 나는 그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멈추게 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서 란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계속해서 눈이 문제예요. 당신의 눈을 조심하세요, 생클레르…"

그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의 손은 축축하고 뜨거웠다. 그가 자리를 뜨자,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무엇을?

아서 란스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가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선, 그는 이제 수염을 조금씩 기르고 있었다. 그처럼 보수적인 미국인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머리를 더 길게 기르고 이마에 넓게 퍼뜨린 한 줄기 머리카락을 붙여 두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2년 동안 보지 못했다. 2년이면 누구나 변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술만 마시던 아서 란스는 이제 물만 마신다.

그렇다면 에디트 부인은? 에디트 부인이란 무엇인가?

아, 내가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왜 '나도'라고 말했을까? 마치… 마치 검은 옷 부인처럼? 마치… 마치 룰타비유처럼? 룰타비유가 조금 미쳐가는 것 같지 않은가?

아! 검은 옷 부인이 우리 모두를 마법에 걸었다! 검은 옷 부인이 자신의 기억에 대한 지속적인 전율 속에서 산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그녀와 같은 전율로 떨고 있다. 무서움은 전염된다. 콜레라처럼.

나는 당번이 아니었기에, 방으로 돌아가 쉬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잠은 깊게 들지 못했다. 자는 사이에도 꿈속에서 노부 Bob, 란스 씨, 그리고 에디스 부인이 끔찍한 강도들의 동맹을 맺고, 룰타비유와 나를 반드시 파멸시키기로 맹세한 모습이 펼쳐졌다.

무거운 예감에 휩싸인 채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금 낡은 탑들과 구성채를 마주했다. 거친 돌벽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내 악몽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는 소리 내어 중얼거렸다.

"우리가 피신해 온 곳은 대체 어떤 소굴인가?"

나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에디스 부인이 용감왕의 마당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한 모습으로 룰타비유와 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눈부신 장미를 굴리고 있었다.

나는 곧장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나는 룰타비유를 따라 사각 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순찰 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매우 차분했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었다. 또한 그의 눈도 완전히 통제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다. 아! 그가 주변 사물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언제나 놀라

운 광경이었다. 그의 시선에서 벗어날 것이 없었다. 사각탑, 즉 검은 옷 부인의 거처는 그의 끊임없는 관심사였다.

유일한 문인 K문을 통해 사각탑에 들어서면, 과거에는 감시실로 쓰였던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이 감시실은 예전에는 O, O, O, O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방들과 연결된 문들이 달린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서 란스 부인이 이 감시실 안에서 판자로 벽을 세우며 꽤 넓은 방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 공간을 욕실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 방은 직각을 이루는 두 복도 O-O와 O-O에 둘러싸여 있었다. 베르니에 부부가 상주하던 이 방의 문은 S 자리에 있었다. 다르자크 부부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있는 곳 R로 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지나야만 했다. 베르니에 부부 중 한 명은 항상 이 상주실에 머물러야 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졌다.

그 상주실에서는 작은 창문 Y를 통해, 늙은 밥의 아파트로 통하는 문 V도 감시했다. 다르자크 부부가 아파트에 없을 때, 문 R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항상 베르니에 부부에게 있었다. 그것은 그 전날, 룰타비유만이 아는 곳에서 만든 특별하고 새것인 열쇠였다. 젊은 기자는 그 자물쇠를 직접 설치했다.

룰타비유는 다르자크의 아파트에 내려준 지시를 노부 Bob의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했으면 했다. 하지만 노부 Bob은 그 제안에 극렬히

반대했다. 그의 반대가 너무 유쾌할 정도로 격렬했기에, 우리는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노부 Bob은 감금된 죄수처럼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 집 안을 드나들고, 경비실에게 열쇠를 빌려달라고 청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었다. 그의 문은 항상 열어두기로 했다. 그래야 그는 마음대로 자신의 방이나 거실에서 샤를 용감왕의 탑에 마련된 사무실로 드나들 수 있었다. 남을 귀찮게 할 일도, 남을 걱정할 일도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K문이 여전히 열려 있어야 했다. 그는 이를 강력히 요구했고, 에디스 부인은 삼촌의 편을 들며 한 마디 했다. 그녀의 어조는 아이러니가 가득했다. 룰타비유가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처럼 노부 Bob을 대우하려는 태도를 경멸하는 듯한 어조였다. 룰타비유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에디스 부인은 가느다란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다. “하지만 룰타비유 씨, 제 삼촌은 납치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룰타비유는 그 어리석은 생각, 즉 가장 오래된 두개골을 가진 남자를 아름다운 여성처럼 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노부 Bob과 함께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했다. 그는 웃었다. 노부 Bob보다 더 크게 웃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저녁 10시가 지나면 K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열쇠는 항상 베르니에 가문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필요할 때 베르니에 가문이 와서 열어주어야 했다.

이 또한 노부 Bob에게는 골치거리였다. 그는 때때로 샤를 용감왕의 탑에서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선량한 룰타비유 씨를 모든 면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룰타비유 씨가 도둑을 무서워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노부 Bob을 변호하자면, 그가 우리 젊은 친구의 방어 지시에 그렇게 쉽게 따르지 않은 이유는 그가 라르상-발마이어의 부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그 진실을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부 Bob은 예전에 이 가엾은 M 스탕제르송을 덮친 기이한 불행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었다. 하지만 M 다르자크가 된 이후로도 그녀가 그 불행과 끊어지지 않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게다가 노부 Bob은 거의 모든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이었다. 그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두개골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행복했다. 그래서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룰타비유는 곁에 놓인 큰 주머니에 '소시지'라고 불리는 감자로 가득 차 있던 베르니에 아줌마가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안부를 다정하게 물었다.

그리고 베르니에 아저씨에게 다르자크의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청했다.

다르자크 선생의 방을 처음 찾았을 때, 나는 얼어붙은 듯한 기운을 느꼈다. 방은 차갑고 어두워 보였다.

방은 매우 넓었지만, 가구는 극도로 간소했다. 참나무로 만든 침대 하나, 그리고 벽면에 뚫린 두 개의 개구부 중 하나에 밀어 넣은 화장대 정도였다. 그곳은 원래 화살구멍이 있던 자리였다. 벽이 너무 두껍고 개구부가 넓어서, 그 전체가 큰 방 안에 작은 방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다르자크 선생은 그곳을 화장실로 사용했다.

두 번째 창문은 더 작았다. 두 창문 모두 두꺼운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팔을 겨우 넣을 수 있을 정도였다.

높은 다리가 달린 침대는 외부 벽면에 기대어 놓았고, 다르자크 선생의 방과 그의 아내 방을 가르는 석조 칸막이 쪽으로 밀어 넣었다. 맞은편, 탑의 모서리에는 옷장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몇 권의 과학 서적과 필기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안락의자 하나, 의자 세 개. 그것이 전부였다.

물론 옷장 안을 제외하면, 이 방에서 숨을 곳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베르니에 부부는 방을 청소할 때마다 반드시 그 옷장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옷장 안에는 다르자크 선생의 옷이 수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룰타비유 역시 다르자크 부재 중, 사각탑의 방들을 가끔 찾아와 주인이 된 듯이 눈여겨볼 때, 그 옷장을 수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내 눈앞에서 또 한 번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다르자크 부인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누구도 뒤따라오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따라온 베르니에가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복도와 방을 잇는 유일한 문 안쪽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다르자크 부인의 방은 남편의 방보다 작았다. 하지만 창문의 특별한 배치 덕분에 빛이 잘 들어와 밝았고, 분위기도 화사했다.

그가 방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룰타비유가 창백해지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착하고, 그즈음은 다소 우울해 보였던 표정이었다.

"자, 생클레르. 그 냄새, 맡고 있소? 검은 옷 부인의 향기가."

"아니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다른 창문들처럼 철창이 쳐져 있었고, 바다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가벼운 바람이 옷걸이에 걸린 천을 살랑거리게 했죠. 천은 벽면 한 쪽을 차지한 옷장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죠. 옷장이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옷이나 가운이 바닥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숨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발이나 다리 아래쪽을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옷걸이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누군가 옷걸이에 매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룰타비유는 그럼에도 옷장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방에는 찬장이 없었습니다. 화장대, 책상, 안락의자, 두 개의 의자, 그리고 네 벽만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안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룰타비유는 침대 밑을 살펴본 뒤, 출발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손짓 한 번으로 우리를 모두 방에서 내보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을 나섰다.

베르니에는 곧장 작은 열쇠로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다시 재킷 윗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는 단추로 잠겨 있었고, 그는 그 단추를 꼭 채웠다.

우리는 복도를 한 바퀴 돌았다. 이어 구보부(老Bob)의 아파트도 돌아보았다. 거실과 침실로 이루어진 그곳은 다르자크의 아파트만큼이나 점검하기 쉬웠다.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구는 최소한으로만 갖춰져 있었다. 문이 열린 찬장과 책장이 있었지만, 거의 비어 있었다.

우리가 아파트를 나서려 할 때, 마담 베르니에가 방금 문턱에 의자를 놓았다. 그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일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그 일은 언제나 '소시지'감자로 불리는 감자 껍질 벗기기 작업이었다.

우리는 베르니네 가족이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른 층들은 비어 있었다. 지상층과 연결된 작은 내부 계단이 있었지만, 그 계단은 방의 서쪽 모서리(O)에

서 시작해 탑 꼭대기까지 이어졌다. 베르니네 가족이 쓰는 방 천장에는 그 계단을 막는 들창문이 있었다.

룰타비유는 망치와 못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곧장 들창문에 못을 박아 고정했다. 이제 그 계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룰타비유는 눈치채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는 사각탑 안을 샅샅이 뒤졌고, 우리 둘이 밖으로 나왔을 때 안에는 베르니에 부부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또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베르니에가 몇 분 뒤 직접 다르자크 씨에게 아파트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다르자크의 아파트에는 단 한 명의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일은 내가 곧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는 대략 다섯 시 오 분 전이었다. 베르니에를 아파트 문 앞에 남겨둔 채, 룰타비유와 나는 다시 테메레르 광장으로 나왔을 때였다.

그때 우리는 옛 B″ 탑의 평지 위로 올라섰다. 우리는 방파제 위에 앉아 땅을 바라보았다. 붉은 바위들이 피처럼 타오르는 반사광이 우리를 끌어들였다.

바로 그 순간, 바우세 루세(Baoussé Roussé)의 불타는 절벽에 신비한 입을 벌리고 있는 바르마 그랑드(Barma Grande) 끝자락에서, 늙은 밥(Bob)의 초상 같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격동적이면서도 장례식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유일한 검은 존재였다.

그 붉은 절벽은 물 속에서 그렇게도 환하게 솟아올라, 아직 중앙의 불꽃이 식지 않은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 절벽을 세상에 낳아준 불꽃이었다.

어떤 기적적인 시대착오인가. 현대의 묘지지기인 그가, 프록코트와 실크해트 차림으로, 장엄하고도 기괴하게 이 삼십만 년 된 동굴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동굴은 뜨거운 용암 속에 파여, 지구 탄생의 첫 날, 첫 번째 가족의 첫 번째 천장이 되었다.

왜 이 불타는 배경 속에, 이 음산한 묘지지기인가?

우리는 그가 두개골을 치켜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그의 웃음은 이제 우리를 아프게 한다. 우리 귀와 마음을 찢어놓는다.

우리 시선은 노부자 밥에서 벗어나, 정원사의 문간을 지나 테메레르 광장을 가로지르는 로베르 다르자크 씨에게로 향한다. 그는 우리를 보지 못한다. 아, 그는 웃지 않는다. 룰타비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이해한다. 오후에 그는 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고, 친구가 그 말을 다시 내게 전해주었다. “8일이라니, 너무 길어요! 제가 이 고문을 8일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룰타비유가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거요?” “로마로요,” 그가 대답했다.

분명히,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은 이제 그를 거기(로마)로만 따라갈 것이다. 룰타비유는 교황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불쌍한 다르자크 씨의 머릿속에 이 여행을 생각나게 했다고 믿는다. 불쌍한, 불쌍한 다르자크 씨! 아니, 정말로, 그를 비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가 사각 타워의 문에 이를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몸은 더 굽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싫어하는 표정이다! 모든 것을! 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든 것을 싫어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인내하라,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낼 것이며, 우리는 항상 그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즉시 이를 고백할 수 있다. 나는 비웃었지만… 음, 다르자크 씨는 룰타비유의 천재적인 도움 덕분에, 인간의 골수를 떨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공포의 전율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정말로! 그럼! 그럼, 누가 그것을 믿었겠는가!…

다르자크 씨는 곧장 사각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베르니에를 만났고, 베르니에가 그의 아파트 문을 열어주었다.

베르니에는 아파트 문 밖으로 나갔고, 열쇠는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후 아파트 내부에서 어떤 철창도 잘려나가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우리는 다르자크 씨가 방으로 들어설 때 그 안에 아무도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것이 진실이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은 나중에 우리 각자가 명확히 증언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 준비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해석할 수 없는 사건'에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오후 다섯 시였다.

룰타비유와 나는 약 한 시간 동안 이 B″ 탑의 평지 위에서 수다를 떨었다. 다시 말해, 서로의 머리를 '뜨겁게' 달궜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룰타비유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아, 생각났어!"

그는 곧장 사각 탑으로 향했고,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천 리나 떨어져 있었다.

그는 베르니에 부인의 감자 주머니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그 주머니를 베르니에 부인의 방 바닥에 비워 버렸고, 그 광경에 부인은 깜짝 놀라 경악했다.

이 행동이 분명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그는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테메레르 광장으로 돌아왔다. 뒤에서 베르니에 아저씨는 흩어진 감자를 보고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다르자크 씨가 잠시 루브의 2층에 있는 아버지의 방 창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더위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우리는 격렬한 뇌우가 닥칠까 봐 두려워했고, 그 비가 당장 쏟아지길 바랐다.

아, 비라도 와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군… 바다가 마치 기름기 많은 천처럼 무겁고 끈적한 고요함에 잠겨 있다. 아, 바다도 무겁

고, 공기조차 무겁다. 우리 가슴도 무겁다. 땅 위와 하늘 아래로 가벼운 것은 오직 바르마 그랑드 끝자락에 다시 나타나 여전히 몸부림치는 늙은 밥뿐이다.

그가 춤을 추는 것 같다. 아니다, 연설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 우리는 난간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내려다본다. 분명히 해변에 늙은 밥에게서 선사 시대 같은 말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하지만 야자수 잎이 그 청중을 가리고 있다.

드디어 청중이 움직이며 앞으로 걸어 나온다. 그들은 '검은 교수'라고 룰타비유가 부르는 그 남자에게 다가선다. 그 청중은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디트 부인… 틀림없다. 흐느적거리는 그 우아함, 남편의 팔에 기대는 그 모습… 남편의 팔에!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인가? 에디트 부인이 흐느적거리는 우아함으로 그렇게도 의지하고 있는, 그 젊은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룰타비유가 몸을 돌렸다. 우리 주변에서 정보를 줄 만한 사람, 마토니나 베르니어를 찾는 눈치였다. 마침 베르니어가 사각탑의 문턱에 서 있었다. 룰타비유가 그에게 손짓했다. 베르니어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그의 시선은 룰타비유가 검지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쏠렸다.

"에디트 부인과 함께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아시나요?"

기자가 물었다.

"그 젊은이는?" 베르니어는 주저함 없이 답했다. "갈리치 공작입니다."

룰타비유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실 우리는 갈리치 공작이 걷는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말, 나는 그의 걸음걸이가 이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그다지 키가 크지 않아 보였다. 룰타비유는 내 심정을 알아차린 듯 어깨를 으쓱였다.

"좋소." 그가 베르니어에게 말했다. "고맙소."

그리고 우리는 에디트 부인과 그녀의 공작을 계속 지켜보았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르니에가 우리를 떠나기 전에 말했다. "그 공작은 제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온순하거든요. 너무 금발이고, 눈이 너무 파랗습니다. 러시아 사람이라고들 하죠. 그러니 그가 언제 어디로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고 없이 국경을 넘을 수도 있는 셈이죠."

"지지난번에 그가 이곳에 점심 초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마담과 무슈가 그를 기다렸지만,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전보가 왔습니다. 기차를 놓쳤으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보의 발신지는 모스크바였죠."

베르니에가 기이하게 비웃으며, 다시 그의 탑 문턱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해안가를 고정하고 있었다. 에디스 부인과 공작은 로미오와 줄리엣 동굴 쪽으로 산책을 계속했고, 늙은 밥은 갑자기

손짓을 멈췄다. 그는 바르마 그랑드(Barma Grande)에서 내려 성으로 걸어갔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안뜰을 가로지르더니, 우리는 성탑 B″의 높은 지대에서 그가 더 이상 웃지 않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늙은 밥은 이제 슬픔 그 자체였다. 그는 침묵했다. 그는 이제 협문 아래로 지나갔다. 우리는 그를 불렀지만, 그는 우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두 팔을 뻗어 자신의 가장 오래된 두개골을 안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두개골을 향해 가장 악랄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원형 탑으로 내려갔고, 우리는 낮은 포대 깊숙이까지 그의 분노의 파열음을 잠시 더 들었다. 그곳에서는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그가 벽들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그때, 신성의 낡은 시계가 여섯 시를 알렸다. 거의 동시에 먼 바다 위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평선 전체가 새까맣게 물들었다.

그때 마부실 소년 월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사내였죠. 생각은 못 해도 주인인 늙은 밥에게 수년간 짐승 같은 충성을 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월터는 정원사의 작은 문을 지나, 용감한 샤를 광장으로 들어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룰타비유에게도 편지 한 통을 건넸고, 그는 다시 사각탑 쪽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룰타비유는 그에게 사각탑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 물었다. 그는 다르자크 씨 부부의 편지를 베르니에 영감에게 전달하러 간다고 답했다. 이 모든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졌다. 월터는 영어밖에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크 영감이 자신의 초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금지된 이후부터, 월터가 편지 배달을 맡게 되었다. 룰타비유는 그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자신이 직접 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르자크 씨의 문 쪽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의자에 걸터앉아 파이프를 피우고 있던 베르니에 영감을 만났다.

"다르자크 씨는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까?" 룰타비유가 물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베르니에가 답했다.

우리는 문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빗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빗장은 사람이 방에 들어선 뒤 반드시 밀어 잠그는 것이 좋다. 룰타비유의 규칙이다.)

우리가 방에 들어섰을 때, 다르자크 씨는 서신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글을 쓸 때 작은 원탁 앞에 앉아, R문 바로 맞은편을 바라보며 그 문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 룰타비유는 신음했다. 그가 읽고 있는 편지가 아침에 받았던 전보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전보는 그를 파리로 서둘러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그의 신문사는 그를 러시아로 보내려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르자크 씨는 우리가 방금 건넨 두세 통의 편지를 무관심한 눈으로 읽더니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나는 방금 받은 편지를 룰타비유에게 건넸다. 파리 친구의 편지였다. 브리뇰의 출발과 관련해 별 의미 없는 몇 가지 상세한 정보만 알려준 뒤, 그 브리뇰이 자신의 편지를 소스페르의 알프스 호텔에 보내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정보는 매우 흥미로웠다. 다르자크 씨와 룰타비유는 이 단서에 기뻐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소스페르로 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르자크 씨의 아파트를 나섰다.

다르자크 부인의 방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밖으로 나서면서 나는 그 사실을 눈여겨보았다. 앞서 말했듯, 다르자크 부인은 자기 방에 없었다.

우리가 방을 나선 직후, 베르니에 영감은 아파트 문에 열쇠를 꽂았다. 즉시… 즉시…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그는 즉시 열쇠를 자신의 조끼 윗부분 작은 주머니에 넣었다.

아! 나는 아직도 그가 그 작은 주머니에 열쇠를 넣는 모습을 선명히 기억한다. 나는 맹세한다! 그는 그 주머니 단추까지 채워 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세 사람 모두 사각탑을 나섰다. 호위병처럼 충실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임무를 다해 온 베르니에 영감을 복도에 남겨둔 채였다.

약간은 불법 사냥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경호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경호원들은 항상 불법 사냥을 한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전체에서 베르니에 영감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오직 진실만 말해 왔다. 그의 아내인 베르니에 부인 역시 매우 현명하고 말수가 적은 훌륭한 관리인이었다.

지금 그녀는 과부가 되어 내 밑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가 여기서 내가 그녀를 어떻게 높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게 바치는 추모의 글을 읽게 된다면 기뻐할 것이다. 부부는 모두 그 영광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

저녁 여섯 시 반쯤이었다. 우리는 사각탑을 나서 로베르 다르자크와 조제프 룰타비유, 그리고 나 세 사람은 둥근 탑에 사는 늙은 밥을 찾아갔다.

우리가 낮은 포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다르자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어제부터 마음을 달래려다 만든 그림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서 란스가 보여준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 15세기 에르퀼 성의 대형 평면도였다.

그런데 그 그림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다. 물감이 온통 번져서 지저분해져 있었다.

다르자크는 늙은 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밥은 해골이 담긴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는 한쪽 어깨뼈에 온 신경을 쏟고 있어서, 다르자크의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잠깐만, 독자들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다. 최근 몇 페이지에 걸쳐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해 드린 탓이다. 하지만 나는 곧장 말해야겠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사건들에도 실제로는 엄청난 중요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이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해도, 한창 진행 중인 비극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늙은 밥은 독견처럼 심기가 불편한 기색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룰타비유와 나는, 그를 떠나야 했다. 다르자크 씨는 망친 그림 앞에 그대로 앉아, 아마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둥근 탑을 빠져나왔을 때, 룰타비유와 나는 어둡게 깔린 검은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폭풍이 곧 닥쳐올 징후였다. 그전부터 비가 쏟아져 내렸고, 우리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침대에 쓰러져 버릴 거야. 정말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 위층은 창문을 다 열어놔서 선선할지도 몰라."

룰타비유가 나를 따라 신성(Château Neuf)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거대한 흔들리는 계단의 첫 번째 중간 플랫폼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갑자기 나를 멈춰 세웠다.

"오, 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녀가 여기 있어."

"검은 옷 부인 말입니까? 계단 전체가 그녀의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문 뒤에 몸을 숨기며,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가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대로 행했다.

내 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마틸드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며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놀란 새처럼 날아듯 도망친 것이다.

나는 계단으로 달려가 난간 너머로 몸을 내밀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곧 1층에 도착했고, 나는 아래에서 룰타비유를 보았다. 그는 첫 번째 층계참 난간에 기대어,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내 쪽으로 올라왔다.

"하! 내가 뭐라고 했지! 불쌍한 여자야!"

그는 다시금 심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르자크 씨에게 8일을 달라고 했어요… 24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아니면 저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어요…!"

그는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막혀! … 숨이 막혀!"

그가 신음하며 넥타이를 잡아당겨 벗어던졌다.

"물 좀!"

내가 물병을 가져가려 하자, 그가 나를 말렸다.

"아니! … 내가 원하는 건 하늘의 물이야!"

그가 검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늘은 여전히 열릴 기색이 없었다.

그는 십 분 동안 그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놀란 것은, 그가 '검은 옷 부인'이 내 방에 왜 왔는지 묻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했을 것이다.

마침내 그가 일어났다.

"어디 가요?"

"성문 지킴이 교대를 하러."

그는 저녁 식사하러 오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군인처럼 국을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만 했다.

저녁 식사는 여우굴에서 여덟 시 반에 차려졌다. 늙은 밥과 작별한 로베르 다르자크는, 밥이 저녁을 거절했다고 알렸다. 에디스 부인은 그가 아픈 게 아닌가 싶어 곧장 원형 탑으로 향했다. 아서 랜스 씨가 동행하는 것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남편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듯했다.

그때 검은 옷 부인이 스탕제르송 교수와 함께 도착했다. 마틸드가 나를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책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나를 깊이 당황하게 했다. 그녀의 눈은 단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누구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 아서 랜스는 검은 옷 부인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모든 창문이 열려 있었지만, 공기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혔다.

번개가 치고 거친 천둥이 이어졌다. 그러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가슴을 짓누르던 긴장이 풀리며,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에디스 부인은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비에 휩쓸리기 직전에 돌아왔다. 그 비는 반도를 완전히 삼켜버릴 듯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책상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있던 늙은 밥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녀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친근하게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곰처럼 뚱하게 굴기만 했다.

그가 고집스럽게 귀를 막고 있으니까, 그녀는 평소 저녁에 어깨에 걸쳐 두는 가벼운 스카프의 주름을 고정하던 작은 루비 머리핀으로 그를 툭 찔렀다. 밥은 중얼거리더니 그 작은 루비 머리핀을 잡아채 화가 난 듯 책상 위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결코 하지 않던 날카로운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다. "자, 여보시요, 제 조카님. 저를 내버려 두시오."

에디스 부인은 너무 상심해서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그날 밤은 다시는 원형 탑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원형 탑을 나서며 에디스 부인은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늙은 삼촌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본 것에 깜짝 놀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두개골이 삼촌의 책상 위에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턱은 피로 범벅이 된 채 하늘을 향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늘 예의 바르게 대했던 늙은 밥은, 그 두개골 안에 침을 뱉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약간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때 로베르 다르자크는 에디스 부인을 안심시켰다. 그녀가 피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 페인트였다는 것이었다. 늙은 밥의 두개골에는 로베르 다르자크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식탁을 떠나 룰타비유를 찾아 뛰었다. 동시에 마틸드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검은 옷 부인이 내 방에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 나는 곧 그 답을 알게 될 터였다.

밖으로 나섰을 때, 천둥이 우리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고 비는 더욱 거세졌다. 나는 단숨에 작은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룰타비유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B″ 테라스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사각 탑의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고, 온몸으로 폭풍우를 맞고 서 있었다.

나는 그를 흔들며 작은 문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만해." 그가 나에게 말했다. "제발 그만해! 이건 대홍수야! 아, 참으로 좋군! 정말로 좋다고! 하늘의 이 모든 노여움이! 너도 천둥과 함께 울부짖고 싶지 않니? 어차피 나는 울부짖을 거야, 들어봐! 나는 울부짖는 거야… 나는 울부짖는다… 후후후… 천둥보다 더 크게! 자, 보게!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군!"

그리고 그는 울려 퍼지는 밤하늘 위, 일렁이는 파도 위로 야수 같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나는 이번에는 그가 정말로 미쳐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불쌍한 아이는 자신의 영웅적인 가슴속에서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한 끔찍한 고통을 명확하지 않은 비명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라르상의 아들! 그 아들의 고통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가 몸을 돌렸다. 손목이 누군가에게 잡혔기 때문이다. 폭풍우 속에서 검은 형체가 내게 달라붙었다.

"그가 어디 있느냐? … 그가 어디 있느냐?"

다르자크 부인 역시 룰타비유를 찾고 있었다.

그때 또 한 번의 천둥이 우리 몸을 휘감았다. 룰타비유는 끔찍한 광기 속에 천둥소리에 맞서 목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가 그 소리를 들었고, 그를 보았다.

우리는 온통 물에 젖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과 바다에서 튀는 거품이 우리를 적셨다. 다르자크 부인의 치마가 밤하늘에서 검은 깃발처럼 나부끼며 내 다리를 감쌌다. 그녀는 기절할 것 같았기에 나는 불쌍한 그녀를 부축했다.

그 순간, 거대한 자연의 격렬한 분출 속에서,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끔찍한 물줄기 아래, 울부짖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는 갑자기 그녀의 향기를 맡았다. 다정하고 깊게 스며들며, 너무나도 비통한 그 '검은 옷 부인'의 향기였다.

아! 이제야 알겠다. 룰타비유가 수년이 지난 뒤에도 그 향기를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렇다, 그 향기에는 깊은 비통함이 가득하다. 그것은 내면의 슬픔을 위한 향기다. 버려져 혼자만 피어나야 했던 한 꽃이 지닌, 고립되고 은밀하며 완전히 개인적인 향기와도 같다.

결국 그 향기는 나에게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켰고, 나중에 내가 그것을 분석하려 했던 이유도 룰타비유가 항상 그 향기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독재적인 향기였다. 물과 바람, 천둥이 격돌하는 한가운데서, 내가 그 향기를 잡은 순간, 나는 갑자기 취한 듯했다.

경이로운 향기였다! 정말 경이로웠다. 왜냐하면 나는 검은 옷 부인을 스쳐 지나간 적이 스무 번이나 있었지만, 그 향기가 어떤 점에서 경이로운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다의 바람이 장미의 숨결을 쓸어내리듯, 땅에서 가장 오래가는 향기들, 심지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향기들을 날려버리는 순간에 나에게 나타났다.

내가 그 향기를 맡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잡았다'고 말하겠다.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도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검은 옷 부인의 향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걸 이해하려면 반드시 매우 지능적이어야만 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날 밤, 나는 다른 어느 날보다 더 지능적이었을 것이다. 비록 그날 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한 번이라도 그 비통하고, 매혹적이고, 사랑스럽게도 절망적인 냄새를 잡았다면, 그것은 평생 가는 것이었다.

만약 룰타비유의 마음처럼 아들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향기에 젖어 있어야 했고, 만약 다르자크 씨의 마음처럼 연인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타오르고 있었을 것이며, 만약 라르상의 마음처럼 도적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독에 중독되었을 것이다.

아니, 다시 말하지만, 그 향기 없이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없어야 했다!

지금이야말로 룰타비유와 다르자크와 라르상, 그리고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이 겪은 모든 불행을 이해할 수 있다.

폭풍우 속에서 그녀는 내 팔을 꽉 붙잡고 '룰타비유'를 불렀다. 다시 한 번 룰타비유는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밤바람을 가르며 도망쳤고, 외쳤다.

"검은 옷 부인의 향기! 검은 옷 부인의 향기!"

불쌍한 여자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끌어당겨 탑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절망적인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고, 베르니에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달래며 평범한 말들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바쳐도 좋았다. 아무도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내가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녀가 나를 오른쪽으로 이끌며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곳은 늙은 밥의 방 앞에 있는 거실이었다. 아마도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마치 그녀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둘이서만 있는 것과 같은 고독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는 늙은 밥이

늦은 시간까지 '무모한 자의 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나! 그 끔찍한 저녁의 기억 중에서도, 검은 옷 부인 앞에 앉아 보냈던 그 순간의 기억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다.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되었다.

폭풍우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심지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시간도 없이 — 나는 낡은 우산처럼 마룻바닥에 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 그녀는 곧장 물었다.

"생클레르 씨, 트레포르에 가신 지 오래셨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묻는 순간, 나는 폭풍우의 모든 벼락보다 더 눈이 부시고 어지러웠다. 밖에서는 온 자연이 진정되어 가고, 내가 이제야 안전지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나는 바다의 파도가 수세기 동안 헤라클레스의 바위에 헛되이 부딪혔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 뜻밖의 말에 휩싸인 내 동요를 모두 드러내고 말았다. 처음에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더듬거리기만 했고, 분명히 나는 완전히 우스꽝스러웠다.

그 일로부터 수년이 지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목격자처럼 지켜보는 것 같다. 비를 맞았다고 해서 모두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니다. 검은 옷 부인은 나처럼 폭풍우를 뚫고 나왔고, 몸은 젖었지만 그녀는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풀어진 머리카락, 드러난

목, 그리고 가벼운 실크 옷감에 감싸진 아름다운 어깨선은 그녀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옷은 내 눈에는 피디아스의 후예가 아름다움의 형체를 취한 불멸의 진흙 위에 던진 신성한 헝겊처럼 보였다.

수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을 생각할 때, 나의 감정이 문장의 단순함을 해치고 있음을 잘 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라면 아마 나를 이해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룰타비유에게, 이 신성하리만치 아름다운 어머니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허덕이면서, 나의 맹세를 배신해 달라고 간청했을 때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경외심 어린 당혹감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룰타비유에게 침묵할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불행히도, 나의 침묵은 그 어느 변론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더니, 평생 잊지 못할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그의 친구죠. 그러니 그에게 말해 주세요. 우리 둘이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굵은 울음을 터뜨리며 덧붙였다.

"왜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여자는 예전부터 남들, 특히 나에겐 늘 '차갑게' 굴어왔다. 나는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나에게 검은 옷 부인의 향기를 맡긴 뒤로,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네, 오래된 친구처럼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간절하고 단순한 몇 마디로요. 그 작은 꾀쟁이 룰타비유가 저에게 숨겨왔던 것들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숨바꼭질은 오래갈 수 없었고, 그들은 서로를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본능에 이끌린 그녀는, 자신을 구해주고 다른 남자와 나이가 같으며 심지어 그 남자를 닮아까지 있는 룰타비유가 대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멘통에 있는 그녀에게 룰타비유가 거짓말을 했고 보르도의 어떤 기관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다는 최근의 증거를 안겨주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즉시 그녀는 그 젊은이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트레포와 외(Eu)의 기숙사 학교, 그리고 멘통에 오기 전에 우리가 그곳에서 했던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나는 소리치며, 곧장 자신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녀는 나의 무심한 고백을 우쭐대지도 않았다. 대신 한 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계략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내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그녀가 우리 방을 찾은 첫 번째 방문이 아니었다.

내 짐에는 여전히 외(Eu)의 수하물 보관소에서 붙인 최근의 라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왜 내 품으로 뛰어 들지 않았을까? 내가 팔을 벌렸건만." 그녀가 신음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만약 그가 라르상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영원히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을 것인가?"

룰타비유는 그 여자에게 있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고,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나중에 내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행 속에서도 살아난 아들을 보며 죽을 듯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아, 불행한 녀석! … 어젯밤 저녁, 그녀는 기진한 채 자신이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이 바로 룰타비유 자신이라고 외쳤다. 그때 룰타비유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 어떻게든 이 사실을 합리화해 보시라! 그녀가 직접 나에게 말해 주었다. 나는 룰타비유가 이렇게 잔인하고, 교활하며, 무례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당연하지! 그는 정말 끔찍하게 행동했어!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의 아들도 아니라고, 심지어 도둑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지! 그때 그녀가 사각탑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원했던 거야. 하지만 그

녀는 되찾은 아들을 그토록 빨리 잃으려고 그를 되찾은 게 아니었기에, 여전히 살아 있었어! 나는 격분했어! 나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용서를 구했어. 룰타비유 때문에 사과했지. 그래서 이것이 내 친구의 정책의 결과였어. 라르상으로부터 그녀를 더 잘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그는 그녀를 죽이고 있었던 거야!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 나는 도망쳤어! 베르니에를 불렀고, 그는 문을 열어주었어! 나는 사각탑을 떠나며 룰타비유를 저주했어. 나는 그가 테메레르의 광장에 있을 줄 알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어."

쪽문에 다다랐을 때, 마토니가 막 열 시 보초를 서기 시작한 참이었다. 내 친구의 방에서는 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나는 신성(Château Neuf)의 흔들거리는 계단을 기어 올랐다. 드디어! 저기 그의 문이다. 나는 문을 열고, 밀어젖혔다. 룰타비유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생클레르?"

나는 몇 마디 잘린 말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분노를 알아챘다.

"그녀가 당신에게 모든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여."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 남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나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을요!"

"맞아요!" 내가 외쳤다. "저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온 거죠?" 그는 거칠게 재촉했다. "어제 그녀가 나에게 한 말을 아직 모른다는 겁니까?

그녀는 나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제 아버지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그는 비웃듯 웃었다. 다시 한번 웃었다.

“아버지와 함께요!… 그녀는 아마 그가 나보다 더 강하다고 믿고 있겠죠!…”

그가 그렇게 말할 때의 표정은 참혹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모습이 변했다. 눈부신 아름다움이 그를 감싸며 빛났다.

“그녀가 나를 걱정하네요! 그렇다면 나는 그녀를 걱정합니다!… 나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릅니다!”

. . . . . .

그때, 밤하늘을 가르며 총성이 울렸다. 이어 죽음의 비명이 따라왔다. 아, 다시 그 비명이다. 설명할 수 없는 복도의 비명! 내 머리카락이 쭈뼛 서 올랐다. 룰타비유는 자신에게 총알이 명중이라도 한 듯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는 열린 창문 쪽으로 뛰어나갔다. 절망적인 비명이 요새 전체를 메웠다.

“엄마! 엄마! 엄마!”

나는 그 뒤를 따라 뛰어가며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광기에 모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의 비명, "엄마! 엄마! 엄마!"에는 절망의 격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 요청, 아니 오히려 구조의 신호였다. 나는 그가 자신이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 즉 이 창문에서 그 탑으로 직접 날아오를 수 없다는 사실, 새나 화살처럼 어둠 속을 가로질러 범죄 현장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했다. 그는 그 어둠을 무서운 비명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나를 쓰러뜨렸다. 그는 미친 듯이 돌진해 복도를 지나 방과 계단, 안뜰을 가로질러 굴렀다. 그리고 바로 방금 전, 알 수 없는 복도에서 죽음을 알리는 비명을 밤하늘로 던져준 저 저주받은 탑으로 달려갔다.

나도 그 비명에 사로잡혀 창문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포가 나를 그 자리에 못 박아 버린 것이다.

그때 사각탑의 문이 열렸다. 빛의 틀 안에 검은 옷 부인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녀는 죽음을 알리는 비명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있고 곧게 서 있었다. 하지만 창백하고 유령 같은 얼굴에는 측량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어둠을 향해 두 팔을 내밀었다. 그러자 어둠이 룰타비유를 그녀에게 던졌다. 검은 옷 부인의 팔이 그를 감싸 안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오직 탄식과 신음소리, 그리고 어둠이 끝없이 되뇌는 두 음절만 남았다.

"엄마! 엄마!"

나도 뒤이어 안마당으로 내려갔다. 관자놀이에는 맥박이 격렬하게 뛰었고, 마음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으며,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사각탑 입구에서 내가 목격한 것들은 결코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였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던 바로 그 순간, 오히려 모든 것이 되찾아진 것은 아닌가? 아들이 어머니를 되찾지 않았는가? 어머니가 마침내 아이를 되찾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녀가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왜 죽음의 비명이 터져 나왔던 것인가?

그녀가 사각탑 입구에 서서 모습을 보이기 전, 왜 그토록 절박한 비명이 울려 퍼졌던 것인가?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그 안을 지나쳤을 때, 테메레르의 안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총성이 울렸을 때,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인가? 비명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인가? 다르자크 씨는 어디에 있었는가? 노부자 밥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아직 둥근 탑의 아래 포대 안에서

일하고 있었는가? 나는 그렇게 믿을 만했다. 그 탑의 지면 높이에서 불빛이 보였기 때문이다. 마토니는 어떠했는가? 마토니 역시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인가? 정원사의 문 아래에서 보초를 서던 마토니가 말이다! 자, 이제 베르니에와 베르니에 부인은 어떠했는가? 나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사각 탑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아, 그 달콤한 속삭임, "엄마! 엄마! 엄마!" 그리고 나는 그녀가 울면서 오직 이것만 반복하는 것을 들었다.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내 아이야!" 그들은 심지어 노년 보브의 거실 문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는 조심성조차 없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가 아이를 끌어당겼고, 아이를 데려간 것이다!

그들은 그 방에서 둘만 남았다. 서로를 꼭 안으며 서로에게 외쳤다.

"엄마! 내 아이야!"

그리고는 이어지지 않는 말들을 나눴다. 문장도 없이, 그저 신성한 멍청함 같은 것들만 오갔다.

"그래, 너 죽지 않았구나!"

물론이지, 그렇지.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입을 맞추었는지, 잃어버린 시간을 얼마나 많이 되찾았는지. 그리고 그가, 검은 옷 부인의 향기를 얼마나 깊이 마셨는지.

그가 다시 말했다.

"알아, 엄마. 내가 훔친 게 아니야."

그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를 듣자, 사람들은 그가 아직 아홉 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불쌍한 룰타비유였다.

"아니야! 내 아이야! 아니, 너 훔친 거 아니야!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내가 듣게 된 건 내 탓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어찌 그리 감격스러울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베르니에 어디 있는 걸까? 나는 왼쪽으로 발걸음을 돌려 문지기 초소 안으로 들어섰다. 왜 비명이 터졌는지, 그리고 누가 총을 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초소 안은 작은 전등불 하나에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다. 베르니에 부인은 한쪽 구석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 옷을 두른 채, 마치 한 뭉치의 그림자처럼 굳어 있었다. 총성이 터졌을 때 그녀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다가, 급히 겉옷을 걸친 듯했다.

나는 전등불을 그녀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베르니에 아저씨는 어디에 있소?" 내가 물었다.

"저기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기? … 어디가 저기란 말이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초소 안으로 몇 발자국 들어섰다. 그런데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무엇을 밟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굽혔다. 내가 밟고 있는 것은 감자였다.

나는 작은 등불을 낮춰 마루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루 전체가 감자로 뒤덮여 있었다. 감자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룰타비유가 주머니를 비운 이후로, 베르니에 부인이 감자를 치우지 않았다는 말인가?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켜 베르니에 부인에게로 돌아갔다.

"이봐요! 총성이 들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순간, 탑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베르니에 아저씨가 초소 문턱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 생클레르 씨군요?"

"베르니에 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별일 아닙니다, 생클레르 씨. 안심하십시오. 정말 별일 아닌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크고, 너무 '활기차' 보였다. 스스로 보이고자 했던 그 단호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요하지 않은 사고였을 뿐이다. 다르자크 씨가 야간탁자에 권총을 올려놓는 바람에, 총이 발사된 것이다. 부인은 당연히 놀라 비명을 지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파트 창문이 열려 있었으니, 룰타비유 씨와 당신이 무언가를 들었을 거라 생각하셨다. 그래서 곧장 나가셔서 당신들을 안심시키러 오신 것이다.

"다르자크 씨는 집에 돌아오셨던 겁니까?"

"선생님이 탑을 떠난 지 거의 직후에 그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성이 울렸죠. 저 역시 무서웠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직접 문을 열어주셨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탑을 떠난 직후에 다르자크 부인이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탑에 도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뒤를 따라 아파트로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그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다르자크 씨는요? 그의 방에 남아 계셨습니까?"

"자, 저기 계십니다!"

나는 뒤를 돌았다. 로베르가 보였다. 아파트 안은 어둡기 그지없었지만, 그의 얼굴이 극도로 창백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손짓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생클레르, 들어주시오. 베르니에가 그 사고에 대해 당신에게 말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총성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세요, 친구여.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든 좋소.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오."

"고맙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룰타비유를 자러 가게 만드는 것뿐이오. 그가 떠나면, 내 아내도 진정되어 쉬러 갈 거요. 모두에게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생클레르! 우리 모두에게 차분함과 침묵이 필요하오."

"알겠습니다, 친구여. 저를 믿으시오."

나는 자연스러운 열정으로, 그리고 나의 헌신을 증명할 만큼의 힘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매우 중대한 무언가였다.

그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망설임 없이 노부자 밥의 거실로 돌아와 룰타비유를 찾았다.

노부자 밥의 아파트 문턱에 다다랐을 때, 나는 검은 옷 부인과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모습과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너무도 조용했고, 그들의 태도는 나에게 너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방금 전의 격렬한 감정과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나의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다르자크 부인이 룰타비유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게 하는 데서 오는 열정은 나를 너무도 궁금하게 만들었고, 룰타비유가 떠나라는 말을 받아들인 순종적인 태도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마틸드는 내 친구의 이마에 몸을 숙이고 그를 입맞추며 "안녕, 내 아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하얗고, 너무도 슬펐으며, 동시에 너무도 장엄했다. 나는 이미 멀리 있는 죽어가는 사람의 작별 인사를 듣는 것 같았다.

룰타비유는 어머니에게 대답하지 않고, 나를 끌어내어 탑 밖으로 나갔다. 그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다.

검은 옷 부인 자신이 바로 사각 탑의 문을 닫았다. 탑 안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내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룰타비유도 나처럼 생각했을 터인데, 그의 이성과 마음이 방금 검은 옷 부인과 나눈 일들로 인해 아직 어지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내게 룰타비유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사각 탑을 막 벗어났을 때, 나는 곧장 룰타비유에게 말을 걸었다. 먼저 그를 사각 탑과 원형 탑을 잇는 난간 모퉁이로 밀어 넣었다. 사각 탑의 돌출부가 안뜰 쪽으로 내민 부분과 만나며 형성된 그 구석진 자리였다.

그 기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지시에 순종하며 따라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클레르, 나는 어머니께 맹세했다. 오늘 밤 사각탑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보지 않겠노라고, 아무것도 듣지 않겠노라고."

"이건 어머니께 드리는 첫 번째 맹세야, 생클레르.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내 천국의 몫이라도 바치겠어! 나는 반드시 보고, 반드시 들어야 해…"

우리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창문 근처에 서 있었다. 그 창문은 노부자 밥의 거실로 이어졌고,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창문은 닫혀 있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아마도 우리는 성채의 두꺼운 벽 너머에서도 권총 총성과 비명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그 창문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가 아니었는가? 폭풍은 이미 지나갔지만, 파도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파도는 헤라클레스 반도의 바위들에 거세게 부딪혔고, 그 힘은 보트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 나는 문득 배에 대해 생각했다. 잠시 동안 그림자 속에서 배의 실루엣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 마음의 착각이었다. 나는 적대적인 그림자를 사방에서 보았고, 내 마음은 파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그곳에 선 채로 오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 길고도 끔찍한 한숨이여!

깊은 신음소리였다. 숨을 거두는 듯, 생의 마지막 숨결처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하면서도, 다가오는 죽음처럼 가까이 있는, 묵직한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땀으로 젖은 우리의 이마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는 것은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는 바다의 포효뿐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창문의 빛이 꺼졌다.

사각탑은 온통 어둠에 잠겨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친구와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그 침묵의 교감을 통해 서로에게 침묵과 정적을 명령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 탑 안에서!

우리에게 숨겨져 온 누군가!

왜? 그리고 누구인가?

누구?

그 사람은 다르자크 씨도, 다르자크 부인도, 베르니에 부부도, 의심할 여지 없이 노년 보브도 아니었다.

그 사람은 탑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여, 거의 떨어질 듯이 고개를 길게 빼고 있었다. 그 창문은 그 비극적인 최후의 순간을 지켜본 곳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15분이 흘렀다. 마치 한 세기처럼 긴 시간이었다.

그때 룰타비유가 자신의 방 창문을 가리켰다. 창문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뜻을 이해했다. 그 불을 끄고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만전을 기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5분 후, 나는 룰타비유 곁으로 돌아왔다.

이제 용감한 자들의 마당에는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낮은 지점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는 노년 보브가 둥근 탑의 아래쪽 포대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다른 빛은 정원사의 쪽문 옆에 있는 등불이었다. 마토니가 그 곳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종합해 보면, 그들이 차지한 위치를 고려할 때, 노년 보브나 마토니가 사각 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폭풍이 그치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들 머리 위에서 울려 퍼진 룰타비유의 비명조차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쪽문의 벽은 두꺼웠고, 노년 보브는 진정한 지하 공간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룰타비유 옆으로 슬며시 기어들어갈 겨를도 없이, 그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던 탑과 난간 사이의 좁은 틈새에 숨어들었다.

그때, 사각탑의 문이 조심스럽게 경첩을 돌아가며 열리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나는 고개를 내밀어 틈새 너머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몸통을 뜰 쪽으로 내밀어 보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룰타비유가 나를 다시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사각탑 벽 너머로 머리만 살짝 내밀 것을 허용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몸을 심하게 구부리고 있었기에, 나는 지시를 어기고 친구의 머리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먼저, 어둠 속에서도 잘 알아볼 수 있는 베르니에 영감이 있었다. 그는 탑에서 나와, 소음 하나 내지 않고 정원사의 문 쪽으로 향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우리 창문 쪽을, 그리고 성채가 우뚝 선 신성(Château Neuf) 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탑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우리에게 평온의 신호로 읽힐 수 있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 신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룰타비유가 다시 몸을 숙였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몸을 뒤로 빼더니, 나를 밀쳐냈다.

우리가 다시 마당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드디어 베르니에 영감이 돌아왔다. 정확히 말해,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토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울림이 희미하게 우리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곧 마당 문 아치 밑으로 무언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베르니에 영감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옆에는 검은 덩어리가 아주 천천

히 굴러가는 마차가 있었다. 곧 우리는 그것이 아서 란스의 조랑말 토비가 끄는 작은 잉글리시 카트임을 알아차렸다.

용감한 자들의 마당(Cour du Téméraire)은 다져진 흙바닥이었다. 그 작은 마차는 마치 카펫 위를 미끄러지듯, 흙 위에서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토비는 너무도 순하고 차분해서, 마치 베르니에 영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

영감은 우물 옆에 도착하자, 다시 한번 우리 창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토비의 고삐를 단단히 잡은 채, 별 탈 없이 사각탑의 문까지 무사히 도달했다.

마침내 그는 마차를 문 앞에 세워두고는 탑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흔히 말하듯, 몇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특히 내 친구는 다시 온몸을 떨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갑작스러운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베르니에 영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홀로 마당을 가로질러 다시 쪽문 쪽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더 깊이 몸을 숙여야 했다. 만약 지금 사각탑 문턱에 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 쪽을 돌아보았다면, 분명 우리를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밤하늘이 밝아졌다. 아름다운 달빛이 바다 위에 눈부신 띠를 그리고, 용감한 자들의 마당에 푸른 빛을 길게 뻗쳤다.

탑에서 나와 마차 쪽으로 다가오던 두 인물은 너무 놀란 나머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검은 옷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이 말을 내뱉는 것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자, 용기를 내요, 로베르. 그래야 해요!"

나중에 우리는 룰타비유와 함께 그녀가 "그렇게 해야 해요(il le faut)"라고 했는지, 아니면 "필요가 있어요(il en faut)"라고 했는지 논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특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가 부족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언가 위에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것을 끌다가,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작은 잉글리시 카트의 좌석 아래로 밀어 넣으려 애썼다.

룰타비유는 모자를 벗어 들고 있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그 무언가는 가방 같았다. 다르자크 씨는 가방을 움직이기 위해 큰 힘을 들였다. 우리는 그에게서 한숨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검은 옷 부인은 탑의 벽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다르자크 씨가 가방을 차 안으로 밀어 넣는 순간, 마틸드가 낮은 목소리로 공포에 질린 듯 말했다. "아직도 움직여요!…"

"이제 끝이군요…" 다르자크 씨가 대답했다. 그는 이제 이마를 닦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입고 토비의 고삐를 잡았다. 그는 멀리 떠나갔다. 검은 옷 부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마치 어떤 형벌을 받기 위해 그곳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르자크 씨는 오히려 차분해 보였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다. 그는 단단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각이 있는 정직한 사람의 걸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는 여전히 큰 주의를 기울이며, 정원사의 문 아래로 차와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검은 옷 부인은 사각 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우리 은신처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룰타비유가 나를 단호하게 붙잡았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옳았다. 베르니에가 성문 너머로 나타나 다시 마당을 가로질러 사각탑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르니에가 다시 닫힌 문에서 겨우 2미터 거리에 이른 순간, 룰타비유는 성벽 모서리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놀란 베르니에와 문 사이로 슬쩍 빠져나가, 경비원의 손목에 손을 올렸다.

"나와 함께 가시오."

상대방은 완전히 넋이 나간 듯했다. 나도 은신처에서 나와 함께 서 있었다. 우리는 달빛의 푸른 빛줄기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불안에 차 있었고, 입술이 떨리며 속삭였다.

"큰 재앙이군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룰타비유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숨기는 것이 없다면 불행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 갑시다!"

그는 베르니에를 끌고 갔다. 손목을 꼭 잡은 채로. 우리는 신성(Château Neuf)으로 향했고,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금 나의 룰타비유를 온전히 되찾았다.

그는 이제 감정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그 문제는 그에게 너무도 개인적인 관심사였다. 그리고 그는 이제 '검은 옷 부인'의 향기를 되찾았다. 그는 이제 미스터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정신이 가진 놀라울 만큼의 모든 힘을 다시금 수복해 나갔다.

모든 것이 결론이 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 마지막 순간은, 내가 룰타비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그 순간, 생과 사가 그의 입을 통해 말하고 서로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망설이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발하는 어떤 단어도, 4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밤, 사각탑의 공격으로 인해 포위된 자에게 닥친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말이 될 수는 없었다.

베르니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저항하는 자들을 모두 부수고, 그들은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베르니에는 우리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다. 심문받으러 가는 피고인처럼 말이다. 우리가 룰타비유의 방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를 우리 정면에 앉혔다. 나는 램프에 불을 켰다.

젊은 기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며 베르니에를 바라보았다. 그는 분명히 그 얼굴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정직함을 읽어내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찌푸려진 눈썹이 더 길어졌고, 눈빛이 빛났다. 그는 천장 쪽으로 몇 무더기의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다.

"자, 베르니에. 그들은 그를 어떻게 죽였소?"

베르니에는 거친 피카르디 지방의 사내다운 머리를 흔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선생님!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룰타비유:

"좋아, 네가 모르는 것을 말해라! 네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베르니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더는 장담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

"네 안전을, 베르니에!"

"제 안전을요? 제가 뭘 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우리 모두의 생명을!" 룰타비유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몇 걸음 걸으며 말했다. 그 동작은 아마도 필요한 대수적 연산을 머릿속으로 수행할 시간을 벌어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했다. "그때 그는 사각탑 안에 있었나요?"

베르니에의 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에? 보브 영감의 방에서?"

베르니에의 머리가 흔들렸다.

"네 방, 즉 경비실 안에 숨어 있었나요?"

베르니에의 머리가 다시 흔들렸다.

"아, 도대체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다르자크 부부 아파트에는 없었잖아?"

베르니에의 머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듯 끄덕였다.

"저주할 놈!" 룰타비유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는 베르니에의 목을 향해 덤벼들었다. 나는 급히 다가가 베르니에를 구해, 룰타비유의 발톱에서 그를 떼어냈다.

베르니에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그는 말했다.

"아, 룰타비유 씨, 도대체 왜 저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베르니에? 그걸 또 물어볼 용기가 있냐? 네가 다르자크 부부 아파트에 그가 있었다고 시인했잖아! 그렇다면 그자를 그 아파트로 들여보낸 건 누구냐? 네 말고는 누구겠냐? 다르자크 부부가 집에 없을 때, 열쇠를 가진 사람은 오직 너뿐이잖아."

베르니에는 매우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다.

"당신이 저를 라르상의 공범이라고 단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룰타비유 씨?"

"그 이름은 입에 담지 말라고 했잖소!" 기자가 외쳤다. "라르상이 이미 죽었다는 걸 당신도 잘 알지. 아주 오래전 일이오."

"오래전이라니요?" 베르니에가 비웃듯 되받았다. "맞아요. 제가 잊고 있었군요. 주군을 위해 헌신하고, 주군을 위해 싸울 때는 누구를 상대하는지조차 잊어야 하는 법이죠. 죄송합니다."

"잘 들어요, 베르니에. 당신을 잘 알고 있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오. 그래서 당신의 선의를 문제 삼는 게 아니오. 당신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것이오."

"제 실수였습니다!"

그 말에 파랗던 베르니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질렸다.

"제 실수라니요! 저는 제 경비실에서도, 제 복도에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항상 열쇠가 달려 있었고, 다섯 시에 당신께서 그 아파트를 방문하신 뒤로는, 로베르 다르자크 씨 부부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섯 시쯤 되셔서 생클레르 씨와 함께 방문하신 그 일은 세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시다면!" 룰타비유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그 자, 이름은 잊어버렸지, 베르니에? 우리는 그를 '그 남자'라고 부르자. 그 남자가 다르자크 부부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건, 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네! 그러니 저는 그가 거기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갔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베르니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건 오직 당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부재 중이었던 동안 열쇠를 당신만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르자크 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방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가 방 안에 있을 때는 그 방에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 바로 그 점이 미스터리입니다, 선생님! 그건 다르자크 씨를 가장 궁금해하게 만드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오직 제가 지금 당신에게 드리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 점이 미스터리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저와 생클레르 씨가 다르자크 씨의 방을 나왔을 때, 오후 여섯 시 십오 분쯤이었죠. 그때 당신은 즉시 문을 잠갔습니까?"

"네, 선생님."

"그리고 언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밤, 단 한 번만은 다르자크 부부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막 도착했고, 다르자크 부인은 이미 잠시 전부터 보브 씨의 거실에 계셨습니다. 그때 방금 생클레르 씨가 떠나신 직후였죠. 두 분은 복도에서 다시 만나셨고, 저는 그들의 아파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바로 문고리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시 십오 분부터 그 시점까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는 뜻이오?"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소?"

"저는 제 사택 문 앞에 서서 아파트 문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곳이 저희 부부가 저녁 6시 30분에 작은 식탁을 놓고 함께 저녁을 먹은 곳이었죠. 탑의 문이 열려 있어 안보다 더 밝았고, 분위기도 더 활기찼으니까요."

"저녁을 마친 뒤에도 저는 사택 문턱에 앉아 아내와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앉은 위치는 아무리 원해도 눈에서 다르자크 씨의 아파트 문을 뗄 수 없을 만큼 딱 맞게 배치되어 있었죠."

"아, 이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노란 방의 미스터리보다 더 믿기 어려운 미스터리라고나 할까요? 노란 방 사건에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선생님께서 오후 5시에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셨고, 그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과정도 명확해요. 제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나, 다르자크 씨가 방 안에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의 문을 열고 그를 죽이러 오는 것을 그가 반드시 눈치챘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가 바로 그 문 앞에 복도에 서 있었으니, 그 남자가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일도 분명해요.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죠. 이후라니요, 그 이후는 바로 그 남자의 죽음이었으니까요. 그 남자가 그곳에 있었음이 확실한 증거였죠. 아, 이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참극이 일어나기 전, 오후 다섯 시부터 그 순간까지 정말로 복도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음,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룰타비유가 재차 물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한 순간만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한두 분 동안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베르니에.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한두 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르자크 씨는 자신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방을 떠나지 않았죠. 아, 정말 미스터리군요!"

"그 두 분 동안 다르자크 씨가 방을 떠나지 않았다고,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요! 만약 그가 방을 나갔다면, 문지기실에 있던 제 아내가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을 테고, 그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인도 마찬가졌고요! 아, 제가 그에게 꼭 다시 말해 줘야 했어요. 다섯 시에는 당신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여섯 시에는 당신만 들어왔으며, 다르자크 씨가 밤에 부인과 함께 방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그는 당신과 똑같았어요. 제 말을 믿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거기에 누워 있는 시체 위에서 맹세까지 했어요!"

"그 시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방에요."

"정확히 말해, 그것은 시체였습니까?"

"오,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베르니에 씨."

"오, 룰타비유 씨, 그것은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총알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베르니에 영감이 시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그는 시체를 본 적이 있는가? 시체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지만 룰타비유에게 있어 그건 부차적인 문제처럼 보였다. 그 기자는 오직 한 가지 문제, 즉 시체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에만 골몰해 보였다.

그 남자는 어떻게 그곳으로 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인가?

하지만 그쪽에서는 베르니에 신부가 아는 바가 많지 않았다. 그 일은 총성 한 번 치듯 순식간에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문 뒤에 서 있었다.

베르니에 신부는 자기가 조용히 자기 감시실로 돌아가 침대에 눕으려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그때 다르자크 부부의 방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너무 커서 부부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가구가 뒤섞이는 소리,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에요?" 부인이 물었다.

그리고 곧 다르자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 비명은 우리도 Château Neuf 방에서 듣지 못했다.

부인이 놀라 주저앉는 사이, 베르니에 신부는 다르자크 씨 방 문으로 달려가 문을 흔들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문 너머에서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바닥 위에서 두 남자의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고, 라르상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이번엔 네 가죽을 벗겨주마!"

그리고 다르자크 씨가 지친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마틸드! 마틸드!"

분명히 다르자크 씨는 라르상과의 몸싸움에서 밀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그 총성은 다르자크 씨를 구해 주었다.

하지만 베르니에 신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총성보다 그 뒤에 이어진 비명이었다. 비명을 지른 다르자크 부인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베르니에 신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르자크 부인의 태도가 이상했다. 왜 그녀는 그가 가져다주는 도움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왜 문고리를 돌리지 않았을까?

총성 직후, 베르니에 신부가 계속 두드렸던 문이 열렸다.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베르니에 신부는 놀라지 않았다. 문 밑으로 비친 촛불 빛이 싸움 중 갑자기 꺼진 것을 보았고, 동시에 촛대 바닥으로 굴러가는 소리도 들었기 때문이다.

다르자크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다르자크 씨의 그림자는 가르랑거리는 신음 위로, 죽어가는 누군가의 위로 굽어 있었다.

베르니에 신부는 부인에게 불을 가져오라고 불렀다. 하지만 다르자크 부인이 소리쳤다.

"아니요! 아니요! 불을 켜지 마세요! 특히 그가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즉시 탑의 문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그가 와요! 그가 와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주세요! 베르니에 신부님! 제가 맞을게요!"

베르니에 신부는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신음하며 반복했다. "숨어라! 도망쳐라! 그가 아무것도 모르게 해라!"

"룰타비유 씨, 당신은 토네이도처럼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늙은 밥의 거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르자크 씨 곁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남자는 이미 신음 소리를 멈췄죠. 다르자크 씨는 여전히 그 위에 몸을 굽히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머니 하나, 돌멩이 하나.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더 이상 소문은 들리지 않을 거야!'"

"그럼요," 베르니에가 계속 말했다. "저는 감자 주머니를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감자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죠. 제가 그 주머니를 비우고 가져왔어요. 우리는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했죠. 그사이, 마담은 늙은 밥의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우리는 생클레르 씨가 우리 아내를 문간에서 심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다르자크 씨가 깔끔하게 묶어둔 시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자크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조언입니다. 바다에 버리지 마십시오.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 시체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바다 물이 맑은 날에는 바닥까지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르자크 씨가 낮게 물었어요.

'글쎄요, 저는 모릅니다, 선생님. 프레데리크 라르상 같은 악당에 맞서 제가 마담과, 그리고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에게 묻지 마시고, 신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방을 나와서, 생클레르 씨를 문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르자크 씨가 방을 나서며 청했기에, 당신은 룰타비유 씨를 만나셨죠. 제 아내는 다르자크 씨가 피투성이인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저도 피투성이였고요! 보세요, 선생님들, 제 손이 빨갛잖아요!

'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불운을 가져다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르상은 정말 무서운 악당이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릴까요?… 이런 일은 결코 숨길 수 없어요… 당장 법정에 고하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침묵을 약속했고, 할 수 있는 한 침묵할 겁니다. 하지만 마담과 선생님의 친구이시며, 그분들에게 이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짐을 내려놓게 되어 기쁩니다.

'왜 그들은 숨어 있는 걸까요? 라르상을 죽이는 게 영광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또 그 이름을 발음했네요… 잘 알아요, 그 이름은 더럽죠. 스스로를 구함으로써 땅을 그 악당으로부터 해방시킨 게 영광이 아닌가요? 보세요!… 재산이라니!… 다르자크 부인이 제가 침묵하면 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 불행한 마담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세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요!… 하지만 그녀가 말해야 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당신이 잠자러 간다고 갔을 때, 우리가 사각탑에서 시체와 함께 혼자 있게 되자,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죽였다고 외쳐요! 모두가 박수칠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이미 스캔들이 너무 많았어요, 베르

니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새로운 사건은 숨겨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죽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입에 올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 온갖 부당한 추측이 나올 것이고, 당신 아버지는 훨씬 더 크게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침묵하기를 원해요. 알겠어요, 침묵할게요… 됐어요!'

베르니에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두 손을 내보였다.

"이 돼지 같은 놈의 피를 다 씻어내야겠군."

룰타비유가 그를 막아섰다.

"그때 다르자크 씨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그는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르자크 부인이 하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이다. 베르니에, 그녀에게 복종해야 해.' 그의 재킷은 찢겨 나갔고 목에는 가벼운 상처가 났지만, 그는 그 상처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관심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루한 자가 어떻게 자기 집에 침입할 수 있었는지 하는 점이었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해설을 해줘야 했죠. 그가 이 일에 대해 처음 한 말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내 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곧장 문에 자물쇠를 채웠거든.'"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내 감시실(loge)에서였습니다. 내 아내도 함께 있었는데, 그 가엾은 여인은 너무 놀라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시체는요? 시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르자크 씨의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나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이미 굳혀진 상태였습니다. 다르자크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르니에, 마지막 하나만 부탁하네. 마구간에서 잉글리시 카트를 가져와 토비를 매게. 가능하면 월터를 깨우지 않도록 해. 만약 깨워야 한다면, 그리고 그가 이유를 묻는다면, 성문 아래에서 경비를 서 있는 마토니에게도 똑같이 말하게. '다르자크 씨의 지시입니다. 오늘 아침 네 시에 카스텔라르에서 알프스 순찰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자크 씨는 '생클레르 씨를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를 데려오게. 룰타비유 씨를 만나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말게'라고 했습니다.

아, 선생님! 여주인님께서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선생님의 방 창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다시 한 번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숨소리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도 직접 보셨고, 이제 저는 선생님만큼이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빕니다."

베르니어가 그 불가능한 비극을 이렇게 털어놓자, 룰타비유는 진심으로 그의 주인에 대한 헌신을 치하했다. 그는 베르니어에게 최대한의 침묵을 요구했고, 자신의 거친 태도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방금 받은 심문에 대해 다르자크 부인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고 명했다.

베르니어가 떠나기 전, 룰타비유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룰타비유는 자신의 손을 거두었다.

"아니요, 베르니에. 당신은 아직 피로 얼룩져 있군요."

베르니어는 검은 옷 부인을 만나러 떠났다.

우리가 혼자 남았을 때, 내가 물었다.

"자, 라르상은 죽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 두렵습니다."

"두려워한다니요? 왜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런 목소리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다.

"라르상이 죽었다는 사실, 그가 살아서 들어오지도, 죽어서 들어오지도 않은 채로 죽어 나왔다는 사실이 저를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그의 삶보다도 말입니다!"

정말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도 그보다 더할 수 없이 놀랐다. 나는 그에게서 그런 정신적 불안의 상태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방 안을 끊어질 듯 멈칫거리는 걸음으로 걸었다. 가끔 거울 앞에 멈춰 섰다.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 한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게 물었다. "너야, 정말 너야, 룰타비유?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을 할 용기가 있었어?"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는 오히려 생각하려던 참이었다. 아니면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거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거의 쪼그려 앉듯 창가로 갔다.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내밀었다. 먼 강둑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작은 마차의 구르는 소리, 토비의 발굽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마치 숨죽여 먹이를 노리는 짐승 같았다.

파도 소리가 잦아들었다. 바다가 완전히 고요해졌다.

동쪽 검은 물결 위에 하얀 선이 갑자기 그어졌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곧이어 오래된 성이 밤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얼굴로, 마치 우리처럼 잠을 설친 사람의 표정이었다.

"룰타비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신의 놀라운 용기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의 만남이 그렇게 짧았나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헤어졌다고요. 친구여, 혹시 어머니가 '침대 옆 테이블 위의 권총 사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총성이나 '알 수 없는 복도'에서 울린 비명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군요. 그녀는 그날처럼 비명을 지르셨던 걸요!"

"생클레르, 당신은 참으로 호기심이 많군요! 당신은 저보다 더 호기심이 많군요, 생클레르.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그 총성과 비명에 대해 당신에게 무언가 말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요?"

"진실로 말하지만, 생클레르,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검은 옷 부인의 비밀을 존중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도, 단지 이렇게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헤어질까요, 친구. 더 이상 우리를 가르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 말만으로도 저는 그녀와 작별했습니다."

"아! 그녀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군요? '더 이상 우리를 가르는 것은 없으니까요!'"

"네, 친구. 그 여자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

우리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섰다. 나는 이제 창가 옆, 기자 옆에 서 있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더니 그는 지하로 이어지는 문 입구에 남아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작은 등불을 가리켰다. 그곳은 '테메레르 탑' 안 늙은 밥의 서재로 통하는 곳이었다.

"드디어 새벽이 오네!" 룰타비유가 말했다. "늙은 밥은 여전히 일하고 있군. 정말 용감한 노인이야. 우리가 늙은 밥이 일하는 모습을 보러 가자. 그래야 머리가 맑아질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목을 조르는, 나를 옥죄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원상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가 깊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다르자크, 그는 언제쯤 돌아오려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도대체 언제 돌아오려나!"

1분 후, 우리는 안마당을 가로질러 '테메레르 탑'의 팔각형 방으로 내려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의 램프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늙은 밥은 없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오, 오!"

그는 램프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주위를 두루 살폈다.

그는 낮은 층 벽면을 가득 채운 작은 유리 진열장들을 한 바퀴 돌았다. 그곳은 아무것도 제자리를 옮기지 않았고, 모든 것이 비교적 정리되어 있었으며, 과학적으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오래된 시대의 뼈조각들과 조개껍데기, 뿔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조개껍질로 만든 펜던트', '긴 뼈의 골간을 잘라 만든 고리', '귀걸이', '순록 층의 날을 무디게 손질한 칼날', '마그달레니아식 스크래퍼', 그리고 '코끼리 층의 부싯돌로 긁어낸 가루' 등을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책상 앞으로 돌아왔다.

거기에는 '가장 오래된 두개골'이 놓여 있었다. 사실 그것은 여전히 붉은색이 남아 있었다. 다르자크 씨가 창문 맞은편 책상 위에 올려놓고 햇볕에 말리고 있던 물감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모든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철창의 견고함을 손으로 확인했다. 그 철창은 아무도 만진 적이 없었다.

룰타비유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소? 그가 창문으로 나갔다고 상상하기 전에, 문으로 나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오."

그는 램프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발자국 흔적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가서 사각탑 문 두드리시오. 베르니에에게 늙은 밥이 돌아왔는지 물어보고, 쪽문 아래에서 마토니에게, 철문 앞에서 자크 아저씨에게도 물어보시오. 어서 가요, 생클레르. 어서!"

다섯 분 후, 내가 예상했던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늙은 밥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디에도 지나가지 않았다.

룰타비유는 여전히 바닥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램프를 켜둔 거야."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전혀 싸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바닥을 살펴봐도 아서 란스 씨와 로베르 다르자크 씨의 발자국만 확인했습니다. 두 분은 어제 밤 폭풍우 속에서 이 방에 들어오셨고, 신발 밑창에는 테메레르 안마당의 젖은 흙과 배럴 안의 약간 철분이 섞인 흙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늙은 밥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늙은 밥은 폭풍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곳에 도착했고, 아마 폭풍우가 한창일 때 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룰타비유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책상 위의 램프를 다시 들어 올렸고, 그 빛이 다시 한 번 해골을 비췄다. 붉은 턱뼈를 드러낸 그 해골은 결코 이렇게 끔찍하게 웃은 적이 없었다.

우리 주변에는 해골들뿐이었다. 하지만 확실히, 그들은 자리에 없는 늙은 밥보다 내게 덜 무서웠다.

룰타비유는 잠시 동안 피투성이인 해골 앞에 서 있다가, 두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해골의 빈 눈구멍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했다.

그리고 그는 두 팔을 쭉 뻗어 해골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놀라울 만큼 집중력 있는 눈빛으로 잠시 그것을 응시했다. 이어 해골의 옆모습을 살펴본 뒤, 나를 향해 그것을 건넸다.

나는 그 해골을 가장 귀중한 짐처럼 두 손으로 머리 위로 들어 올려야 했다. 그 사이, 룰타비유는 자신의 머리 위로 램프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다.

문득 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두개골을 책상 위에서 굴러가게 둔 채, 마당으로 뛰어나가 우물가까지 달려갔다.

거기서 나는 우물을 닫고 있던 철제 장치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음을 확인했다. 만약 누군가가 우물을 통해 탈출했거나, 우물 안으로

떨어졌거나, 혹은 스스로 뛰어들었다면, 그 철제 장치는 열려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다시 안으로 돌아왔다. 전보다 더 불안한 마음으로.

"룰타비유! 룰타비유!"

"늙은 밥이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그 주머니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기자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그의 행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토록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는 다르자크 씨가 돌아와서, 여분의 시체가 죽어 있던 그 원을 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 있는 낡은 탑, 곧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성에서는 검은 부인이 맥베스 부인처럼, 불가능한 범죄의 흔적을 지우느라 바빴을 터였다.

그런데 룰타비유는 어떻게 한가하게 자, 삼각자, 오구, 컴퍼스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그는 지질학자의 의자에 앉아 로베르 다르자크의 도면판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도면을 그리고 있었다. 마치 평온하고 착한 건축가 사무실의 사무원이라도 된 듯이.

그는 컴퍼스 한쪽 끝으로 종이에 구멍을 뚫었다. 다른 쪽 끝은 원을 그렸다. 그 원은 다르자크 씨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테메레르 탑'이 차지하는 공간을 나타낼 수 있었다.

젊은이는 잠시 더 몇 줄을 그렸다. 그리고는 붓을 반쯤 차 있는 빨간 물감 통에 담았다. 그 물감은 다르자크 씨가 쓰던 것이었다. 그는 붓을 돌려 원형 전체에 물감을 꼼꼼하게 바르기 시작했다.

그는 극도로 신중했다. 물감이 어디든 얇게 고르게 발라지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마치 훌륭한 학생이 그린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완성도를 목표로 했다. 그는 효과를 살피기 위해 고개를 좌우로 기울였다. 그리고는 공부에 열중하는 학동처럼 혀를 살짝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그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눈은 그림에서 단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고정된 시선이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리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의 비명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향해 갑작스럽게 몸을 돌렸다. 그 충격으로 넓은 안락의자가 넘어졌다.

"생클레르! 생클레르! 그 붉은 페인트를 봐! 그 붉은 페인트를 봐!"

헐떡이며 나는 그림 위에 몸을 기울였다. 그 야성적인 흥분에 겁이 났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오직 깔끔하게 칠해진 작은 수채화 하나뿐이었다.

"붉은 페인트! 붉은 페인트!" 그가 신음하듯 계속 말했다. 눈은 마치 끔찍한 광경을 목격이라도 하듯 크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뭐가 문제라고? 지금 그게 마른 줄도 안 봐? 그게 피라는 걸 모른다고?"

아니, 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피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붉은 페인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룰타비유를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피라는 생각에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누구의 피요? 그걸 아시오? 누구의 피라고요? 라르상의 피요?"

"오! 오! 라르상의 피라니? 누가 라르상의 피를 안다고? 누가 그 색을 본 적이 있다고? 라르상의 피 색을 알려면 내 팔을 베어봐야 해, 생클레르! 그게 유일한 방법이지!"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정말로 놀랐다.

"내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피를 빼앗기지 않으신다!"

그는 또다시 그 기묘하고 절박한 자부심으로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가발을 쓰시면 아무도 모른다!" "내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피를 빼앗기지 않는다!"

"베르니에의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검은 옷 부인의 손에도 그 피가 보였소!"

"네,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지만 내 아버지를 그렇게 죽일 수는 없소!"

그는 여전히 매우 초조한 기색을 띠고 있었고, 잘 정돈된 작은 수채화 그림을 멈추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목이 메어 큰 통곡이 터져 나오며 그는 말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너무 끔찍합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 불쌍한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었어! 나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그때, 그의 뺨을 따라 흐르던 굵은 눈물이 물통 속으로 떨어졌다.

"오!" 그가 말했다. "물감을 묽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는 물통을 매우 조심스럽게 들어 작은 찬장 속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아끌었다. 나는 그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갑자기 정말 미쳐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그가 말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생클레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검은 옷 부인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가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요. 아, 다르자크 씨가 지금 당장 돌아온다면…… 지금 당장! 그렇다면 덜 괴로울 텐데……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인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공포에 질렸을까? 그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는 다시금 신경질적으로 이를 딱딱 부딪쳤을까?

나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무서워하게 합니까? 라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내 팔을 신경질적으로 꽉 쥐며 내게 되뇌었다.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죠. 그의 죽음이 그의 삶보다 더 무섭다고요!"

그는 우리가 서 있던 사각탑의 문두드렸다. 나는 그에게 어머니 앞에만 혼자 남기고 갈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결코 자기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이 닫히기 전까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는 음울하게 덧붙였다.

"원이 결코 닫히지 않기를."

사각탑의 문은 닫힌 채였다. 그가 다시 두드렸다. 그러자 문이 살짝 열렸고, 얼굴이 일그러진 베르니에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우리를 본 것에 매우 화가 난 듯했다.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이야?" 그가 말했다. "조용히 해, 마담이 보브 영감의 거실에 계셔. 그리고 보브 영감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 들어갈 수 있게 해, 베르니에." 룰타비유가 명령했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섰다.

"무엇보다도, 마담께는……"

"아니, 그럴 일 없네! 그럴 일 없어!"

우리는 타워의 현관으로 들어섰다. 안은 거의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보브 영감의 살롱에서 마담이 무엇을 하십니까?"

보도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르자크 씨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방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집니다."

"좋아, 베르니에. 너는 경비실로 돌아가라.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룰타비유가 명령했다.

룰타비유가 보브 영감의 거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우리는 곧장 검은 옷 부인을, 아니 그녀의 그림자를 보았다. 방 안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침 햇살이 간신히 스며들 뿐이었다.

마틸드의 큰 그림자가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 창문은 테메레르 안뜰을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에도 그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틸드가 곧장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비참하게 떨려 있어, 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왜 여기 왔어요? 당신이 마당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당신은 마당을 떠나지 않았죠.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해요?"

그리고 그녀는 끝없는 고통이 담긴 어조로 덧붙였다.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룰타비유가 검은 옷 부인에게 다가가, 지극한 존경심을 담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와, 엄마."

그가 말했다. 그 단순한 두 마디가 그의 입술에서는 지극히 부드럽고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어조를 띠고 있었다.

'와! 와! 와!'

그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녀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저주받은 방의 문 앞에 데려다 놓자, 그녀는 온몸을 뒤로 빼며 움찔했다.

"저기 말고!"

그녀가 신음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었다.

룰타비유가 문을 흔들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베르니에를 불렀고, 그의 명령에 따라 베르니에가 문을 열고는 곧장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도망친 것이었다.

문을 밀고, 우리는 고개를 내밀었다. 도대체 이 무슨 광경인가. 방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그리고 넓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피투성이의 여명은 그 혼란을 더욱 불길하게 만들었다. 살인 현장의 방을 비추기에 이보다 더한 조명은 없을 것이다. 벽에는, 바닥에는, 가구에는 피가 흥건했다. … 해가 뜨면서 비추는 피와, 토비가 어디론가, 감자 주머니 속에 몰래 싣고 간 그 남자의 피였다. 테이블은, 안락의자는, 의자는 모두 뒤집혀 있었다. 침대 시트는, 그 남자가 최후의 순간까지 절박하게 매달렸던 시트는, 바닥으로 절반쯤 끌려 내려왔고, 그 이불 위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바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기절할 듯하던 검은 옷 부인을 부축하며 들어섰다. 룰타비유는 부드럽고 간청하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해야 해요, 엄마! 해야 해요!"

그리고 그는 그녀를 거의 안락의자 위에 내려놓자마자, 곧장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다시 제자리에 세워둔 의자였다. 그녀는 한 마디로, 고개 끄덕임으로, 손짓으로 답했다. 나는 룰타비유가 그녀의 대답을 들을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그는 도망가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지금 그 침착함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부르고,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다. … 하지만 그녀는 이미 용기를 잃고 있었다. 그녀는 팔을 내밀었고, 그는 그 팔에 몸을 던졌다. 그들은 숨 막힐 듯이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 위에 짓눌려 있던 이 끔찍한 공포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졌다.

나는 물러나려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들이 붉은 방에서 혼자 남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룰타비유는 그녀의 무릎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곧바로,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엄마…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본 모든 것을요."

드디어 그녀는 입을 열 수 있었다.

그녀는 닫힌 문 쪽을 돌아보았다. 이어 그녀의 눈은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과, 가구와 바닥을 얼룩지게 한 피에 새삼스러운 공포로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장면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 몸을 굽혀야 했다.

그녀의 끊어지는 짧은 말들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다르자크 씨는 방에 들어서는 즉시 빗장을 걸고 책상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한편 검은 옷 부인은 약간 왼쪽에 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방 안은 마틸드가 손 닿는 곳, 왼쪽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촛대 하나만이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이러했다.

방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이 고개를 들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든, 또 같은 공포로 심장을 뛰게 만든 가구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찬장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어쩌면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삐걱거리는 소리는 자연스럽지 않게 들렸고, 그들은 찬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르자크 씨는 오른쪽 구석에 있는 찬장으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첫 번째 소리보다 더 큰 두 번째 삐걱거림이 그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붙잡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은 옷 부인에게 찬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환각에 시달린 것은 아닌지, 정말로 찬장이 움직이는 것을 본 것인지 의문스러워했다. 하지만 다르자크 씨도 같은 느낌을 받았던 듯했다. 그는 책상에서 갑자기 떠나 담대하게 한 발짝 앞으로 내딛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찬장의 문이 그들 앞에 열렸다.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밀려난 것이었다. 문은 경첩을 돌아가며 열렸다.

검은 옷 부인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공포와 당황의 몸짓을 했고, 그 몸짓이 촛불을 바닥에 떨어뜨린 바로 그 순간 찬장에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동시에 로베르 다르자크는 분노의 비명을 지르며 그 그림자 쪽으로 돌진했다.

"그 그림자…… 그 그림자는 얼굴이 있었어요!" 룰타비유가 끊어 말하며 외쳤다. "어머니! 왜 그림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셨어요? 당신은 그림자를 죽였죠. 하지만 당신이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그 그림자가 라르상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당신은 라르상의 그림자조차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 그렇죠!" 그녀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룰타비유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저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대체 누구를 죽인다는 말인가? 마틸드가 그림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었겠지. 그녀는 아직 그 목소리에 전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귀에 맴돌고 있었다.

베르니에도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알아챘다. 라르상의 끔찍한 목소리였다. 밤중의 악몽 같은 싸움 속에서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죽음을 알렸던 발마이어의 목소리였다. '이번엔 네놈의 목숨을 거두겠다!'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 반면 다른 한쪽은 더 이상 신음할 힘도 없이, 숨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마틸드! … 마틸드!'라고 부르짖을 뿐이었다.

아,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불렀던가! 이미 패배한 채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밤의 깊은 곳에서 그 이름을 외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 지르며, 두 그림자와 자신의 그림자를 섞을 수밖에 없었다. 어둠이 주는 무작위적인 기회에 그들에게 매달리며, 자신은 도울 수 없는 구조를 부르짖어야만 했다.

그리고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그 총성은 그녀에게 끔찍한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총격을 받은 것처럼.

누가 죽었는가? 누가 살아남았는가? 누가 말을 건넬 것인가? 어떤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릴 것인가?

"드디어 로베르가 말을 건넸구나!"

룰타비유는 검은 옷 부인을 다시 품에 안아 올렸다. 그녀는 거의 그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방 문까지 따라갔다.

그곳에서 룰타비유는 그녀에게 말했다.

"가세요, 어머님.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일을 해야 해요. 정말 많이요! 당신을 위해, 다르자크 씨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저를 떠나지 마세요… 다르자크 씨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룰타비유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녀가 잠을 청해 보라고 간청한 뒤, 방 문을 닫으려던 찰나였다.

복도 쪽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룰타비유는 누가 있냐고 물었다.

다르자크의 목소리가 답했다.

룰타비유는 중얼거렸다.

"드디어!"

그리고 문을 열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 사람의 얼굴치고는 더 창백하고, 피 한 점 없이,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얼굴은 없었다. 감정이 너무도 격렬하게 그를 파고들었기에, 이제 더 이상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아, 거기 있었군요." 그가 말했다. "자, 끝났습니까?"

그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검은 옷 부인이 앉아 있던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당신이 원하던 곳에 있습니다."

룰타비유가 즉시 물었다.

"적어도 당신은 그의 얼굴을 봤습니까?"

"아니요." 그가 말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자루를 열겠습니까?"

룰타비유가 이 일에 대해 절망할 줄 알았으나, 그는 오히려 갑자기 다르자크 씨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 당신은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군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는 열렬히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고리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르자크 씨.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거의 기쁜 듯 네 발로 바닥에 내려앉았다. 이제 룰타비유는 개처럼 보였다. 그는 노란 방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구 밑과 침대 밑을 기어 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그는 가끔 주둥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를 구할 무언가를!"

나는 다르자크 씨를 바라보며 그에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 우리의 머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룰타비유가 다시 말했다.

"이 아이 말이 맞아요." 다르자크 씨가 말했다. "저 남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그때 룰타비유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찬장 밑에서 방금 찾은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아, 그의 권총을 찾았군요." 다르자크 씨가 말했다. "다행히도 그가 그걸 사용할 시간이 없었네요."

말을 마치자마자 로베르 다르자크는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냈다. 구원의 권총이었다. 그는 그것을 젊은이에게 건넸다.

"좋은 무기가 있군요." 그가 말했다.

룰타비유는 다르자크의 리볼버 실린더를 작동시켰다. 그리고 그 탄피의 바닥 부분을 튀어나오게 했다. 바로 그 카트리지 때문에 사람이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총을 다른 한 자루와 비교해 보았다. 그 총은 옷장 아래에서 그가 찾아냈던 것이다. 그 총은 살인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불독형 권총이었다. 런던산임을 나타내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총은 완전히 새것처럼 보였다. 총알도 모두 장전되어 있었다. 룰타비유는 그 총이 아직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라르상은 마지막 순간이 아니면 총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라르상은 소음을 싫어합니다. 그가 자신의 리볼버로 당신을 단순히 놀라게 하려 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만약 진심으로 쏘려 했다면 바로 발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룰타비유는 리볼버를 다르자크 씨에게 돌려주었다. 라르상의 총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아, 이제 총을 든 채로 있을 필요가 없잖소!" 다르자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오!"

"그렇게 생각하시오?" 룰타비유가 물었다.

"물론이오."

룰타비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몇 걸음 걷더니 말했다.

"라르상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확신을 절대 할 수 없소. 시체는 어디에 있소?"

다르자크가 대답했다.

"그건 다르자크 부인에게 물어보시오. 저는 이미 그걸 잊고 싶소. 그 끔찍한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소. 그 죽어가는 남자와 함께 한 끔찍한 여행의 기억이 다시 찾아온다면, 저는 그걸 악몽

이라 부르며 쫓아낼 것이오.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주시오.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건 다르자크 부인뿐이오. 원하신다면 그녀가 직접 말씀해 줄 것이오."

"저도 이미 잊었소," 다르자크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래도 말이야." 룰타비유는 고개를 저으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그가 아직 임종 중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가 정말 죽었는지 확신하나요?"

"네, 확신합니다." 다르자크가 간단히 대답했다.

"아,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거지?" 마틸드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외쳤다. "보세요, 해가 떴어요! 이 끔찍한 밤이 죽었어요!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다 끝났다고!"

가엾은 검은 옷 부인! 그녀의 모든 심정이 단 한 마디에 응축되어 있었다. '다 끝났어…' 그녀는 지금 막 이 방에서, 그리고 명백한 결과 앞에서 벌어졌던 비극의 모든 공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라르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르상은 묻혔다. 감자 자루에 담겨 묻혔다.

우리는 모두 당황한 채 벌떡 일어섰다. 검은 옷 부인이 갑자기 터뜨린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이어 끔찍한 정적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엄두도, 그녀를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다.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을 거예요!"

그때, 룰타비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게 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알아내려 하죠?" 검은 옷 부인이 반박했다. "그건 그가 가져간 비밀이에요. 그에게서만 그걸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그는 진짜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룰타비유가 다시 말했다.

"당연한 말입니다." 다르자크 씨가 말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 서서 우리를 괴롭히겠죠.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해요!"

"그럼 쫓아내죠." 룰타비유가 다시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조심스럽게 검은 옷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옆방으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마틸드는 거절했다. 그녀는 거절하며 말했다. "당신은 라르상을 쫓아내려 하고, 그런데 내가 자리에 없겠어요!…" 우리는 그녀가 또 웃음을 터뜨릴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룰타비유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손짓했다.

룰타비유는 그때 아파트 문을 열고 베르니에와 그의 아내를 불렀다.

우리는 그들을 억지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상대로 한 전면 대면 심문이 벌어졌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첫째, 룰타비유는 오후 다섯 시에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찬장을 뒤졌고, 아파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둘째, 오후 다섯 시 이후로 아파트 문은 두 번 열렸다. 다르자크 부부가 없을 때 유일하게 문을 열 수 있는 베르니에 영감이 그랬다. 첫 번째는 오후 다섯 시가 조금 지난 무렵, 다르자크 씨를 집안으로 들이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오후 열한 시 삼십 분, 다르자크 부부를 집안으로 들이기 위해서였다.

셋째, 다르자크 씨가 우리와 함께 오후 여섯 시 십오 분에서 삼십 분 사이에 아파트를 나갔을 때, 베르니에 영감은 아파트 문을 다시 잠갔다.

다르자크 씨는 자신의 방에 들어서는 즉시, 오후와 저녁 두 번에 걸쳐 아파트의 문을 자물쇠로 잠갔다.

베르니에 영감은 오후 다섯 시부터 밤 열한 시 반까지, 단 여섯 시에 두 분간 잠시 쉬었을 뿐, 아파트 문 앞에서 경계병처럼 서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이 확인되자, 노트를 적기 위해 다르자크 씨의 책상에 앉아 있던 룰타비유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베르니에 영감이 저녁 여섯 시쯤 교대하던 틈새, 즉 짧은 공백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문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는 누군가 있었죠. 바로 당신입니다, 다르자크 씨. 당신의 기억을 모두 되새겨 본 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즉시 아파트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는 사실을요?"

다르자크 씨는 망설임 없이 장중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 자물쇠를 연 것은 당신과 당신의 친구 생클레르 씨가 제 문을 두드리러 오셨을 때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 남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것이 입증되었듯이.

베르니에 부부는 그들의 방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그들을 배웅했다.

그때 룰타비유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좋습니다, 다르자크 씨. 당신은 이제 모든 고리를 연결하셨습니다. 사각탑의 아파트는 이제 노란 방이 그랬던 것처럼, 또 불가해한 복도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마치 금고처럼 말입니다."

"이제야 라르상이라는 걸 알겠군요." 내가 말했다. "동일한 수법을 썼으니까요."

"맞습니다." 다르자크 부인이 말했다. "맞아요, 생클레르 씨. 라르상의 수법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목에 감겨 있던 상처를 가리던 넥타이를 풀어냈다.

"보십시오." 그녀가 덧붙였다. "정확히 같은 엄지손가락으로 찌른 자국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침묵이 흘렀다. 아픈 침묵이었다.

다르자크 씨는 오직 그 기묘한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글랑디에의 살인 사건에서 되살아난 문제였지만, 이번이 훨씬 더 잔인할 정도였다. 그는 노란 방 때 나왔던 말을 그대로 되뇌었다.

"이 바닥과 천장, 그리고 벽에는 무언가 구멍이 있어야 해."

"그런 구멍은 없소."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그럼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라도 구멍을 만들어야겠군." 다르자크 씨가 덧붙였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룰타비유가 다시 물었다. "노란 방 벽에도 구멍이 있었소?"

"아니, 여기는 상황이 다르오!" 내가 끼어들었다. "사각 타워의 방은 노란 방보다 더 폐쇄적이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누구도 그 안에 들일 수 없으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룰타비유가 결론을 내렸다.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노란 방에는 시체가 하나 부족했고, 지금 사각 탑의 방에는 시체가 하나 더 많으니까요."

그가 몸을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내 팔에 기대었다. 검은 옷 부인이 재빨리 달려들었다.

룰타비유는 간신히 힘을 내어 손짓과 말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다르자크 씨는 룰타비유의 조언에 따라 베르니에와 함께 사건 현장의 흔적을 제거하느라 분주했다. 한편 검은 옷 부인은 급히 옷차림을 바꾸고, '늑대' 저택의 다른 손님들을 마주칠까 봐 조바심 내며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말은 신중함과 침묵을 지키라는 당부였다.

룰타비유는 우리를 돌려보냈다.

그때는 이미 일곱 시. 성 안과 성 주변에서 생기가 다시 돌고 있었다. 배를 저어 나가는 어부들의 콧소리 섞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번엔 정말 깊이 잠들었다. 육체의 피로가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잠시 동안 침대에 누운 채, 달콤한 허탈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다 문득, 밤에 일어난 일들이 생각나자 벌떡 일어났다.

"이봐, 이건 말이 안 돼! '불필요한 시체' 따위는 있을 수 없어!"

그렇다. 내 생각의 어두운 심연, 기억의 깊은 구덩이 위에 떠 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불필요한 시체'라는 그 불가능한 사실 말이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사각탑이라는 기묘한 비극에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관여했던 모든 사람이 그 감정을 공유했다.

사건 자체의 공포, 즉 한 남자가 밤중에 어딘지 모를 먼 곳의 깊고 신비로운 무덤으로 죽어가는 몸을 자루에 넣어 가져가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것이라는 공포는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라앉았다. 그 생생한 이미지는 서서히 흐려져 갔다.

반면에 '불필요한 시체'라는 그 불가능한 사실이 우리 앞에 우뚝 솟아올랐다. 그것은 점점 더 커졌고, 더 위협적이며 더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했다.

에디스 부인 같은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부인하는 습관 때문에 운명이 우리에게 던져준 문제의 전제들, 즉 앞 장에서 우리가 끝내 확립한 그 조건들을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에르쿨레 요새를 무대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은 그 전제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일단 공격부터 따져보자. 공격은 어떻게, 언제 일어났는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탐 작업을 거쳤는가? 지적인 요새화라는 영역에

서, 적을 돕고 성채를 함락시킨 매복 지뢰, 반매복 지뢰, 참호, 우회로, 방호벽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공격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아, 얼마나 침묵이 큰가.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룰타비유가 말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토록 신비로운 공성전에서는, 공격이 모든 곳에 있고 동시에 아무데도 없었을 것이다. 공격자는 침묵을 지키고, 함성은 없이 돌격이 이루어졌다. 적은 소리를 죽이고 성벽에 다가섰다.

공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침묵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말함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것은 한 마디의 말에, 한숨에, 숨결에 있다. 그것은 한 제스처에 있다. 숨어 있는 모든 것에 있을 수 있듯이, 보이는 모든 것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 말이다.

"열한 시다!…… 룰타비유는 어디 있단 말인가?…… 그의 침대는 흐트러진 흔적도 없다……"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는 성채 안뜰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내 팔을 껴안더니 '루브'의 큰 방으로 나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나는 깜짝 놀랐다. 아직 아침 식사가 시간이 되지 않았건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자크 부부도 있었다. 아서 란스 씨의 태도가 유난히 냉담해 보였다. 그의 악수도 차가웠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에디스 부인은 어두운 구석에 나른하게 드러누운 채로 우리에게 말했다.

"아, 룰타비유 씨가 생클레르 씨와 함께 왔네요.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게 되겠군요."

룰타비유는 이 시간에 모두를 불러 모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매우 중대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순간이라도 늦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어조는 너무도 진지해서, 에디스 부인은 오한을 느끼는 척하며 어린아이 같은 공포를 연기했다.

그러나 룰타비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다리십시오, 부인. 오한을 느끼는 것은 그제서야 하십시오. 제가 전할 소식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가 어찌나 그런 식으로 말하던지! 나는 다르자크 부부의 얼굴을 살펴보기 위해 애썼다. 어제 밤 이후로 그들의 표정이 어떤지 궁금했다.

아무래도 아주 좋았다. 정말로 좋았다……. 그들만큼 '닫힌' 얼굴을 가진 이들은 없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룰타비유? 말해 봐라!

그는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시작했다. 그는 에디스 부인을 향해 말을 건넸다.

"우선, 마담. 제가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경비는 에르쿨 성을 이중으로 둘러싼 방어선 같은 것이었죠. 다르자크 부부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했고, 마담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그럭저럭 양보해 주시며 제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주 유쾌한 기분으로 말이죠."

그의 직설적인 언급은 우리가 경비를 서 있을 때 에디스 부인이 던지던 작은 비꼼들을 떠올리게 했다. 아서 란스 씨와 에디스 부인 자신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다르자크 씨도 다르자크 부인도, 나도 웃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친구가 결국 어디까지 말하려는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 정말로 성채의 경비를 없애셨군요, 룰타비유 씨! 음, 그 소식에 저는 정말 기쁩니다. 경비가 저를 방해한 적은 결코 없었으니까요."

에디스 부인은 지나칠 정도로 경쾌한 어조로 말했다. 두려움에서 우러난 가식인가, 기쁨을 연기하는 것인가. 어쨌든 에디스 부인의 태도는 너무도 과장되어 보였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그녀를 오히려 좋아했다.

"오히려 그 경비는 제 소설 같은 취향 때문에 저를 무척 흥미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철폐를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 다르자크 부부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부인."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오늘 밤부터의 일입니다."

다르자크 부인이 순간적으로 격하게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 미세한 반응은 나만 알아챌 수 있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에디스 부인이 외쳤다. "하늘이 그 사실을 축복하시길!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부는 이런 중요한 소식을 가장 늦게 듣게 된 거죠? … 밤새 무슨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다르자크 씨의 그 야간 출행 때문이겠죠? 다르자크 씨는 카스텔라르로 향하지 않으셨나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 나는 다르자크 부부의 당황한 기색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았다. 다르자크 씨는 아내를 돌아보며 입을 열려 했지만, 룰타비유가 그를 막아섰다.

"부인, 오늘 밤 다르자크 씨가 어디로 향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르자크 부부가 더 이상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부인, 당신의 남편께서 이미 글랑디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과, 그곳에서 …이 수행한 범죄적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프레데리크 라르상…… 네, 선생님, 그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알고 있겠지요. 우리가 다르자크 씨와 부인 곁을 그렇게 굳건히 지켰던 이유는, 바로 그 인물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르자크 씨와 부인에게 더 이상 위험은 없습니다. 그 인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거죠?"

"죽었습니다."

"언제?"

"오늘 밤."

"어떻게 죽었습니까?"

"살해당했습니다, 마담."

"어디에서요?"

"사각 탑에서!"

이 말을 듣자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해할 만한 동요와 당혹감에 휩싸인 상태였다. 란스 부부는 자신이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했고, 다르자크 부부와 나는 룰타비유가 주저 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털어놓은 것에 놀라 얼어붙었다.

"사각탑에서요!" 에디스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누가 그를 죽였나요?"

"로베르 다르자크 씨입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청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아이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양, 순순히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거의 즉시 에디스 부인이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다르자크 씨의 손을 잡고는 이번에는 진정한 힘과 열정을 담아 말했다. (정말, 내가 에디스 부인을 가식적이라고 잘못 봤나 보다.)

"잘했어, 로베르 씨! 훌륭해! 당신은 정말 신사야!"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서며 외쳤다.

"아, 이 남자를 봐! 그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다르자크 부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장된 찬사를 보냈다. 아마도 모든 사물을 과장하는 것이 그녀의 본성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르자크 부인에게 파괴할 수 없는 우정을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과 남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르자크 부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다르자크 부인에게 자신들의 열정과 헌신에 기대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정에 서서 원하는 대로 진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바로 그 점입니다, 마담." 룰타비유가 말을 끊었다. "우리는 판사를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라르상은 오늘 밤 누군가가 그를 죽이기 전부터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전히 죽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미스러운 스캔들을 되풀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르자크 부부와 스탕제르송 교수가 이미 너무도 무고한 희생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동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신도 결코 그 실체를 의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자크 부부는 너무도 고매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맞아준 주인에게 해야 할 도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의라도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신에게 알리라고, 오늘 밤 당신의 집에서 누군가를 죽였다고요.

비록 우리가 이 불쾌한 일을 이탈리아 경찰로부터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지만,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르자크 부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붕 아래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나중에 공공연한 루머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알게 되는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서 란스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프레데리크 라르상이 죽었습니다!"

그가 외쳤다.

"좋아, 정말 다행이야. 나보다 더 기뻐할 사람은 없을 거야. 만약 라르상이 다르자크 씨의 손에 의해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면, 나보다 더 다르자크 씨를 축하할 사람도 없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영광스러운 행위라는 거야. 다르자크 씨가 이를 숨기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가장 좋은 방법은 지체 없이 사법 당국에 알리는 거야. 만약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의 처지는 어떨지 상상해 봐. 우리가 자수하면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고, 숨기면 우리는 악당이야. 사람들은 모든 걸 의심할 수 있어…"

란스 씨의 말을 들어보면, 그 비극적인 진실이 그를 얼마나 격렬하게 흔들었는지, 그는 말더듬이처럼 말을 이어나갔다. 마치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인 양, 이미 법의 추적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간 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에디스 부인이 덧붙였다.

"제 남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곧장 다르자크 씨와 부인에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룰타비유가 던진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아침, 룰타비유는 내 눈앞에서 그들에게 침묵을 약속했고, 우리 모두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권고했던 것이다.

그들은 단 한 마디의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돌처럼 의자에 박혀 버린 듯 굳어 있었다.

아서 란스 씨만이 반복해서 말했다.

"왜 우리를 숨기려 하십니까?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갑자기 기자가 무언가 급한 결심을 내린 듯했다. 그의 눈가에 번뜩이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서 란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란스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지팡이 손잡이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디에프의 유명한 장인이 정성껏 조각한 것이었다. 룰타비유가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허락하신다면요?" 그가 말했다. "저는 상아 공예를 무척 좋아합니다. 생클레르 친구가 당신의 지팡이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직 자세히 보지 못했었네요. 정말 아름답군요. 람베스의 인물 형상입니다. 노르만 해안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장인이 없습니다."

젊은 남자는 지팡이만 바라보았다. 더 이상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지팡이를 너무 능숙하게 다루다가, 결국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지팡이는 다르자크 부인 앞에 떨어졌다.

나는 재빨리 달려가 지팡이를 주워 바로 아서 란스 씨에게 건넸다. 룰타비유가 나를 돌아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나를 번개처럼 내려쳤다.

번개에 맞기 전, 나는 그 시선에서 이미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읽어냈다.

에디스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룰타비유의 참을 수 없는 오만함, 그리고 다르자크 부부의 침묵에 그녀가 매우 초조해진 상태였다.

"친애하는 당신," 그녀가 다르자크 부인에게 말했다. "당신이 많이 지친 것 같군요. 오늘 밤의 끔찍한 사건들이 당신을 완전히 지치게 했어요. 제발 우리 방으로 오세요. 쉬셔야 합니다."

"에디스 부인,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룰타비유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씀은 부인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곧장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옳았다. 룰타비유는 그 진의를 깨달았을까. 어쨌든 그는 서론의 느림을, 밤에 일어난 사건들을 되살려낸 빠르고 또렷하며 충격적인 생생함으로 만회했다.

사각탑 속 '불필요한 시체'의 문제는, 이제껏 그 어느 때보다 신비롭고도 소름 끼치는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에디스 부인은 정말로(진심으로, 정말로라고 말해야겠다) 전율했다.

한편 아서 란스는 지팡이 끝을 입에 물고, 미국인 특유의 냉정함으로,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확신에 차서 반복했다.

"마귀 같은 이야기다! 마귀 같은 이야기다! 불필요한 시체의 이야기는 마귀 같은 이야기야……"

그 말을 내뱉는 동시에, 그는 다르자크 부인의 드레스 가장자리로 살짝 드러난 작은 부츠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대화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대화라기보다, 감탄사와 분개함, 하소연, 한숨, 그리고 위로의 말이 뒤섞인 혼돈이었다. 거기다 '불필요한 시체'가 어떻게 도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그 설명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전반적인 혼란만 가중시켰다.

또한 '감자 주머니' 속에서 끔찍하게 드러난 '불필요한 시체'에 관해 이야기했다. 에디스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웅적인 신사 로베르 다르자크에 대한 자신의 감탄을 다시 한번 표출했다.

하지만 룰타비유는 이 말들의 난무 속에서도 단 한 마디도 흘려주지 않았다. 그는 정신이 어지러워진 이들이 보여준 이 말장난을 명백히 경멸했다. 그는 마치 잘 놀았던 학생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주는 교사의 표정으로, 그 상황을 견뎌냈다.

그것은 내가 그를 가끔 탓했던, 그러나 실패로 끝난 그의 태도 중 하나였다. 룰타비유는 언제나 자신이 원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는 이윽고 지루한 유희도 이제 충분하리라 판단했는지, 에디스 부인에게 갑작스럽게 물었다.

"자, 에디스 부인! 여전히 법정에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낼 수 없었던 진상도, 법정은 반드시 밝혀낼 테니까요."

(내 친구의 지적 무력감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이 말에,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룰타비유 씨, 저는 법정에 알리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야 당신이 몇 시간이나 긴장하며 밤을 새우며 지내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자가 성채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룰타비유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거의 떨릴 정도로 격앙된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지팡이를 다시 집어 들었다. 아서 란스 씨가 방금 의자 팔걸이 곁에 내려놓았던 그 지팡이를, 그는 고의적으로 무심한 척하는 제스처로 다시 손에 쥐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친구는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번에는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응,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놀듯 손에 쥐고 있었다. 에디스 부인이 그를 공격하듯, 거의 잔인할 정도로 날카롭게 말을 걸었을 때, 룰타비유는 그렇게 답했다.

"에디스 부인, 당신 잘못이에요. 다르자크 부부를 위해 제가 취한 모든 안전 조치가 헛수고였다고 주장하시니 말입니다. 그 조치들이 불가해한 '불필요한 시체 하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족한 시체 하나'의 부재 역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덜 불가해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려 애썼고, 어떤 이들은 이미 이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에이, 에!" 에디스 부인이 반박했다. "그럼 이제 보시게요. 더 이상 신비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잘 해결될 거예요."

그녀는 내 친구의 이상한 언어로 덧붙이며 비웃듯 말했다.

"한쪽에는 불필요한 시체 하나, 다른 쪽에는 부족한 시체 하나! 모든 게 최선이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 '하나 부족한 시체'가 바로 '불필요한 시체'를 설명해 주기 위해 제때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담,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 부족한 시체'는 바로 마담의 삼촌이신 보브 씨의 시체입니다."

"보브 영감!"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보브 영감이 사라졌어요!"

우리 모두 그녀와 함께 외쳤다.

"보브 영감! 보브 영감이 사라졌어요!"

"슬프군요."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는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보브 영감의 실종 소식이 란스 씨와 다르자크 부부를 너무도 강하게 사로잡아, 우리는 떨어지는 그 지팡이에는 전혀 주목하지 못했다.

"친애하는 생클레르 씨, 그 지팡이를 주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룰타비유가 말했다.

정말이지, 나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하지만 룰타비유는 고작 감사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아까워했다. 그 순간 에디스 부인이 사자처럼 갑자기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덤벼들었다. 다르자크는 뒤로 크게 물러섰다. 그리고 그녀가 야수적인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당신이 내 숙부를 죽였어요!"

그녀의 남편과 나는 그녀를 붙잡고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다.

한쪽에서는 그녀의 삼촌이 잠시 모습을 감췄다고 해서, 그 비극적인 주머니 속에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득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룰타비유를 책망했다. 그가 방금 우리에게 던진 의견이 너무도 잔인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의견은 그의 불안한 마음속에서도 아직 흔들리는 가설에 불과했다.

우리는 에디스 부인에게 청했다. 그 가설을 결코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라르상이 그녀의 존경스러운 삼촌의 자리를 대신한 사기극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침묵을 명했다. 그리고는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생클레르 씨,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단호히 믿습니다. 삼촌이 사라진 것은 잠시일 뿐, 곧 다시 나타나실 거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당신을 가장 비열한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생님— (그녀는 룰타비유 쪽으로 돌아서 있었다.)

"라르상을 보브 영감과 혼동할 수 있었다는 생각 자체가, 제가 당신의 손을 잡는 것을 영원히 금지합니다. 당신은 예의 바르게 제 곁에서 물러나 주길 바랍니다."

"마담!" 룰타비유가 깊이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바로 지금, 마담께 작별 인사를 드릴 허락을 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스물네 시간의 짧은 여행을 해야 합니다. 스물네 시간 뒤면 돌아와서, 존경하는 삼촌께서 실종되신 뒤에 생길지도 모르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마담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물네 시간 뒤에도 제 삼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탈리아 사법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선생님."

"이탈리아 사법 당국은 훌륭한 곳입니다, 마담. 하지만 그전에, 마담께서 신뢰할 수 있는 하인들을 모두 심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마토니 씨를요. 마담, 마토니 씨를 신뢰하십니까?"

"네, 선생님. 저는 마토니 씨를 신뢰합니다."

"자, 부인,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아, 제가 떠나는 김에 이 훌륭하고 역사적인 책을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룰타비유가 주머니에서 책을 꺼냈다.

"또 뭐야?" 에디스 부인이 오만한 눈초리로 물었다.

"이것은, 부인, 알베르 바타이유 씨의 저작입니다. 그의 『범죄와 세속의 사건』 중 한 권이지요. 저는 부인에게 이 책에서 한 유명한 강도의 모험, 위장, 변장,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발마이어입니다."

룰타비유는 이미 두 시간 동안 발마이어의 기이한 이야기를 란스 부인에게 들려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제 그 글을 읽으셨으니, 당신 마음대로 물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악당에게 있어, 사년 동안 보지 못했던 당신의 '삼촌'이라는 모습으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을 만한, 넘을 수 없는 장애가 있었을까요?

사실, 에디스 부인, 당신이 그 존경스러운 삼촌을 아라우카니아의 팜파스 속에서 발견했을 때부터 이미 사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년 동안 당신의 눈은 '오래된 밥'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당신과 함께 있던 아서 란스 씨의 기억은 훨씬 더 옛날의 일이고, 당신의 기억과 조카로서의 마음보다 훨씬 더 속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제발, 무릎 꿇고 빌며 말씀드립니다. 에디스 부인, 서로 화를 내지 맙시다. 지금 우리 모두의 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르상이 '오래된 밥' 씨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끔찍한 가설을 결국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우리는 진짜 '오래된 밥' 씨를 찾아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저는 에디스 부인,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당신의 매우 겸손하고 매우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에디스 부인이 격분한 연극 여왕처럼 태도를 바꾸자, 룰타비유는 아서 란스에게로 돌아섰다.

"아서 란스 씨, 방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신사로서 제 사과를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더구나 당신의 아내 아서 란스 부인에게도 제 사과를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컨대, 저는 제 가설을 너무 빨리 발표했다는 점을 비난받았군요. 하지만 잠시 전만 해도 에디스 부인은 제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탓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서 란스는 이미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팔을 잡고는, 두 사람이 방을 떠나려던 찰나, 문이 열리며 안마부의 월터가 우리 가운데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는 늙은 밥의 충실한 하인이었다.

월터는 놀라울 정도로 더러운 상태였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였고, 옷은 찢겨져 나갔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어지러이 흩어진 머리카락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공포가 섞인 듯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는 곧장 또 다른 불행이 닥칠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손에 불결한 천조각을 쥐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천이었다. 넓은 적갈색 얼룩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물러서며 즉시 그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바로 남아도는 시체를 운반하는 데 쓰였던 주머니였다.

월터는 쉰 목소리로, 거친 제스처를 섞어가며 이해할 수 없는 영어로 이미 수많은 말을 중얼거렸다. 우리는 모두, 아서 란스와 에디스 부인을 제외하고는, 서로 물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지? … 뭘 말하는 거지?"

아서 란스가 가끔 그를 막아섰다. 월터는 위협적인 주먹을 흔들며, 정신나간 사람처럼 로베르 다르자크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우리는 그가 갑자기 덤빌 것 같아 경계했다. 그러나 에디스 부인의 한 번의 제스처에 그는 즉시 멈췄다. 아서 란스가 우리에게 번역해 주었다.

"그가 말하길, 오늘 아침 마차 안에 피 자국이 보였고 토비가 밤새 달린 탓에 매우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그를 너무도 궁금하게 만들어, 그는 곧장 늙은 밥에게 이 일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밥을 찾아다녔으나 끝내 찾지 못했죠.

그때부터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마차가 밤에 달린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바닥이 젖어 있었고 바퀴 자국이 유난히 넓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올드 카스티용의 깊은 균열까지 따라갔고, 그곳으로 내려가 주인 시체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빈 주머니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주머니 안에 늙은 밥의 시체가 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는 농부의 수레를 빌려 급히 되돌아와,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묻고, 만약 보여주지 않으면 로베르 다르자크를 살인자로 비난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경악했다. 하지만 우리의 큰 놀람에, 에디스 부인은 가장 먼저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몇 마디로 월터를 달래더니, 곧 건강한 모습의 늙은 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그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룰타비유에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이십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선생님. 내 삼촌이 돌아올 때까지."

"감사합니다, 마담."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옳은 쪽은 제가 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는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녀가 외쳤다.

"지금 그분이 주머니 속에 있지 않으니,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담."

에디스 부인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더니, 남편을 따라 곧장 자리를 떠났다.

곧장 로베르 다르자크가 그 가방 사연에 대한 자신의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는 라르상과 함께 그 가방을 심연 속으로 던져버렸건만, 그 가방이 혼자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룰타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르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확실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상황이 절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당장 떠납니다! 1분 1초도 아까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이면, 24시간 뒤면 제가 다시 여기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두 분께 맹세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성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맹세를요. 다르자크 씨, 저는 당신에게 다르자크 부인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힘을 써서라도 그녀의 외출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아, 이제 더 이상 사각탑에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스탕제르송 씨가 사는 층에 빈 방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일입니다. 생클레르 씨, 이 이사 일을 맡아주십시오. 제가 떠나는 즉시, 사각탑에는 다시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나 다른 누구도요. 안녕! 어서, 저에게 세 분 모두 포옹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우리 둘을 품에 꼭 안았다. 먼저 다르자크를, 그리고 나를. 그러고는 검은 옷 부인의 가슴에 기대어 통곡했다.

사건이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룰타비유의 이런 태도는 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 나중에야 내가 그 태도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깨닫게 될 줄이야.

새벽 두 시. 성 안의 모든 것이 잠든 듯하다. 땅 위와 하늘 위, 그 어디에도 소리가 없다.

나는 창가에 서 있다. 이마는 타오르고, 마음은 얼어붙었다. 그 순간, 바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더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달이 멈춰섰다. 밤의 별을 둘러싸던 그림자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 거대한 세계가 고요한 꿈속으로 빠져드는 그때, 나는 리투아니아 노래의 일부를 들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끝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물결로 머리를 뒤덮어 버렸고, 그 이후로 그녀의 소문은 끊겨 버렸으니……"

고요하고도 생생한 밤공기 속에서 그 말들은 또렷하고 선명하게 내 귀에 들어왔다.

누가 그 말을 했을까? 그의 입술이었을까, 그녀의 입술이었을까, 아니면 내 환각적인 기억이 만들어낸 소리였을까?

도대체 이 흑토의 왕자는 리투아니아 노래를 부르며 왜 남프랑스 해안가에 나타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의 모습과 노래는 왜 이렇게도 나를 쫓아다니는 것인가?

"도대체 왜 그 사람을 견디는 걸까? 그 눈은 부드럽고, 긴 속눈썹에는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고, 리투아니아 노래까지 부르다니! 정말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어."

"나 역시 우스꽝스러운가? 중학생 같은 마음을 가졌단 말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정말 더 나은 가정은 이렇다. 갈리치 공작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는 에디스 부인이 그에게 보이는 관심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다. 바로 그거야. 내 머릿속에서 갈리치 공작과 라르상은 함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다. 갈리치 공작은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그 유명한 점심식사 이후로 한 번도 성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즉, 그 이틀 전부터다."

룰타비유가 떠난 후의 그 오후는 우리에게 아무런 새로운 소식도 안겨주지 못했다. 룰타비유로부터, 그리고 늙은 밥으로부터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에디스 부인은 하인들을 심문하고 늙은 밥의 방과 둥근 탑의 방을 돌아본 뒤, 집 안에 틀어박혀 버렸다. 그녀는 다르자크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건 사법 기관의 일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서 란스는 서부 대로에서 한 시간 동안 거닐었다. 그는 몹시 초조해 보였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르자크 씨도 다르자크 부인도 루브를 떠나지 않았다.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스탕제르송 교수의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제 성 안은 온통 잠든 듯 고요하다. 하지만 밤하늘의 달을 중심으로 그림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저것은 무엇인가. 요새의 어둠에서 벗어나 은빛 파도 위를 미끄러져 가는 보트의 그림자일 뿐인가.

그 보트 앞쪽에 당당하게 서 있는 실루엣은 누구인가. 한쪽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고요한 노를 저으며 몸을 굽히고 있다. 바로 너야, 페오도르 페오도로비치!

오, 룰타비유! 이 수수께끼는 사각탑의 비밀보다 훨씬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 에디스 부인의 두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군.

가증스러운 밤이여!… 모든 것이 잠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하르쿨레 성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에디스 부인이 잠들었다고 생각하나? 다르자크 씨와 다르자크 부인은 잠들었는가? 그리고 왜 글랑디에의 진상이 밝혀진 이후로 밤마다 '창백한 불면증'이 그의 침대를 떠나지 않았건만, 낮에는 멀쩡히 깨어 있으면서도 잠든 듯한 스탕제르송 씨가 유독 그날 밤에만 잠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나는 잠들었는가?

나는 방을 나서서 테메레르 광장으로 내려갔다. 발걸음을 재촉해 투르 론드 대로까지 달렸다. 덕분에 나는 제때 도착해, 달빛 아래 갈리치 공의 보트가 바빌론 정원 앞 해변에 닿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트가 모래사장에 닿자 공이 뛰어내렸다. 이어서 노를 정리한 뒤, 그의 뒤를 따르던 남자도 뛰어내렸다. 나는 주인과 하인을 알아봤다. 페오도르 페오도로비치와 그의 노예 장.

몇 초 뒤, 그들은 백 년 묵은 야자나무와 거대한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만들어낸 보호적인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곧바로 테메레르 광장의 대로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러고는 심장이 쿵쿵 뛰는 가운데, 바일로 향했다.

나홀로 내디딘 발걸음이 쪽문의 돌바닥을 울렸다. 그리고 반쯤 무너진 예배당 아치 아래에서, 무언가 그림자가 일어서서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정원사의 탑이 드리운 짙은 어둠 속에 멈춰 섰다. 주머니 속의 권총을 손으로 더듬었다.

저기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

나는 직접 루브(Louve)로 이어지는 길 양쪽에 우거진 마편초 수풀 뒤로 숨어들었다. 관목과 작은 숲, 그리고 꽃이 만발한 봄의 향기가 넘쳐흐르는 곳을 지나며 나는 소음 하나 내지 않았다.

그림자는 아마도 안심한 듯,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것은 검은 옷의 부인이었다!

반쯤 무너진 아치 아래로 비친 달빛이 그녀를 온통 하얗게 물들였다. 그러자 그 형체는 마법이라도 걸린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다시 예배당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폐허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나는 가느다란 수군거림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말들 사이로 흐느낌이 섞여 나왔는데, 그 눈물이 너무도 진하게 젖어 있어 내 눈가까지 적셔졌다.

검은 옷의 부인이 어딘가 기둥 뒤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을까?

그 불안한 밤, 그녀는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기 위해, 꽃이 덮인 제단으로 조용히 찾아온 것이 아닐까?

그 순간, 나는 검은 옷 부인 옆에 그림자 하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로베르 다르자크임을 알아챘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매우 과감한, 예의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침입이었다. 기이하게도, 나는 듣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에디스 부인이나 갈리치 공의 일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라르상만 생각났다. 왜일까? 왜 라르상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알고 싶어 하는 걸까?

나는 마틸드가 '루브'에서 몰래 내려와 정원에서 불안감을 달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따라갔다는 것을 이해했다.

검은 옷 부인은 울고 있었다. 그녀는 로베르 다르자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알아요… 당신의 모든 슬픔을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걸 보면… 제가 당신의 고통을 부른 것 같아 자책할 뿐이에요. 하지만 제게 더 이상 사랑이 없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오, 로베르…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예전처럼요. 그렇게 약속할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기이했지만, 확고한 확신이 담긴 어조로.

"당연하지요! 저는 당신에게 그렇게 약속할게요."

그녀는 다시 한 번 그의 손을 꼭 쥐더니 떠났다. 그녀가 남긴 미소는 신비롭기 그지없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불행해 보였다. 나는 그 여자가 어떻게 그 남자에게 가능한 행복에 대해 말할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 채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향기가 지나가자, 내가 숨어 있던 라우리세르(월계수) 뒤에서 맡던 그 냄새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다르자크 씨는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목소리의 격렬함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만 해!"

그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뜨기 직전, 그는 불운에 항의하는 듯한, 운명에 대한 격분 어린 제스처를 취했다. 그 동작은 검은 옷 부인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공중을 가로질러 그의 가슴으로 날아들었고, 그 순간 그녀는 그의 것이 되었다.

그가 그 제스처를 취하자마자, 내 생각은 또렷해졌다. 라르상을 둘러돌며 맴돌던 내 생각은 다르자크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을 나는 선명히 기억한다. 보름달빛이 내리쬐는 밤, 그가 저지른 그 강탈적인 동작을 본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수많은 다른 사람, 아니 모든 사람에게 했던 말을 다시금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다.

"만약 그것이 라르상이라면?"

그리고 내 기억을 더 깊이 파고들려 노력했다. 그러자 나의 생각은 훨씬 더 직관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남자의 행동이 보이자, 나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라르상이다!'라고 외쳤다.

나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존재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나를 보고는 알아봤다. 그리고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곳에 있었죠, 생클레르. 당신도 지키고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지키고 있었어요, 친구.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들었죠!"

생클레르를 향해 그는 말을 이었다.

"보시죠, 생클레르. 이 비극은 너무도 큰 고통이에요. 저는 이미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행복해질 뻔했었습니다. 운명조차 그녀를 잊어버린 줄 알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자가 다시 나타났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랑을 위한 힘을 더 이상 갖지 못했어요. 그녀는 운명이라는 굴레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그녀를 영원한 형벌로 쫓아온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어젯밤의 끔찍한 비극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예전에는요. 네, 잠시 동안 그녀는 저를 위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프게도, 오직 그녀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죽음처럼 차가운 무관심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전히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직 노인을 조용히 모시고 산책하는 일뿐입니다."

그가 탄식하는 소리는 너무도 비참하고 진심 어린 것이어서, 나의 추악한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이제 나는 그의 말이 들려오는 데만 집중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영원히 잃은 듯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 여인은 아들을 되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사실, 그는 검은 옷 부인의 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그와 쉽게 결별하는 듯한 태도에 그는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잔인한 변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격화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다르자크 씨는 계속 신음하며 말했다.

"그녀를 때린 게 내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왜 내가 죽인 거지? 그녀가 나를 범죄자처럼 이 끔찍한 침묵을 강요하는 건, 자신의 사랑으로 갚아주지 않길 원하기 때문인가? 그녀가 나를 위한 새로운 심판자들을 두려워하는 건가? 아아, 아니야, 생클레르… 아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지.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새로운 스캔들의 충격에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아버지의… 항상 아버지의 이야기뿐이야!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녀를 스무 해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녀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녀를 다시 데려가버렸어!"

"나는 생각했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이!'"

그는 성당의 무너진 오래된 돌 위에 앉아 또 말했다. 혼자 중얼거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저 벽에서 그녀를 떼어내겠어… 더 이상 그녀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이곳을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가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아버지와 딸의 두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광경을 다시 떠올렸다. 해질녘, 북쪽 탑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그들이 오가며 다시 오가는 모습. 저녁 햇살에 길게 늘어져 있는 그 그림자 속에서였다.

나는 그들이 하늘의 타격 아래 짓눌린 정도가 저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보다 더하지는 않으리라 상상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콜로노스의 성벽 아래에서 초인적인 불행의 무게를 끌고 다니는 그들을 그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없었지만, 아마도 다르자크의 한 제스처 때문이었을까, 끔찍한 생각이 다시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주저 없이 물었다.

"자루가 비어 있었다는 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룰타비유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꼭 쥐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바일의 수풀 속으로 사라져 갔다.

나는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미쳤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그는 밤하늘 아래 혼자인 줄 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분명 낮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할 순간에 서 있다.

먼저, 검은 안경알이 그의 불확실한 시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멈췄다. 그리고 만약 그가 연극을 하는 시간 동안, 자연스러운 정도보다 더 깊이 몸을 굽히느라 키가 지쳐 버렸고, 어깨가 아주 교묘하게 둥글게 말려 있었다면, 이제 라르상의 거대한 몸이 무대 밖으로 나와 쉴 차례다.

그가 쉬게 하라! 나는 무대 뒤에서 그를 엿보고 있다. 부채선인장 뒤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본다.

이제 그는 서부 대로 위에 서 있다. 그 대로는 그에게 받침대처럼 되어 준다. 달빛이 그를 감싸며 차갑고 음산한 빛을 발한다. 그대는 다르자크인가? 아니면 그의 유령인가? 아니면 죽은 자들 사이에서 돌아온 라르상의 그림자인가?

나는 미쳤다… 진실로, 우리는 모두 미친 자이니 동정해야 한다. 우리는 라르상을 곳곳에서 보며, 어쩌면 다르자크 자신도 날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날, 생클레르를 보며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라르상이라면!” 하루만… 나는 마치 수년간 이 성에 갇혀 지낸 것처럼 말하지만, 정확히 나흘 전이었다… 우리는 4월 8일 저녁에 이곳에 도착했다…

물론이다. 하지만 남들을 위해 그 끔찍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심장은 결코 이토록 격렬하게 뛰지 않았다. 아마도 남의 일이라면 그 질문이 덜 무서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 내 정신이 믿을 수 없는 가설의 심연 앞에서 놀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고, 끌려들어가고, 끔찍할 정도로 유혹당한다. 어지러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내 정신이 나를 밀어붙인다. 서부 대로에 서 있는 그 유령을 눈에서 떼지 못하게 한다. 뒤에서 바라본 그의 자세, 제스처, 그리고 닮은꼴을 찾아내게 한다. 그리고 측면도, 그리고 정면도 말이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는 라르상과 완전히 닮았다.

하지만 그렇게, 그는 다르자크와도 완전히 닮았다.

그런 생각이 밤중에,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게 도대체 어째서일까? 그 생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아이디어 아니었을까?

'노란 방의 미스터리' 사건 당시를 기억해 보라. 범행이 자행되던 순간, 라르상의 실루엣이 다르자크의 실루엣과 완전히 혼동되지 않았던가?

마틸드 스탕제르송 부인의 답을 받아오기 위해 우편국 40번으로 찾아갔던 그 '다르자크'는, 실은 라르상 자신이 아니었을까?

위장술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가 이미 성공적으로 다르자크로 분장한 적은 없었을까? 그는 다르자크가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도록 만드는 데까지 성공하지 않았을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잠잠하게 하고 이성을 듣게 한다면, 제 가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터무니없다고요? 왜요?

보세요, 저기 라르상의 유령이 나타나 있네요. 다리를 길게 펴고, 라르상처럼 걷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어깨는 다르자크의 것이에요.

제가 터무니없다고 말한 이유는요. 다르자크가 아니라면, 그는 그림자 속, 신비 속에서, 멀리서라도 다르자크가 되려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랑디에의 비극 당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그 남자를 직접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니요? 아닙니다!

일단 그는 거의 집에 없다. 거의 항상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무모공의 탑'에서 쓸데없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상에, 정말 좋은 변명거리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얼굴을 보이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다니.

하지만 결국, 그가 늘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다… 아니, 밖에서는 항상 그렇다. 오늘 밤을 제외하고는, 그는 항상 검은 안경을 쓰고 있다… 아! 그 실험실의 사고는 지극히 현명하게 꾸며진 것이었어… 폭발한 그 작은 램프는 —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 라르상이 다르자크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라르상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램프는 눈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상 대낮의 강한 빛을 피할 수 있게 해줬지… 그렇잖아!… 스탕제르송 씨와 룰타비유조차도 다르자크 씨의 눈이 낮빛을 견딜 수 없는 구석, 즉 그림자 구석을 찾아내도록 손을 쓰곤 했어… 더구나, 우리가 이곳에 온 이후로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림자에 대한 집착을 보였어… 우리는 그를 자주 보지 못했지만, 볼 때마다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지… 이 작은 회의실은 매우 어둡고… 루브(Louve)도 어둡지… 그리고 그는 사각 타워의 두 방 중, 항상 반쯤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방을 선택했어.

그래도 말이야. 보자고. 보자고… 보자고! 룰타비유를 그렇게 속일 수는 없어! 단 사흘이라도 말이야! 하지만 룰타비유가 말했듯이, 라르상은 룰타비유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가 바로 룰타비유의 아버지가 아닌가.

아! 다르자크가 칸에서 우리를 맞으러 나왔을 때, 우리 차실로 올라왔을 때의 첫 행동을 또렷이 기억해 낸다. 그는 커튼을 당겼다. 그림자, 늘 그림자뿐이었지.

지금 서쪽 대로에서 유령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잘 보인다. 정면을 향하고 있다. 안경은 끼지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 마치 사진

찍히라고 서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마! 좋아, 이제 됐어! 자, 바로 로베르 다르자크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맞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나는 알 수 없소. 다르자크의 걸음걸이에서 라르상의 걸음걸이를 알아차릴 때 필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소. 하지만 그게 무엇일까?"

그렇다. 룰타비유는 모든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 룰타비유는 보는 것보다 추리하는 데 더 익숙하지 않은가? 게다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세히 볼 시간이 있었을까?

아니! 다르자크가 남부에서 석 달을 보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건 맞소. 그 점을 가지고 추리할 수 있소. 석 달 동안 그를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는 병든 채로 떠났고, 건강하게 돌아왔소. 죽어 가는 얼굴로 떠났다가 생기가 도는 얼굴로 다시 나타나면, 사람의 얼굴이 조금은 변했을 거라 놀랄 일은 아니지.

결혼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치러졌다.

그는 그동안 우리에게 드물게 모습을 드러냈고,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라르상이라면 엿새 정도는 버텨 낼 수 있다.

그 남자, 다르자크일까, 라르상일까, 그가 서쪽 대로 위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내 쪽으로 곧장 걸어온다.

그가 나를 보았을까? 나는 무화과나무 뒤에 몸을 숨겨 더 작아지려 했다.

그가 없는 세 달 동안 라르상은 다르자크의 모든 습관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르자크를 제거하고 그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의 아내까지 데려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목소리요? 남부 프랑스 억양을 모방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억양을 조금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내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가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한 억양을 썼다고 관찰했습니다. 네, 오늘 다르자크의 억양은 결혼 전보다 조금 더 강해요. 제 생각에는요."

그가 거의 내게 닿을 듯 다가온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간다. 아직 나를 보지 못한 것 같다.

"라르상이야! 내가 말했잖아, 라르상이라고!"

그러나 그는 잠시 멈춰 선다. 주변에 잠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황급히 둘러본다. 그의 고통은 혼자 깨어 있는 데다. 그는 불쌍한 불행한 남자처럼 신음한다.

"다르자크야!"

그리고 그는 떠났다. 나는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그대로 서 있었다. 내가 감히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채, 허무함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을까? 한 시간? 두 시간?

일어나서 보니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머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정말로, 지칠 대로.

미친 듯이 이어지던 내 추측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기이한 상상에까지 도달했다. '만약에'라는 생각, 정말로 '만약에'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감자 주머니, 이른바 '소시지'라고 불리던 그 주머니 속에 숨어 있던 라르상이, 토비가 끄는 작은 영국 마차를 몰고 카스티용 우물의 심연으로 향하던 다르자크를 대신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죽어가는 몸이 갑자기 살아나 다르자크에게 자리를 바꾸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눈에 선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 멍청한 추측을 내 머릿속에서 쫓아내는 데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 증거는 바로 아침에, 우리가 가혹했던 '사각탑' 심문에서 나온 직후 다르자크와 나눴던 친밀한 대화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 심문 동안 '불필요한 시체'라는 문제의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그때 나는 갈리치 공작에 대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허망한 초상화에 사로잡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다르자크는 즉시 답했다. 그는 어제 다르자크와 내가 나눴던, 매우 과학적인 또 다른 대화에 대해 언급하며 말이다. 그 대화는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바로 그 갈리치 공작에 관한 것이었다.

그 대화 내용을 아는 이는 오직 다르자크 혼자뿐이었다. 따라서 오늘 나를 괴롭히는 이 다르자크가 어제 그 다르자크와 다른 사람이 아님을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이토록 미친 듯한 생각이라 해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용서해 주길 바란다. 룰타비유가 그 원인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변신의 신'처럼 여겼고,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오직 한 가지 가설, 즉 가능한 가설로 돌아갔다. 라르상이 다르자크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의 일이었다. 스탕제르송 부인의 약혼자가 남부에서 3개월 동안 머물다 파리로 돌아올 때, 결혼식 직전에 그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가설이었다.

방금 전, 나 혼자라고 생각한 로베르 다르자크가 내 곁에서 흘려보낸 절규는, 그 생각, 즉 라르상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나는 그가 생니콜라 뒤 샤르도네 교회를 향해 들어서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결혼식이 그 성당에서 치러지길 원했다. 아마도 파리에 더 어두운 성당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아! 달빛이 비치는 밤,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라르상의 음모를 생각하며 몸서리를 칠 때, 우리는 참으로 기이하게도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짓이군."

나는 뜰의 덤불 사이를 아주 천천히 지나며 혼자 중얼거렸다.

새로운 성(Château Neuf)의 외딴 작은 방에서 나를 기다리는 침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바보 같은 짓이야."

룰타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라르상이 다르자크의 정체를 띠고 있었다면, 그는 아름다운 사냥감을 그냥 데리고 가면 되었을 것이다.

그는 굳이 라르상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마틸드를 공포에 떨게 하는 짓을 즐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녀를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헤라클레스의 요새로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자기 계획에 치명적이게도, 툴리오의 배 안에서 루셀-발마이어의 위협적인 얼굴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 마틸드는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다.

라르상의 재등장은 다르자크에게서 '검은 옷 부인'을 완전히 빼앗아 갔다. 따라서 다르자크는 라르상이 아니었다!

세상에, 머리가 너무 아프군.

저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달이 내 머리를 아프게 찌른 모양이야. 달빛에 중독된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라. 라르상이 아서 란스 자신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가. 멘톤의 정원 속에서였다. 다르자크가 우리를 마중하러 칸으로 가는 기차에 막 태워졌던 바로 그때였다.

만약 아서 란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나는 이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런데 아서 란스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했겠는가?

아서 란스 역시 검은 옷 부인에게 반한 자다. 그는 그 사랑을 결코 버리지 못했다.

에디스 부인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에디스 부인!

자, 이제 잠자리에 들자.

나는 여전히 정원사의 작은 문 곁에 있었고, 테메레르(Téméraire) 광장으로 들어설 참이었다. 그때, 나는 무언가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처럼. 나무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자물쇠가 딸랑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작은 문 밖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신성(Château Neuf)의 문 근처에 희미한 사람의 실루엣이 있는 것을 발

견한 것 같았다. 나는 즉시 권총을 장전했고, 세 번의 도약으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오직 그림자만 있었다. 신성(Château Neuf)의 문은 닫혀 있었고, 나는 그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방금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매우 흥분되었고, 매우 불안했다. 나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일 수 있었을까? 분명히, 만약 그 실루엣이 나의 시야와 혼란스러운 정신 외에서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이제 신성(Château Neuf)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테메레르 광장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고, 신성으로 들어섰다.

5분 동안은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은 채, 귀를 기울여 경청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실수했나 보다.

하지만 성냥불을 켜지 않았다. 최대한 조용히, 계단을 올라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환상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보다 훨씬 더 나를 괴롭혔다.

비록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마침내, 내가 그 이유를 따라갈 수 없는 채로, 실루엣의 환상과 다르자크-라르상에 대한 생각이 내 불안정한 마음속에서 기묘하게 뒤섞였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나는 이렇게 단언하게 되었다. “내가 평안해지려면, 다르자크 씨 자신도 라르상이 아님을 직접 확인해야 해!” 그리고 다음 기회가 오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 그의 수염을 잡아당겨야 할까? 만약 내가 잘못 생각했다면, 그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아니면 내 의도를 간파해서, 그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불행에 위로를 줄 수 없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의 불행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라르상으로 의심받는 일뿐이리라!

그때, 나는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 위에 앉아 큰 소리로 외쳤다.

“호주!”

나는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한 에피소드를 문득 떠올렸다. 실험실 사고 당시, 나는 로베르 다르자크를 약사에게 데려간 적이 있었다.

당시 다르자크는 치료를 받기 위해 재킷을 벗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옷소매가 어떤 잘못된 동작으로 팔꿈치까지 말려 올라갔고, 그 상태

가 치료 내내 유지되었다. 덕분에 나는 그의 오른쪽 팔에 커다란 '모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모반의 윤곽선은 호주의 지형도를 따라 그은 듯 기묘하게 이어져 있었다.

약사가 치료를 하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그 팔에 있는 모반 위에 지도를 겹쳐 보았다. 멜버른, 시드니, 애들레이드 같은 도시들을 실제 위치와 정확히 일치시키며 말이다. 그리고 그 넓은 모반 아래에는 타스마니아 섬 부근에 위치한 아주 작은 또 다른 모반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그 사고와 약사 집에서의 치료, 그리고 점박이 모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당연한 연상 작용으로 호주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 밤, 잠 못 든 밤, 호주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침대에 앉아, 나는 로베르 다르자크의 신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생각해냈음을 스스로 치하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하면 그 증거를 직접 손에 쥘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다시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듯했다.

숨을 죽인 채 나는 문으로 다가가, 자물쇠에 귀를 대고 경청했다.

처음에는 고요함만이 흘렀다. 그러자 다시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했을 것이다.

방금 테메레르 광장에 들어설 때 보았던 그림자를 떠올렸다.

그 그림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계단에 있었을까.

그는 올라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었을까.

새로운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바지를 입었고, 권총을 손에 쥔 채 문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숨을 죽인 채로 나는 계단 난간까지 다가가서 기다렸다.

내가 앞서 말했듯, 신성 요새는 온통 허물어지고 있었다. 음산한 달빛이 각 층의 높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매우 넓은 계단통의 캄캄한 어둠 속에 흐릿한 빛의 사각형들을 또렷이 잘라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춰진 성의 초라함은, 오히려 그 황폐함이 더 확고불변해 보일 뿐이었다.

계단 난간의 붕괴, 부러진 난간 기둥, 금이 간 벽면,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여전히 처져 있는 커다란 벽지 조각들. 낮에는 그리 큰 충격을 주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게는 묘한 공포로 다가왔다. 나의 마음은 이미 이 과거의 슬픈 배경이, 누군가 유령의 출현을 기다리는 장소로 보이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사실, 나는 무서웠다. 방금 전 그 그림자는 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으니까. 내가 그것을 만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유령이 낡은 성을 거닐 때 계단 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단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순간, 난 난간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빛으로 가득 찼다. 어둠이었던 것이 이제는 빛이 되어 있었다. 달빛이 횃불처럼 그 그림자를 밝게 비췄다.

그리고 나는 로베르 다르자크를 알아봤다.

그는 1층으로 내려와 현관홀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는데, 마치 내 시선이 그에게 무겁게 내려앉은 것을 느끼는 눈치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곧장 다시 관찰 위치로 돌아갔다. 딱 그 순간, 그는 다른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 안으로 사라졌다. 그 계단은 건물의 다른 쪽을 관통하고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인가?

로베르 다르자크는 밤중에 성(城)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는 왜 이렇게나 신중하게 자신을 숨기려 했을까?

수많은 의구심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니, 오히려 방금 전 떠올랐던 모든 나쁜 생각들이 놀라운 힘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다르자크의 발자취를 쫓아, 나는 '호주'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복도를 나서자마자 곧장 복도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 계단의 썩어빠진 나무 계단을,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게 오르기 시작했다.

복도 어딘가에 숨어 있던 나는 그가 첫 번째 계단참에서 멈춰 서서 한 개의 문을 밀어 열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아니 어쩌면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었다.

나는 닫힌 그 문까지 기어올랐다. 그가 방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자, 나는 세 번의 작은 두드림을 가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이 방들은 모두 비어 있었고, 방치된 상태였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는 왜 그런 방들 중 하나에 들어온 것일까?

나는 2분을 기다렸다. 그 시간은 지루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자 문이 열렸다. 로베르 다르자크가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인가, 생클레르? 무엇을 원하시는 거요, 친구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소.” 나는 말했다. 주머니 속의 권총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속으로는 무서웠다. “이 시간에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소.”

그는 차분하게 성냥을 하나 켜며 말했다.

“보시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소.”

그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촛불에 불을 붙였다. 이 황폐해진 방에는 심지어 작은 침대 테이블 하나도 없었다. 구석에 놓인 철제 침대가 유일한 가구였다. 아마도 낮 시간에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다.

"당신이 오늘 밤 루브의 1층에서 다르자크 씨와 교수님 옆에서 주무실 줄 알았는데……"

"방이 너무 좁아서요. 다르자크 씨에게 방해가 될까 봐요." 불행한 남자는 씁쓸하게 말했다. "저는 베르니에게 저를 위해 이 방에 침대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잠을 자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이나마 침묵에 잠겼다. 나는 내 자신과 내가 지어낸 터무니없는 ‘추리’들이 부끄러웠다. 솔직히 말해, 나의 양심적 가책은 너무 커서 그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품었던 추잡한 의심들, 그리고 밤중에 성에서 신비롭게 돌아다니는 그를 보고 라르상이라고 생각했던 사실, 그리고 결국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러 나서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까지. 나는 오스트레

일리아에 대한 나의 모든 희망을 잠시 동안 품었던 사실조차 그에게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는 벌거벗은 팔을 촛불 가까이 가져다 대며, 나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모반(母斑)'을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그 모반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직접 만져 보길 고집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모반을 만져 보았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반이었다. 그 위에 시드니, 멜버른, 아데라이드 같은 도시 이름을 적은 작은 점들을 찍어 넣어도 될 정도였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태즈마니아를 형상화한 또 다른 작은 반점이 있었다.

"문질러 봐도 돼요." 그가 완전히 낙담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의 수염을 잡아당겨 보게 할 때까지 용서해 주지 않았다. 수염은 내 손에 뽑혀 나오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내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나는 돌아가면서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첫 생각은 여전히 라르상에게로 향했다.

진실로, 나는 그와 누구도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믿을 만한 기준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다쳤을까?

아니, 내가 뭘 말하고 있는 걸까.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죽었을까? 다르자크가 카스티용 협곡에 던진 주머니에서 도망칠 수 있었을까?

결국 그 일은 매우 가능했다. 오히려 그 가설은 라르상의 인간적 한계를 넘지 않았다. 특히 월터가 주머니가 균열의 입구에서 삼 미터 떨어진 곳에, 자연적인 턱 위에 놓여 있음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 턱의 존재를 모르셨던 다르자크는 라르상의 시체를 심연에 던졌다고 믿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룰타비유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저 멀리 떠난 걸까?

에르쿨레스 요새에서 그의 존재만큼 절실한 순간은 없었다. 그가 제때 오지 않는다면, 랜스 가문과 다르자크 가문 사이에서 오늘 하루는 결코 평온하게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그때 내 방 문이 두드려졌다.

베르니에 영감이 찾아와 손에 쥔 쪽지를 건넸다. 작은 불량배 하나가 그 쪽지를 자크 영감에게 건네고 갔다는 것이었다. 쪽지는 내 친구 룰타비유가 보낸 것이었다.

쪽지 내용은 이랬다.

"오전 중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른 일어나라. 그리고 내 점심으로 쓸 훌륭한 조개를 구해다 주라. 가리발디 곶 앞바다 암반에 조개가 많으니 그곳에서 캐오면 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안부 전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룰타비유!"

쪽지를 받은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경험상, 룰타비유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 척할 때일수록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이 숨어 있기 마련이었다.

나는 재빨리 옷을 차려입었다. 베르니에 영감이 빌려준 낡은 칼을 손에 쥔 채, 친구의 기묘한 요구를 들어줄 준비를 했다.

그때는 아직 이른 아침, 일곱 시쯤 되었을까. 북쪽 문을 나서는데 마주치는 사람이라곤 없었다. 그런데 그때 에디스 부인이 나를 따라잡았다. 나는 룰타비유의 짧은 편지 내용을 그녀에게 전했다.

오랫동안 모습을 감춘 밥의 행방이 에디스 부인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편지가 "기괴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조개 잡기 현장까지 따라오게 되었다.

길에서 그녀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삼촌은 가끔씩 소소한 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그녀는 지금까지 밥의 귀환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다시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끔찍한 오해가 밥을 다르자크 가문의 복수심에 희생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다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예쁜 치아 사이로 검은 옷 부인을 향한 묵직한 위협을 내뱉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내심이 정오까지 이어질 것임을 덧붙인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룰타비유의 조개를 캐러 나섰다. 에디스 부인은 맨발이었고, 나도 그랬다. 하지만 에디스 부인의 발이 내 발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빼앗아 갔다. 사실, 에르쿨레스 해안에서 발견한 에디스 부인의 발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조개 껍질 같았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아름다워, 나는 조개 캐는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면, 가엾은 룰타비유는 점심 식사 때 조개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쓴 파도 속에서 물결을 일으키며, 바위 밑으로 칼을 슬며시 밀어 넣었다. 그 모습은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갑자기 우리는 둘 다 몸을 일으켜 같은 동작으로 귀를 기울였다. 동굴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로메오와 줄리엣 동굴 입구 근처에서 작은 무리가 손짓을 하고 있었다. 같은 예감을 품은 우리는 급히 해안으로 돌아왔다. 곧 우리는 두 명의 어부가 비명 소리에 이끌려 로메오와 줄리엣 동굴의 구멍에서 한 불쌍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떨어졌고, 오랫동안 의식을 잃은 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구덩이 깊숙이 있는 이는 바로 늙은 밥이었다.

그가 동굴 입구, 햇빛이 비치는 곳까지 끌어 올려졌을 때, 그의 모습은 정말로 연민을 자아낼 만큼 비참했다. 아름다운 검은 레딩코트는 진흙투성이였고, 구겨졌으며, 찢겨 나갔다.

에디스 부인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특히 노인이 쇄골이 빠졌고 발을 다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였다. 그는 너무도 창백해서 곧 죽을 것만 같았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

십 분 뒤, 그는 자신이 내린 명령에 따라 사각탑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완고한 노인은 의사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옷을 벗지도, 레딩코트를 벗지도 않았다.

에디스 부인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하며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이 도착하자, 늙은 밥은 조카에게 즉각 자리를 비키고 사각탑을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문까지 잠가 버렸다.

이 마지막 조치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우리는 테메레르 안뜰에 모여 있었다. 다르자크 부부와 아서 랜스 씨, 그리고 나, 그리고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베르니에 영감이 함께였다.

의사들이 도착한 뒤 에디스 부인이 사각탑에서 나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다행이겠지요. 심각한 일은 아닐 거예요. 늙은 밥은 튼튼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고해성사를 들었어요. 그분은 늙은 장난꾸러기예요. 갈리치 공작의 해골을 훔치려 했다고요. 과학자의 질투랄까요? 나으면 크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사각탑의 문이 열리고, 늙은 밥의 충실한 하인 월터가 나타났다. 그는 창백했고 초조해 보였다.

"오, 미스! 그는 피투성이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구해야 해요!"

에디스 부인은 이미 사각탑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우리도 감히 앞으로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오, 당신들! 정말 끔찍해요. 가슴 전체가 찢겨 나갔어요."

나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도록 팔을 내밀었다. 기이하게도, 아서 랜스 씨가 이 순간 우리 곁을 떠나 산책로를 거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손을 뒤로 맞잡은 채, 휘파람을 불며 거닐고 있었다.

나는 에디스 부인을 위로하려 했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나 다르자크 씨도 다르자크 부인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룰타비유는 사건 발생 한 시간 후에 성에 도착했다. 나는 서부 대로 위쪽에서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해안가 가장자리에 모습을 보이자마자,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가 내 첫 질문도 듣지 않고 말을 끊으며, 곧장 좋은 물고기 잡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탐색하는 듯한 눈빛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나도 그와 똑같이 교활하게 굴며 대답했다.

"아, 아주 좋은 물고기 잡았어요! 늙은 밥을 다시 잡았답니다."

그가 놀라 몸을 떨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그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제발요! 당신의 물고기 사냥과 전보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친애하는 생클레르 씨. 만약 알았다면 이런 비난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난이죠?" 내가 외쳤다.

"로메오와 줄리엣 동굴 깊숙이 늙은 밥을 남겨뒀다는 거죠. 그가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오, 오! 진정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늙은 밥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발을 삐었고 어깨가 탈구됐을 뿐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의 사연은 가장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갈리치 공작의 두개골을 훔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기묘한 생각입니다." 룰타비유가 비웃었다.

그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과 눈을 맞대고 말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믿습니까? …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다른 상처는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상처도 있는데, 의사들이 그건 심각하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가슴이 찢겨져 있었죠."

룰타비유가 내 손을 신경질적으로 쥐며 되물었다.

"가슴이 찢겨졌다고요? 어떻게 찢겨진 건가요?"

"우린 모릅니다. 본 적도 없으니까요. 늙은 밥이 너무 이상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우리 앞에서 재킷을 벗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재킷이 상처를 너무 완벽하게 가려서, 만약 월터가 피를 보고 놀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성으로 돌아온 우리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듯 에디스 부인을 마주쳤다.

그녀는 룰타비유를 바라보며,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불안한 기색을 띠며 말했다.

"삼촌은 내가 자기 침상 곁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기자가 답했다. 그는 우리의 우아한 안주인에게 가장 정중한 예를 갖추며 말했다.

"아, 마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만 이해하려 노력하면 말이죠!"

그는 그녀가 잃었다고 믿던 그토록 좋은 삼촌을 다시 찾았다고 축하했다.

에디스 부인은 내 친구의 생각을 이미 꿰뚫고 있어, 곧바로 답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공작 갈리치가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는 사고 소식을 듣고, 친구인 늙은 밥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에디스 부인은 그 환상적인 삼촌의 소동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 삼촌이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두개골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점을 용서해 줄 것을 공작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공작은 늙은 밥이 자신을 훔치려 했다는 에디스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아하고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두개골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가 굴러떨어진 동굴 깊은 곳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삼촌이 직접 저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공작님, 당신의 수집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작은 다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는 기색이었다.

에디스 부인은 자신의 삼촌이 자백한 내용을 들려주었다. 삼촌은 하르쿨레 요새를 빠져나갈 때, 바다와 이어지는 우물길로 나갔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에디스 부인이 이 말을 덧붙이자마자, 내 머릿속에서 룰타비유의 양동이 실험과 닫혀 있던 철물들, 그리고 늙은 밥의 거짓말들이 거대한 그림자로 다시 떠올랐다.

만약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모두 선의에 충만했다면, 그들도 나처럼 느꼈을 것이다.

에디스 부인은 이어 툴리오가 자신의 배를 타고 우물이 끝나는 터널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툴리오는 그를 로미오와 줄리엣 동굴 앞 해변까지 데려다주었다.

"문도 있는데 왜 그렇게 구불구불 돌아다니셨나요!" 나는 참지 못하고 외쳐버렸다.

에디스 부인이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곧장 그녀를 적으로 돌린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다.

"이건 점점 더 기이해지네요." 공작이 다시 말했다. "그저께 아침, '바다의 처형인'이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죠. 저는 그가 오후 다섯 시에 고향인 베니스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다음 밤에 '늙은 밥'을 자신의 보트로 태울 수 있었단 말입니까? 첫째,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둘째, 그는 더 이상 이 나라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보트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갈리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담, 당신의 삼촌께서 부상을 빠르게 회복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그가 다시금 미소 지었다. 이전의 어떤 미소보다도 더 매혹적인, 새롭고도 빛나는 미소였다.

"그리고 만약 제가 동굴에서 사라진 보잘것없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돌멩이의 형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길이는 이십오 센티미터로 뾰족하며, 한쪽 끝은 긁는 도구처럼 닳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긁개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작은 그 돌멩이에 대해 매우 집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마도 마담께서는 당신의 삼촌인 늙은 밥에게 그 돌멩이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에디스 부인은 공작에게 즉각 약속했다. 그 태도에는 어느 정도 위엄이 서려 있었는데, 그 점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그토록 귀중한 긁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작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다. 우리가 다시 돌아섰을 때, 아서 랜스 씨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마도 우리의 대화를 모두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화에 대해 깊이 생각 중인 듯했다.

그는 입에 지팡이 끝을 물고 있었다. 평소대로 휘파람을 불며 에디스 부인을 유난히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너무 기이해서 부인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알고 있어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선생님. 그리고 전혀 놀랍지 않아요.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룰타비유 쪽으로 돌아섰다.

"어쨌든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각탑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찬장 안에 있을 수 있었는지요!"

"부인."

룰타비유가 말했다. 그는 에디스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그녀를 최면하려는 것처럼.

"인내와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약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면, 오늘 밤이 되기 전에 당신이 묻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뒤, 나는 루브의 아래층 방에서 에디스 부인과 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초췌한 두 눈을 두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에서 열병 같은 고백이 새어 나왔다.

"무서워요."

나는 그녀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은 무서워하지 않나요?"

나는 그 말에 침묵했다. 사실, 나도 무서웠다.

에디스 부인이 다시 말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나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우리 주변에서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아, 나는 혼자야! 완전히 혼자! 그리고 무서워!"

그녀가 문 쪽으로 향했다.

"어디 가세요?"

"누군가를 찾아가요. 혼자 있기 싫어서요."

"누구를 찾으시려고요?"

"갈리치 공작님을."

"당신의 페오도르 페오도로비치요?" 나는 소리쳤다. "왜 그가 필요하죠? 내가 여기 있지 않나요?"

불행히도, 내가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수록 그녀의 걱정만 더 커져 갔다. 나는 곧 그녀가 왜 그런지 이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끔찍한 의심 때문이었다. 그 의심은 그녀의 삼촌, 즉 늙은 밥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나갈까요?"

그리고 그녀는 나를 끌고 '루브' 밖으로 나섰다. 그때는 정오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광장은 향기로운 불길에 휩싸여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검은 안경을 쓰지 않았기에, 너무 눈부신 꽃들의 빛을 가리기 위해 손으로 눈을 가려야 했다. 하지만 거대한 제라늄들은 우리의 상한 눈동자 안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 눈부심을 조금 잊은 우리는, 타버린 땅 위로 걸어 나갔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타오르는 모래 위를 걸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은 우리 몸을 감싸는 그 모든 불꽃보다 더 뜨거웠다.

우리는 발밑만 바라보았다. 무한히 반짝이는 바다의 거울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마도, 빛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짐작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에디스 부인이 나를 향해 반복했다.

"무서워요!"

나도 무서웠다. 밤의 신비로움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나는 정오의 그 압도적이고 빛나는 고요함에 두려움을 느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무언가를 볼 수 없는 그 밝음은 어둠보다 더 무서웠다.

정오!

모든 것이 쉬고, 모든 것이 산다. 모든 것이 침묵하고, 모든 것이 소음을 낸다.

귀를 기울여라. 그 소리는 바다 소라고둥처럼 울린다. 그 소리는 땅에서 저녁이 차오를 때 피어오르는 소리보다 더 신비롭다.

눈꺼풀을 감고, 네 눈속을 바라보라. 거기에 밤의 유령들보다 더 교란시키는 은빛 환상들의 무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에디스 부인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녀와 함께 떨기 시작했다. 나는 비참하게도 그녀를 도울 방법이 없으며, 우리가 막을 수도, 예측할 수

도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끌고 담대함의 광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 문의 천장은 빛 속에서 검은 아치를 이루었고, 시원한 터널 끝에서 우리는 로베르 다르자크와 룰타비유를 보았다. 그들은 담대함의 광장 문턱에 서서, 마치 두 개의 흰색 조각상처럼 우리를 향해 있었다.

룰타비유는 손에 아서 랜스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소한 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다르자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천장 꼭대기의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시 지팡이 끝으로 우리를 가리켰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자처럼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에디스 부인이 멈칫했지만, 룰타비유는 그녀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지팡이로 그 신호를 반복했다.

"아, 또 뭘 원하는 거지? 오, 생클레르 씨, 정말 무서워요. 삼촌 밥에게 다 말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보시죠."

우리는 아치형 천장 아래로 들어섰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들의 미동도 없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였다. 나는 아치형 천장 아래에서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울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담대함의 광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우리를 돌려세웠다. 그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말이다.

그곳은 아치 꼭대기에 새겨진 문장이었다. 라 모르톨라 가문의 문장이었지만, 방계 가문을 나타내는 띠무늬가 가로질러 있었다. 그 문장은 이미 흔들리는 돌에 조각되어 있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룰타비유는 아마도 그 문장이 우리 머리 위에서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에디트 부인에게 물었다.

"이것을 제거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더 단단하게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 돌을 지팡이 끝으로 살짝 건드려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팡이를 에디트 부인에게 건넸다.

"당신은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직접 해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차례로 시도했지만, 돌을 닿게 할 수 없었다. 돌이 너무 높은 곳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묘한 연습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였다.

그때, 등 뒤에서 죽음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세 사람이 동시에 몸을 돌리며 공포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 우리의 밤들을 가로지른 뒤 정오의 태양 속을 지나온 죽음의 외침이었다. 언제쯤이면 그 소리는 그칠까? 글랑디에의 밤들에서 처음 들었던 그 끔찍한 비명은 언제까지 우리 곁에 새로운 희생자가 있음을, 우리 중 한 명이 역병처럼 갑자기, 은밀하게, 그리고 신비롭게 범죄의 타격을 받았음을 알릴 것인가?

물론 전염병의 진행은 이 살인의 손길보다 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네 사람 모두 떨며, 공포에 눈이 휘둥그레져, 죽음의 비명이 아직 진동하는 빛의 깊이 속을 응시하고 있다. 누가 죽었는가? 아니면 누가 죽으려 하는가? 이제 그 마지막 신음을 새어 내는 입술은 누구의 것인가? 빛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 마치 낮의 빛 그 자체가 한탄하고 숨을 쉬는 듯하다.

가장 무서워하는 이는 룰타비유였다. 나는 그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인간을 초월한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가 죽음의 비명을 듣고 어둠 속의 위험으로 돌진하며, 영웅적인 구원자처럼 암흑의 바다로 뛰어든 모습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은 정오의 찬란한 햇살 아래서 이렇게 떨고 있을까?

그는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는 스스로를 상황의 주인처럼 행동하겠다고 주장했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비겁해 보인다. 그는 그 순간, 즉 누군가가 정오의 빛 속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때 안뜰을 지나가던 마토니도 그 비명을 들었다. 그는 달려왔지만, 룰타비유의 손짓 하나에 문설주 아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보초처럼 굳어 버렸다. 이제 젊은이인 룰타비유는 신음 소리 쪽으로 걸어간다. 정확히 말하면 신음 소리의 중심을 향해 간다. 신음 소리는 우리를 감싸고, 불타는 듯한 공간 안에서 우리 주변으로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숨을 죽이고 팔을 뻗은 채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부딪힐까 봐 조심하며 더듬어 갈 때 하는 그 자세로.

아, 우리는 경련이 일어난 곳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었다. 유칼립투스 나무의 그림자를 지나쳤을 때, 우리는 그 그림자 끝에서 경련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최후의 고비를 넘기는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몸을 우리는 알아봤다.

베르니에! 베르니에가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숨이 막혀오던 그는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힘을 짜내어 두 단어를 던졌다.

"프레데리크 라르상!"

그리고 그의 머리가 다시 떨어졌다. 프레데리크 라르상! 프레데리크 라르상! 그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늘 그가 있지만, 정작 그는 어디에도 없다! 또다시 그의 흔적이 남았다. 시체 하나는 있지만, 합리적으로 보아 그 시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곳에서 살해가 자행된 곳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네 명 모두 서 있던 그 작은 문이었다. 우리는 죽음의 비명이 터지는 순간, 네 명 모두 한 순간에 뒤를 돌았다. 너무 빠르고, 너무 빠르게 뒤를 돌았기에, 우리는 죽음의 손짓을 보았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빛밖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나는 우리가 같은 충동에 이끌린 듯이, 문이 열린 채로 남아 있던 사각 탑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늙은 밥의 거실, 빈 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방의 문을 열었다. 늙은 밥은 평온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실크해트가 씌워져 있었고, 옆에는 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베르니에 부인이었다.

진실로, 그들은 얼마나 평온한가! 그러나 불행한 남자의 아내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곧장 닥쳐올 재앙을 직감하며 비명을 지른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보고 싶어 한다. 알 수 없는 어떤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녀를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다. 그녀는 탑을 빠져나와 시체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정오의 맹렬한 햇살 아래, 피를 흘리는 시체 곁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다.

우리는 그곳에 누워 있는 남자의 셔츠를 찢어 벗겨냈다. 그리고 심장 아래쪽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다. 룰타비유가 일어났다. 그는 글랑디에에 와서 놀라운 시체의 상처를 조사할 때 보여 주던 그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같은 칼자국이군. 치수까지 똑같아."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칼은 어디에?"

우리는 온갖 구석을 뒤졌지만 칼은 찾을 수 없었다. 범인이 칼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런데 범인은 누구인가? 대체 어떤 사내란 말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베르니에는 죽기 전에 무언가를 알았다. 아니, 그가 죽은 이유도 바로 그 '알고 있는 것' 때문일지도 모른다.

프레데리크 라르상!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죽은 자의 두 단어를 반복했다.

그때 갑자기 포탈 문턱에 갈리치 공작이 나타났다. 그는 손에 신문을 쥐고 있었다. 공작은 신문을 읽으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얼굴에는 희롱하는 듯한 미소가 감돌았다.

하지만 에디트 부인이 그에게 달려가 신문을 빼앗더니,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내가 방금 살해당했어요. 경찰을 부르세요."

갈리치 공작은 시체를 바라보았다. 우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경찰을 부르러 가는 길이었다.

베르니에 부인은 신음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룰타비유는 우물가에 앉아 버렸다. 그는 온 힘을 다 써 바닥난 듯했다. 그는 에디트 부인에게 낮게 속삭였다.

"경찰을 부르시죠, 부인. 당신이 원하신 일입니다."

에디트 부인은 검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룰타비유를 증오했다. 그가 잠시 동안이라도 그녀로 하여금 늙은 밥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베르니에가 살해당했을 때, 늙은 밥은 자기 방에 있지 않았던가. 베르니에 부인 자신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이다.

룰타비유는 지친 듯이 우물 입구를 다시금 살폈다. 잠금 장치는 여전히 온전하게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우물 가장자리에 드러누웠다. 마치 오랜만에 쉴 수 있는 침대라도 되는 양이었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경찰한테는 뭐라고 하세요?"

"모두요."

에디트 부인은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단어를 뱉어냈다. 룰타비유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내 눈을 감았다. 그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패배한 자의 모습으로 보였다.

로베르 다르자크 씨가 다가와 룰타비유의 어깨를 툭 쳤다. 다르자크는 사각 탑, 테메레르의 탑, 성채, 그리고 그 안뜰의 모든 부속 건물을 수색하려 했다. 그 안뜰에서는 아무도 탈출할 수 없었고, 논리적으로 보아 살인자가 여전히 숨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기자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만류했다.

룰타비유와 나, 우리가 뭘 찾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글랑디에에서, 물질의 분해 현상 이후, 불가해한 복도에서 사라진 남자를 찾았던가? 아니! 아니! 이제 나는 라르상을 눈으로 더 이상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우리 뒤편에서 누군가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그가 일격을 맞으며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돌아섰지만,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보려면 눈을 감아야 한다, 지금 룰타비유가 하듯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눈을 떴다. 새로운 기운이 그를 일으켰다. 그는 일어서더니,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말도 안 돼!" 그가 외쳤다. "그렇다면 이성에 더 이상 통할 구석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야!"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내 네 발로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코를 땅에 바짝 대고, 발치에 떨어진 자갈 하나하나를 냄새로 더듬었다. 그는 시신과, 사람들이 남편의 시신에서 떼어놓으려 해도 소용없던 베르니에 부인 주위를 맴돌았고, 우물 주변을 돌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정말 그 말이 딱 들어맞았다. 그는 진흙탕에서 먹이를 찾는 돼지처럼 굴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멍하니, 그러나 불길한 눈빛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어느 순간,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땅의 먼지 한 줌을 집어 들어 공중으로 뿌리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마치 그 재에서 라르상의 찾아볼 수 없는 형체가 나타날 것처럼 말이다.

젊은이는 이제 또 어떤 승리를 신비에 대해 거둔 것인가? 지금 그에게 어떤 자신감이 찾아온 것인가? 어느 것이 그에게 목소리의 울림을 되돌려준 것인가?

그는 다시 평소의 톤으로 돌아와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에디스 부인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경찰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곧 올 겁니다!"

불쌍한 여자가 몸을 떨었다. 그 아이는 다시금 그녀를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그래, 오게!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하게! 우리를 대신해 생각하게! 어쩔 수 없지! 정말 어쩔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에디스 부인이 내 팔을 꽉 잡으며 외쳤다.

그때, 성문 아래로 자크 아저씨가 나타났다. 뒤로는 경관 세 명이 따랐다. 몰토라 지휘관이 이끄는 두 명의 경관들이었다. 갈리치 공작의 통보로 그들은 사건 현장으로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경관들! 경관들이라고! 범죄가 있었다고 하더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크 아저씨가 소리쳤다.

"진정하세요, 자크 아저씨!" 룰타비유가 소리쳤다. 숨이 턱에 찬 문지기에게 다가가자, 기자는 낮게 속삭였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크 아저씨."

하지만 자크 아저씨는 베르니에의 시체를 보고 말았다.

"시체가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죠."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라르상이에요!"

"운명입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라르상, 운명. 둘은 같은 말이다. 하지만 룰타비유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르니에의 시체가 우연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스 부인과 나 모두 두려워하고, 전율하며, 아직 알지 못하는 일들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뜻밖에는 없다.

경찰관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투덜거림으로 가득한 채로 서 있었다. 지휘관이 우리에게 다가와 소식을 전했다.

그곳에서 가까운 곳의 가리발디 여관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바로 빈티미유 역 델레가토, 즉 특별 경찰위원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가 수사를 시작할 차례다. 이어 예심판사가 이어받아 조사할 것이다. 예심판사 역시 이미 이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그때 델레가토가 도착했다. 그는 아직 점심을 다 먹지 못했지만, 기분이 매우 좋았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범죄가, 헤라클레스의 성에서!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치 중요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지휘관에게 성 문에 병사 한 명을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누구도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시체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한 명의 헌병이 베르니에 부인을 끌고 갔다. 그녀는 사각탑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부짖었다. 델레가토는 상처를 살폈다. 그는 매우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이건 정말 멋진 칼질이군!" 이 남자는 매우 만족해했다. 만약 그가 범인을 손에 넣었다면, 분명히 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

을 것이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를 자세히 관찰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 범인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자신의 감탄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이미 이 끔찍한 사건이 자신의 것이 될 것 같은 기쁨을 맛보며, 그는 독려하는 어조로 말했다. "믿을 수 없군요! 정말 믿을 수 없다!"

"내가 이 델레가토로 부임한 지 5년째인데, 살인 사건이 한 건도 없었어!"

"예심판사가…"

그가 말을 멈추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어갔다. "예심판사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는 무릎을 덮고 있는 하얀 먼지를 손으로 털어냈다. 이마의 땀을 닦으며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믿을 수 없다!" 남부 프랑스 사투리가 그 기쁨을 두 배로 부풀렸다.

하지만 그가 안뜰로 들어서는 새로운 인물을 알아보았다. 멘톤 출신의 의사였다. 그는 바로 늙은 밥을 계속 돌보기 위해 도착한 참이었다.

"아, 의사 선생님! 딱 좋은 때에 오셨네요. 이 상처를 좀 살펴봐 주시고, 이런 칼날이 남긴 상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특히, 예심판사가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시신의 위치를 조금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의사가 상처를 살피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들려준다. 의심의 여지는 없다. 바로 그 날카로운 칼날이 아래에서 위로, 심장 부위로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칼끝은 심실의 한쪽을 찢었을 게 분명하다.

델레가토와 의사가 담소를 나누는 사이, 룰타비유는 에디스 부인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내 팔을 끌어안고, 나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룰타비유의 시선을 피했다. 룰타비유의 시선은 그녀를 마취하듯 사로잡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말하고 싶은 간절한 의지로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델레가토의 간청에 따라 우리는 모두 사각탑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늙은 밥의 거실로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수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차례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베르니에 부인이 먼저 심문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미친 듯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늙은 밥의 방에 갇혀 있어 부상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시간 이상 그곳에 있었는데, 밧줄을 꼬던 남편을 사각탑의 초소 방에 남겨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오가는 말보다는, 내가 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이 간다.

그녀는 입을 열까? … 그녀는 열린 창밖을 끈질기게 응시한다. 한 명의 헌병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시신 곁에 남아 있다. 에디스 부인은 나처럼, 델레가토 앞의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시신 주위를 맴돈다. 델레가토의 외침 소리는 우리의 귀를 찌른다. 우리가 저마다 진술을 해 나갈수록, 이탈리아 경찰위원의 놀람은 점점 더 불안한 수준으로 커져만 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살인을 점점 더 믿기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 그는 곧 그것을 불가능한 일로 여길 뻔했다. 그때가 바로 에디스 부인이 심문을 받는 차례가 되었을 때였다.

그녀가 심문을 받는다… 그녀는 이미 대답하려고 입을 열려던 찰나, 룰타비유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칼립투스 그림자 끝을 보세요."

"유칼립투스 그림자 끝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델레가토가 물었다.

"살인 도구입니다!"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안뜰로 뛰어내렸다. 피로 물든 다른 돌멩이들 사이에서, 빛나고 뾰족한 돌 하나를 주워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눈앞에 들어 올렸다.

우리는 그 돌을 알아봤다. 바로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긁개'였다.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갈리치 공작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기를 노부 Bob이 공작에게서 훔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베르니에가 죽기 직전 라르상을 자신의 살인자로 지목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었다.

룰타비유가 베르니에의 피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굵개 하나를 주워 올린 이후, 우리 불안한 마음속에서 노부 Bob의 모습과 라르상의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겹쳐졌다.

에디스 부인은 즉시 깨달았다. 노부 Bob의 운명이 이제 룰타비유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룰타비유가 데레가토에게 단 몇 마디만 말하면 되었다. 로메오와 줄리엣 동굴에서 노부 Bob이 떨어진 사건과 관련된 기이한 정황을 열거하고, 노부 Bob과 라르상이 실은 동일인물일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이유를 늘어놓은 뒤, 마지막으로 라르상의 마지막 희생자가 남긴 고발을 되풀이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모든 법적 의심을 가발을 쓴 지질학자의 머리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디스 부인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조카로서, 현재의 노부 Bob이 바로 자신의 삼촌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치명적인 굵개를 통해, 보이지 않는 라르상이 노부 Bob의 파멸을 위해 모든 요소를 모아놓고 있음을 이해했다. 라르상은 아마도 노부 Bob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처벌과 함께, 위험한 자신의 존재감을 짊어지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에디스 부인은 노부 Bob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떨었다. 그녀는 이 그물 한가운데서, 막 걸려버린 곤충이 거미줄 한복판에서 떨듯 공포에

질렸다. 이 거미줄은 라르상이 직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실들이 헤라클레스 성의 낡은 벽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입술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둘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더러운 맹수 같은 라르상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들을 삼키려 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침묵했다. 이제는 그녀 차례로 룰타비유가 말을 꺼낼까 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나중에 이 드라마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라르상에 대한 공포가 우리가 그토록 강하게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컸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미소 짓게 했던 공포스러운 이야기 속의 늑대 인간이었던 라르상은, 이후 노란 방 사건에서 법이 그의 출구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를 흥미롭게 만들었다. 이어 사각탑 사건에서 그의 진입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를 열정적으로 사로잡았다.

하지만 지금, 정오의 햇살 아래에서 라르상은 그들의 눈앞에서 살인했다. 오직 그녀와 로베르 다르자크, 룰타비유, 생클레르, 노부 Bob, 그리고 베르니에 부인만이 있던 공간에서였다. 그들은 모두 시체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 베르니에를 치지 못했을 위치였다.

그리고 베르니에는 라르상을 지목했다!

라르상은 어디에 있었는가? 누구의 몸속에 있었는가? 내가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회랑' 이야기를 해주며 가르쳐 준 논리로 생각해보자.

그녀는 다르자크와 나 사이에 있었고, 룰타비유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유칼립투스 나무 그림자 끝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을 때, 그것은 불과 7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노부 Bob과 베르니에 부인은 서로를 떠나지 않았다. 부인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이 두 사람을 논리에서 제외한다면, 베르니에를 죽일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남지 않는다.

이번에는 단순히 그가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넘어,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 그녀는 깨달았다. 라르상을 생각할 때, 골수까지 떨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었다. 그 시체 주변에는 늙은 밥이 훔쳐온 돌칼 말고는."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단서였다.

그녀는 룰타비유와 로베르 다르자크의 눈빛과 태도에서 그 확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룰타비유가 첫마디를 뱉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지금 당장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늙은 밥이 법정의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룰타비유는 당시 delegato와 막 도착한 조사 판사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긁는 도구'를 손에 쥔 채, 치밀한 추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시체 주변에는 이미 내가 앞서 열거한 생존자들 외에는 다른 용의자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 확고하게 밝혀진 상태였다. 그런데 룰타비유는 조사 판사를 기쁘게 하고 delegato를 절망에 빠뜨릴 만큼 빠른 논리력으로,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범인은 죽은 자 자신, 즉 Bernier 본인임을 증명해 보였다.

포털의 네 생존자와 Bob의 방에 있던 두 생존자는 서로를 감시하며 눈을 떼지 않았다. Bernier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행방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살해자는 필연적으로 Bernier 자신이어야 했다.

이 말에 매우 흥미를 느낀 조사 판사는 우리에게 Bernier가 자살을 꾀했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해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룰타비유는 대답했다. 죽기 위해 반드시 범죄나 자살을 택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한 사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가 아이러니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긁는 도구'라고 부른 살해 도구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고임을 증명했다. 룰타비유는 이 낡은 돌을 이용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살해한 범인을 상상할 수 없었다. 더구나 Bernier가 자살을 결심했다 한들, 죽기 위해 구석기인들의 칼 말고 다른 무기를 찾지 못했으리라고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반면에, 만약 이 이상한 모양의 돌이 Bernier의 시선을 끌었고, 그가 그 돌을 주워 들고 있었다가 넘어졌다면, 그 드라마는 매우 간단하게 설명된다.

Bernier는 그 끔찍하게 삼각형인 돌에 너무 불행하게도 떨어졌고, 그 돌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의사가 다시 불려 왔고, 상처가 재확인되었으며, 치명적인 그 돌과 대조되었다. 그 결과 과학적 결론이 도출되었으니, 바로 그 물체에 의한 상처라는 것이었다.

룰타비유의 논증 이후, 사고로 결론 내리는 것은 불과 한 걸음의 차이였다. 판사들은 그 한 걸음을 건너는 데 여섯 시간이 걸렸다. 그 여섯 시간 동안 판사들은 지칠 줄 모르고 우리를 심문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에디트 부인과 나, 이 두 사람은 쓸모 없는 번거로움과 헛된 추궁 끝에, 의사들이 노부 Bob을 치료하는 동안, 그가 머무는 방 앞에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법관들이 막 떠난 곳이었다.

거실 문은 사각 타워의 복도로 이어져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수위실로 옮겨진 남편의 시신을 지키던 베르니에 부인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사실, 이 시신과 의문의 부상을 입은 보, 이 둘은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룰타비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디트 부인과 나의 상황은 솔직히 말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의 공포는, 우리가 앞으로 목격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절망적인 두려움과 맞물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두 배로 증폭되고 있었다.

에디트 부인이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았다.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녀가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제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갈리치 공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남편에게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가 남긴 쪽지에는 툴리오를 찾아갔다고 적혀 있었어요. 란스 씨조차 아직 베르니에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바다의 처형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저는 진실을 '바다의 처형인'과 툴리오에게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 한 통조차 오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 순간, 그녀가 나를 그렇게도 신뢰하며 내 손을 잡았을 때였다. 잠시나마 그녀의 손에 내 손을 맡긴 채로, 나는 에디스 부인에게 온 마음

을 다 바치기로 했다. 그녀가 나의 전적인 헌신을 믿어도 된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몇 마디 잊을 수 없는 대화를 나눴다. 낮은 목소리로, 안뜰을 오가며 지나가는 법조인들의 그림자 사이에서였다. 그들은 때로는 룰타비유와 다르자크 씨 앞에 섰고, 때로는 그 뒤를 따랐다.

룰타비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쪽으로 한 번씩 시선을 던졌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오, 그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군요!" 에디스 부인이 말했다. "훌륭하군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 그와 다르자크 씨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생클레르 씨?"

"룰타비유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합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개입과 침묵 덕분에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긁개'에 관한 한 말이죠. 만약 판사들이 이 돌칼이 당신의 삼촌인 노부 Bob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황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베르니에가 죽으면서 라르상을 지목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그 사고의 진실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말에 힘을 실어 주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녀가 격렬하게 반박했다. "당신의 친구가 침묵하는 데에는 나만큼이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직 하나, 단 한 가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네, 맞아요. 저는 오직 한 가지 일만 무서워합니다…"

"무엇이요? 무슨 일이죠?"

그녀는 초조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제 삼촌을 법의 심판에서 구해낸 것이, 오히려 그를 더 철저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계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다니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방금 전에도 당신의 친구들의 눈빛에서 그런 의도를 읽은 것 같았거든요! 만약 제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진정하는 듯했다. 어리석은 추측을 떨쳐내려는 듯 하더니, 다시 나에게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죽는 날까지 그를 변호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드레스 아래에서 작은 리볼버를 꺼내 내게 보였다.

"아! 갈리치 공작이 왜 없단 말인가!" 그녀가 외쳤다.

"또 그 이야기냐!"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이 나를 변호해 주기로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뚫어보듯 깊이 파고들었다.

"물론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라도?"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전 세계를 상대로라도?"

"당신의 친구를 상대로도?"

"필요하다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손으로 닦았다.

"좋소. 당신을 믿겠소." 그녀가 말했다. "그럼 잠시 이 곳에 남아 주시오.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소."

그녀는 나를 향해 밥 영감이 누워 있는 문 쪽을 가리켰다.

"저 문을 지켜 주시오."

그리고 그녀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어디로 갔을까? 나중에 그녀가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갈리치 공작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아, 여자여, 여자여……

그녀가 포털 아래로 사라지자마자, 나는 룰타비유와 다르자크 씨가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룰타비유가 내 쪽으로 다가와, 내가 배신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배신이라니, 너무 큰 소리입니다, 룰타비유." 내가 말했다. "저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는 습관이 없습니다. 에디트 부인은 정말 불쌍한 분이고, 친구여, 당신은 그녀를 충분히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귀끝까지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곧 폭발할 뻔했다. 하지만 룰타비유가 단호한 손짓으로 내 말을 끊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요구할 뿐입니다. 당신도 알겠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다르자크 씨와 저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쉬운 일이야!" 나는 어리석게도 화가 난 목소리로 되받았다. 그러고는 등만 돌렸다.

그가 자신의 화난 말을 다시 거두려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았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재판관들이 샤또 누프(Château Neuf)에서 나와 우리를 불렀다. 조사가 끝난 것이다. 의사 진술을 들은 뒤로, 그들에게 있어 그 사고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이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이제 샤또를 떠나는 참이었다.

다르자크 씨와 룰타비유는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나섰다.

나는 여전히 테메레르(Cour du Téméraire) 안뜰을 내려다보는 창문에 팔꿈치를 괴고 서 있었다. 온갖 불길한 예감이 밀려오고, 에디트 부인의 귀환을 점점 더 큰 불안감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내 몇 발자국 옆, 자택의 작은 방에서 두 개의 장례용 촛불을 밝힌 베르니에 부인은 남편의 시체 곁에서 신음하며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읊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녁 공기 중에,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대한 종소리 같은, 마치 청동으로 된 비명 같은 굉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룰타비유가 철문들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분이 지나기도 전에, 에디트 부인이 질겁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나를 향해, 오직 나만이 유일한 피난처인 양 내달렸다.

그리고 다르자크 씨가 나타났다.

그리고 룰타비유가 나타났다. 그의 팔에는 검은 옷 부인이 감겨 있었다.

룰타비유와 검은 옷 부인이 사각탑 안으로 들어섰다. 룰타비유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숙했다. 만약 이 비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더라면, 그 태도는 웃음을 자아냈을 것이다. 하

지만 그렇지 않았다. 자줏빛 법복이나 흰 담비 모피를 끌고서, 피고인이 기다리는 법정에 그보다 더 위협적인 위엄을 띠고 들어선 판사나 검사는 일찍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그 어느 판사도 그토록 창백하지는 않았으리라.

검은 옷 부인은 분명히 자신의 공포를 감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토록 혼란스러운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포가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했다. 젊은 동행자의 팔을 초조하게 쥐고 있는 그녀의 감정도 숨기려 했다.

로베르 다르자크의 얼굴도 어둡고 단호했다. 그는 정의로운 심판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테메레르 뜰에 자크 영감, 월터, 마토니가 나타난 것이었다. 세 사람 모두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사각탑의 정문 앞에 섰다.

룰타비유가 그들에게 군인처럼 복종하는 태도로 명령을 내렸다. "누구도 옛 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에디트 부인은 공포에 질려 마토니와 월터에게 물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매우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위협받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에디트 부인은 용감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밥 영감의 살롱으로 이어지는 문 앞에 서서 몸을 가로막았다.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은 채, 쉰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뭘 하려는 거요? 그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마담." 룰타비유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재판관이 처형인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베르니에 영감의 시체 앞에서 맹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은 뒤, 우리 모두에게 무기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말입니다."

그는 우리를 장례식장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베르니에 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긁개'에게 남편을 잃은 채, 여전히 남편의 시체 곁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우리는 총을 모두 벗어던졌다. 룰타비유가 요구한 맹세를 했다.

에디트 부인만은 총을 내려놓는 데 난색을 보였다. 룰타비유는 그녀가 옷 속에 숨겨둔 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가 이 무장 해제가 그녀를 오히려 안심시켜 줄 것이라고 설득하자, 그녀는 결국 동의했다.

룰타비유는 다시 검은 옷 부인의 팔짱을 끼고, 우리 모두의 뒤를 이끌어 복도로 돌아왔다.

우리는 그가 밥 영감의 거처로 향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불필요한 시체'가 있는 방으로 통하는 문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는 이미 언급한 특별한 작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다르자크 씨 부부의 옛 거처로 들어선 우리는 깜짝 놀랐다. 다르자크 씨의 책상 위에는 그가 옛날 밥 영감과 함께 테메레르 안뜰의 서재에서 작업하던 시절의 그림판과 채색 작업 도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붉은 물감이 든 작은 병과 그 속에 담가 두었던 작은 붓도 있었다.

그리고 책상 한가운데에는, 피 묻은 턱을 받치고 앉은 듯 놓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두개골이 있었다.

룰타비유는 빗장을 잠그며 문을 닫았다. 우리는 경악한 나머지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앉으십시오, 여러분."

의자들이 테이블 주변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오히려 극심한 불신에 사로잡혔다고 해야 할까.

익숙한 것들, 즉 화가들이 자주 쓰는 도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예감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가장 무서운 비극의 치명적인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해골이 마치 늙은 밥처럼 웃는 듯했다.

"여기, 이 테이블 근처에 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따라서 사람도 하나 부족하죠. 바로 아서 란스 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늙은 밥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준비 작업으로 가장 당황해하던 에디트 부인이 말했다. "다르자크 부인, 저와 함께 이 신사분들께 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행동도 취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시다!"

검은 옷 부인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에디트 부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복도 문 뒤에서 거친 소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아서 란스의 목소리가 우리를 향해 '지금 당장 열어달라'고 애원하듯 울려 퍼졌다. 그는 비명처럼 외쳤다.

"루비 머리핀을 가져왔소!"

룰타비유가 문을 열었다.

"아서 란스! 드디어 오셨군요!"

에디트 부인의 남편은 절망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또 무슨 불행이 닥친 거야? 아, 철문이 닫힌 걸 보고 탑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들려오자,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할까 봐 정말 겁이 났어. 정말로 너희가 늙은 밥을 처형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때 룰타비유는 아서 란스 뒤에서 빗장을 낀 문을 다시 닫았다.

"늙은 밥은 살아 있고, 베르니에 영감은 죽었소. 앉으시오, 선생님." 룰타비유가 정중하게 말했다.

아서 란스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 앞을 둘러보았다. 도면판, 물감 통, 그리고 피투성이 된 해골이 놓여 있었다.

"누가 죽였소?"

그제야 그는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검은 옷 부인을 향하고 있었다.

"베르니에가 죽기 전에 프레데리크 라르상을 고발했습니다." 다르자크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서 란스 경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가 늙은 밥을 고발했다는 말이냐? 나는 더 이상 그런 말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도 우리 사랑하는 삼촌의 정체성에 대해 잠시 의심한 적이 있지만, 나는 다시 한 번 말하마. 나는 이 작은 루비 머리 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루비 머리핀으로 무엇을 말하려던 걸까?

나는 에디스 부인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사건이 일어난 밤, '불필요한 시체' 사건 때였다. 에디스 부인은 늙은 밥이 그녀에게서 그 머리핀을 빼앗았다고 했다. 그녀가 그 핀으로 장난 삼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머리핀과 늙은 밥의 사건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서 란스는 우리가 묻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그 작은 머리핀이 늙은 밥과 함께 사라졌으며, 방금 바다의 처형수에게서 찾아냈다고 알려주었다.

처형수는 그 머리핀으로 한 무더기의 지폐를 묶고 있었다. 그 지폐들은 그날 밤, 삼촌이 툴리오에게 건넨 돈이었다. 툴리오는 삼촌을 로미오와 줄리엣 동굴 앞까지 배로 태워다 주었고, 새벽녘에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승객이 돌아오지 않아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아서 란스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 남자가 자신의 보트 안에서 다른 남자에게 루비 머리핀을 건넸다면, 그와 동시에 감자 주머니에 싸여 사각탑 바닥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에디스 부인이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산레모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툴리오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그곳에 있다는 그의 주소를 알려 주는 익명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보낸 거예요." 룰타비유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냉랭한 어조로 덧붙였다.

"선생님들, 아서 란스 씨가 이렇게 빨리 돌아와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시체'의 가능성을 신체로 증명해 보여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성의 모든 손님들이 이 테이블 주위에 모두 모이게 되었군요. 다들 집중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서 란스가 그를 다시 막아섰다.

"'불필요한 시체'의 가능성을 신체로 증명해 보여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손님들이라니,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룰타비유가 선언했다. "우리들 가운데 라르상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뜻합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검은 옷의 부인이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녀가 숨소리처럼 간신히 탄식했다. "라르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룰타비유가 말했다.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기도 두려웠다.

보도 기자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당신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담. 그 생각은 당신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검은 안경'을 쓴 이들이 무모자의 탑 테라스에서 점심을 먹던 날, 그 생각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에디스 부인을 제외하고는, 그 순간 라르상의 존재를 느끼지 않은 이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은 스탕제르송 교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서 란스가 즉시 반박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시작했으니, 왜 그 점심을 함께한 교수님이 이 작은 모임에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군요."

"란스 씨!" 검은 옷 부인이 외쳤다.

"네, 죄송합니다." 에디스 부인의 남편이 부끄러운 듯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룰타비유가 잘못했습니다. 성의 모든 손님을 일괄적으로 단정지으며 '헤르쿨레스 성의 모든 손님'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스탕제르송 교수는 정신적으로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룰타비유가 어린아이 같은 경건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몸이 필요 없습니다. 비록 스탕제르송 교수가 헤르쿨레스 성에서 우리 곁에 있었지

만, 그는 결코 '우리'와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라르상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를 눈치껏 살폈다. 라르상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도 터무니없어서, 나는 룰타비유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을 잊고 말았다.

"하지만 검은 안경을 쓴 사람들의 점심 식사에는, 여기 보이지 않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룰타비유는 나를 찌르는 듯한 눈초리로 내다보며 불쾌한 소리를 내뱉었다.

"또 그 갈리치 공작이요! 생클레르 씨,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작이 이 국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공작이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이 겪고 있는 불행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공작은 자신의 인도주의적 임무에 전념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건 모두 추리가 아니에요," 내가 다소 날카롭게 지적했다.

"바로 그거예요, 생클레르 씨. 당신의 수다 때문에 제가 추리를 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한 번 달아오른 기세를 꺾지 못했다. 에디스 부인에게 늙은 밥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잊은 채, 나는 그를 공격하는 재미에 사로잡혔다. 룰타비유가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에디스 부인은 그 일로 오랫동안 나를 원망했다.

"늙은 밥도 검은 안경 낀 자들의 점심을 함께했다"고 내가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작은 루비 머리핀 때문에 그를 즉시 추리에서 배제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루비 머리핀은 늙은 밥이 툴리오와 합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툴리오는 늙은 밥의 말대로, 바다와 우물을 연결하는 갱도 입구에 자신의 배를 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작은 루비 머리핀은 늙은 밥이 어떻게 우물 쪽으로 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늙은 밥이 말하길, 그는 우물 쪽으로 향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물이 외부에서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룰타비유가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너무도 엄격해서 나는 당황할 지경이었다.

"바로 당신이 그걸 그렇게 발견한 거잖소! 하지만 나는 우물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소! 나는 당신에게 마토니와 자크 아저씨에게 소식을 알아오라고 보냈소. 당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이 '무모자의 탑'에 있었소. 하지만 그 사이에 나는 우물까지 달려가 그것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

"그리고 다시 닫았다고요!" 내가 외쳤다. "도대체 왜 닫았소? 누구를 속이려던 거요?"

"당신을요, 선생님!"

그 두 마디는 경멸이 너무도 거세게 튀어나와, 내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타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시선이 내 쪽으로 쏠려 있었다. 다르자크 씨 앞에서 룰타비유가 나를 대했던 그 야만적인 태도가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눈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끔찍한 느낌을 받았다.

맞다. 나는 '내가 라르상일 수도 있다'는 악몽 같은 공통의 의심에 휩싸인 것이다.

나? 라르상?

나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룰타비유조차, 내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시선에는 온몸의 격분한 항변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피 속으로 뜨거운 분노가 달리기 시작했다.

"아, 이거 참! 나는 소리쳤다. 끝내야 한다. 만약 늙은 밥이 제외되고, 갈리치 공작이 제외되며, 스탕제르송 교수가 제외된다면, 남은 건 우리뿐이다. 우리는 이 방에 갇혀 있다. 만약 라르상이 우리 중 한 명이라면, 룰타비유, 그를 밝혀라!"

그리고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 젊은이가 나를 꿰뚫어 보는 눈빛 때문에 나는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고 예의도 잊은 상태였다.

"그를 밝혀라! 이름을 대라! 너는 법원에서도 이렇게나 느리더냐!"

"법원에서 내가 그렇게 느리게 움직일 만한 이유가 없었나요?" 그는 동요하지 않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럼 또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려는 거야?"

"아니요.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노라, 내가 맹세합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어째서 이렇게 위협적이었을까? 그는 정말로, 정말로 라르상이 내 안에 있다고 믿었단 말인가?

그때 나의 시선은 검은 옷 부인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룰타비유," 나는 목이 메어 소리쳤다. "당신은…… 당신도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도 의심하지 않나요!"

그 순간, 사각탑 근처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기자가 세 남자에게 내린 명령, 즉 사각탑에서 벗어나려 하는 자는 누구든 사살하라는 지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에디스 부인

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움직이지도 않던 룰타비유가 한 마디로 그녀를 진정시켰다.

"만약 그를 향해 총을 쏘았다면, 그 세 남자도 총을 쏘았을 것이다. 그 총성은 단지 신호일 뿐이다. '시작하라'고 나에게 지시하는 신호 말이다."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생클레르 씨, 저는 '이성의 건전한 부분'에 먼저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제 길을 걸을 때 결코 저를 버리지 않는 튼튼한 지팡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지팡이에 함께 의지해 줄 것을 권합니다."

"라르상이 여기,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성의 건전한 부분이 그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앉으십시오. 그리고 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제가 이 종이에 '불필요한 존재'의 실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다. 문에 달린 빗장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서 컴퍼스를 집어 들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 시연해 보려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그 증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릴 테니까요."

그는 컴퍼스를 이용해 다르자크 씨의 도면에서 원을 그렸다. 그 원은 '용감한 자의 탑'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는 그 원의 반지름을 재자마자, 곧바로 깨끗한 백지 위에 같은 크기의 원을 그려 넣었다. 그 종이는 구리 핀으로 도면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원이 완성되자 룰타비유는 컴퍼스를 내려놓고 붉은 물감이 든 작은 통을 집어 들었다. 그는 다르자크에게 물었다. 그 물감이 다르자크의 것인지를.

다르자크는 물론 우리 모두처럼, 젊은이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 물감을 만들어서 반도 지형도를 색칠하는 데 썼다고 대답했다.

통 바닥의 물감은 절반쯤 말라 굳어 있었다. 하지만 다르자크의 말에 따르면, 남아 있는 절반은 반도 지형도 위에 바르면 그가 색칠했던 것과 거의 같은 색조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거기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룰타비유가 매우 진지한 어조로 재차 말했다. "이 페인트는 물 한 방울로만 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통 안의 물이 한 방울 더 많든 적든, 제 논증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붓을 페인트에 적셨다. 그리고 미리 그려놓은 원 안의 공간을 모두 '채색'할 준비를 했다. 그는 아주 꼼꼼하게, 아니

세심하게 그 작업을 시작했다. 그 세심함은 이미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용감한 자의 탑'에서 살인이 자행되는 동안에도 오직 그림을 그리기에만 몰두했던 그때의 그를 보며 나는 큰 충격을 받았었다.

작업을 마친 그는 거대한 양파 모양의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한 뒤 말했다.

"보십시오, 숙녀 여러분, 신사 여러분. 제 원 위에 칠해진 페인트 층은 다르자크 씨 원 위에 칠해진 것과 두께나 색조가 거의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다르자크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잠시만요." 기자가 재촉했다. "이 도면과 페인트는 모두 당신의 작품이 맞습니까?"

"글쎄요. 돌아와서 보니 상태가 꽤 엉망이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구 보브의 서재로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구 보브가 자신의 두개골을 그 도면 위에서 굴려서 내 그림을 온통 더럽혀놓았거든요."

"이제야 알겠군요!" 룰타비유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그는 책상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두개골을 들어 올렸다.

두개골을 뒤집어 들고, 그는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온통 붉게 물든 턱뼈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이 턱뼈에 묻은 붉은 기운이, 당신의 도면에서 지워졌던 바로 그 붉은 색과 다름없다는 게 당신의 생각 맞습니까?"

"당연하지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감한 자의 탑'에 들어섰을 때, 두개골은 여전히 도면 위에 엎드려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같은 생각인 셈이군요."

기자가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두개골을 팔 아래에 꼭 안고 벽의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넓은 창문으로 비춰지고 있었는데,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다. 이곳은 원래 대포를 쏘던 구멍이었고, 다르자크 씨가 세면실로 개조한 곳이었다.

그는 성냥을 하나 긁어 불을 붙였다. 그리고 작은 탁자 위에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켰다. 그 램프 위에는 미리 물을 채워둔 냄비를 올려놓았다.

그는 두개골을 팔 아래에서 놓지 않았다.

이상한 요리 행위가 계속되는 내내, 우리는 그를 눈에서 떼지 못했다. 룰타비유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해할 수 없었고, 닫혀 있었으며,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더 많은 행동을 취할수록, 우리는 그를 점점 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중 누군가가 두려워하고 있다

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가장 차분한 사람일 것이다.

가장 차분한 사람, 그것은 룰타비유였다. 그의 두개골과 냄비 사이에서.

하지만 어째서일까? 왜 우리는 모두 갑자기 같은 동작으로 물러났을까? 다르자크 씨는 새로운 공포에 눈이 커졌고, 검은 옷의 여인, 아서랜스 씨, 그리고 나까지, 모두 입에서 한 번의 비명, 한 번의 이름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입술 위에서 사라져 갔다. "라르상!"

우리가 그 얼굴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가? 지금 룰타비유를 바라보는 우리 눈앞에서, 우리는 그 정체를 언제, 어디서 알아챈 것인가?

아! 시작되는 밤의 붉은 그림자 속 그 얼굴. 일출 무렵 살벌한 여명이 그 벽을 붉게 물들였던 그 창틀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이마.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낮의 빛 아래에서는 다정하고, 약간은 신랄하면서도 매혹적이었던 그 단단하고 의지 굳은 턱선.

이제 그것은 저녁의 스크린 위에, 악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또렷이 드러나 있다.

룰타비유는 라르상과 얼마나 닮았는가!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얼마나 닮았는가! 바로 라르상이다!

어머니의 신음소리에 또 한 번 혼란이 일었다. 룰타비유는 우리를 처음 보였을 때, 마치 강도범 같은 표정으로 서 있던 그 어두운 틀에서

벗어나 나왔다. 그는 우리 쪽으로 걸어왔고, 다시 룰타비유로 돌아왔다. 우리는 아직도 그 광경에 전율하고 있다.

라르상을 본 적이 없는 에디스 부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룰타비유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냄비에 담긴 뜨거운 물과 수건, 그리고 자신의 두개골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두개골을 닦고 있었다.

"순간적인 일입니다. 페인트가 사라진 거죠.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는 책상 앞에 서서, 자신의 수채화 그림 앞에서 말없이 응시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손짓으로 침묵을 주문한 지, 십 분쯤 지났습니다. 그 십 분은 정말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었죠.

그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갑자기 그는 오른손으로 해골을 집어 듭니다. 그리고 보울링을 하듯 익숙한 동작으로, 해골을 자신의 그림 위에 여러 번 굴려 댑니다. 그러고는 해골을 우리에게 보여 주며, 붉은 페인트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룰타비유는 다시 시계를 꺼냅니다."

"도면 위의 페인트가 마르려면 15분이 걸렸습니다." 그가 말했다.

"11일 오후 5시, 우리는 다르자크 씨가 외부에서 들어와 사각 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다르자크 씨는 사각 탑 안으로 들어가 방의 빗장을 닫은 뒤, 저녁 6시가 넘어서 우리가 그를 찾으러 왔을 때야 비로소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 보브는 6시가 되어서야 원형 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두개골은 페인트가 전혀 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페인트는 단 15분만 지나면 마른다는데, 어째서 그날은 다르자크 씨가 떠난 지 한 시간도 더 지난 뒤에야 들어온 구 보브가 화가 난 듯이 돌리면서 원형 탑에 들어서며 그림 위에 굴려 버린 그 페인트가 아직 촉촉했을까요?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설명뿐입니다. 다른 해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후 다섯 시에 사각 탑에 들어갔고,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그 '다르자크 씨'는, 오후 여섯 시에 구 보브가 도착하기 전에 원형 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사람과 동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각 탑의 방 안에서 발견했는데,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고, 그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즉,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다르자크 씨'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의 올바른 방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르자크의 현현'이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룰타비유가 다르자크를 바라보았다.

그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 젊은 기자가 펼친 빛나는 논증에 압도된 상태였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공포와 끝없는 감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룰타비유가 말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명확했는가! 명확하면서도 무서웠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 기적적이고 논리적이며 수학적 지성의 흔적을 다시 발견했다.

다르자크가 외쳤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변장한 채로 사각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변장은 분명 내 모습을 그대로 흉내 낸 것이었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옷장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나중에 와서 여기서 편지를 쓰러 왔을 때, 내가 그를 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내가 내 그림을 남기고 용감한 자의 탑을 떠났을 때 말이지. 하지만 어떻게 베르니에 아저씨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단 말인가!"

"그야!" 룰타비유가 대답했다. 그는 검은 옷 부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마치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듯했다. "그야! 그 남자는 정말로 당신을 상대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설명이 되네요. 제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냥 밀기만 하면 문이 열렸던 이유를요. 베르니에 아저씨는 제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아주 정확합니다! 논리가 탄탄하군요." 룰타비유가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다르자크 씨가 나타나셨을 때 문을 열어주신 베르니에 아저씨는,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일은 신경 쓰지 않으셨겠죠. 우리처럼 그 모습을 보지 못하셨으니까요. 정확히 그 순간, 즉 베르니에 아저씨와 함께 성벽 난간에 서서 바르마 그랑드 문턱에서 에디스 부인과 갈리치 공작께 이상하게 몸짓을 하며 말하고 있는 노인 '밥'을 관찰하고 있을 때, 당신은 사각 타워에 도착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다르자크 씨가 다시 물었다. "베르니에 아줌마는 자신의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지 못했고, 내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내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다르자크 씨." 기자가 슬픈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그때, 당신이 지나가던 순간, 정확히 말해 다르자크의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던 순간, 베르니에 아줌마가 제가 그녀의 바닥에 쏟아 놓은 자루에서 감자를 주워 모으고 있었답니다. 그걸 상상해 보세요. 진실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세상에, 살아있어서 다행이로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다르자크 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물쇠를 채워놓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 악당이 제 등 뒤에 숨어 있었다니!" 다르자크가 탄식했다. "그가 저항도 없이 저를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룰타비유가 다르자크 쪽으로 다가섰다.

"그가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룰타비유가 다르자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도 그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르자크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검은 옷 부인의 쪽으로 돌렸다.

룰타비유는 이제 다르자크 씨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다르자크 씨의 어깨를 잡았다.

"다르자크 씨."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다시 맑아졌고, 용기가 가득 차 있었다. "저에게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체'가 어떻게 침투했는지 깨달았을 때, 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요. 오후 5시에 사각탑에 들어왔다고 저희가, 아니 저희 모두—저를 제외하고는 모두—믿었던 그 시간 말입니다."

"그때 저는 의심해 볼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강도가 오후 5시에 다르자크로 위장해 사각탑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르자크가 진짜 다르자크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가짜, 즉 위장한 자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른다고요."

"아, 친애하는 다르자크 씨. 제가 당신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아십니까!"

"미친 소리입니다!" 다르자크가 외쳤다. "내가 사각탑에 들어간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은 건, 그 시간이 내 머릿속에서도 흐릿했고, 나는 그걸 아무런 중요성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르자크 씨." 룰타비유는 대화 상대의 방해, 검은 옷 부인의 동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놀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훔친 자리에 다시 돌아가려 밖에서 찾아온 진짜 다르자크가, 당신의 암중모략과 검은 옷 부인의 지나칠 정도로 충실한 도움으로, 당신의 과감한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라고요. 제 상상이에요, 다르자크 씨, 제 상상이에요.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다르자크 씨, 저는 당신이 라르상이고, 자루에 넣어진 남자가 다르자크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아, 내가 그토록 아름다운 상상을 했었구려! 그리고 전례 없는 의심을!"

"하!" 마틸드의 남편이 낮고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의심했으니까요!"

룰타비유는 다르자크 씨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고, 이미 룰타비유의 상상에 경악하여 쓰러질 듯하던 마틸드에게 말을 걸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세요, 마담."

이번에는 내가 잘 아는, 그의 특유의 '뾰족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학 교수가 정리를 설명하거나 증명할 때 쓰는, 그런 어조로 말이다.

"보십시오, 다르자크 씨. 다르자크의 자취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진짜 다르자크와 라르상을 숨기고 있던 가짜 다르자크, 어느 쪽이 진정인지 가려내야 했죠. 제 의무였습니다. 이성을 바로 세운 자의 의무라고나 할까요. 두려움도, 비방도 없이, 두 자취를 번갈아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공정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당신부터 시작했어요, 다르자크 씨."

다르자크가 룰타비유에게 말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끝내십시오. 이제 라르상이 누구인지 당장 말해 주시오. 내가 원하오. 내가 요구하오!"

"우리 모두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둘을 둘러싸며 외쳤다.

마틸드가 아이에게 달려가 몸을 감싸 안았다. 아이에게 이미 위협이 닥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 광경은 이미 너무 오래 이어졌고, 우리는 참을성을 잃고 있었다.

"그가 안다면 말하면 되지! 끝내자고!"

아서 란스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때였다. 내가 형사재판정에서 들었던 그 조바심 섞인 외침이 떠올랐다. 동시에 사각탑 문밖에서 총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우리는 모두 그 소리에 얼어붙었다.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우리는 정중하게, 아니 진심으로 룰타비유에게 간청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달라고.

이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더 강하게 그를 빌었다. 마치 그에게 매달려 다른 이들, 아니 우리 자신에게까지 우리가 라르상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듯했다.

룰타비유는 두 번째 총성이 울리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온 얼굴이 변했고, 온몸이 거친 에너지로 떨리는 듯했다. 그는 다르자크 씨에게 농담조로 말하던 태도를 버렸다. 그 태도는 우리 모두를 특히나 불쾌하게 했다. 그는 검은 옷 부인이 자신을 보호하려 고집하는 것을 부드럽게 물리쳤다. 그는 문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팔을 교차하며 말했다.

"이런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자크가 들어온 자취가 두 번, 나간 자취가 두 번 있었죠. 그중 하나는 바로 이 자루 속에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기 계신 다르자크 씨께선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를 의심한 데는 백 가지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그가 나에게 그 일을 말해 주지 않았다니! 내가 도와줬다면 그는 불필요한 일을 덜었을 것이고, 그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도록' 해주었을 텐데.'

다르자크 씨는 기자 앞에 서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다.

"어떤 변명이라는 말인가! … 어떤 변명이라는 말인가!"

"제 친구, 제 말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자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차분했다. "당신이라는 다르자크 출현의 정황을 살펴본 순간, 제가 먼저 든 생각은 이랬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라르상이라면, 스탕제르 송 교수의 딸은 분명 눈치챘을 텐데.'"

물론이지,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그런데 마틸드가 다르자크의 팔을 감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본 결과,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종내까지 다르자크가 라르상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마틸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놀란 표정으로 항의의 제스처를 취했다.

반면 다르자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보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반쯤 숨을 죽인 목소리로 물었다.

"마틸드, 정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인가?"

마틸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룰타비유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그 태도를 용서할 수 없었다.

"당신이 산레모에서 돌아온 이후, 다르자크 부인의 모든 행동을 되돌아보면, 이제 저는 그 하나하나에서 그녀의 공포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과 끊임없는 불안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죠.

제발 말씀하게 해주세요, 다르자크 선생님. 여기서 제가 설명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스탕제르송 부인의 태도는 그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앞당기려는 당신의 바람에 즉각적으로 동의했는데, 그 서두름조차도 그녀의 마음에서 그 괴로움을 영원히 쫓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지만, 당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라르상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까? 심지어는 나 옆에 서서 나를 제단으로 이끌고, 나를 데려가는 그 사람 속에서도!'"

"말하자면, 역에서 말이죠, 선생님, 그녀가 아주 처절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녀 자신으로부터, 그녀의 생각으로부터의 도움, 아니 어쩌면 당신으로부터의 도움도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분명히 누군가 자신에게… 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룰타비유는 태연하게 다르자크 씨의 귀에 몸을 기울이더니, 아주 낮게 속삭였다.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만큼 낮지는 않았지만, 마틸드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추측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낮게는 말이다.

"당신, 다시 미쳐가는 건가요?"

그리고 그는 약간 몸을 뒤로 물렀다.

"자,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르자크 씨! …그리고 이후에 당신이 겪었던 그 기이한 냉대도요. 그리고 때때로 그녀가 끊임없이 망설이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죄책감이, 다르자크 씨를 향해 가끔씩 가장 섬세한 배려를 보이게 했던 것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그렇게도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다르자크 부인이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과 대화할 때, 침묵할 때조차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라르상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당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잘 이해합시다…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거라는 '생각'이 제 의심을 떨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의심을 떨쳐버린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

“그럴 수도 있었죠.” 다르자크 씨가 비웃듯, 그러나 절박한 어조로 외쳤다. “단순한 추론만으로도 말이죠. 만약 내가 라르상이었다면, 아내가 된 마틸드 스탕제르송 부인을 손에 넣은 나는 라르상이 죽었다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내게 가장 유리했을 테니까. 그러니 내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르상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날, 바로 그날부터 나는 마틸드를 잃어갔던 것은 아닐까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룰타비유가 다시 소리쳤다. 그는 이제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또다시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이십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그 올바른 추론이야말로 당신이 본다고 믿는 것과 정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그 남자를 라르상이라고 믿거나, 곧 믿게 될 상황이라면요. 그 남자는 라르상이 자신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보여줄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검은 옷 부인은 벽을 따라 몸을 숨기듯 다가섰다. 숨을 헐떡이며 룰타비유 곁으로 다다른 그녀는, 다르자크의 얼굴을 굶주린 눈으로 훑어보았다. 다르자크의 얼굴은 이미 끔찍할 정도로 굳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룰타비유의 추론이 얼마나 새롭고, 또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 없는지 감탄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그의 추론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무서운 가설이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궁금해할 뿐이었다.

젊은 남자는 흔들림 없이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라르상이 당신과 별개 존재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성이 즉각적인 절박함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해 보세요, 다르자크 씨. 당신이 정말로, 단 한 번, 당신도 모르게, 당신 집 안에서 스탕제르송 교수의 딸 눈앞에 라르상을 부활시켰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확히 말해, 당신 아내에게 그 부활한 라르상이 당신 안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라르상을 계속, 또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 진정하십시오, 다르자크 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미 제 의심이 완전히, 영구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포 속에서는 추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야 조금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결국 도달해야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요. 저는 '다르자크의 현현', 즉 당신 안에 라르상을 숨겨두었다는 가정, 이를 현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흔히 쓰는 방법론이지요. 당신은 과학자이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 추론에 따르면, 당신은 곧 라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그 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라르상의 상태로 목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존재합니다. 그 순간에는 당신의 의지로 라르상이 되려는 시도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다르자크 씨는 더 이상 말을 끊지 않았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르자크 씨." 룰타비유가 말을 이었다. "이 부활 때문에 행복이 당신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자발적인 것일 수 없다면, 그 부활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건 전체가 어떻게 명쾌해지는지요. 오, 저는 부르그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계속 추리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르그 역에 있습니다. 대기실에서요. 아내가 미리 알려준 대로 역 밖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자, 당신은 자신의 승강실로 가서 조금 몸단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위장술의 달인이 자신의 변장을 점검하듯 말이죠.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이 연극이 몇 시간만 더 지나면, 국경을 넘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곳에서 가면을 벗을 수 있을 거야. 이 가면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 테니까요.'"

"정말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승강실에 도착하자마자 몇 분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당신은 거짓 수염과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승강실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놀라서 거울 속에 비친 수염 없는 얼굴, 즉 라르상의 얼굴을 단 한 번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아, 당신은 그 위험을 이해했군요! 만약 즉시 다른 곳에서 당신의 아내가 남편 다르자크를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빠르게 가면을 다시 쓰고, 쿠페의 창문을 통해 반대쪽 선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당신을 찾으러 급히 달려오기 전에 대기실로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서 있는 채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앉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원되었을까요? 비참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다르자크이자 동시에 라르상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 플랫폼에서, 가스등 아래를 지나며 그녀는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손을 놓치고는 미친 듯이 역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 당신은 그 점을 또 이해했군요. 그 끔찍한 생각을 즉시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당신은 역장실을 나와 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라르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를 안심시키고, 만약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털어놓을 경우 우리를 속이기 위해, 당신은 나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전보를 보내는 것이었죠. 어때요? 이 빛 아래서 당신의 모든 행적이 얼마나

명확해졌습니까? 당신은 그녀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혼자 갔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 모든 것이 잃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挽回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여행 내내, 당신의 아내는 믿음과 공포를 오갔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권총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이 일종의 광기에 빠진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심정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르자크라면 나를 지켜주시오. 만약 라르상이라면 나를 죽이시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른 채 지내고 싶지 않소!'"

"로슈루즈에서, 당신은 그녀가 다시금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다시 가까이 붙이기 위해, 당신은 그녀에게 라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친애하는 다르자크 씨. 이 모든 것이 제 생각 속에서는 아주 잘 정리되었습니다. 심지어 멘통에서 당신이 칸으로 가는 동안, 당신이 우리를 마중하러 올 때 라르상으로 나타난 것도 더없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멘통-가라반 역에서 친구들 앞에서 기차를 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정차역인 멘통 역에서 내려, 도시의 옷장에서 잠시 머문 후, 산책하러 온 같은 친구들 앞에 라르상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기차는 당신을 칸으로 돌려보냈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다만, 그날 당신은 아서 란스가 우리를 마중하러 니스까지 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란스 역시 우리를 마중하러 왔죠. 그리고 란스는 다르자크 부인이 이번에는 라르상을 보지 못했으며, 아침에 보여준 그 연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불쾌한 소식을 듣고, 당신은 그날 저녁, 툴리오의 보트가 지나가는 사각탑 창문 바로 앞에서 라르상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친애하는 다르자크 씨. 만약 제 의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겉보기에 가장 복잡해 보이는 일들도 어떻게 갑자기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인지요."

이 말을 듣자, 나 역시 오스트레일리아를 직접 보고 만져본 사람으로서, 로베르 다르자크를 바라보며 소름이 끼치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를 바라보는 내 눈빛에는 거의 동정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가 끔찍한 사법 착오의 희생자가 되려 하는 불쌍한 사람처럼 말이다.

나를 둘러싼 다른 이들도 그를 위해 함께 떨었다. 룰타비유의 주장이 너무도 무서울 정도로 가능성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모두들 궁금해했다. 어떻게 그가 유죄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실히 입증한 뒤, 정작 무죄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로베르 다르자크는 처음에는 가장 어두운 동요를 보이다가, 점차 진정했다. 그는 젊은이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놀랍고 기이하며, 초조하지만 매우 흥미로워하는 시선을 가진 그 눈은, 법정석에 선 피고인이 검사장이 자신이 저지른 죄라고

스스로 믿게 만드는 감동적인 기소 의견을 낭독할 때 보이는 것과 똑같았다. 때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도 말이다.

그가 이어지는 말을 뱉어낼 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의 것이 아니었다. 호기심 어린 공포의 목소리였다. 마치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남자처럼.

"주님, 저는 알지도 못했던 그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그 의심이 사라졌다면, 선생님." 그는 묘한 평정을 되찾은 듯 말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대체 무엇이 그 의심들을 몰아냈단 말입니까?"

"그 의심들을 몰아내려면, 선생님,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 증거는 두 가지 '다르자크의 현상' 중 라르상이 누구인지 한눈에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다행히도 당신에게서 얻었습니다. 당신이 원형을 완성한 바로 그 순간, 즉 '불필요한 시체'가 있던 원형을 닫았던 그 순간이었죠. 당신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방의 빗장을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후 5시가 아닌 오후 6시에 그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숨겼으니까요.

베르니에 신부가 말했고, 우리가 직접 확인했던 바로 그 시간, 오후 5시였습니다.

당신은 그때 저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 자신이라고 말했던 오후 5시의 '다르자크'는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 5시라는 시간에 아무런 중요성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었으니까요. 당신은 그 시간 정사각형 탑에 진짜 다르자크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당신의 가짜 놀람 뒤에 숨겨진 침묵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르자크라면, 자신을 숨기기 위해 라르상일 수도 있는 또 다른 다르자크가 자신보다 먼저 정사각형 탑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왜 숨겨야 했겠습니까?

다르자크가 아닌 라르상만이, 자신과 다른 다르자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길 동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르자크의 현상' 중 거짓말을 한 쪽이 가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의심은 확실함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라르상이 바로 당신이었죠. 그리고 옷장 속에 있던 남자는 다르자크였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라르상이 될 수 있다고 믿지 못한 사람이, 룰타비유에게로 덤벼들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고, 룰타비유는 조금도 평정을 잃지 않은 채 팔을 뻗으며 말했다.

"그가 아직 저기 있다!"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룰타비유의 손짓에 따라, 옷장 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밀려났다. 그것은 바로 '남는 시체'의 미스터리가 드러났던 끔찍한 밤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았다.

그리고 '남는 시체' 그 자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놀람, 열정, 그리고 공포의 함성이 사각탑을 가득 채웠다. 검은 옷 부인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로베르! … 로베르! … 로베르!"

그것은 기쁨의 비명이었다. 우리 앞에 두 명의 다르자크가 서 있었다. 둘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검은 옷의 부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착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 비록 룰타비유의 승리적 논증 이후 그녀의 이성이 잠시 주저했을지라도 말이다. 그녀는 팔을 뻗으며, 불길한 옷장으로부터 내려오던 두 번째 다르자크의 현상 쪽으로 다가갔다.

마틸드의 얼굴은 새로운 생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 흔히 다른 한쪽을 둘러보며 방황하는 슬픈 눈들은 이제 이쪽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장엄하지만 차분하고 확고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가 맞았다. 바로 그녀가 잃었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바로 그였다. 그녀는 다른 한쪽의 얼굴에서 그를 찾으려 용기를 냈지만, 결국 그 얼굴에서는 찾지 못했다. 그 일로 인해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의 불쌍한 미친 마음을 원망해 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이 될 줄 믿지 못했던 그 자, 즉 드러나고 쫓기면서 자신의 죄행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를 갑자기 눈앞에 마주한 그 거친 사내도, 한때 그를 여러 번 구해 주었던 그 술책을 또다시 시도했다. 사방이 포위당했음에도 그는 도망을 감행했다.

그때야 우리는 그가 최근 몇 분간 우리에게 보여준 대담한 연기를 깨달았다. 그는 룰타비유와의 논쟁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의심이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놀라운 자제력을 발휘해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한 마지막 교활함으로 논쟁을 길게 끌었다. 그는 룰타비유가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여유 있게 논리를 펼치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마도 도망칠 방법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다.

이처럼 그는 교묘하게 움직였다. 우리가 '다른' 다르자크, 즉 진짜 다르자크 쪽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M 다르자크가 사용했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걸었다.

우리가 그의 속임수를 간파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룰타비유는 직전의 장면에서 복도 문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했을 뿐, 가짜 다르자크가 위조자라는 것이 입증될수록 그가 M 다르자크의 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기자는 이 같은 움직임에 아무런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그 방이 라르상의 도망길에 아무런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악당이 그 문, 즉 마지막 피신처를 닫고 난 뒤, 우리의 당황함은 크게 증가했다. 우리는 마치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변한 듯했다. 우리는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소리쳤다. 우리는 그의 불가해한 탈출에서 보여준 수많은 천재적인 수작들을 떠올렸다.

"그가 도망친다! 또다시 우리를 피해 도망친다!"

아르튀르 란스가 가장 격분했다. 에디스 부인은 손목의 긴장된 힘으로 내 팔을 꽉 쥐었다. 그 광경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검은 옷 부인과 로베르 다르자크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폭풍우 같은 소란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잊은 듯했다. 심지어 자신들을 둘러싼 소음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바로 사랑이 존재하는 세계였다.

사실 그들은 룰타비유 덕분에 그 세계를 다시 찾은 것이었다.

그가 복도 문을 열고 세 하인을 부른 것이다. 하인들이 총을 들고 달려왔지만,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총이 아니라 도끼였다. 문은 견고했고 두꺼운 빗장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자크 아저씨가 들보를 가져왔다. 우리는 그 들보를 들이받개로 삼았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문에 들이받았다. 드디어 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벽과 철창뿐인 방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소용없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것을 예상했다.

정작 우리를 미치게 만든 것은 라르상의 몸이 사라져 버렸다는 생각, 날아가 버렸다는 생각, 물질이 해체되어 사라졌다는 생각이었다.

문이 비로소 흔들리기 시작하자, 룰타비유는 하인들에게 총을 다시 들어 올릴 것을 명령했다. 단, 그 총을 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었다. 살아서 그 남자를 붙잡을 수 없는 경우에만 총을 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룰타비유는 마지막으로 어깨를 힘껏 밀쳤다. 문이 드디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가장 먼저 그 방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그를 뒤따랐다. 그리고 문턱에 선 그의 뒤에서 우리는 모두 멈춰 섰다. 눈앞의 광경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먼저, 라르상이 있었다! 그는 분명히 눈에 보였다. 방 안에는 오직 그의 모습만 보였다. 그는 방 한가운데 있는 안락의자에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차분하고 고정된 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팔은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길게 늘어졌고, 머리는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다. 마치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요구를 진술하기를 기다리며 청취하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심지어 그의 아이러니한 입가에 미미한 미소가 감도는 것을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룰타비유가 한 발 더 다가섰다.

"라르상," 그가 말했다. "라르상, 당신은 항복합니까?"

하지만 라르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룰타비유가 그의 손과 얼굴을 만져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라르상이 이미 죽어 있음을 깨달았다.

룰타비유가 가리킨 곳은 반지의 보석받이였다. 그것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아서 랜스가 심장을 들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제야 룰타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사각탑을 떠나고, 죽은 자를 잊으라고.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불필요한 시체가 하나 사라진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월터에게 명령을 내렸고, 아서 랜스가 그것을 번역했다.

"월터, 지금 당장 '불필요한 시체의 자루'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그는 손짓을 했다. 우리는 모두 그 제스처에 따라 움직였다.

우리는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아버지의 시체와 마주한 채 혼자 남았다.

그때 바로 우리는 기절해버린 다르자크 씨를 늙은 밥의 거실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인 나약함일 뿐이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마틸드에게 미소 지었다. 마틸드는 아름다운 얼굴을 그에게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표정이 선명하게 읽혔다. 그녀는 바로 방금 전, 아직까지도 신비로운 일련의 상황들이 겹쳐져서 그를 다시 찾게 된 순간이었다.

다르자크 씨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무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설득했다. 그리고는 에디스 부인을 비롯해 두 여성이 자리를 비키도록 부탁했다. 두 여성이 우리를 떠난 후, 아서 랜스 씨와 나는 그를 돌보며 그의 특이한 건강 상태에 대해 알아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두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남자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자루에 넣어져 감금되었던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불길한 찬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의 옷을 벗기고, 가슴에 입은 상처를 감추고 있던 붕대를 풀었다가 다시 감았을 때, 우리는 적어도 그 상처가 생각보다 그리 드문 일은 아니라는 우연한 사실 때문에, 즉각적인 혼수 상태를 유발했지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르자크 씨가 라르상과 치열하게 싸우던 중 맞은 총알은 흉골 위에서 납작해졌고, 이로 인해 심한 외부 출혈이 발생했으며, 온몸이 고통스럽게 흔들렸지만 생명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부상의 경우, 죽은 줄 알았던 이들이 몇 시간 후에도 살아있는 이들 사이를 거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나 역시 그런 일화를 떠올리며 안심할 수 있었다. 내 친구인 기자 L...의 이야기였다. 그는 음악가 V...와 결투를 벌인 후, 가슴 한가운데 피탄상을 입은 상대방이 총을 쏠 틈도 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죽은' 자가 몸을 일으켜 내 친구의 허벅지에 총알을 명중시켰다. 이 총알로 인해 다리를 절단해야 할 뻔했고, 친구는 몇 달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음악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다음 날 거리로 나가 산책을 하러 나갔다. 그 역시 다르자크처럼 흉골을 맞은 것이었다.

다르자크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분주하던 차에, 자크 영감이 우리가 있던 거실 문을 닫아걸었다. 문은 원래 살짝 비켜져 있었는데, 그 노인이 왜 굳이 그 같은 방비를 했는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평범치 않은 소리가 따라왔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끌며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기이한 소리였다.

내 머릿속에 라르상이 떠올랐다. '불필요한 시체'를 싼 자루가 생각났다. 그리고 룰타비유가!

아서 랜스 씨를 다르자크 곁에 남겨둔 채, 나는 창가로 달려갔다. 내 추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안뜰에 그 불길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는 이미 해가 거의 지고 있었다. 모든 사물이 감싸일 만큼 적절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래도 나는 월터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정원사의 작은 문 아래에 파견되어 경계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배가 있는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분명히, 만약 누군가 그 시점에 안뜰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월터는 그 길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물 쪽으로 향하는 룰타비유와 자크 영감이 보였다. 두 사람이 또 다른 그림자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내가 잘 아는 것이었다. 공포의 밤, 그 그림자 안에 또 다른 몸이 담겨 있었던 적이 있었다. 자루는 무거워 보였다.

그들은 자루를 들어 우물 가장자리까지 들어 올렸다. 그때서야 우물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평소 우물을 덮어두던 나무 판자가 옆으로 치워져 있었던 것이다.

룰타비유가 우물 가장자리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주저함 없이 우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깊이 가라앉았고, 그의 머리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때 자크 영감이 자루를 우물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우물 가장자리로 몸을 숙여,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자루를 잡고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일으켜 우물 뚜껑을 닫았다. 나무 판자를 꼼꼼히 되돌려 놓았고, 쇠고리도 단단히 고정했다. 그 쇠고리가 내리친 소리가 갑자기 내 기억을 자극했다.

호주 발견 전 날 밤, 갑자기 사라진 그림자를 쫓아 달려가다가 코를 찧었던 그 닫힌 문과 부딪혔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나는 보고 싶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보고 싶다. 알고 싶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나를 너무도 불안하게 한다."

"나는 진리의 가장 중요한 조각만을 쥐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진리 전체를 손에 넣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리를 설명해 줄 무언가가 아직 부족하다."

나는 사각탑을 떠났다. 그리고 신성의 성채로 돌아와 내 방으로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 나는 바다를 뒤덮은 어둠 속으로 시선을 깊게 파고들게 했다. 밤은 짙었고, 어둠은 질투하듯 고요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귀를 기울이려 애썼다. 하지만 물결 위를 노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였다. 아주 먼 곳, 정말 먼 곳. 어쨌든 내겐 이 모든 것이 바다 한가운데, 하늘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졌다. 아니, 하늘 끝 바로 맞은편이었다. 밤하늘을 장식하는 붉은 띠, 해가 남긴 유일한 흔적, 그 좁고 붉은 띠 속에서 말이다.

그 좁고 붉은 빛줄기 안으로, 어둡고 작은 무언가가 들어왔다. 나는 오직 그것만 보았기에, 그 대상은 내게 거대하고도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물결 위를 거의 자동적인 움직임으로 미끄러져 가는 배의 그림자였다. 그러자 배는 멈췄고, 나는 룰타비유의 서 있는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그는 마치 내 눈앞 십 미터 거리에 서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식별되었고, 나는 그를 확실히 알아봤다.

그의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그 붉은 빛줄기 위에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잘려 나왔다.

오, 그 순간은 길지 않았다.

그가 몸을 굽혔다. 그리고 곧장 몸을 일으키며 짐을 들어 올렸다. 그 짐은 그의 몸과 하나가 된 듯 보였다. 이어 짐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고, 작은 남자의 그림자만 홀로 다시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다시 몸을 굽혔다. 허리를 숙인 채 잠시 움직이지도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더니, 이내 배 안으로 주저앉았다. 배는 다시 그 자동적인 미끄러짐을 되찾아, 완전히 붉은 빛줄기를 벗어날 때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붉은 빛줄기 역시 차례로 사라졌다.

룰타비유는 방금 라르상의 시체를 에르쿨레의 물결에 맡겼다.

니스… 칸… 생라파엘… 툴롱!

나는 후회 없이 내 눈앞을 지나가는 귀환 여정의 모든 정거장들을 바라본다.

그토록 많은 공포의 이튿날, 나는 남프랑스를 떠나 파리로 돌아가, 업무 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내 바로 옆, 검은 옷 부인과 함께 두 발자국 거리 안에 갇혀 있는 룰타비유와 단둘이 마주하게 될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마르세유에서 그들이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 즉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들의 달콤하고, 다정하며, 혹은 절망적인 고백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

마틸드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룰타비유는 떠나기로 했다. 그는 파리와 자신의 신문사로 돌아가려 한다. 그는 남편 앞에서는 물러서는, 그런 위대한 희생을 감행하는 용기를 지니고 있다.

검은 옷 부인은 룰타비유를 이길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는 다르자크 부부가 신혼 여행을 계속하기를 원한다.